

Apoc Theory for general

Apoc

2020년 2월 22일

Preface

콕콕 공지

1. 본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의 입장은 콕콕과는 무관하며, 본 게시판은 콕콕 운영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콕콕과는 무관한 게시판임을 밝힙니다.
2. 본 게시판에 작성된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인 Apoc님에게 있습니다. Apoc님은 현재 아이디 이용 권한 박탈 이후 사이트 활동을 중단하신 상태입니다.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즉각 삭제될 수 있습니다.

차 례

Preface	1
차 례	3
제 I 편 general	10
제 1 장 세뇌론	11
1.1 [세뇌론 001] 시작하면서	12
1.2 [세뇌론 002] 인생은 곧 세뇌	13
1.3 [세뇌론 003] 교주들의 등장	14
1.4 [세뇌론 004] 마법사들의 암약	16
1.5 [세뇌론 사례 01] 외모와 인기	18
1.6 [세뇌론 005] 모두가 세뇌당하고 싶어한다	19
1.7 [세뇌론 사례 02] 우상화, 동양사상	22
1.8 [세뇌론 006] 보잘 것 없는 운명관	27
1.9 [세뇌론 007] 원론	32
1.10 [세뇌론 008] 간단한 테크닉	35
1.11 [세뇌론 사례 03] 궁정적인 활용 : 일지	38
1.12 [세뇌론 사례 04] 나르시시즘	40
1.13 [세뇌론 사례 05] 언행일치	42
1.14 [세뇌론 009] 반복은 덮어쓰는 과정	45

1.15 [세뇌론 010] 교주와 교단이 갖춘 무기	49
1.16 [세뇌론 011] 본인이 강하지 않으면 극한으로 공부하지 말 것.	50
1.17 [세뇌론 012] 집단세뇌	52
1.18 [세뇌론 013] 분노의 에너지와 악의 저주	53
제 2 장 미래공학	55
2.1 [미래공학 001] 다보스포럼의 일자리 경고	56
2.2 [미래공학 002] 의료인의 정원통제	58
2.3 [미래공학 003] 돈의 악취	60
2.4 [미래공학 004] 인구 없는 화폐는 휴지	62
2.5 [미래공학 005] 기계와의 결합 시대	65
2.6 [미래공학 006] xx에 가라고 하는 어른들 얘기를 믿어야할까	66
2.7 [미래공학 007] 젊은이에게 빚을 지우는 사회	68
제 3 장 중2론	70
3.1 [중2론 001] 원인이나 결과나	71
3.2 [중2론 002] 면 산일수록 작아보인다	74
3.3 [중2론 003] 전부 아니면 꽝	76
3.4 [중2론 004] 선택은 기회비용	79
3.5 [중2론 005] 돈을 버는 방법	81
3.6 [중2론 006] 노오력은 어디까지 해야하나	85
제 4 장 헬조선	88
4.1 [헬조선 001] 로스쿨	89
4.2 [헬조선 002] 도서정가제	91
4.3 [헬조선 003] 공대의 황혼	92
4.4 [헬조선 004] 과학만능주의	93
4.5 [헬조선 005] 전문가	95
4.6 [헬조선 006] 관료주의	97
4.7 [헬조선 007] 민낯	99
4.8 [헬조선 008] 혐오발언은 계층화의 시작(메갈의 탄생)	101

4.9 [헬조선 009] 산부인과 참관문제	105
4.10 [헬조선 010] 시체팔이	106

제 5 장 etc 109

5.1 세상보는 가치관에 대한 지적	110
5.2 심심해서 쓰는 질문들	115
5.3 예쁜 자식은 매 하나	116
5.4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	118
5.5 OX	121
5.6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1회	125
5.7 서적 : 동경대 강의록,	127
5.8 [게임] 46억년전 이야기.	128
5.9 서적 : 카지노(김진명)	129
5.10 [게임] 화이트데이 신판	130
5.11 머리가 좋은 경우	133
5.12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2화	133
5.13 환경 얘기	137
5.14 A, B, C의 비교	140
5.15 빛개념에 대해서	142
5.16 산업공학에 관하여(초안)	143
5.17 20대를 넘기면 부모가 아니다.	144
5.18 환경 넘어서기	145
5.19 3s	147
5.20 메모 : 칭찬	148
5.21 글을 읽을 때 3가지 문장과 3가지 틀	151
5.22 자아 집착	153
5.23 평가라는 건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156
5.24 머리좋은 사람들의 꿈수	157
5.25 미래예측	159
5.26 공포게임에 등장한 참고서들	163

5.27	부모 자격	164
5.28	저녁이 있는 삶이 불가능한 이유	166
5.29	외모지상주의.	167
5.30	머리가 좋다는 것의 정리	169
5.31	인간의 탐욕	171
5.32	화낼 줄 아는 법	173
5.33	공부보다 인간성이 중요하다?	174
5.34	하류교육	175
5.35	대중의 선택이 현명한가	180
5.36	교육격차와 지리격차	183
5.37	복부인들	185
5.38	고소득층 교육비가 7.8배	188
5.39	특혜	190
5.40	혁신	191
5.41	교육비 격차 : 가축에게도 밥은 먹인다.	193
5.42	수학 과학 과잉	196
5.43	강남강북격차	197
5.44	결혼 격차	199
5.45	쉬운 수능이 격차를 더 별였다.	200
5.46	어째서 하류가 더 막장이 되었나	204
5.47	전문가 드립	208
5.48	관계 = 돈	212
5.49	대안없는 비판	214
5.50	”때리면서 말렸어야죠”	216
5.51	직업소득 비교가 한심한 이유	218
5.52	가격 가치	220
5.53	심리회계 – 원금을 어느 선으로 둘 것인가.	222
5.54	이미지 차크라	223
5.55	제가 느낀 10대 후반~20대 중반의 문제	225
5.56	정치적 낭만주의의 종말	227

5.57	딜레마 : 진보는 강자들에게 유리하다.	229
5.58	인공지능	232
5.59	실패를 미리 경험해보라고 하는 어른들	234
5.60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	236
5.61	메이드 로봇의 꿈이 멀지 않았다.	237
5.62	인공지능처럼 공부하면 된다.	238
5.63	인공지능 소녀 vs 아이돌	239
5.64	금융, 제조, 실업이 궁금하면	240
5.65	신용	241
5.66	M갈리안 현상	243
5.67	인공지능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245
5.68	금수저의 시대	247
5.69	그 분들도 피해자들입니다	248
5.70	먹방이 뜨기 시작한 이유	252
5.71	그들이 원한 건 평등이 아님.	253
5.72	목소리만 내면 뭔 소용이 있나.	257
5.73	질적 교육	259
5.74	인공지능이 나왔으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261
5.75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불길하다.	262
5.76	만우절 기념 폭론	263
5.77	스포츠와 게임	264
5.78	트럼프가 인기를 모으는 이유	266
5.79	성격이 급한 사람의 문제	269
5.80	혼인율 최저	271
5.81	자전 확대	274
5.82	취업과 결혼	275
5.83	롯데월드타워	277
5.84	국가 신용등급	278
5.85	[인물 vs 인물 001] 제갈량과 사마의	280
5.86	관상술과 사주팔자의 문제	282

5.87	성과 계급	285
5.88	소수자의 딜레마	287
5.89	양적축적은 질적변환을 초래한다.	289
5.90	지식	291
5.91	제2의 IMF	293
5.92	목숨값 : 마이크로모트	295
5.93	역산적 사고법	299
5.94	붕괴	300
5.95	인간관계	302
5.96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 – 자존심 상처입히기	305
5.97	고민의 절반 이상이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306
5.98	1년 뒤 일은 고민해보았자 무의미하다.	307
5.99	일본 로스쿨 정원미달	308
5.100	안중근 의사 논란	309
5.101	국가입장에서는 전문연 이제 해줄 이유가 없어요.	312
5.102	전문연 논란	313
5.103	남혐 여혐을 막을 필요가 없음.	315
5.104	마이크로소프트 입사시험 마지막 문제	316
5.105	그래서 남혐 여혐의 대안이?	316
5.106	[영화] 님포매니악 1, 2 (스포 주의)	318
5.107	[논란주의] 여혐 프로파간다의 이유	320
5.108	[논란경고] 여자가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323
5.109	[논란경고] 한국의 치안지수	325
5.110	주식할 때 망하는 패턴 중 하나가	327
5.111	인공지능의 김대식 교수 썰	328
5.112	일본의 풍토 : 곤카쓰	331
5.113	강남역이 시사하는 것	333
5.114	그리고 떠들게 냅두지 왜 끼어드는지.	335
5.115	[만화] 보이즈온더런	337
5.116	[논란주의] 동영상	338

5.117	희생자 오빠의 반응	339
5.118	도서정가제	344
5.119	갚으면 된다	346
5.120	금전거래는 부모자식형제도 정확히 해야한다.	348
5.121	[뉴스] 올해 가장 데운 여름 확률 95%	352

제 I 편

general

제 1 장

세뇌론

1.1 [세뇌론 001] 시작하면서

2015.11.18

운명이 정해져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큼 매력적이지만 골치아픈 주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인간이 걸어갈 때 장애가 되는 건 비단 '물리적'인 벽만이 아니라는 것, 정신적인 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죄수가 있다, 그 죄수를 가두는 건 1차적으로는 시멘트벽이다. 하지만 시멘트벽을 부수고 탈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걸 아는 당국은 어떻게 할까? 끈임없는 교육과 세뇌로 너희는 절대 탈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시멘트벽의 이미지는 곧 "빠져나갈 수 없는 감금 상태"라는 추상화된 기호로 학습된다. 그걸 학습한 죄수는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옥 자체를 시도할 수 없다. 이는 즉, '기호적 언어'가 그 죄수를 가두는 것이다.

범죄의 발생 - 체포 - 구형 - 형의 실시.

이런 뉴스의 생산과 유포야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 저런 범죄뉴스를 학습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무형의 벽에 갇혀 살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언어의 벽을 넘지 못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기만에 가까운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정된 기호의 견고한 완성물이다. 머릿 속에 관념적으로 세겨진 그 기호의 감옥을 파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살아간다. 매트릭스가 온라인 세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니 사실 인터넷은 디지털로 입력된 기호의 세계일 뿐 그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그 기호와 법칙으로 이뤄진 수학적 가상현실"을 머릿 속에 구축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운명론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학습한 기호들로 이뤄진 세상이라면 운명이라함은 그 기호들만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나마 냉소적이면서 현실적인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세뇌론 002] 인생은 곧 세뇌

2015.11.18

학습과 교육을 적분한 결과가 인생이라면, 곧 그건 세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넓은 의미인 좁은 의미인 우리는 특정 기호들'을 의심하지 않고 주입받은 것에 갇혀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완전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한 세상을 불완전한 감각에 의존해 일부 이미지만 조합하고 있으며, 이 역시 우리들에게 주입된 기호의 물리적 작용에 따라 편향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편향성을 만들어나가는 기호들의 필연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실제로 운명을 결정한다면 이건 두가지로 설명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이란 기호를 해체하고보자면 결국 원자덩어리들이고 그 원자덩어리들이 예정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운명이란 결국 필연적인 우주 움직임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부터 먹고자고싸고하는 것들을 원자, 분자의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이건 물질들의 필연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설명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 원자나 분자들의 '기계적인 움직임'도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 애초에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부터 역시 하나의 주관적 학설이고 주장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완

벽해 보이던 뉴튼의 기계적인 물리 이론조차도 실은 틀리지 않았나.

둘째는 바로 기호들의 필연성이다. 우리가 수학에 배운 것은 다양한 기호들의 조합이 필연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삶이 무수히 많은 기호들의 조합이고 인생이 그 기호들로 적분된 결과라면 우리 인간은 어떤 특정한 현상을 ”우리의 기호 체계”로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을 인생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운명 관념이 생긴단 것이다. 가령 죽음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 있다. 너무 민감하다보니 모기가 죽는 것, 고양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 자기가 먹는 야채, 생선, 쇠고기까지도 죽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패턴이 숫자 7과 관련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에게는 숫자 7과 죽음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하나의 운명으로 형성되어버린다.

사실 이 둘째야말로 운명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일 것이다. 숫자 7과 죽음이 뭔 관계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건 읽는 사람이건 하나하나 다 회의해보지 못 한 기호체계들을 ‘패턴화’시킨 상태라는 것을 자인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언어체계에서 그ㄴㄷㄹ ... 스트코드 등 부터 시작해 국어문법부터 어휘 중 필연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자의성) 다만 그렇게 학습하고 반복함으로서 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 바로 이걸 넘어서면 운명이 바뀌겠군요라고 하지만 이것조차 우리가 모르는 정체불명의 기호들로부터 도출된 뭔가 수상쩍은 결론이란 점에서 끝까지 기호에 사로잡힌다라는 문제가 생긴다. 아니 애초에 운명을 개척하고 넘어선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운명이란 걸 만든 기호들의 음모라면 어쩌겠는가.

1.3 [세뇌론 003] 교주들의 등장

2015.11.18

애초에 종교의 시작은 수상쩍은 데가 많다. 가장 수상한 것은 그것이다. 원시 샤머니즘 수준이 아닌 본격적인 종교의 시작은 '문명' 이후라는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샤머니즘은 엄밀히 말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샤머니즘에서는 추상화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이 자연과 하나로 몰입하여 자연의 메시지를 얘기한다. 몰입한 무당들은 의식이 없다. 인간의 의식이 있다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샤머니즘과 달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들의 특징은 "언어"를 정말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나 경전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지 주입을 시킨다. 그리고 종교의 권능은 이 세상의 현상을 그 경전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발휘된다. 실제로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의 해석으로는 천국에 가있고, 불교의 해석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타고간다. 이는 자연과학적인 해석과 살짝 충돌하거나 비켜지나가지만 그 종교적 기호에 세뇌된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로써 그 기호는 실체가 되어간다.

실제로 천국이나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긴 할 것이다. 바로 "언어" 속에 -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천국이나 윤회에 관한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추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상화가 불가능하다면 일반화시킬 수 없을 것이며, 일반화시킬 수 없으면 기호들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수가 없다.

어떤 종교가 사이비인지 아닌지 이 역시 절대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주들이 등장한 건 구어든 문어든 "언어"가 보급된 이후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살아남은 종교들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흥종교들도 역시 말씀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게르만 신화가 종교가 되지 못하거나 중국의 도교나 일본의 신토가 그리 강력하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 사실 이것들은 이미지로만 치자면 무수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영감들 투성이다. 그러나 그것 뿐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들은 결국 '말씀'의 차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 했다.

이미지가 없고 황량한 말씀은 매우 빈약하고 허술해보인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추상화된 기호는 한번 학습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애당초 3대 종교 교주들이 자기들이 창시한 종교가 이토록 세계를 지배했을 것일지. 그 중 지구가 둑글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도 몇이나 있었을까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남긴 말씀의 위력을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어찌되었든 현대 사회의 형성에 이들의 말씀이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문명이라는 건 결국 '근거없는 말씀의 주입'으로만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명의 허술함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광신도 집단에 불과할지도 몰랐던 ISIL이 생각보다 오래 가거나, 혹은 그들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거창한 담론을 넘어서서 사소한 일상이나 과거를 되돌이켜보아도 나나 주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언어와 기호였다. 사주팔자나 타로카드의 장점은 이것들은 어떤 것이든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참 탁월한 기호란 것이다.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운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쓸만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그 언어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석기시대 이전으로 돌아서버리고 만다.

1.4 [세뇌론 004] 마법사들의 암약

2015.11.18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기호의 세상이라면 그 기호를 움직이는 건 두가지이다. 하나는 물리적인 실체가 정말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실체를 해석하는 본인의 기호가 변하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달은 자들이 있다 - 유감스럽지만 이들의 직업이나 스킬은 그리 유형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 - 단지 말로만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호를 조작하는 수준까진 아니다. 단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마법사들이 있다. 그들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일수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찍는 강사일수도 있고, 일개 블로거일수도 있다.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들은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고 길길이 뛰면서 경찰서에 달려가지만 마법사들은 그들에게 속았다거나 영향을 받는다고까지 생각하지 못 하는 것이다. 끝까지 단물을 빨아먹히고 착취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마법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마법사를 공격하는 어떤 시도에 광신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 마법사들이 오래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 마법사들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피착취자를 영속적으로 생산한다든가 적당히 해먹고 중간에 건전한(?) 사업으로 빠지면서 양지에 발을 걸친다면 오래 갈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수익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작년 세월호 침몰 사건 같은 것이 터질 경우에는 마법사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 마법사들이 자연과학적 법칙을 거스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사법체계 시스템에서 꼼수를 부려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거역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즉, 기호를 조작하고 세뇌하는 마법조차도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법'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성숙해진다고 하여 개인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콕콕 사이트의 수험생들만 봐도 느끼지만, 개인의 기호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최근에 픽업아티스트라고 하여 여자들의 기호를 공략하는 건 성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으로 교육되거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 마법사들의 먹이가 된 호구들이 사라질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마법사라는 기호가 주입되었고 아울러 그 마법사들이 어떻게 개인 세계를 농락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뇌가 어떻게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입문에 성공할 것이다.

1.5 [세뇌론 사례 01] 외모와 인기

2015.11.18

딱히 세뇌론 사례라고 불일 견 없지만 응용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리. 적어도 음흉한 제가 보기엔 인터넷만 돌아보아도 우울증에 걸릴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건 SNS 때문입니다.

첫째,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 둘째, 잘 생겼다 혹은 예쁘다와 같은 외모에 연연하는 경우 셋째, 인기.

지금은 아직 겸증될 시기가 아닙니다만 10년 정도 흐르면 이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화되어버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한창 인기있는, 속칭 리즈 시절이라고 할 때의 젊고 잘 생기거나 예쁜 시절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뇌되어버린 이상, 나이를 먹으면서 추해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곱게 늙어간다고 해보았자 젊은 게 좋은 거죠. 그럼 애시당초에 이걸 비교하지 않으면 차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자기 얼굴을 알리면서 유명해진 경우 - 그 사람들에게 전파된 꼴이니 이걸 수습할 수도 없거니와 자신의 외모로 유명해졌다는 그 시절에서 벗어나는 건 매우 괴롭단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먹고사는 것 때문도 있지만 한동안 은퇴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지요. 거금을 들여서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시 원래(!)의 자기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형의 결과야 뭐.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죠. 늙어가는 자기를 인정하고 과거의 자기를 버리지 못 하면 괴로울 수 밖에요.

연예인들이야 이런 게 반세기는 되었지만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자기 얼굴 드러내면서 한 게 싸이월드 때가 처음인가. 아무튼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

습니다.

과거의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사형선고 받은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 과거의 그 얼굴이 진짜 얼굴 역할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라고 할 것이죠.

외모를 가꾸는 건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정신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 외모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본인의 지식, 교양, 기술, 실력에 투자하십시오. 벽에 뚩칠 할 때가 아니면 이건 티가 나긴 커녕 더욱더 좋아지니까요.

발상을 바꿔서 자기가 노화된 모습을 떠올려본 다음 거울을 보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을 테고 또 어떻게 늙어가야할지 방향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6 [세뇌론 005] 모두가 세뇌당하고 싶어한다

2015.11.19

우리의 고정관념 중 하나가 부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것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것이 정말 부정적인 것임을 진작 일소되었을 것이다. 술, 담배, 마약, 지나친 섹스 등이 나쁘다고 교육되면서도 지금도 고민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과거에는 저런 것들을 금기시라도 해서 균형을 이루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음모가 ”다양성”과 ”상대주의”를 핑계로 그러한 금기까지 무너뜨려 10대들까지 마수를 뺏친다. 제제까지도 망사 스타킹을 신고 욕망하는 미친 세상이다.

그렇다면 세뇌는 어떨까 세뇌당하기 싫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다들 자유를 원하고 세뇌를 거부할 것이라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역시 그렇지 않다.

세뇌당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다. 과장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은 세뇌당하고 싶어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자 역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세뇌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학력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비윤리적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다. 고학력자에다가 부자인데다가 윤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세뇌를 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를 예기한다. 이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절대 자유, 절대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를 다니건 사찰을 다니건 뉴에이지 명상수행을 하건 심지어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용어만 쓰지 않지 모두가 저런 니르바나를 원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니르바나 혹은 너바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의심해 본 적이 있었을까. 아, 물론 여기 뚱글 읽는 사람들이야 이 색기 또 유도심문하네 하면서 ”아, 나 있어요”라고 개뻥을 칼 것이 뻔한데 100명 중 100명, 1000명 중 1000명. 그 누구도 니르바나와 너바나를 의심하거나 부정해 본 녀석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니르바나, 너바나의 문제를 그 누구도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니르바나가 뭔지 이 글을 읽고 나서야 안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면 모두 좋은 걸 연상한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특정 기호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입받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에서도 종교에서도 니르바나는 안 좋은 맥락으로 쓰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니르바나가 뭔지 의심해보았으면 이건 단지 니르바나를 부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로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쇼펜하우어보다 더한 염세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니르바나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뇌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가 시키는대로 해서 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통해 참자아를 완성시킨다거나 하는 사람들, 아니 더 넓은 의미로 남의 말을 듣는 사람들, 특히 종교의 세계관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뇌당하고 싶어하는 사람

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 욕심없이 xx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선행했다 너 색기는 우리 어머니를 세뇌당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싸가지없는 소리가 아니냐.

싸가지없는 소리인 것은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세뇌당하고 싶어한다'라는 진실이 바꿔는 건 아니다.

그럼 나는 거꾸로 반문하겠지. 천국, 천당 얘기하는데 정말 가본 사람이 있고 그게 실증이 되었냐고 참자아의 완성이라건 모든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 하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참스승이라거나 참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난 것은 어째서 돈과 성스, 그것도 아니면 권력 냄새가 지독하게 나냐고.

실증해보지 않은 것 - 즉 허구의 것이 추상화 과정을 넘어서 사람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실체처럼 행동한다, 이게 바로 세뇌의 요체인데 그럼 그것이 세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지?

...

컬트 Cult 는 종교적인 숭배를 말한다. 바꿔 말하면 일부 집단에 의한 열광적인 지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음악마니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대중매체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런 컬트에 빠진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내주면서 니르바나를 찾아 수행하려고 한다.

현대인들에게는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열반의 상태는 천국처럼 들린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마냥 행복할 테니까. 전혀 욕심없이 교주나지도 자가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피세뇌자의 상태 그대로이다. 세뇌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손쉽게 열반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고생없이 열반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세뇌라는 주술에 걸려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조정당하면서 돈과 시간을 뺏기고 심지어 성폭력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인격이 붕괴되면서 폭력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노예로 전락한다.

여기까지 진술은 제3자를 바라보는 것이라 무난하니까 카메라를 돌려보자.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이 바라는 미래상과 희망.... 이것들이 실제로 조작되고 주입된 이미지라는 생각은 해보았는가. 당신들의 일상, 공부습관부터 시작해서 ”나답다”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정말로 나다운 것들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이라도 의심해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 답이 나오기보다도 화나거나 짜증나면서 이 색기 왜 아래 그런 욕설이 튀어나올 것이다. 당연하지. 저 질문은 당사자들의 게슈탈트를 흔들어버리고 이 역시 인격까지 해체시켜버릴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의심해본다’ 빼고는 세뇌와 적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무튼 모두가 세뇌당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그리고 있다. 수험생들조차도 실제로는 세뇌당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자신들을 세뇌시키는 존재들이다.

+

눈치빠른 사람들은 내가 왜 인강이나 교재 추천을 병적으로 싫어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 인강 거의 듣지 않고 교재 양치기를 하라는 이유는 수험도 수험 이지만 그래야만 본인들이 직접 고생해서 세뇌 상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특정 교재나 특정 강사를 승배하는 것은 이미 수험을 넘어 그냥 컬트다..

1.7 [세뇌론 사례 02] 우상화, 동양사상

2015.11.19

나무위키 링크

1. 우상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를 넘어서 개인우상화를 어떻게 해야하나 보여주는 나라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미지에 세뇌되면 통일을 찬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기는 국민 다수가 마약과 성병에 찌들고 주체사상이라는 종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북한 정권이야말로 영악하기 때문에 합리적(?)일지 모른다, 무서운 건 그 주민들이다.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에 가보면 별 것도 아닌 사람들이 얼굴이나 패션 사진을 올리는 경우를 보는데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지만 - 10대라면 이해나 있지만 - 곰곰히 생각해보면 저것도 꽤 무서운 장치들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반복학습되면서 어느 사이에 실체화되기 때문이다.

미운 사람도 자주 보면 정든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뛰어난 업자들일수로 자기 이미지를 반복학습시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듯.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더라도 실제로 그 이미지를 학습한 사람은 실물이 등장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질 수 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평소의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임.

남북정상회담 때인가. 그 때 김정일 찬양까페가 생기고 심지어 김정일이 매우 합리적인 지도자인데 우리가 몰라보았다(?)라거나 미국의 음모다 해서 호감(!)을 품은 분위기란 게 있었다. 물론 그 진실이 뭔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분명한 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사람에게조차도 대중들은 컬트적 찬양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비윤리적인 처신을 했던 방송스타들도 대중들의 그러한 면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뻔뻔하게 나서는 것이다.

개인 우상화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그럼 3대 종교 교주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온갖 위인을 다 비판하고 까발길 각오가 되어있나? 아니, 심지어 자기 가족과 부모조차도 혈연은 혈연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비판하고 회의할 수는 있나? 이런 비판이 지나치면 그것이 다른 컬트가 된다. 특정인을 숭상한 것이 바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인 것이다.

국영수를 잘하면 뭐하나. 저런 우상화에도 휘둘리면 어차피 끝인데.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사실 일본의 오움진리교가 거명된다. 오움진리교와 IS의 차이는 전자는 반란에 실패했지만 후자는 성공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 오움진리교에 엘리트들도 많았다(이걸 취재하고 도쿄대를 비판한 사람이 다치바나 다카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적지 않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명문대, 사자 돌림, 심지어 고위 관료들도 있는 건 아나.

2. 서양 vs 동양

꺄놓고 말하자. 서양이 우월하고 동양은 미개하다고 외쳐! 갓양인 만세! 똥송하옵니다.

.... 라는 건 슬픈 자화상인데 약간은 농담(그럼 나머지는 진담이라고 해야 하나)

진지빨고 말하면 그렇다. 소위 의심하고 회의해본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말할 수 없다라는 풍토는 서양에 있었지 **동양에는 없었다**. 동양에 구장 산술 있었잖아.... 헛소리다. 동양에 있던 건 산수였지 수학이 아니었다. 산수는 그냥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수학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의심하고 해체하고 '참'인 것만 골라 이론적 틀을 확고히 한다.

왜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배워야하나. 그거야 당연하지, 수학을 안 배우면

전체가 다 미개해지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은 입시수학이면 이건 좀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금의 입시수학이 '근대인'을 양성할 수 있나, 결국 수학사교육에 세뇌받아서 문제 풀이 패턴화에 미친 노예들만 양성한다는 비판은 맞는 소리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동양의 신비주의는 전두환 때로 돌아간다. 전두환 정권 시대에 유명한 키워드가 3S. (군사정권이란 이미지와 달리 문화적으로는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문화로만 보자면 민주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3S보다 더 유명한 건 국풍81이다.

나무위키 링크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재야에 은거했다는 온갖 동양 신비주의 고수들이 진치기 시작하고 특정 출판사의 온갖 동양사상 상품과 함께 서비스들이 IMF 직격타를 맞기 전 흥청망청 시절에 정말 잘 팔리기 시작한다. 동양의학, 사주팔자, 주역, 풍수, 침술, 요가, 단전호흡 ...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동호회 차원을 넘어 기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철이 없던 나는 이런 책들을 자주 탐독해보아서 알지만, 쟤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물질적인 서양사상은 끝났고 정신 위주의 동양사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그 때는 철없던 시대라 열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다 검증해볼 수 있었는데 저 중에 맞은 건 한 10개 중에 2 3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충 말해도 맞는 수준이라고 보아서. 게다가 맞았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정신을 강조한다는 분들이 알고보니 돈과 여자에 미쳐있더라는 것은 꼭 하나씩 드러났거나와 사이비 종교화된 곳일수록 도대체 민족정신을 강조한다는 분들께서 그 조직과 경영조차 일본의 오움진리교를 베끼는 행태를 보여주었는지 참.

여담이지만 저런 동양적인 건 난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물론 상술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은 곳도 많다.) 사주팔자는 개인 성향에서는 유의미한 이야기, 주역은 잘만 업그레이드하면 라이프니츠 모나드 이론, 풍수 역시 현대 자리이론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요가는 그 동양 뿐만 빼고 실전적으로 익히면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거든.

이거 실제로 문헌조사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종교단체와 부딪친 적도 있다 (...) 조직망 정말 짜는 곳이더구만. 그것도 꽤 좋은 수업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 시간나면 저런 곳들의 뒷배경이나 철학 같은 것이 어디가 원산지이나 분석해보았는데.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던 것?

일단 사이비 종교는 믿을 이유는 없다. 왜냐면 그들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우선 그런 종교단체는 '하나'여야하지 않나. 우리나라만 해도 사이비 종교가 큰 곳만 추려도 두자리는 되는데, 일본과 중국에도 더럽게 많다. 전세계에 있는 석가모니불의 사리만 다 모으면 코끼리 몇마리분이 나온다던 데(석가모니불이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나 비슷하지 않나?

그래도 종교집단이 맞는 건 가끔 무속인들을 불러서 예언을 한다는 건데 이건 신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역시 오컬트적인 것인지라 나름 찾아보고 조사해보았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귀신 같은 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워가 세다거나 인간을 말아먹는다... 정도는 아니란 것이다. 무당들이 사람들의 과거를 잘 맞추는 건 콜드 리딩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일종의 뇌파감지(?) 같은 건데 다음에 있는 모 점술까페 가서 점사 검증보면 알지만 제대로 맞춘 곳은 정말 없다(...) 사실 귀신에 시달리는 빙의증세 보이면 가장 확실한 건 "이사"를 가는 것이다. 터가 나쁘다 무슨 사연이 있다 할 필요 없이 떠나면 된다. 아울러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런데 동양 vs 서양의 문제는 서양의 저런 '의심하는 습관'을 부정해버리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양학문에서 배워야하는 건 엄격한 논증도 논증이지만 "그래서요?"라고 하면서 무조건 의심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버리는 습관이다. 가설이지만 아마 동양사상 장삿꾼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자기들이 하는 건 제대로 검증된 건 단 하나도 없거든. 서양의 저런 논리를 봉괴시킬 수 없다면 차단이라도 해야 고객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이 때 호소하게 된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고, 또한 일부 기독교에서 깽판치는 것도 매우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

이런 서양 동양 대등론은 요즘 와서는 주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 "두유노우김치", "두유노우강남스타일" 같은 유머는 그간의 지나친 국뽕에 대한 자학 개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기호들을 유입받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쭐 안 개구리였구나 깨달은 바도 있고 IMF 이후 공중부양이든 열반이든 "금융자본" 앞에서는 깨갱하는구나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다들 합리적으로 변해간 덕분이기도 하다.

1.8 [세뇌론 006] 보잘 것 없는 운명관

2015.11.19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이란 참 보잘 것이 없다. 그건 인간의 삶이 초라해서가 아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txt는 소설보다도 매우 빈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소설 = 픽션, 인생 = 논픽션 ... 그러니까 픽션이 더 허약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설이 읽히기 위해선 치밀해야 하고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히는 소설은 호소력이 높은 기호들이 조합되어서

그 나름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망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해서 많이 읽히고 팔리는 작품들은 설득력이라는 게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생관은 어떨까. 대단히 허술하다. 콕콕 남자를 예로 들어보자. 명문대 들어간다, 의치한 간다, 그리고 짧고 예쁜 글래머 여자를 만난다. 평범하게(?) 강남 50평 아파트에서 산다...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막연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은 자기 인생이 소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놓은 사람은 없다. 이는 거꾸로 말해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 게임을 미리 시나리오 짜놓고 소설 수준으로라도 플레이하면 성공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운명관이란 사실 상당히 단순한 것이다. 크게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리고 학업, 취업, 금전, 연애, 질병..... 생각해보면 운명에 들어가는 항목은 별로 없다. 저게 언제 어디서 터질 것이냐 그런 차원까지만 얘기해도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실제 이런 경우 예언가들이 던지는 '말씀'이란 항목 분류를 해보면 대부분 한정되어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언이라는 게 과학적인가 아닌가 정말 맞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쓸모없는 것이다. 그 마법사들의 예언은 대부분 내담자들의 관심사에만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작년의 세월호 사건이라거나 올해 있었던 온갖 급작한 사건들에 대해서 누가 한명이라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간혹 성지순례라고 하여 "질병이 돈다" = "메르스 유행"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이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하차해버린 모 PD의 점술가 겸증인가 하는 프로그램 말미에도 거기 출연한 사람의 운명을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딱히. 왜냐면 후기들을 보면 별로라는 평이 많다.

이 경우면 그럼 가짜 점쟁이 행세는 가능할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왜냐면 실제로 미래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닥치지 않으므로 어떤 말이든 던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담자가 그 말에 사로잡히는 경우 예언의 자기 실현이 가능해져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너는 시험을 망칠 거야... 라는 예언을 듣는다고 하면 그 경우 망칠 가능성성이 크다. 만약 예언을 듣고 가볍게 어, 그냥

극복해보일 거야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예언도 그냥 흘려듣거나 생산적인 쪽으로 삼는다.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겠네. 하지만 예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유리멘탈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망칠 거라는 예언을 들으면 정말로 '망쳐야 한다'는 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실패하면 그걸 또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망한다고 했는데 정작 잘 보면? 그 때야 "운이 좋았나보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 "부적의 효과가 좋았지"라고 덕담(?)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 경우 따지면 "잘되었는데 왜 야단이냐"라고 대꾸해버리지 않나.

오해살 것이 아닌게 난 이 분야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빙의라는 것도 일정 부분은 그런 현상이 있다 보면 그 비슷한 것을 체험했다. 그러나 관심이 많다고 체험했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믿는다면 그게 사람같이 사는 건가. 인류가 기존의 통념에 지배당했다면 지금도 길가는 육식동물에게 잡혀먹하고 있는 신세였을 것이다. 인류의 진보는 '부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의식을 갖춤으로서 자연과 분리되고, 의심함으로써 종교와 분리되면서 지금 상태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운명이 있든 없든 귀신이 있든 없든 이런 걸 무조건 신봉하지 말고 회의하고 따져보아야 진보가 있지 그게 없으면 그냥 '노예'다.

한가지 예만 들어보자면 잠을 잘 때 가위눌림을 자주 겪곤 했다. 소위 루시드 드림. 이것도 정말 영적인가 아닌가라는 건 지금도 해답을 못 내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단 짜증나는 경험이 문제가 아닌가. 어렵잖이 잠을 들면 환청과 환각이 보일 때는 기분이 뒤숭숭해진다. 그런데 1년간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비결은 간단했다 - 온갖 잡것들이 등장하자 디씨에서 보았던 무시무시한 형님(누군지 말하지 마라)를 그 꿈 속에서 소환시켜보았다. 그리고 형님 믿습니다라고 외치니까 거짓말아니고 그 모든 환청과 환각이 사라져버렸다(...) 중학생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맹자님 외쳐도 소용없던 것이 디씨 합필갤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든 짤방과 음원을 등장시켜버리니까 소리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럼 이것이 그냥 정신작용에 불과했는지 진짜

잡귀들이 등장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이 경험으로 치면 나는 예식장 사업하다가 말아드시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형님을 믿는 종교의 신자가 되어야 할까?

운명이란 것이 뭔지 회의해보자면 정말 비참해진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백한 주관식 논술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1번 밖에 못 산다는 점에서 치자면 수백장은 나와야 하건만 실제로는 자소서 쓰라고 해도 한장도 채울 수 있을까. SNS 상에서야 셀카 올리고 나 예뻐 그런 거나 잘하지 실제로 우리는 소설주인공만도 못 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운명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한데, 재밌는 건 운명관이라는 건 더럽게 잘 믿는다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운명관을 믿게 될까? 그거야 간단하지. 뇌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왜 뇌는 운명관에 의존할까? 그거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렇지.

정작 10대 때를 돌이켜보면 그 때 누구도 스마트폰을 끼고 다니는 환자가 있을 거라 예측한 경우는 없다. 사실 그 당시에도 미래의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2010년대의 외계인 같은 삶에 대한 픽션이 있었는데 정보화의 경우는 오히려 그 픽션보다 지금이 더 진보했다. 설마 컴퓨터를 손바닥에 넣고 다닐 거라는 얘기 까진 나오지 않았지. 다만 로봇이 일을 대신 해준다.... 이건 너무 설부론 예측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게임. 이 예측은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가 무슨 시인이라도 되는 양 운명을 부르짖을 때 저런 기술의 진보나 생활의 개선은 왜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 걸까. 그 점에서 우리의 인생, 운명관이라는 건 정말 조잡한 기호들의 나열이라는 것이 더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한달 뒤에 원양어선을 탈지, 대국가적 재난에 처해있을지, 아니면 강도와 인질극을 벌일지, 병원에 누워있을지. 이거 정확히 알 수 있나?

그러나 돌이켜보면 중요한 사건이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전혀 찾아올 거라고 여기지 않은 사건일수록 그렇다. 처음에는 황망해서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인간은 또한 적응의 동물이라서 수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에 순응해버린다. 가령 올해 수능만 하도 그렇지 않나? 영어 쉽게 나올 거라고 다들 믿고 어렵게 나올 리 없어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더라. 수능 치고 물수능 얘기 쏘옥 들어가

고 다시 불수능 이야기 오가는 거, 이게 천박하고 참 박약한 인간들의 지성이란 것이다. 그래도 복기는 해야지, **왜 과거에는 그럼 '잘못된 예측'에 빠졌던 걸까 하는 것.**

하지만 더욱 답답한 건 한번 세뇌된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다. A를 믿는 사람이 있다. A가 B라는 결과를 내놓는다, 그런데 현실은 C다. 그래도 그 사람은 A를 믿는다. 웬지 아나? 그렇게 학습해버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긴 정말로 힘들다. 우선 세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무의식에다가 말초신경까지 다 지배당한 상태다.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A를 까기보다는, A의 예언이 빛나간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C도 그림 살짝 그러면 B가 된다는 식으로 과거 황우석 사태와 같은 인지부조화 증세를 드러낸다. 시리즈에서 논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앵커링'의 결과이다. 몸 속 깊숙히 박힌 갈고리침을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다. 아프니까 강 박고 살테니 그냥 건드리지 말라는 게 거부반응은 너무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거한다고 쳐도 다시 박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앵커링이 한번 되면 이걸 빼는 것은 정말 어렵다. $1+1=2$ 가 아니라 $1+1=-10$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로 수학을 풀라고 하면 풀겠는가?

마법사들은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초라한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걸 이용해 돈을 번다. 여성 심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픽업아티스트들이고 물욕에 관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 업체들이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그 내용물이 보잘 것 없는 호구들을 구워삶는 건 간단하다. 적당히 띄워 주고, 자기가 그 내용물을 채워주고(세뇌), 그리고 적절할 때 꾸짖고 훈육하고, 다시 달래는 것이다. 생각보다 인간을 세뇌시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석가모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 인생은 호흡기간이라고. 즉, 숨을 쉴 때 그 순간 뿐이라고. 사실 이것만큼 정확한 이야기는 없다. 석가모니가 원래 수학을 잘 했다는 설화들이 많은데(게다가 '인도의 왕자님' 아닌가. 인도수학은 뭐) 인생은 호흡기간이라는 건, 즉 인생의 순간변화율이고, 우리는 여기서 석가모니가 인생을 '미분할 줄 알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절반은 농담. 아무튼

가장 좋은 건 운명관이라는 것도 결국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한 때 유행했던 시크릿 인가... 라는 책이 이걸 겨냥했던 것이고, 최면기법에서 파생된 NLP 역시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

궁금한 사람은 일주일동안 일기를 적으면서 자기와 영 상관없어보이는 분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 실패하나 소설을 써보시길. 지금 입시를 시작하는 사람은 수험문학이라고 해서 내년동안 겪을 온갖 사건들을 미리 가정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실패해나갈 건지 개연성있게 적어보면 된다. 그리고 놀랍지도 않지만 그거 대부분 적중할 것이다. 일단 이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인이 어떤 인간이지 잘 알고 있다.

1.9 [세뇌론 007] 원론

2015.11.19

1-1

세뇌된 상태는 주관적으로는 넋을 잃고 동상공간을 혼이 떠다니는 것과 같은 상태다.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협구의 세계에 감금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밤낮은 가리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교주의 무리한 명령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절대 복종하는 가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서 절대자의 의미에 분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몰두의 비결은 행위 자체가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Ecstasy에 연결된 것에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지만 동시에 수험생이 달성해야 할 상태란 점에서

부정할 수만은 없다. 저기서 세뇌를 '집중'이라고 하고 '허구'를 공부할 텍스트라고 하며 '교주'를 선생님으로 고치면 완벽한 입시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정말 공부에 미친 놈들은 10시간 이상 공부해도 고통을 못 느끼는데 이것 역시 Ecstasy라는 점이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뇌된 사람의 정신은 '현실과 분리된 가상공간'에서 노닐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은 공부한 텍스트들로 구축된 학습공간에서 노닐고 있다(즉, 이 경지까지 공부해야한다)

이렇게 현실과 분리된 가상의 공간으로 인생의 무대를 옮기면 누구라도 생각이 정지되고 끝없는 쾌락을 좇아 달려가게 된다. 여기서 쾌락은 굳이 성적 흥분, 권력 놀이, 금전욕, 혹은 나르시시즘일 필요가 없다. 쾌락을 느끼는 방법은 단 하나 - 논리적인 사고의 정지이다.

바꿔 말해서 세뇌된 것과 유사한 상태의 학습몰입은 이런 점이 위험하다. 적지 않은 인강을 들어대면서 트랜스 상태에 빠져 고득점이 나오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 당일에 맛가는 이유. 본인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떤 것이든 척척 풀어내는 패턴에 세뇌된 상태로 쾌감을 느끼지만, 그 쾌감의 원천은 '논리적인 사고의 정지'를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나오면 풀지 못하게 된다.

1-2

마법사들은 자기들의 호구들이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엑스터시를 느끼도록 바꿔치기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위험한 사교육강사라면 학생들이 공부에 엑스터시를 느끼는 걸 넘어, 강사 자신을 위해 공부하도록 기호조작을 할 수 있단 얘기다. 아닌게 아니라 수험사이트들을 돌아다녀보면 그런 술수가 읽히는 경우가 많다(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마법에 걸려든 사람들은 자기 존재 전부를 걸고서라도 세뇌하는 사람, 즉 마법사를 위해 진력을 다 한다. 자기 희생, 금욕, 수행, 고차원의 학습 등 본

래대로라면 고통을 수반하는 일조차 '고상하고 승고한 행위'로 형상화된다. 즉, 마법사들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피세뇌자들에게 '유사' 니르바나 상태를 만들 어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강이 문제될 수가 있다. 인강은 그 자체가 강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보급형 세뇌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혼자 책을 읽는 건 불편하지만 인강은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혼자 읽을 때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한다, 그래서 쾌감이 끊기게 된다. 반면 인강을 들을 때는 사고할 필요가 없다. 낭랑한 가성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고 생각이란 걸 안 해도 된다. 그러니 쾌감을 느낀다.

물론 이런 걸 악용하는 강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 의지든 아니든 그 인강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지닌 문제가 있다. 인강을 잘 듣는 방법은 간단하다. "생각을 멈추고 오로지 강사의 말에만 귀기울이는 몽롱한 상태에 빠지면 된다" 논리적 사고를 하며 듣는 순간 인강은 매우 불편해지고 번거로워진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강사시키는대로 하게 되면 인강만큼 편리하고 쾌락을 주는 건 없다.

1-3

학습이란 결국 내가 나를 세뇌하느냐, 아니면 남에게 세뇌당하느냐 이걸로 나뉜다는 것이 지금 드는 생각이다. 작년 말에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와 관계없이 인강을 줄이고 기본교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온갖 수험사이트에서 온갖 인강을 다 들은 경우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물론 반대도 있다)는 오히려 그동안의 인강이 독이 된 케이스다.

인강이 안 맞는 사람들은 사실 잠재력이 매우 좋을 수도 있다. 학습의욕이 넘치지만 본인의 읽기, 사고하는 속도가 남들과 다르거나 무엇보다 본인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인강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된 개념서를 본인 페이스로 읽고 문풀만 신나게 하다가 고난이 도를 정리해보는 게 낫다.

그럼 반대로 인강을 들으면 안 되나? 그건 아니다.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타율적인 세뇌가 약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상담 게시물에서 내가 EBS만 따라가라고 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다(근거없이 아래라저재라하지는 않는다는 것) 본인이 사고력을 더 개선해야한다거나 혼자서 공부할 수 없으면, 다른 시스템에 올라타거나 혹은 신탁통치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정리해야한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10 [세뇌론 008] 간단한 테크닉

2015.11.22

나무위키 링크

윗 소개대로 세뇌의 시초는 중국이 6.25 전쟁 포로를 상대로 사용한 심리적 테크닉을 에드워드 헌터라는 저너리스트가 Brain Washing이라고 소개한 것에서 유래한다. 세뇌는 우리의 신경 수준에서 정보,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개입적인 조작을 보탬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의식하는 수준과 무의식 수준의 차이

크게 잡아서 세뇌의 테크닉은 2가지이다. 하나는 피세뇌자가 그걸 의식하는데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피세뇌자가 의식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세뇌를 의식하는 경우는 심리적 저항이 따른다. 본인은 싫어한다. 그런데 이도 강제로 따라오게 하는 기술이 있다. 첫째는 독방에 감금하기 둘째는 일종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면서 주종관계를 강요해 고정시켜버리는 것이다.

본인이 저항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해서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컨트롤해버리는 방식인데 이는 수험생들도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세뇌다 - 그건 바로

학교와 학원. 이에 관해서는 스텐퍼드 교도소 실험 참조 나무위키 링크

감투는 효율적인 세뇌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의식하의 세뇌는 상대방에게 심어놓고자 하는 명제를 '숨기면' 된다. 예를 들어 "님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제가 책을 팔겠습니다"라고 한다. 그 다음 그 교재에 링크된 주소를 통해 들어온 사이트에 저자의 온갖 이미지를 도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한다. 그렇게되면 그 교재를 보고 들어와 저자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저자를 '승배'하는 예속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는 당연히 독자들을 자기의 신도로 만드는 게 목표지만, 처음부터 "교재평가를 바란다"라고 구라를 까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법은 자기계발 세미나, 수험 세미나, 그리고 여러가지 상담에서 이용되고 있다. 사실 수험계에도 흔한 바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경우 콕콕이 안전한(?) 이유가 이거다. 우선 혀혁재군은 아무리 미화시키더라도 세뇌가 불가능한....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인강과 교재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심지어 선량한 목적이더라도 그러한 게시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다 글이나 소통이 저 두번째의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대체로 성인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 여성들의 경우 - 외모가 반반하고 잘 빠진 남자 주인공에 훌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수험만 아는 학생들의 경우는 - 특히 독서를 안 해서 문과적 소양이 부족한 지금은 더욱 심각하다 - 그냥 대놓고 잡수세요... 케이스가 많다.

실제로 상담이란 것을 해보면 도저히 보면 안 되는 교재인데도 왜 샀느냐 물어보면 이유를 대답 못 한다. A 교재나 B 인강을 안 보면 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반복하는데 그럼 풀어보았느냐하면 안 풀어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왜 그런가 추적해보면, 그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결국 교묘한 세뇌전략에

brain-washed 되어버린 케이스다. 여기서 난감한 건 그 세뇌된 메시지를 고발하고 자네가 세뇌당했다네... 라고 하는 건 '아 고맙습니다'란 반응보다는 '뭐여 지금 시방 나를 욕하는 거'라고 공격적으로 나오기 좋다는 것이다.

세뇌는 단지 메시지의 주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세뇌자가 세뇌자와 동일 시되거나 그 종을 자처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재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황당한 케이스까지 보는데 이거 설명할 게 따로 있나?

이런 경우는 두가지다. 피상담자를 그냥 무시하기 아니면 가망이 있는 경우 믿지 못 하는 피상담자에게 커리 추천해주면서 반드시 맑아보아라하면서 치고 박고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피상담자가 자기가 무엇에인가 사로잡혔다 느끼면서 정신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는 교재추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선 뼈딱한 시선을 안 보낼 수 없다. 이 세뇌가 결국 해당 수험생의 인생을 처절하게 말아먹는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런 경우. 게다가 나는 이런 걸로 이해관계를 딱히 추구하지 않는다(물론 세뇌된 사례들을 탈세뇌시키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된다)

적어도 수험시장에 있어서는 누구든 일단 까고보아야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강사든 교재든 자기들이 돈 주고 이용하는 건데 왜 xx님 하면서 숭배해야 하나? 말하지만 업자가 보여줄 건 하루종일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거무튀튀해진 피부에다가 홀라당 벗겨진 대머리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지, 그 정반대의 '교주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수험생은 돈을 지불한만큼 양질의 정보와 더 좋은 문제를 훈련할 기회만 가지면 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보는 입시판은 "xxx님을 따르지 않으면 망해"라는 사이비 종교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다.

1.11 [세뇌론 사례 03] 긍정적인 활용 : 일지

2015.11.23

상대방이 세뇌를 의식하는 세뇌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령 수학을 못 하는 A군이 있다 치자, 이 친구가 수학을 못 하는 건 다른 건 다 좋은데 문제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은 ”야, A.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못 읽니”라고만 탓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흘리면서 그 A에게 ”오늘부터 콕콕에 수학문제를 올려주고 쉽게 풀어주는 선생님은 님입니다”라고 역할을 던져줄 것이다. 처음에 A는 장난하냐고 하겠지만 내 말을 들으면 네 머리칼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온갖 저주를 가할 거라고 얘기한다.

투덜대던 A군은 내가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수학문제를 해설하는 RPG를 하는데...

에이, 저거 가정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저거 이미 작년말에 시작해서 올해 성공 사례 만들었는 걸요. 굳이 해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일지가 뭔 효용이 있느냐 하는 사람은 세뇌를 공부하지 않은 케이스다. 상원 선발과 역할 부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전부가 입시에 성공한 건 아니다, 그러나 마인드 면에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내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로 나에게 일부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답변 자체보다도 ’저 사람에게 상담받으면 뭔가 된다’라고 자가세뇌하는 경우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이해가 있지만, 이 경우는 난 무조건 매몰차게 대한다. 내가 장삿꾼이면 일일히 답변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수험생 개개인이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경우다. 위의 RPG 는 자기 힘이다, 게다가 저 RPG에 넘어간 사람들은 나와 맞장뜨고 놀고 있다 (...) 그러니 나에게 무의식적 세뇌를 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질문해서 뭔가 의존하고만 싶어하는 사람은 무의식적 세뇌를 받고 싶어하는 케이스다. 내가 수험가 장삿꾼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그거다. 실력이 아니라 무의식적 세뇌 - 교주로서의 추앙을 받길 원한다. 이런 케이스는 결국 자기마저 파멸시키는 것이다.

콕콕에서 일지와 칼럼을 쓰는 건 단순한 기록으로만 생각하면 무의미해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일지를 쓰면서 공부한 기록을 알리는 나, 칼럼을 쓰면서 수험방법론을 개척하고 알리는 나. 라고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 때부터는 ”일지와 칼럼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된다.

한편으로 인강을 찾는 서글픈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험생은 자기 역할이 없다고 믿고 있다.

xxx 선생의 인강을 듣는 다거나 xxx 저자의 책을 소비함으로써 xxx 선생이나 xxx 저자 왕국의 일원이나 서포터가 된다는 것으로써 쿠크다스같은 자아에 포장지를 입히는 것이다. 인강이나 교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기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집단을 찾고, 거기서 역할을 부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올해 내가 방법론을 제시해서 성공시킨 케이스가 과연 순수히 독학을 했기 때문’만’ 성공한 건 아니다. 이들은 자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콕콕을 통해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혼들리지 않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경계하는 일이다. 내가 써먹고자하는 세뇌라는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으로서 결국 보조기를 떼어버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긍정적인 세뇌가 먹힐 수 있다는 건, 훨씬 전에도 검증해보았지만 이번에 다시 검증해보고 틀림이 없다... 물론 이런 것을 더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하는 건 허혁재군 등이 더 생각해보아야하는 것이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 일반회원들끼리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교재추천해달라하는 질문은 화를 내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건 ’

교조화'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내가 오히려 신경쓰고 싶은 건 자아가 약한 수험생들이 자기 위치를 어떻게 부여받고, 어느 지점을 향해 운동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고민이다. 만약 +1수를 하고 싶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한다거나 하는 건 기쁘게 소통해볼 수 있다. 이건 내가 악랄한 마음을 먹더라도 세뇌시키긴 힘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1.12 [세뇌론 사례 04] 나르시시즘

2015.11.23

이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 중 하나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양 멀리하는 게 좋다. 어느 쪽이건 망하거나 든. 여기서 주의 : 여자의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즘으로 치진 않는다. 여자가 자기 미모를 빛내는 건 대단히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의 나르시시즘은 그게 얼굴이든, 패션이든, 목소리든, 정신상태든, 자기자랑이든 내가 보기엔 양 아주 망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 블로그든 뭐든 자기 얼굴 사진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사이코로 분류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양 피해 간다. 일단 남자가 자기 얼굴 보고 허허헛거리는 건 아무리 보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의 극단이 요즘에는 줄었을지 모르는데 서울대 - 고시 하다가 망한 케이스에서 정말 지겹게 보였던 걸로 기억한다. 이 양반들이 공부 잘 있다고 주변에서 칭찬해서 그 맘으로 서울대까지 왔는데 고시하다가 시험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변에서도 호응을 안 해주니까. 그걸 메꾼다고 자기 외모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철학자라도 되는 양 인생과 세상을 논하다가 나중에 정말 미쳐 버린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가 될 리는... 있겠냐. 그렇게해서 폐인이 되었다가 고향에 내려가거나 노가다 뛰러 가는 거지. 어제인가 모 분이 자기 고찰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말렸다. 간단하지, 그 모 분이 그런 글쓰기에 맛들이는 순간 저 장수생 코스 딱 밟는 것이거든. 장수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공부방향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님, 노력도 상당히 많이 했음, 그리고 수험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시험이 안 되지. 그런데 대화하다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는데 정말 강조해대는 것은 아나? 그거 본인이 야 모르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듣기에는 왜 자꾸만 자기를 노출하려고 하나 그 생각이 든다 그거지. 자기를 강조하고 사랑하게(...) 되면 가장 위험함. 그 때부터는 공부를 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 자기가 참 보잘 것 업고 병신 같다는 걸 깨닫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아동바동해야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를 관찰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 게다가 나중에 자기 방법이 다 옳다고 착각하면서 균형감각을 잊어버림. 그런데 나 혼자 보면 외로우니까 남들에게 계속 자기를 드러내려 함(...)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호응해주지. 그런데 나중에는 슬슬 멀리한다, 아니 고추달린 남자가 저게 뭐하는 짓이냐 생각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수년 째 계속 자기가 잘 생겼냐 얼마나 생각이 깊냐 너희들이 나만큼 고민해보았냐 이딴 소리나 하니까. 또 쫓겨날지 모르지만 혁혁재군도 살짝 디스해보자. 오수 썰도 나르시시즘이 과연 없을 것 같나?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추려보면서 고찰해보았다. 어찌되었든 대학은 갔으니까 해피엔딩(?)인 것이지만 오수썰을 딱 읽으면서 느낀 게 인간성이 괜찮은 남자조차 장수를 하면 나르시시즘을 필연적으로 겪는 건 어쩔 수 밖에 없다란 생각이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이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 나중에는 진짜 병신같이 되어버린다. 이거 치유하려면 그냥 식민지배당하면서 근대화...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상루트로 돌아가봐야 자기가 당시에 얼마나 병신같이 살았나 깨닫고 고쳐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성공하고 나서도 나르시시즘을 더 발전시킨 답없는 케이스도 있다만 그건 특수한 케이스다. N 수생 이상 대화를 하다보면 남자 녀석들은 예외없이 나르시시즘 끼를 보인다. 그러나 경악스런 사실은 이거 **여학생들은 없다(...)**. 여자들이 나 예뻐 어찌구 하는 게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진화임을 알 수 있다. 이 나르시시즘 증세는 동물 세계의 짹짓기가 금지된 문명 세계와는 맞지않는 도태의 증거가 아닐까. 여학생들이 상담하면 그 변덕 때문에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다 (...) 나르시시즘 그런 걸 겪지 않음, 캐리만 잘 해주면 일단 자기를 봐준다 신용해준다는 걸로 정말 잘 따라온다. 그런데 남자녀석들은 이거 안 먹힘, 중종 나르시시즘 걸리면 충고해도 안 들어먹음. 남자들 나르시시즘은 그거 백해무

익한 거니까 강 버리는 게 좋음. 서울대 출신 고시생들이 인생 날려먹은 게 이 때문이라니까. 남자가 군대, 직장 등의 조직생활하면 철든다는 얘기 왜 듣는지 아나? 조직에서는 나르시시즘을 허용해주지 않으니까. 조직에서는 남자 개인의 인격을 억제해버니까 나르시시즘이 방지되어서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여풍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돋보이지만 이것도 한몫할 거다 래알.

1.13 [세뇌론 사례 05] 언행일치

2015.11.25

”xx니까 xx이다”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다. 안 좋은 의미로 - 정작 그런 구호를 외친 사람이 정작 xx본 적이 있는가. 청년들보고 고생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자기도 고생을 하느냐.

자기 자식을 미국 국적주고 카투사 보낸 사람이 반미 외친다면 위선자라고 불러야한다. 외제차 몰고다니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청춘들의 희망을 외친다면 강아지라고 얘기해줘야한다. 물론 메시지만 보면 되지 왜 메신저를 보냐고 공격해대는 한심한 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속을 것이다.

휴머니즘적인 글은 솔까 얼마든지 주작해낼 수가 있는 시대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층을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이 인생의 희망을 외치면서 거짓말하는 것, 지겹게 본다. 입으로는 자기가 올바르게 산다 노력한다 정신적 가치를 추종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본 적이 있을까. 그런데도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그 글에 낚인 호구들이 열심히 ’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언행일치라는 게 주목받기 시작하자 저런 거짓말도 안 먹힌다. 연예인들조차도 과거에는 안 하던 고소미를 시전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당분간은 입을 틀어막을 수는 있겠지. 그게 정말 모욕감을 얻어서인가? 아니지. 자기 장사에 불리하지 않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이지. 하지만 그럴 수록 대중들도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건 아나?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나? 글쎄. 난 노력은 해야한다고 보지만 희망은 없다보는데? 노력하라고 하는 건 그냥 지껄이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노력한 건 분명 보답을 하거든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이 있진 하나. 이런 소리를 나에게 지껄이는 어른들은 적어도 내 경험상 모두 위선자였던데 말이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나? ”**노력해서 내 자리를 위협하지 마. 알아서 굽어 뛰지든가**”

유감스러운 사실은 요즘 10대나 20대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 사회를 바꾸면 돼. 그럼 희망이 있을 거야**”라는 한물간 것에 세뇌당했다는 것. 이게 적게 먹고 운동하는 고통 없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운동도 싫고 적게 먹는 것도 싫은 사람이 택하는 게 결국 수술일 건데 그럼 자기 노력 안 하고 강 사회가 다 뒤집혀야한다는 것도 뭐가 다른 이야기일까. 저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시키더라는 걸 알고는 있을까.

희망은 없지만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냥 이 한줄로 충분할 것 같았는데.

추가로 진실을 더 적어볼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이벌들이 알아서 죽어준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앙, 이 사회 참 절망적이야”라고 맞장구 적당히 쳐주고 우린 몰래 노력하면 되지. 사실 안 좋은 교재나 강의도 굳이 비추할 필요가 있나? ”앙, 그거 참 좋아”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준 다음에 자기는 탈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대 더 때린다라는 말 그대로다. 이런 종류의 지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간혹 가다가 이런 종류의 얘기로 시비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심하다고 본다. 자기들이 노력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슬랙처럼 살면 되지 왜 그걸 남에게 하소연하나. 그리고 사회가 xx해서 문제다 하면 군소리 말고 강 이민가버리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키든가. 왜 입으로만 그러고 앉아있지? 그

사람들도 하는 짓 보면 사례 04의 나르시시즘 그대로. 그러다가 술이나 까먹고 나 잘났다 자랑질하다가 나중에 취업 어딜해 허둥지둥 그려는 거 한두번 보았나.

수험도 마찬가지이다. 난 강의나 교재 물어보는 것도 짜증나지만(그 시간에 풀면 되잖아), 도대체 강사 아무개가 어쩐다 교재 저자 저무개가 저런다 말하는 사람들 보면 '세뇌되었네 이 양반' 하는 생각에 이제는 지겨울 정도다. 돈 쓰는 사람이 갑 아닌가? 그럼 학생이 갑이고 강사는 을인데, 정작 돈은 다 바치면서 강사님 믿습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가 아니면 뭐냐. 그리고 강사가 가르친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기출분석해보면 나오지 않나? 그거 일주일이면 다 하는데 그럴 시도는 해보았나. 강의나 교재가 좋냐 안 좋냐 하는 건 그냥 본인이 비교해보면 되는 거다.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도 역시 세뇌당한 케이스인걸 부정할 수 있나?

이번에도 보면 뭔 놈의 저자가 쓴 교재가 좋다 하더니 역시나 수능 끝나고 다들 침묵이다. 저자들도 뭐 자기가 쓴 거에서 다 나올 거라고 하던데 일부 빼고는 광 꿀먹은 병어리고, 학생들도 그런 거나 능동적으로 분석해서 누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파악하면 될 것을 참 엉뚱한 데 신경쓰고 앉아있다. 자기들이 세뇌당해서 레밍즈질하는 것도 모르고 "이 사회가 흉악해서 내가 노력해보았자 소용 어쩌구저쩌구" 한탄이나 하고 앉아있겠지.

수험의 비결은 간단하다. 자기가 판단해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해서 그걸 밟으면 되는 거다. 그럼 스스로 부딪쳐서 공부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풀을 많이 해보라는 이야기지. 무슨 인강만 들으면 시간이 단축된다? 그럼 뭐하나.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줄 몰라서, 자기 공부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문풀하고 책읽으며 깨져보면서 나아가야만 자기가 어딜 보충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뭐 이거 상담글이든 질문글이든 보면 수험생이 수년째 공부해도 본인의 공부가 뭔지 모른다. 그저 어느 인강이 좋나요? 교재가 좋나요? ... 이런 스바 음마니반메훔 구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하여간 깔 건 까야겠다. '좀 친절할 수 없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친절히 대해주고 일일히 맞장구쳐주다간 나도 병신될 것 같다는 게 딱 보이더라는 것이지. 일단 특정 강사나 특정 교재(적어도 내가 보기엔 저런 것도 팔리는구나 생각되던 것) 강조하는 인간이 잘 나가는 것 못 보았다. 이것도 사실 겸증이 된다. A라는 교재로 다 해먹으면 그 A 좋은 게 바로 누설되어서 대세가 되어버린다. 대세가 된 A 교재가 그럼 유의미한 효과가 있나? 결국 모두가 다 볼 것인데. 그럼 대세가 된 A교재를 평가원이 저격질하면 A만 본 사람은 다시 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능교재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인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계속 의심해보고 자문자답해보면서 겸증해나가면 사소한 세뇌도 비켜나갈 수 있는데 그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 무슨 소용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답답한 것이 아닌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잘나가던 영어교재 Z가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 을, 병, 정이라는 강사들이 Z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만의 교재 G, H, I, J를 낸다. 그럼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일단 Z를 보겠지. 왜냐면 갑, 을, 병, 정이 Z를 정말 잘 비난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 실력이 Z로 키워졌단 이야기거든. 우선 Z를 독학한 다음에 G, H, I, J의 샘플을 보고 거기서 선택하겠지. Z라는 책도 단점이 없을 리는 없으니 맹신하면 안 된다. 하지만 G, H, I, J가 모두 Z를 보완해준다고 보장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Z부터 빠삭히 봐서 저 갑, 을, 병, 정의 수준을 따라잡고 비평하려하겠지.

그런데 현실은 G, H, I, J 하나 보고도 낚인 애들이 나중에야 Z를 보고 어라 강의내용이 여기 다 있었네... 이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1.14 [세뇌론 009] 반복은 덮어쓰는 과정

2015.11.27

수학적 사고는 미신을 제거해주지요. 논리의 출발은 ”부정“입니다. p가 거

짓이니 p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사유가 다른 문명권과 달랐던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수학교육은 '근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백신을 대량접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모든 학생을 근대인으로 세뇌시키는 과정이라 하겠지요. 개인에게 수학은 대입을 좌우하는 짜증은 과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입장에서는 원시시대나 중세시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학습공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반복만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공부가 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세뇌의 기본은 반복이지요. **반복없는 세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뇌의 효과는 대단히 강력합니다. 약물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거나 신경이 손상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본인들이 어떤 경험으로 특정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아왔는가 하는 케이스는 일종의 반복경험으로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잘못된 세뇌를 당하면 정신병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와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우선 시도해야할 것은 그 악몽을 지우고 좋은 이미지로 덮어쓰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악몽을 지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걸 흐리게 하거나 작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지요.

전문적인 최면(참고로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밀턴 에릭슨 참조)까지 논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공부 자체가 **일종의 세뇌이자 간접 최면이기까지하다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년간 특정 과목들의 도그마들을 반복학습하여 그걸 숙달시키는 과정은 여타 어떤 세뇌보다도 매우 강력하다고 하겠죠. 이걸 엿볼 수 있는 예는 가령 특정 인강을 들으면 그 학생은 그 강사를 업자를 넘어서 부모, 스승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데 말이죠. 우리가 TV 드라마를 볼 때 배우나 PD에게 그런 감정을 품는가요?) 독학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자가세뇌가 덜 위험하니까요(물론 매우 좋은 강의라면 그런 강의로 세뇌되는 게 낫습니다만)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 아니 자가세뇌를 해서 인간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요. 운명 이야기가 나와서 적는다면 만약 삶이라는 게

주관적 심상의 연속체라면 세뇌로 운명이 바뀐다라는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하고 야동이나 보던 청년이 감금되어 국영수탐구 공부를 강제당해 무수히 반복하다 사고 프로세스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진 것이고 그럼 결국 운명이 바뀐 것이지요.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느냐?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세뇌시키는 정도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떨린다거나 긴장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공부를 한다... 수준이면 여전히 뇌는 공부를 거부해버립니다.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안' 푸는 것이죠. 수학공부를 한다 수준으로는 곤란합니다. 아예 수리적 사고에 세뇌당해버려야 합니다. 소위 수학을 잘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그들은 세뇌당한 '광신도'들입니다. 아래 학습공학에서 침착해지는 건 실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드렸죠. 광신도는 이미 '실성' 속성은 갖고 있음.

차분히 공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한다.... 까페에서 여유부리면서 총칼 든 강도와 격대할 수 있단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본 것이죠. 이미 시험 문제부터가 제정신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제 시간 내에 그것들을 풀어내려면 정상적 사고로는 불가능할 터인데이요. 물론 문제를 독해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건 차분한 이성적 태도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자는 겸은 양복 입은 깍두기들이 지켜주고 있어야하죠. 즉, 해당 과목에 세뇌당한 것을 기본으로 합리적 사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글만 하더라도 ㄱ ㄴ ㄷ ㄹ 제자 원리 제대로 알고 쓰는 것도 아니죠. 이 역시 사실 우리가 국어네 세뇌당한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수학적 사고의 세뇌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과 패턴으로만 세뇌당하느냐, 아니면 그 패턴을 해체하고 참 거짓을 따지는 수준까지로 세뇌당하느냐.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소해보일지라도 단지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과, 그 문제를 이루는 모든 개념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건 다르지요. 유감스럽지만 전자를 강조하는 업자나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텔립니다. 심지어 문제를 많이 풀

었다고 하는 경우조차도 전자에 머무른 경우라면 안 되지요. xx 문제면 xx하게 푼다.... 라고 흔히 강의하거나 야매교재에 쓰여있는데로 가면 망합니다. xx 문제에 xx이 나왔는데 xx의 교과서적 정의는 무엇인가, xx는 식, 그래프, 개념으로 어떻게 표상되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형식적인 검증을 밟으면서 출제자가 어떤 루트를 따랐을까 읽어보는 방식으로 세뇌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맨 앞문단에서 말한 수학적 사고의 혜택이 드러납니다. 저런 식의 사유를 하면 본인의 문제까지도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내가 왜 불안해하거나 그런 충동이 드는가 하는 것도 분석되면서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문제조차도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해결가능한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수학이 아닌 근대수학의 학습은 본인의 정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근대수학에만 세뇌된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대수학도 세련된 '도그마'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성적이 높은 친구와 낮은 친구는 말하는 수준이 다릅니다만. 그건 머리가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형식에 세뇌되어있나에 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식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형식을 해체시키는 방향의 대화를 걸고 일종의 무질서를 초래해보면서 그런 건 유전이라기보다는 반복학습되어 세뇌단계에 이르게 된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면 넘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감각과 연결된 일종의 형식논리의 반복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걸 크게의 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뇌론에서 언급하는 마법사들은 개인과 집단의 삶이 그렇게 연약하고 단조롭고 취약한 형식의 구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장난질을 치고 있죠. 이게 뭔지 깨달으면 왜 인문학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위험하며 강력한 학문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 ”가족”,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레고블럭인지 깨닫는다면 그건 제대로 공부, 즉 세뇌된 것이겠죠.

1.15 [세뇌론 010] 교주와 교단이 갖춘 무기

2016.03.25

일반적으로 교주들은 대단히 따뜻하고 인자한 면모를 보인다. 이 점에서는 북쪽의 김씨 왕조 수장이 초절정 고수일 것이다. 남몰래 정적을 숙청하면서도 그 자신은 인자한 아버지상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말을 잘 들으면 따뜻하게 해 주겠지만 안 그러면 죽어.

사람은 사상, 행동, 감정의 세가지 축 중 한가지만 무너져도 인격이 붕괴된다 생각만큼 사람은 강하지 않은데 잘 생각하면 컬트집단들은 이 셋 중 하나를 훈들 수 있다. 첫째, 기존 윤리와 철학을 포섭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교리가 있다 → 사상 공략 둘째, 집단이기 때문에 실천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쇼하는데도 탁월하다 → 행동 공략 셋째, 무엇보다도 피세뇌자의 어두운 감정을 다독일 수 있다 → 감정 공략.

이걸 벼텨낼 사람들이 있나? 견뎌내기 위해서는 논리적 부정을 생활화하며 뭐든지 의심해보아야 하는데 그 순간 본인은 매우 매몰차고 냉혹하며 감성이라고는 없는 '악인'으로 비치게 되는데 이런 악한 이미지를 뒤집어쓰더라도 진실만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없으면 십중팔구 세뇌당해버린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런 '비관주의적인 회의론자'를 치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게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세뇌당하기 쉬운 이유는, 세뇌자들은 항상 가치있는 '정보'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런 모임들이 가상과 허구의 세계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상과 허구가 얼마나 허망한지 잘 알고 있다. 피세뇌자들을 요리할 수 있는 현실론자들답게 어떤 정보가 가치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런 가치있는 정보를 던져주면 회의론자들도 중독되어서 자기들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금전적인 사고를 꼼꼼히 한다고 하는 아줌마들이 종교인들의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가치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이

상을 넘어서면 과감히 컷해야하며, 자기가 구축해 온 지식에 포섭해버려야 흔들리지 않는다. 술 한잔이라면 모를까 수십잔을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어 상대방의 속셈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정보에 중독된 고학력자들일수록 세뇌자들의 '정보조작'에 당하기 좋다. 이 건 돈이 모이는 판에서는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수험판이라고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수험판이 이런 점에서 매우 재밌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가치있는 정보를 찾다가 n수해버린 사람들은 상당히 찔릴 것이다.

상품을 파는 업자들은 슬그머니 자신의 신상, 외모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상'이 되기 위한 절차를 거리낌없이 저지른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품과 관계 없는 행각이지만 사실은 이런 행위야말로 고도의 세뇌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호갱들이 구입하는 건 '품질이 나쁘면 선택 안 해도 되는 상품'이 아니다. 바로 돈을 내서 교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품질이 기대 이하인 상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면서 아무개님의 정성이 들어갔다고 치자. 이 경우 호갱들은 그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신경쓰지 않는다, 오로지 그 아무개님을 배알하는 신자의 마음으로 돈을 쓰게 되어있다.

이것이 세뇌술의 가장 원시적인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도 쓰는 작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걸 쓰는 사람들의 연령이나 전공을 보면 정신분석이나 심리, 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으면 두가지이다. 남이 하는 걸 따라하거나, 아니면 비공개적 루트로 고객을 신자화하는 테크닉을 익혔단 이야기가 된다.

1.16 [세뇌론 011] 본인이 강하지 않으면 극한으로 공부하지 말 것.

2016.03.25

실제 세뇌란 말은 중국어인 'husi nao(스이 나오)'에서 파생된 것이다.

20세기의 공산주의자들은 각 진영의 전도사들은 상대를 포섭하기 위해 애를 썼다. 마르크스주의에 전염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르크스 사상이 뭔지 모른다.

세뇌를 할 때에는 상대가 극한 상태에 있어야한다. 극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 즉 중공이나 과거 러시아, 즉 소련에서 세뇌할 때에는 감금해놓고 당근과 채찍을 반복해놓는다. 일주일 내내 어둠 속에 지내게 하거나 일부러 식사/수면 시간을 교란한다. 초인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고가 무너져버린다. 정상적인 사고가 무너진 사람들은 현실감이 사라지며 그 상태에서는 **뭔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이한 상태**에 빠진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백”하고 용서받으려하는 것인데 이건 자아를 부정하면서 자존심까지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모든 입구가 뚫리면 세뇌자가 원하는 대로 사상/감정/지식/정보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걸 수험으로 연결시켜보면 수험생들이 꽤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대목이 있다. 실제로 상담하다보면서 느낀 것인데, 실패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극한’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단 것이다. 매우 극단주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선택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공부를 할 때에 자신을 막 내던져 ’극한’으로 간다는 걸 선호한다. 물론 공부할 때에는 극한으로 결국 가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성적이 좋고 실적이 있어 자존심도 세겼고 자아가 튼튼해졌을 때이다. 반대로 시험에 실패하고 자존심이 사라져 ”고백”하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극한을 달린다?

대충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들을 경험해왔다는 것에 소름이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뇨, 실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수험에서의 극한 상태라는 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으며 그래서 수험생활을 길게 겪은 사람이 살인충동을 겪거나 변태적인 분야로 빠지거나 맛가버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극한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는 ”**자존감을 회복한 이후**”다.

1.17 [세뇌론 012] 집단세뇌

2016.03.25

강의는 사실 세뇌와 많이 겹친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강의에 집중하고 귀기울이는 건 좋게 보면 학습이지만, 만약 강사가 엉뚱한 걸 가르치거나 불순한 의도의 코드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일종의 종교집회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학습론에서 혼자 공부하지 말고 도서관이나 학원에 가라고 하면서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위험한 것을 이용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인간은 혼자서는 세뇌당하기 힘들다. 혼자인 경우는 더 많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대일 대화를 하며 비판을 하기 좋다. 그러나 집단 속에서는 달라진다. 우선 집단에 속한 이상 우리의 본능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으므로 경계심을 죽이게 된다. 거기다가 자기가 속한 집단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꺼려진다. 그래서 집단 속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mp3로 들으면 별 것도 아닌 뚝 공연을 실연으로 들었을 때에는 감동의 해일에 빠지는 원리와 비슷한 것이다. 인강으로 들었을 때에는 그냥 그런 메시지인가 하면서 다소 흘려듣거나 반사시키며 듣는다. 세뇌의 위험도는 줄어들 수 있어도 대신 학습효율이 떨어져 버린다. 반면 수십, 수백명의 열기가 가득한 강의실에서는 그 집단적 흐름을 따라 맹목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세뇌의 위험성은 커지나 그만큼 학습효율이 높은 것이다.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죽이려면 이런 특징은 알고 있어야한다.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은 그래서 두가지이다. 그게 세뇌를 통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양적 측면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 우리는 세뇌적 학습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없으면 그 세뇌적 학습의 약빨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1.18 [세뇌론 013] 분노의 에너지와 악의 저주

2016.03.26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하나는 **분노의 에너지** 다른 하나는 **악의 저주**.

소위 성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저결 대충 표현한 것이다. 수험에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세뇌당하기 쉬워지는 이유는 저것으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다.

뭣도 모르는 어른들이 화를 가라앉히라고 하지만 엉터리 조언이 아닐 수 없다. 경쟁 상황에 놓이면 분노의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쌓인다. 적절히 '공부 에너지'로 활용하라는 게 좋은 조언이다. 똑같은 핵분열도 통제를 잘 하면 저렴한 원자력 전기가 되지만, 실패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의도적으로 폭발시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분노 에너지를 공부 에너지로 적절히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진다.

다른 하나는 바로 악의 저주다. 자신의 실패나 상처를 처음에는 긍정하려하지만 결국에는 참지 못 한다. 인간이 재밌는 건 감정적 기복을 심하게 겪으면 그걸 예술 - 노래, 그림, 시로 표현하려 하는 것인데 수험생의 경우는 자신의 좌절감을 가지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라고 자기 비하를 하는 예술을 하는 게 문제다. 그 예술이 소위 저주가 되어서 그 자신을 읊어맨다. 심하면 정말로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리거나 한강에 다이빙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그런 싸구려 저주에 속지 말라는 식으로 조기에 가치관을 바꿔주거나 따끔하게 비판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전 글에서 집단에 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독학이 위험한 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바로 위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노 에너지로 초사이어인이 되어있는 데다가 저주의 언어를 불경처럼 외우고 다니

고 한다. 이 사람들은 상담해달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불행을 상대가 동감해주길 바라는 걸 넘어, 상대가 불행해지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본인들은 이걸 보면서 찔리면서 '아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할 것이다. 그만큼 분노의 에너지와 악의 저주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이지 디씨 고갤이든 ○ㅂ 대팍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험생 사이트, 그리고 콕콕에서도 자주 접한다. 분노의 에너지나 악의 저주에 사로잡히면 심하게 말하면 5년 이상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시간을 날리게 되어 버린다. 그럼 5년 이후에는 왜 치유되느냐. 그거야 나이를 먹고 자신도 외형적 변화를 거치다보니까 허영심이 사라지는 탓이다. 거꾸로 말해 독학을 하던 사람들이 학원에 가면 저런 병이 완화된다.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많구나, 아니 나보다 심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분노의 에너지가 정화되고 악의 저주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이다. 동병상련을 느끼거나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진통제 역할을 해준다.

이 효과를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학원에 가는 게 낫다'라고 충고하게 된다. 물론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분노의 에너지나 악의 저주 덩어리인지는 싸악 망각해버리고 말이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저주에 걸린 채로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 나을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1년에 쇼부보지 말고 2 3년 길게 가면서 자신을 정화한 다음 천천히 가는 게 낫다. 시험에 불을 확률도 낮지만 어쩌다가 운이 좋아 대학에 간다고 해도 정신이 엉망진창인 채 대학생활을 해낼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제 2 장

미래공학

2.1 [미래공학 001] 다보스포럼의 일자리 경고

2016.01.23

뉴스링크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하이테크놀로지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직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커진다. 보고서는 미래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군으로 사무행정직군, 제조업생산, 건설채광업 등을 꼽았다. 사무행정직에서 470만개, 제조업생산 160만개, 건설채광업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무관리(50만개) 매니지먼트(41만개) 컴퓨터수학(40만개) 등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라고는 하는데 저걸 곧이 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건 기술 발달로 인한 대체 가능성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술로만 직업을 논하면 상당히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인기있는 직종이 프로그래머여야 하는데 현실은? 과거에 의대가 비인기였던 이유 중 하나도 그것도 역시 대체될 수 있다고 믿어서인데 지금은? 물론 의치한도 앞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고소득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간접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수 통제, 건강보험 시스템, 거기다 전문의 분과. 정부에서는 만약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의사들의 권리를 조금씩 박탈해갈 수도 있고, 사실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죠.

인간은 기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배하지 못 하죠.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고 법률은 결국 여론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독재가 되지 않는 한은 결국 표심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고, 그건 결국 다수의 의사를 좇게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서 눈치 까셔야죠. 소위 전문직이든 고학벌은 '소수자'에 속한

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언급한 재무관리, 매니지먼트, 건설 수학 등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자면 그만큼 어느 사회에서 든 '소수'만이 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수들은 정치적으로는 약자에 속합니다.

수협사이트에서는 지나치게 의사가 최고다라는 신앙이 강합니다만. 정작 의사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직업을 부러워하고 있고 (사실 돈변다고 해도 자기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갖춘 판검사들은 곁으로나 그렇지 실제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뭔가 헬링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다 상대적 이지 않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잘 하면 당연히 의치한에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지언정 정말 그게 좋은 길인가하는 건 회의적입니다. 고소득이 목표라고 하면 - 돈이 좋아서라고 하면 괜히 인술 베풀고 싶어서 의대간다 그럴 필요 없이 돈에 관한 전공을 밟는 게 나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선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한다거나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럴 필요 없이 적당한 전공 밟아서 스스로 자기 이름 알리고 시민으로서 운동하다가 정당에 들어가 경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돈의 속성을 모르면 상당한 오류에 빠지는데 가령 의사들이 월 천 정도는 가볍게 변다에서 간과하는 것은 현재 강남 아파트 가격 - 대충 8억대라고 잡으면 뭔가 착잡해질 수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폭등한 게 바로 2000년대 초 중반이었는데(그리고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잦았다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3억대 정도 했고(이게 틀리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도 의사들은 현 수준 정도는 온갖 합법적, 탈법적 수단으로 벌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초구에 살 적에 자주 다녔던 모 피부과의 경우는 강남이 별 게 없었을 때 동네 수준(?)으로 개업했는데 성실히 모아서 투자한 부동산 폭등으로 2010년 초에 100억대까지.

그럼 이 예를 왜 드느냐.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경우 인플레를 감안 안 하기 때문에, 즉 실질 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단 것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집값이 2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반대로 현금 가치가 그 정도로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폭등의 배경에는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풀린 탓이 컸죠. 그 자금이 풀린 건 당대 정치권력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런 걸 읽어낸 사람은 누워서 수십억을 벌었고, 그걸 모른 채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걸 믿은 사람은 앉아서 수억을 잃었죠. 사실 지금의 수저론을 낳은 빈부격차가 그 때 확정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보스의 경고대로 일자리가 바뀔 건 사실이라고 쳐도 저건 어디까지나 '기술'로만 평가한 것이니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좋으며 특히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당장 돈벌이 이전에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저기 법률이 내려간다.... 다소 회의적입니다만 법을 잘 안다는 것부터가 힘인데 과연 법조인이 그리 쉽게 망할까요? 법조인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법을 공부해두는 것 자체가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돈'을 다루는 그런 전공을 가는 게 백번 낫습니다.

2.2 [미래공학 002] 의료인의 정원통제

2016.01.24

뉴스링크

살펴보면 2008년 국내 병원의 CT와 MRI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각각 36.5대와 17.5대 수준이었고,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7.7병상이었다. 이에 반해 의대 졸업자수는 2008년 9.1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임상의사수는 0.3명늘긴했지만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더구나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40%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늘지 않은 셈이다.

한의사수까지 포함해보자면 시장에 비해서 '공급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 다라고 한다면 저건 언제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많이 벼는 것이 정말 의료 쪽이 블루오션이고 비전이 좋아서인가.... 라기보다는 수요가 확실하고 건강보험체계까지 갖춰져 있어서 수입을 보장해주는데 정월이 통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바꿔 말해서 공대의 경우 만약 기계, 전기, 화학에 대해서 공대 석사까지 마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그런 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울러 연구분야에서 일하면 해당 기술에 대해서 특허까지도 보장된다고 한다면 의대 저리가라일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공대는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왜 공대인들은 권리를 보장 못 하는가. 공대졸업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면 대기업의 입지가 약화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의료 분야 쪽으로 먹거리를 창출하게 되는 경우 의료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의대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선 IMF다 경기불황이다라고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아랫 기사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바로 '**의약분업**'이죠.

뉴스링크

결과적으로는 - 적어도 현재까지는 어설프다고 할지라도 상호원원을 보장 받은 구조입니다. 사회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의사들이 많이 번다 이게 다 수학을 잘 해서라고 자뻑하겠지만 문명권의 현대사회에서 먹고사니즘의 갈등은 모든 게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납니다. 사실 저런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정치인데도 이런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그럼 의대정원이 앞으로 늘어날 일은 정말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적어도 제가 하소연 듣고 얻는 정보로 치면 그 세계도 수저론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그 쪽 사람들은 상류층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보다 더 빽센 감도 없지 않지만 법률 쪽만 하더라도 로스쿨로 다양한 배출을 승인해준 것이 기성 세대가 법인화, 조직화로 거대자본화하면서 신규 인력들을 싸게 부려먹고 실질적으로 경쟁자들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도 장담은 못 하는 것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쭉 연금 잘 받고 갈 수 있던 공무원들도 지금 점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과연 앞으로 철밥통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일반론으로만 가더라도 의치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현재의 현상에 기초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이 정확한 미래를 담보하지 못 하는 한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는 판타지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아야겠지만. 결국 권력을 현재 누가 쥐고 있으며 앞으로 누가 신흥강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제국주의적 식민수탈이나 선진국의 후진국 착취는 자본을 앞장세워서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해나간다로 요약되었지만 현재와 미래의 자본주의가 1순위로 꼽는 것은 바로 '인구'입니다. 이제는 선진국들이 발목이 잡힌 게 바로 저출산이며, 이건 이민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뚜렷해졌지만. 일단 물건을 만들더라도 시장이 있어야 개인이든 법인이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각광받았던 것이고, 현재는 출산율이 높은 무슬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지요.

2.3 [미래공학 003] 돈의 악취

2016.01.25

의대 가면 좋다 어찌구하는 것에 대한 기시감 풋내기 시절에 들었던 ”공대

가면 놀아도 취업하고 끌뺀다”와 똑같음. 현재 의대에 관한 환상과 전망이 당시 공대에 관한 그것과 똑같다고 하면 에이 그럴리가요 했지만

”**대기업이 무너질 리가 없다**”

”**쭉 이대로만 태평성대. 대학만 가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

라던 사람들이 그와 정반대 현실이 오자마자 소신(?)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져버린다.

2000년대에는 좋은 데에 취업하고 싶어서 신의 직장이라는 xx은행 같은 데를 때려치우고 고시공부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의사가 많이 별 수 있다 하면서 빽세게 공부해서 한의대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의 직장만 다닌다면 전문직도 필요없다...**라는 분위기가 아닌가? 돈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 안정성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과장이 아니고 늘그막에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널렸다.

여기서 얻은 지혜는 하나. 돈냄새가 싸구려 향수의 악취처럼 처럼 풍기기 시작하면 일단 거기선 무조건 탈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도 지금 레지까지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돈냄새’ 맡고 의대 가진 않았다. 역설적으로 돈냄새를 맡았다면 공대에 갔어야할 것이다. 당시에는 그게 더 돈을 많이 버는 길로 인식되고 있었으니까. 금전의 악취가 풍긴다는 것은 수익성을 보장 못 하는데도 그 분야로 ‘개미’들이 푼돈을 털어넣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IMF 때와 서브프라임 때 주식이 개폭락했을 때 슬그머니 매집해서 지금은 투자의 현인으로 칭송되는 사람들, 동일한 원인으로 부동산으로 옮인해버린 사람들, 무엇보다 유학을 포기하거나 공부를 못 해서 그 돈을 부동산으로 돌린 사람들. 다들 망할 줄 알고 손해보기 싫다고 손절매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베팅한 사람들이 성공했다.

지금 의치한 열풍의 문제는 ”돈냄새” 보고 간다는 것인데. 실상은 어디를 가도 정말 이런 데에까지 의원, 한의원, 치과가 들어서 있다는 데 놀란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지방이 몰락하고 지방의 어여쁜 처자들조차 살 아남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매자”들의 존재다. 의료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 아니 실질 구매력이 담보되나? 혹자는 보험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다. 다들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이번의 보육사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나.

콕콕에서 몇명은 소신껏 공대 지원을 한다. 사실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우선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공대에는 돈의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고득점 맞은 친구가 취업과 관계없이 인문학이 좋아서 인문대에 가서 술 안 쳐먹고 공부한다면 아마 달리 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뭘 해먹어도 크게 해먹을 수 있다. 남들이 비웃거나 가난하다고 깔볼 때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경주하던 사람이 나중에 큰일내지 그저 돈 많이 번다고 그거 따라간 사람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평범하거나 그 이하로 밖에 살지 못 한다.

2.4 [미래공학 004] 인구 없는 화폐는 휴지

2016.01.26

화폐에 대한 가장 간명한 정의는 빚문서 이영애가 주연한다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누런 종이조각은 ”소유자에게 정부는 50,000원 어치의 빚을 지고 있다”

사실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지만 이것의 함의는 중대하다.

빚은 갚는 사람 마음인 것이다.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가혹하게 나설 수 밖에, 아니 나서야하는 건 당연하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털이기 때문이다. 채무가 5억인데 채무자의 재산이 5000만원에 불과하면 열심히 털어도

그것 밖에 받지 못한다. 그럼 앉아서 4억 5천만원을 폐먹히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법률적, 사실적 수단들이 많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빚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눈치빠른 사람은 여기서 파악할 것이다. 개인 대 개인인 채권채무 관계도 어려운 데 하물며 개인이 어떻게 정부로부터 빚을 제대로 받아내지? 개인과 정부가 지닌 힘은 비교할 수도 없지 않나? 거기다가 사실상 화폐 발행과 유통도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오르한 파룩의 ”내 이름은 빨강“에 재밌는 대목이 있다. 예니체리(=オス만 튜르크의 정예군)들이 급료로 받은 악체화를 물 위에 던졌더니 둥둥 떠서(...) 바로 솥을 뒤엎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이와 비슷한 원리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왕관) 국가들이 멸망하기 전에 꼭 등장하는 것이 화폐에 넣는 금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니 이렇게 정부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건 매춘, 사기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A란 사람이 화폐로만 10억을 갖고 있다치자. 무엇보다 현금이 안정적이다라고만 믿고 갖고 있어도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금리를 낮춘다면? 겁라면 1개를 1000원에 사먹다가 나중에 5000원을 주고 사먹는다면 10억의 가치는 2억으로 떨어져버린다.

이런 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것이다. 월 천을 벼네 2천을 벼네라는 특정 전문인들조차도 직접 물어보면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한다. 이게 뭔 배부른 투정이여... 라고 하겠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그만큼 현물 가격도 미친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 정도 고소득자들 입장에선 나름 체면(?)이란 것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고 싶은 동네, 그리고 거기 생활비 등은 그들의 소득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다. 현대적인 이슈는 바로 인구절벽이다.

이 수치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결론들을 논하면 끝도 없겠지만

- 첫째, 몇몇 시군구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임계선을 넘어 인구가 줄어들어 제 기능을 못 하면 행정 서비스도 줄이고 통폐합당할 수 있다.
- 둘째, 공무원, 교사 인원도 대폭 감축되는 건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보험, 연금의 근간도 흔들리고 만다.
- 셋째, 개인의 몸값은 높아질 수 있지만 대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버린다. 분명한 건 소비시장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 넷째, 노인들도 일해야 한다.

....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화든 부동산이든 그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돈 자체는 값어치가 없다. 돈의 가치는 그 화폐시스템에 지배당하는 노동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지나 건물도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어떤 쓸모가 있는가. 가격은 곧 교환, 사용가치를 계량한 것이고, 교환과 사용은 그 행위주체인 사람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관료들은 다문화라는 이슈 하에 이민을 장려하려 했으나.... 최근 난민사태에서 보다시피 이건 대안이 못 된다는 게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 앞에서 말하는 의치한 환상과 결부지어보자. 대학의 입결이라는 건 그 대학의 특정 전공을 함으로써 별 수 있는 평생소득을 반영한 것이다. 이 평생소득이라함은 앞으로 사회가 할 것이니 한 직업이 하게 별 수 있다라는 모형에 기초한다. 그런데 만약 이 모형이 허구라는 게 명백해지면 입결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기대소득은 달리 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입결이 미래의 모든 변동까지 감안할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정말로 그게 적중을 했냐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변동은 '예측되지 못 하는'

데에서 나온다. 2000년대에 의치한에 가던 사람들이 외치는 건 고령화이기만 했다, 저런 인구절벽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제다가 더 중요한 사실, 과연 인구절벽만이 유일한 리스크인가?

2.5 [미래공학 005] 기계와의 결합 시대

2016.01.30

뉴스 링크

기계가 못 하는 활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떠올리기(ideation), 즉 훌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떠올리는 행동입니다. 단 어 같은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기는 아주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나리오별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런 조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 몫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도 가치를 잃지 않는 인간의 기능과 능력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찾으려 하죠. 하지만 저는 굳이 로봇과 경쟁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은 기계와 만났을 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이를 통해 참신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인재들이 지배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케빈 켈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로봇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런 것을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로봇공학 연구자에 따르면 고등 추론에는 연산 능력이 거의 필요 없는 반면, 낮은 수준의 감각 운동 기능은 엄청난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35년간 인공지능 연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어려운 문제는 쉽고, 쉬운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진화하면서, 애널리스트, 가석방위원회 위원, 공학자, 회계사, 의사,

운전자 등 관리직 혹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관공, 정원사, 안내원, 요리사, 가정부, 간호사는 앞으로도 수십 년은 직장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야기를 단순히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단지 특정 직능만 가지고 먹고살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모라벡의 역설은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대체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건 ‘고등 수준의 지적 작업’이다. 사실 이건 좀 어이없는 자충수 때이기도 한데.

고등 추론은 그 자체가 매우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단순화할 수가 있다.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단순노동은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으며 이런 건 기계로 대체하는 건 비싸게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의학이 발달한다 하면 이건 오히려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쪽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발달한다는 건 더 상위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약사란 직업이 필요 없고(?) 자동 판매기로 충분하단 것도 제약회사서 워낙 약을 잘 만들기 때문에, 즉 이 분야 매뉴얼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한 직업이 송두리째 사라진다거나 몰락하는 일은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헤게모니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2.6 [미래공학 006] xx에 가라고 하는 어른들 얘기를 믿어야 할까

2016.02.04

195, 60년대 젊은이들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농사지으라는 이야기나 들었을

것이다. 197, 80년대 젊은이들은 기술 배워서 뭐하냐 대기업 사무직이나 가라, 공무원은 연봉이 짜잖아. 그리고 1990년대에는 게임과 만화해서 뭐하냐 천박하게 살 건데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당연히 1950, 60년대에 농사나 지었다간 농산물 개방에 막걸리나 마셨을지 모른다. 1970,80년대 젊은이 - 지금 장년층, 노년층들은 기술을 갖춘 사람이나 공무원 연금받는 분들이 그나마 낫다. 그리고 1990년대에 게임과 만화를 즐기는 걸 넘어 이걸 공부하고 생산하려 한 사람들이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어른들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가려들어야 할 것은 가려들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건 지금의 40대 이상은 유례없는 고성장에 '중독된' 분들이다. 1년 지나면 빚내서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올라있고 인서울 대학만 졸업하면 대기업 취업이 가능했고 남녀가 사랑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제는 환상이나 다를 바 없는 패턴을 학습한 분들이다. 유례없는 저성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 60대 언저리이다. 물론 이 60대들도 박정희 시절의 고성장에 뽕맞았긴 마찬가지이다.

지금 10대들이나 20대들은 돈과 취업이 보장되는 과에만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자기들이 졸업할 때에는 그걸 '누릴 수 있느냐'이다. 지금 우리나라 어른들이 강조해대는 그런 분야는 미래 전망서에서 마이너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계다가 어떤 분야건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다(하지만 물론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입시 한방으로 생계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물론 미래에 수요가 있다)로 가는 게 승률이 좋았다고 보는 게 맞다. 현재의 의치한 대접은 IMF가 터지기 직전 대기업 급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그 분야가 정말 절대적으로 좋은 분야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은 분야인지 따지는 것이고 '기업'에게 좋은지 '개인'에게 좋은지도 따져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좋은 분야는 없다, 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 뿐인데 상대적인 것은 가변적이라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에게 좋은지 개인에게 좋은지인데 가령 공대의 경우는 기업 CEO 입장에서야 물고빨고할 게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볼 수 있고 정반대로 의대의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큰둥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7 [미래공학 007] 젊은이에게 빚을 지우는 사회

2016.02.04

긴 말 필요없고 사실상 '미국식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저딴 식으로 만든 것인 데 현 20대들에게 빚을 지운 세대는 정작 자기들이 빚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586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고 젊은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노예가 되어주길 바란다. 세대간의 갈등은 2000년대에 조심스럽게 제기되었고 이제 가시화되어버린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10대나 20대들은 - 어떻게 보면 부모세대들이기도 한 저 세대들의 말을 안 듣는 게 생존하는 지름길이다. 소위 지금 꼰대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오는 '고성장' 시대에 살았고, 현재 20대들은 스펙 경쟁은 기본이고 '잘 태어나지 그랬냐'라는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

자기 세대의 채무를 후세에 전가하려는 게 한계에 부딪친 게 현재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재나 친일을 까는 건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현재 20대들이 부딪치는 벼거운 문제들은 저 독재나 친일 쪽 세력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재나 친일이라고 욕먹는 쪽들은 최소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대해주려고 했던 쪽이다)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독재나 친일을 욕하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 때 온갖 룰을 어겨가면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고 이제 돈갚으세요라는 지불요구서가 애꿎은 20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저출산을 고민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흥청망청한 것

을 후세에 전가시키진 말아야하지 않나. 요새 젊은이들은 근성이 부족하다하는 건 얼핏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항상 그렇지만 '메신저 분석없는 메시지'는 무의미하다. 젊은이들의 근성을 탓하신다는 분들이 하나 같이 **내 집값 언제 오르냐 타령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지 않나?** 게다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권리 뭐고 이전에 철밥통 영위하시는 분들만 나가주셔도 청년들의 숨통이 틀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건 또 신자유주의 반동이니 뭐니 슬그머니 막으시더라. 사실 북유럽식 복지니 그런 건 쓸데없는 논쟁이다. 자유롭게 경쟁하기만 해줘도 된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저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도 저 우선적인 인간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를 개혁해야 해, 하지만 내 부동산은 건드리지 마, 교육개혁은 해야 혀, 하지만 내 아이는 '면접'만으로 좋은 데 가야 해 이게 그들의 진심 아닌가?**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의 본질을 슬그머니 "그러니까 xx당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괴상한 정치적 문제로 환치하는 것이다. 말하지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청년들에게 경제, 금융, 법률 공부를 더 시키라고 하면 된다.

제3장

중2론

3.1 [중2론 001] 원인이나 결과나

2016.04.04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물론 이 글을 쓰는 작자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경제학 개론을 대충 훑으면서 독과점 시장의 메커니즘을 논하지 못하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나 얘기한다든지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민주정과 간접 민주정의 차이를 말하지 못하면서 위임 민주주의가 뭔지 괴상하게 얘기한다든지.

대충 책을 읽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지식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토하지 못 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는 거창하지만 실제 문제해결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개인으로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경우다. 차라리 그런 메시지를 구사하지 않았으면 현시창인 것을 알고 반성이라도 하겠지만

현실의 중2병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중2병이 정말 무서운 건 평생 갈 수 있단 것이다. 그 상태로 나이를 먹으면 ”자살”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외치거나, 오늘 아침 뉴스처럼 염산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중2병은 나도 결려본 적도 있고 지금도 결려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라고 여기기에 적어본다.

중2병 증상 1 : ”원인을 찾아보자고 해놓고 과거에 집착하고 타인을 원망한다.” 원인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 다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바로 기계적 대사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이지.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이지. 아울러 과정이 중요한 것? 그거야 앞으로의 많은 시도에서 역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닌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원인과 과정도 역시 결과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수는 이상하게 원인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성적 사고를 하고 독립적으로 행

동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런 메시지를 주입한 현자들께서는 겉보기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라... 는 좋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인' 분석이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전락하기 좋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입시에 실패한 n수생은 그 원인을 찾는다 해도 자기 탓을 하겠나? 결국 가족이나 친구나 담임 탓을 하겠지. 원인 분석이 외부나 타인에 대한 책임전가로 이어진다면 이건 하나마나 못하게 된다. 과정에 대한 강조가 역시 그렇다. 입시라면 일단 붙는 게 우선이지, 무슨 사이비 교주들의 강의나 교재를 완벽히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n수생들을 보면 반드시 아무개의 xxx 를 봐야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과정을 강조하는 사고의 결과물이다. 혀영심으로 점철된 완벽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시험에서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에 잘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교재 때문일까? 아무개 강의를 안 들어서? 평가원 탓일까" 이처럼 안 되는 원인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원인도 찾지를 못 한다. 결론은 일본을 공격한다 식으로 외부와 타인을 탓하는 걸로 바뀐다. 자, 이런 태도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실제로 원인이 파악된다고 치자.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술먹고 와서 밥상 집어던지는 아버지가 문제였다 치자.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나? 우선 과거의 문제인 이상 타임머신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아버지 먹살을 잡고 과거를 돌려내 라고 한다고 배상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나? 문제 해결을 하려면 바로 그 때 했어야 한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들을 한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높일까", "어떻게하면 지금 반수하는 상황을 극적인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만점을 불 가능하지만 국영수 -1 선방하는 결과는 낳으려면 뭘 보충하면 될까"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사람들은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질문한다. 어차피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도 바꿀 수 없다면, 처음부터 결과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게 맞다. 둘 다 시간과 노력이 든다면, 결과 쪽에 초점을 두는 편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2병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조차 뭔지도 모른다. 아니, 입시를 계속 치는데 왜 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래 언제 어디서 어떤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을지, 무얼 하고 살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지 물어보면 답을 못 한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어차피 알아도 별 소용이 없는 원인에 집착해 외부와 타인을 원망할 바에는, 터무니없는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더욱 생산적이지 않나? 그럼 왜 어른들은 원인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그거야 당연하지, 그 사람들도 남에게 들은 이야기로 현자 코스프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이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 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 물론 실제 성공한 사람들도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그들의 이력을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부도덕한 시도까지도 한다. 이게 윤리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해 심지어 소신까지 포기하는 건지 해석하는 건 자유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닐 것이다. 다만 눈여겨볼 건 이들은 철저히 결과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브로커를 동원해 거액을 주고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라는 것을 애당초 거부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먼저 생각하고 고려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기여입학도 있기 때문이고 한국도 사실상 입학사정관제도나 수시입학제도가 부분적으로 그런 특징이 없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서이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처음에 고려하되,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안으로 대체할 것이다. 거액을 주고 입시 프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효율적인 사교육 코스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운신의 폭이 넓다. 생각해보면 부도덕해보이는 것이면 처음부터 무서워하고 내빼는 것보다는 어,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군이라고 검토해보다가 결국은 안 되겠군이라고 X표 치는 게 더욱 능동적인 윤리관이 아니겠는가? 실패했던 과거는 그냥 내가 왜 실패했는가 참조하기 위한 학습기간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한번 실패해보았다면 성공하기는 쉬워질 수도 있다. '실패한 것과 반대방향'으로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패를 반복하는 건, 그 실패한 과정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원인, 과거, 과정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벗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A란 코스로 실패했다고 치자.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결과를 위해서 A를 버리고 B라는 과정을 서슴없이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양민들은 자기가 모자라서 부덕하다고 하면서 **다시 A로 성공해보자**라고 노오력을 한다. 원인과 과거에 대한 집착은 '자기중심

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 원인과 과거가 이미 자아의 일부, 아니 핵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것이다. 이 때에는 "내가 만약 xxx이라면?"이라고 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행동해보는 게 낫다. 가령 "내가 만약 오바마라면"이라고 해보자. 밑바닥에서 놀다가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간 능력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기술해본 다음에 바로 그대로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델을 불러내는 것을 '모델소환술'이라고 해보자. 이 모델소환술은 비루하고 엉터리인 자기 자신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디센터술의 일종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콕콕에서 상담해주는 사람들도 이런 중이병에 빠진 분들이 없지 않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어떤 과정 자체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 이런 분들은 마인드를 바꿔 결과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야 한다.

3.2 [중2론 002] 먼 산일수록 작아보인다

2016.04.05

먼 산일수록 작아보인다. 작아보이니까 만만해보이고, 만만해보이니 쉽게 오를 수 있다 착각한다.

초보자, 초심자일수록 시험을 너무 만만히 보는 이유가 이거다. 아는 게 없으니 만만해보인다. 그래서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시간을 방만히 쓴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직접 오르는 건 정말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건 중2병 환자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교육은 실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창의성을 강조한다고 말로만 그려지, 실제로는 '결론과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 밖에 없다고 강조를 해대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메시지는 정말 그럴싸하게 소리친다, 하지만 "직접 해결해보라"고 하면 "자기가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나 거창하게 얘기한다. 그러다 루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사장과 알바의 태도를 나눠보자.

똑같은 시간 10시간이 있다. 알바는 두가지다.

하나는 대충 10시간동안 놀고 시급 챙기는 것이다 - 물론 오래 가지 못하고 잘린다. 다른 하나는 박카스에 레드불을 마시면서 10시간동안 졸라 일한다 - 인정받고 그 다음으로 승진한다... 는 옛말이고 더 착취당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시간동안에 자기 학대를 하려한다. 어른들은 후자를 강조하지, 물론 '알바'를 못 면한다면 나도 후자를 강조할 것이다.

반면 사장은 어떠니?

사장은 바로 얘기한다. "10시간 가지고 뭘합니까, 1000시간"은 있어야지 아니 그럼 시간을 어떻게 늘려? 무슨 상대성이론도 아니고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한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알바 100명 고용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고용 경제학적인 건 침묵하고 사장의 태도를 보자. 사장들이 그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이들은 그 10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려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수험에 대해서 알바와 사장의 태도를 보자. 게으름 피우는 알바는 대충 공부하다가 수험 맬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1수하면서 룰이나 하고 있겠지. 자기학대적인 알바는 대학도 다니고 반수한다고 할 것이다. 학점, 수험, 건강 중 최소한 하나는 아작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사장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나부터 계산할 것이다. 대가리가 금강석이더더라도 시간을 확보하면 해결된다는 수험 함수 정도는 알고 있다. 중요한 건 그 함수의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 정도 역시 알고있다.

작년 11월에 내가 +1수를 종용하는 낭만주의자로 오해받은 적이 있을 건데 그 때야 그렇게 권한 건 당연하다. 바로 결단 내려서 +1수를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내 주장에 반론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1수론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어서이다. 가장 곤란한 건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1수를 내가 권할 리는 없지. 지금 공부 시작하면 승산이 없지 않나. 가용시간 100일 정도인데 뭘 할 수 있지? 이 시기에 죽어라 일하면 된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알바 뛰어서 돈이나 벼는 게 낫다.

다른 데 돌아보니까 결국 11월부터 4월까지 날려먹고 이 시점에 공부하겠다고 부지런히 결제들 하는 사람들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구인 것이다.

3.3 [중2론 003] 전부 아니면 꽝

2016.04.10

1. 전부 아니면 꽝

이건 여러차례 얘기할 주제다. 특히 수험사이트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들이라서 그동안 흥미롭게 보았는데 슬그머니 다룰 때가 되어서 적어본다.

한국인(혹은 동아시아인)의 주된 멘탈리티 중 하나는 전부 아니면 꽝이라는 것.

– 서울 의대 아니면 그냥 재수

- 금수저 아니면 자살
- 목숨걸고 죽어라 하고 망하면 양 자살.

반쯤은 농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절반은 진담이 된다는 얘기다. 전부 아니면 꽝이라는 사고를 보면, 그 사람은 철이 덜 들었거나, 어떤 안전한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가 보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아직 한국사회의 정신적 성숙도는 낫지 않나 싶다.

전부 아니면 꽝의 문제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10번의 승부가 있는데 1번 지면 나머지 9번의 승부도 포기해버린다(실제로는 졸거나 하기 싫어서이다) 명문대에 가지 못 하면 인생이 아작나는 줄 알고 자포자기한다(그리고 자신의 쓰레기짓이 이유있는 양 정당화한다)

그것 뿐만 아니라 직업관도 그렇다. xx대나 xx과에 가지 못 한 나머지 직업은 망하나? 실제로 n수를 종용하거나 반드시 xx과에 가야한다는 것은 그걸로 벌어먹고 살고자하는 업자의 논리가 개입되어있다. 실제로 더 잘 별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 하는 블루오션일 것이고 그걸 발견하기 위한 공부가 더 필요할 것인데도 마치 xx대나 xx과에 가지 못 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 역시 전부 아니면 꽝의 사고방식대로다. 여기까지의 객관적 기술을 보면 알 것이다. 과연 전부 아니면 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느 길을 가도 잘 될 수 없다는 것.

2. 평균적 사고

이 역시 합리성을 가장한 그럴싸한 사이비 판단이다. 예컨대 특정 직업의 연소득을 제시하면서 특정 직업이 아니면 살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언하는 것인데 재밌는 건 정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인생 경험(=즉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평균 말고 고려해야 하는 건 편차다. 연소득 평균만 보자면 왜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공무원을 현실적으로 선호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편차'가 적기 때문에 그 적어보이는 소득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업들의 소득은 그 평균 외에도 편차와 시계열 자료를 보아야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다. 평균적 사고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추세나 의미가 있다. 평균이 미래를 예측해준다? 그건 단순한 선형적 외삽법에 따른 결과인데 요즘 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이게 적중할 리는 없다. 통계자료에만 의존한 사고의 문제는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라고 '믿는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그냥 버리는 게 좋다. 과거에는 미래였을 현재의 흐름을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던가? 단지 추상적인 트렌드만 읽어냈을 뿐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언은 자기실현적일 수도 있다. 미래는 정보화 사회가 된다는 예언은 인력과 자본을 정보화에 쏟아부은 자기실현에 가까웠다라는 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평균적 사고는 모든 게 다 정해져있다고 가정하는 안일한 사고다. 이 역시 전부 아니면 꽝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에 사로잡힌 것부터가 이미 감염 대상이다.

3. 한계수익적인 사고

빵을 1개 먹을 때는 +20, 2개 먹을 때는 +10, 3개째 먹을 때는 +5, 4개째 먹을 때는 0, 5개 먹을 때는 -5. 이런 경우 빵을 4개까지 먹는 것이 바로 한계수익(혹은 한계효용적)인 선택이다. 전부 아니면 꽝, 평균적 사고에 사로잡힌 중2병 환자들이 탑재해야 할 것은 바로 한계수익적인 사고다.

어떤 행위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자, 자기가 꿈꾸던 목표가 물건너간다거나, 자기가 생각한 평균치에 미달하더라도 실망하지말자. 다만 그 행위를 하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수능시험에 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면 어제보단 똑똑해지는 것 같다. 그럼 수능공부를 하면되는 것이다. 쓸데없이 놀거나 방황하는 것보다는 책 한자 더 읽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반면 더 나은 선택안이 있어서 - 자기가 보기에는 양 장사하면 더 많이 벼는 게 분명하다 - 수능공부 대신 장사를 해야한다. 그런데 기존에 해둔 공부가 아깝다... 라고 하면 서슴없이 장사를 하면 된다, 어차피 기존에 한 수능공부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이다.

한계수익적인 사고는 상식에 어긋나보인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 판단만 한다면 매일매일이 '플러스'가 남는 선택이다. 남들이 xx가 좋다고 하던, xx 계통이 암울하다고 하든,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이익을 거두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정반대로 전부 아니면 꽝이라고 샤우팅을 하거나, 자기 선택이 평균보다 높다고 자위하거나 아니면 낮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가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쳐진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마이너스를 알면서도 자기가 선택을 잘하면 '평균이 높아지니' 상관없다고 착각하는데 하루하루 플러스도 못 하는 사람들이 횡재를 바라는 꼴이다.

즉,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면 된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퇴화한다면 심각한 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자기 진로가 어떻든 한계수익적인 사고에 따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사는 걸로 1년이 지나면 무섭게 자라있을 것이다.

3.4 [중2론 004] 선택은 기회비용

2016.04.11

기회비용 : A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높은 것을 포기한 비용

가령 수능을 실패했는데 서슴없이 군대가라고 조언하는 케이스는 어차피 군대를 안 가고 공부해보았자 2년 허송세월할 게 너무나도 뻔해보여서입니다. 이 경우는 군대를 가는 대신 공부를 2년간 유보해도 잃을 게 없으니 기회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군대에 안 가고 공부를 한다면 기회비용이 역으로 커지겠죠(일찍 갈수록 좋으니까요)

선택장애를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기회비용적 접근입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하면서 A의 가치, B의 가치를 논하는 건 자기가 고려하기 어려운 C, D, E... 등을 누락시키는 문제가 있죠. 그 경우에는 A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만 하는 것의 가치, B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수라는 친구가 대학교를 포기하고 쌩n수를 한다고 칩시다. 쌩n수를 하면 이 친구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 이외에도, 그냥 일함으로써 별 수 있는 근로소득, 혹은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아니면 창업해서 대박내기 등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철수는 쌩n수해서 성공했을 때의 가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상당한 문제가 있죠. “n수해서 실패해도 본전”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100이라는 효용을 얻으면, 실패해도 제로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특정한 사업을 벌여서 +10000000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는 -1000000이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라면 합격하더라도 손해긴 하겠지만요.

물론 이런 접근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역시 자기 책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무엇인지는 자기가 스스로 조사하거나 공부해서 파악해야하니까요. 가치라는 게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가치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빠른 사람은 n수의 문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n수의 기회비용이 역설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재수할 때에야 아직 짚고 (!) 게다가 꿈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선택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의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나 삼수, 사수, 오수... 가 되면 나이는 먹을대로 먹고 본인의 몸값이 낮아지므로 선택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 더 공부한다고 해도 잃을 게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특정 선택을 함으로써 잃는 게 크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희망'인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n이 늘어날수록 나아지겠네요...라는 바보같은 질문은 없길 바랍니다. n수생은 결국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산이 줄어들어 이미 마이너스를 찍은 상태라서 잃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금수저라면? 슬프지만 이 경우라면 n이 늘어나도 상관없을지도 모르죠.

3.5 [중2론 005] 돈을 버는 방법

2016.04.25

1. 수입을 늘린다
2. 투자한다.
3. 지출을 줄인다.
4. 부잣집 사위 혹은 며느리가 된다.
5.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부자집에서 태어난다.
6. 한건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뭔가 이상한 게 있지만 넘어 가면, 돈을 번다는 건 결국 저축한다와 똑같은 의미고, 저축하기 위해선 이 3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첫째 수입 늘리기.

회사원 - 출세, 야근수당 이직등 부업 - 알바, 책 쓰기, 인터넷 사이트 제
휴광고 창업 - 치킨과 편의점

인간의 노동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이다. 당장 외노자를 쓰거나 기
업을 해외로 옮겨도 인건비 절감이 된다. 전문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하
지만 그건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 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어지간해선 찾기 어렵다. 부업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이 역시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 창업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둘째 투자하기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판돈을 잃거나 돈이 묶여버린다. 기본 종잣돈과 공
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 돈을 날려버릴 수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와장창 받는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수능 최상위보다도
적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많이 벌었는데요.... 그거 얼마나 걸렸나 물어보
라, 많이 잃다가 운이 좋아 대박 한번 터뜨려 만회한 경우다. 이 때 들어간
시간자원으로 따지면 투자가 아니라 노동이란 말이 맞을 것이다.

- 셋째 절약하기

의식주 비용, 유흥비와 온갖 소모품, 집세, 통신료 등

한달에 100만원을 벌고 50만원을 쓰는 사람과, 한달에 2000만원을 벌고
2500만원을 쓰는 사람 중 누가 낫나. 지출을 줄이는 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해 누구라도 실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
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돈버는 방법이다.

돈을 버는 건 고전적으로 저 3가지 틀을 봇 벗어난다. 그리고 저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건 절약하기, 즉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남들이 xx 샀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만큼의 지폐를 침발라 세어놓은 뒤 밤마다 만지면서 지출을 억제하면 된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구매욕이 드는 순간 바로 '일주일 지나서 구입하자'라고 장바구니만 등록해놓고 기다리는 게 바로 돈버는 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대들은 어떤가. 정말 뼈빠지게 아끼고 허리띠 조이면서 헬조선을 외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라 사정 어렵다는 말을 안 믿는 이유는 그렇게 힘들다는 사람들이 휴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비싼 커피숍을 애용한다. 우리 때는 이랬다... 하는 건 치사한 논법이라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내가 아는 한 지금 노년 세대가 바로 전셋집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는 아니었다. 그 분들 세대는 단칸방에서 출발해서 아끼고 또 아끼 모으고 또 모으니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그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한방'을 노린다. 그 한방이로또를 지르는 것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다.

가계부를 소프트하게 쓰면서 자기가 얼마나 쓰는지 기록하고 지출을 억제할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현금으로 모아두면서 그 지폐와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걸로 대리만족할 것.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숨겨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저런 걸로 알고 있다. 진짜 일부자들은 평소에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서 바겐세일만 찾아다니고 식료품도 마감 직전 마트에서 구입하는 아줌마들인데 이런 분들의 낙이 자기 전에 금고에서 두둑한 지폐/수표 다발을 꺼내서 한장한장 세고 후루룩 넘겨보고 스킨쉽(?)해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 순간 현란한 광고에서 나오는 '돈 쓰세요'라는 저주가 사라진다나.

그렇게 보면 사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는 매우 위험한 도구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는 돈이 숫자이다. 느낌이 없기 때문에 소유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소비'를 하려고 한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은 그 마이너스 액수가 자신의 피가 뺄리는 것인데도 그 액수가 늘어나면 뭔가 성취한다는 착각을 준다. 자기가 지출이 심한 사람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기보다는 숨겨진 비밀 장

소 같은 데에 지폐와 돈을 차곡차곡 보관해보고 만져보는 걸 권하고 싶다.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딨냐 하겠지만 이건 수학문제를 직접 손으로 풀어야 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지폐와 동전으로 실존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돈의 후각이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읽어낸다고 한다.

경제학 하나 배워본 적이 없는 복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잘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집에 미쳐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집값이 어떻게 오를지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성 특유의 직감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에 빠삭하다는 이론파들이 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오직 머리로만 느끼기 때문에 실체에 접근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모든 행위가 디지털적이다. 그래서 느끼지 못 한다. 이런 불감증에 메마른 자아는 촉촉한 소비에 유혹당해버린다. 그래서 빗쟁이들로 전락하고 만다. 서울 변화가 - 강남 신촌 등에서 여유있게 소비하는 남녀들을 보고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니다. 태반이 채무자들이다. 빚을 져도 부모에게 기대도 된다, 아니면 애인이나 미래 배우자에게 전가시키면 된다고 하는 쓰레기들도 널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저축 뿐이다. 즉 아껴쓰는 것이다. 부자처럼 살고싶다고 하는데 쓰기만 한다.... 남자는 농담 아니고 새우잡이배이고, 여자는 결국 결혼의 형태든 매춘의 형태든 자신을 팔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껴쓰고 또 아껴쓰면서 그로써 살려낸 현금을 만지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구두쇠가 되어간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타인의 소비를 내심 경멸해야 한다(내심 경멸하지 곁으로는 아무 말도. 사실 간섭할 권리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아껴쓰고 그 시간에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좋은 책을 구해 읽으며 자기 뇌를 강화하면 그 때부터 희망이 보인다.

”있는 놈이 없는 척 하고, 없는 놈이 있는 척 한다.”

적어도 돈 문제에서는 이에 버금가는 진리는 없다.

3.6 [중2론 006] 노오력은 어디까지 해야하나

2016.04.27

운은 비와 같다. 비가 내려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누구나 운이 좋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운을 담을 그릇이 없다. 그래서 그 운이 지나가버린다. 그릇을 만들지 않고선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데 어찌란 말인가.

운이나 노오력이 소용없다 이야기할 때는 그 화자를 반드시 본다. 그리고 정말 노오력을 죽어라 해서 인정할만한 사람인가하면 개인적으로는 단 한명도 없다. 패시브 독설 스킬이 있어서 자체하지만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다.

정말 노오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한 운타령을 안 한다. 운을 얘기하는 건 단 하나, 자기가 성공해도 겸손떨기 위해서이지. 노오력한다는 게 어느 정도 냐면 비가 내리는 데에도 기우제를 지내 신이 질려버리게 하는 정도다. 이들은 대개 괴물들이라고 불린다. 운타령사주팔자타령하는 사람도 이들 앞에서는 찍 소리 못 한다.

운이 있다고 해도 간단한 거다. 노오력을 해서 그릇이 그랜드캐년 수준이니 운이 좋으면 극대화된다. 운이 나쁘더라도 노오력으로 커버쳤기 때문에 잃을 거나 망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 운이 별 역할을 못 끼치는 것이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취업하기 위해서 저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노오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행운은 100배로, 불행은 1/100배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자체가 **타인을 감동시켜야** 노오력이다. 자기가 노오력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로 남들을 공포에 빠뜨리거나 감동시켜보았지 차분히 복기해보면 된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100명당 1명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다 **기득권**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이 직접 그 **기득권**을 경험해보았나? 사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 뭔가 조직생활을 하고 착취당해보아야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럼 반론은 꼭 경험해보아야하나요... 라고 하면 도대체 그 **기득권**이 그래서 누구냐... 라고 하면 뻔한 대답 나올 것이다. 이러니까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개나소나 **기득권** 드립친다. 그럼 그게 어디서 주입된 것이겠나?

그럼 타인을 감동시킬 정도로 노오력한 게 배신으로 돌아온 경우는? 없지는 않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걸 목격한 적은 단 한건도 없다. 그건 **기득권** 드립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기득권**을 욕하지만 곧 자기들이 그 **기득권**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꿀빨 수 있구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도 나름 속사정이 있구나를 알면서 **간사해진다**. 지금 갑 행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갑 욕 안 했을 것 같나. 며칠 전에 모 시사 프로에서 폭력을 비판하는 프로의 진행자가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더라는 게 제보된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해보면 세상은 의외로 공평한 것이다. 본인들이 인과관계를 따지지 못 했으니까 다 운빨인 걸로 착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필연적 인과관계라는 건 분명히 있다. 단지 그걸 본인들이 못 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운이 최고다하는 사람들은 '**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다**'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물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닌 이상 냅둔다. 그래서 망해도 그건 나랑 상관없지 않은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서로 경쟁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노오력해도 소용없다 운이 최고야 하는 걸 오히려 부추기는 게 좋다.

+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았자 소용없는 게 그건 대개 과거형이다. 운이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가하는 게 대부분 아닌가. 운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은 바로 점성술이나 사주팔자. 그런데 이걸 알아도 별 소용은 없다. 운이 좋다고 노력을 안 할 것인가. 그럼 운이 나쁘다고 포기할 것인가.

++ 내가 수험생이었다면 노오력해야해요 그딴 드립은 안 쳤다. 모두가 운으로 좌우된다, 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다라고 선동해서 경쟁자들 떨어뜨렸지. 실제로 중고딩 때 그런 일환(?)으로 만화책과 게임을 신나게 유포했으나 정작 공부하는 녀석들에겐 안 먹혔다는 슬픈(?) 후일담이. 청년들보고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라고 하면 이건 좀 흠좀무한 대목이지만.

제 4 장

헬조선

4.1 [헬조선 001] 로스쿨

2016.05.03

정치적 이야기하자면 20대들이 지지하는 모 정당이 알고보니 금수저만 좋은 일 해주었다는 확정적인 흑역사.

조선이 망한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국 망한 건 '신분사회' 때문이다. 신분사회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펼 수가 없다.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양반 자제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는 응시하기 힘들었다. 그러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이다.

적어도 일제시대가 조선보다 나은 것이 이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 공무원 시험에 양반집 자제라고 딱히 우대는 안 했으니까.

3·1 운동의 불씨가 남아 있던 1922년 순사직 경쟁률은 약 2.1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화정치가 본격화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았다. 1926년에는 856명 모집에 9천193명이 지원,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932년에는 854명 모집에 1만 6천193명이 지원해 19대 1로 경쟁률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순사 등에 대한 19.6대 1로 정점을 찍은 1935년 이후 순사에 대한 선호는 1936년 14.1대 1, 1937년 10.9대 1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경쟁률이 10~20대 1에 이를 정도로 순사직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장진은 "순사는 조선인 사회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권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분석했다.

일제시대를 거쳐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건 뼈아프지만 "일본식 교육 제도"가 반도의 병폐를 씻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혜택을 입고 정신나간 지식인들이 일제 잔재이니 고등고시를 청산해야한다 어쩐다 하지만 이런 출세우기 시험이야말로 헬조선의 악습을 막아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

순사 너무 까지말자. 금수저, 흙수저론으로 보자면 나름대로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구만)

로스쿨은 가장 한국적인 제도다. 곁으로는 공정한 척 하면서 결국 부모 빼 이 먹힌다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전통 음서제 그대로가 아닌가? 물론 이런 시도는 로스쿨이 처음은 아니다. 그 전에는 기여입학제가 있었으니까. 대학교 재정이 부족하니 돈많은 사람들에게 2~30억 받고 입학시켜주자는 것, 그러나 이 발상은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꼴보수정권 시절에도 통과되지 않던 것이, 기어이 가장 개혁적이고 서민적인 분 밑에서 어이없이 통과되었다. 더 빡치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터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입시비리가 의심되면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정말 국민여론이 장난이 아니었다. 예전에 이런 일이 터졌다며 장관 모가지가 날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다. 부정이 있지만 입학취소 불가요 ~ 법이 그런 걸요. 예체능은 왜 예외냐고 하지만 그건 간단하다. 이 분야는 양 실속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덜 하니까. 하지만 의대나 법대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분야다. 거기에 부정입학자가 있으면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로스쿨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시비중이 줄어든 지금의 입시제도 역시 그렇다. 극단적으로 말해 학생들이 공부는 덜 하고 스펙쌓기만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시 문이 줄어드니까 뒤늦게라도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은 좌절해서 공부를 포기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 서포트로 스펙 쌓아온 친구들은 자기가 뭐라도 된 양 귀족처럼 군림한다. 헬조선 미래가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다.

이른바 일제 잔재 청산하고 개혁한다는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났다. 물론 그들은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변명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취지가 안 좋은 게 어딨나.

정치 얘기하자면 헬조선하면서 특저 정당 지지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

는 게 그렇다능. 저 로스쿨 제도 그 특정 정당이 강행하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 이게 로스쿨로만 끝난 게 아니지. 교육제도 전반을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렸다능. 수능 등급제나 등록금 폭등은 어휴. 역설적으로 그들이 비난했던 '먹방의 달인' 모 대통령이 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는 흙수저를 배려한 정책을 펴 으나... 욕먹는다. 이 친구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주입받은대로 호불호를 나뉘고 정의관을 주입당한다고보는 강력한 증거다.

지금이라도 그냥 일제시대 스타일로 가는 답이겠지만 그렇게 해줄 리는 없지. 그들이 신경쓰는 건 이 부와 권력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세습시켜주느냐....인 것이다. 이건 한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흙수저 녀석은 절대 올라오지 마라...는 것. 그래서 그런 시험제도를 하나하나씩 없애버리는 것이다.

4.2 [헬조선 002] 도서정가제

2016.05.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1_0014057073&cID=10701&pID=10700

출판시장 정상화.... 는 커녕 제대로 출판사들을 엿먹였다. 안 그래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판에 책값을 정가로만 받겠다는 데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열 일이 없었고 그로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중고서적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알라딘 헌책방만 잘 나가고 다른 서점도 허겁지겁 중고책 매매에 뛰어들게 되었다.

도서정가제를 밀어붙인 모 국회의원이나 어느 출판계 거물께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알면서 인터넷 서점 밀어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사실 정가제로 개인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다. 수학 참고서나 일본서적 구매

빼고는 새책을 구매하지 않거든. 북코아 아니면 알라딘에 나온 헌책 중 절판되어서 구하기 힘들거나 알고보니 명저인 것만 구하는데 신간 서적 사는 15,000 원이면 과거의 좋은 책을 5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 새 책에 연연할 필요가 사라졌다. 수학 참고서도 이제 구매할 건 별로 없고 웬만한 건 지역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신청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과거에 교보문고나 반디앤루니스에 자주 갔다면, 이제는 깨끗이 정돈된 알라딘 헌책방에 간다. 보지 않는 책을 잘 선별해 팔아도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고객 대부분이 나랑 같다면 출판사들은 어떻게 되나. 죽어나는 거지. 이런 이상향을 구현하신 출판 관계자 분들은 여전히 뽕에서 못 깨어나셨는지 완전 정가제에다가 중고시장 규제까지 하려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주제에 무슨 독자들에게 책의 향기니 하신지 모르겠다. 멋대로 가격규제해버리면 부작용 일어난다는 것이야 상식 중 상식인데 그걸 몰랐나. 단통법이야 통신 시장이 워낙 비 탄력적이니까 효과가 있다 치자(그래보았자 대기업 배불리기겠지만) 안 그래도 미디어 소비 스타일이 바뀌어서 책값 낮춰도 모자랄 판에 정가제 실시하면 사람들이 책을 읽겠니.

어설픈 정의관 토로하지 말고 그냥 냅두었으면 시장은 나름 균형을 찾았을 텐데 출판사 살리겠다고 하다가 시장교란시키고 대형서점만 배부르게 한 책임은 누가 지겠나. 헬조선에서는 그딴 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저 뉴스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하신다.

그냥 정가제 철폐하면 되잖아.

정말로 웃긴 건 현재 가장 이득을 본 알라딘은 도서정가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4.3 [헬조선 003] 공대의 황혼

2016.05.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4/2016050400298.html

공돌이가 그만큼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나니 몸값은 싸진다는 건 당연.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 의치한이나 로스쿨 정원 늘린다고 했으면 바로 시위했을 텐데.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시위도 못 하고 아 그런가보다라고 얻어맞는 불쌍한 공돌이들.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은데 이걸 더 늘린다.... 이제 공돌이면 취업 잘 된다라는 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음. 곁으로는 수험생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학교들이 정원감축 안 하면서 먹고 살려는 꼼수.

4.4 [헬조선 004] 과학만능주의

2016.05.04

간단히 말해서 과학은 만능일 수가 없다. 추상적이고 100% 완결성을 꿈꾸던 수학조차도 그렇지 않은데 과학까지도?

혹시 사태로 정부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과학만능주의를 은폐한다. 과학은 완벽할 수가 없다. 오히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줄여나가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런데 정부만 탓하는 사람들은 정작 과학을 종교화한 케이스는 말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의 과학은 자본에 놀아난다 학계는 돈을 대주는 자본에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연구 결과 조작이라거나, 조작이 아니더라도 편향적인 방향의 연구 자체는 전문가 빼고는 검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 사태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다. 사진 복붙인 것을 다른 전문가들이 눈치끼고 제보했다. 처음에는 주류언론과 정부조차도 음모라고 일축했으나 그 언수가 '해외대학'에 제보될 정도가 나서야 그 공범이 시인해버렸던 것이다. 믿

거나 말거나 난 당시에 황우석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했다. 물론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바로 태도 바꿔 그럴 리 없다라고 한다. 이 패턴이 옥시 사태에도 반복된 것이다.

전문가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나 종속관계'가 없는 평행 세계의 전문가 혹은 죽은 전문가라면 말이지. 장사해야 하는 현실 속의 전문가라면 우선은 의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과학만능"을 주장하면서 그래도 전문가를 믿어야 한다, 이게 다 정부탓이라고 말 한다. 아니, 그럼 당시에 문제의 제품을 승인한 정부관료들이 전문가 말을 그럼 안 들었겠나, 그리고 옥시 업자들이야말로 전문가 아니었나?

과학이라는 미명 하에 자사 영업에 불리한 담론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지금 비과학이 문제겠나. 한국사회에서의 과학은 판타지이자 스테레오타입 그 자체인데? 역으로 광우병은 어땠나. 사람들에게 생소한 온갖 전문용어로 범 벅되어서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해댄 담론이 무한증식하지 않았나. 그 당시 광 신도들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안전했다고 변명하는데 헛소리다. 그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에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옥시 제품의 문제를 발견하는 전문가는 그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전문가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건 바꿔 말해 이 문제를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논란이 되는 이야기하자면

고교과정만 배우면서 '과학이 만능'인 줄 안다거나 어떤 분야의 실무건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실무가들은 자기 하는 일도 바빠서 그걸 판단할 겨를도 없고 그럴 이유조차 없다. 대학원생 이상급이 되면 언행이 달라지는 게 있다. 정말로 전문분야로 가면 매우 소극적이 된다는 것. 반드시 ~ 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고 이론이 설명하지 못 하는 예외적 현상이 많다. 전공자들이 밥벌이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바로 그 예외다.

다른 걸 떠나서 옥시만 문제겠나. 지금 언급되지 않지만 '전자파' 공해 문제도 부각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것도 털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애시당초 흡연의 암유발도 과거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미국에서 뒤늦게 인정했는데 그건 이미 미국의 담배회사가 해외로 눈돌린 이후였다(즉, 뽕뽑을 만큼 뽑고나서야 정의를 실천했다는 미담이 되겠다)

4.5 [헬조선 005] 전문가

2016.05.06

현실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바로 악의 세력인 경우가 많아서리. 사태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논리가 ”이게 다 검증 잘못해서이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라는데 그런 사태가 전문성이 없어서 터졌다며 맞는 말입니다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죠.

1. 황우석의 줄기세포 : 이 때 전문가들이 바로 황우석 집단이었죠. 국내에서는 검증 사실 불가. 해외에 알려져서야 실토판했습니다.
2. 후쿠시마 원전 : 도쿄전력 인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었나요?
3. 옥시 : 그 전문가들이 주범이었고 전문가 중 전문가인 교수들이 돈먹은 정도 포착되었는데요?

그럼 이건 전문가들의 문제. ”그래도 전문가들에게 검증만 맡기면 된다”라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는 주체를 다각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해당 지식의 접근 권한부터 시작해 권력을 산학연정만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 문제도 해당 산업과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의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류학문은 죄가 없다... 이게 신기하지 말입니다. 인문 사회 과학이 자연과학이나 공학보다 나은 건, 적어도 '분식 가능성'이나 '거짓말'은 인

정해요. 하지만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그걸 별로 다루지 않죠. 과학자의 윤리나 공학자의 윤리 그 정도로나 이야기하지 그 외에는 짹 침묵. 생명과학의 잡다한 유전을 배우는 사람은 많아도 '리센코' 사건 등을 배우는 사람은 없죠(모르는 사람이 많을 듯)

혹시 사태는 검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은폐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한두번 수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고.

사실 거창하게 말할 필요없이 우리 주변의 전문가들도 다 알게 모르게 소소하게 남겨먹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리. 업자-고객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거짓말해먹는 게 일상임. 재밌는 건 자기들도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사기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어제 인상깊게 읽은 뉴스가 있어서리.

<http://www.nocutnews.co.kr/news/4589174>

세무조사 관련 내부 비리를 폭로해 시민단체로부터 상까지 받았던 대전의 한 세무서 간부가 뇌물수수 비리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 등을 가르쳐 주고 금품을 받은 대전의 한 세무서 간부 공무원 한모(59)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한씨는 지방국세청 감사계장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말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 상부의 압력으로 대기업 4곳에 대해 추징한 세금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내부 고발을 했던 인물이다. 한 씨의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수사 결과만을 볼 때는 영웅의 추락이라는 탄식을 듣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웅의 추락 어찌구 하는데 그건 알 건 없고 (젊은 시절 영웅 아니었던 독재자가 있으랴) 세무서 간부면 전문성과 그 분야 권력을 줘고 있으니 저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싶은데 말입니다.

4.6 [헬조선 006] 관료주의

2016.05.11

앞서 과학에 대한 글을 썼을 때 그것이 실은 '관료주의'라고 지적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합니다. 전문가만 믿으면 된다는 그럴싸합니다만 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건 '관료주의'를 공고히 믿는다는 것이지요. 현실 세계에서는 결국 '직위'가 높은 사람들의 권력대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성을 담보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 뜻대로 따라갑니다. 이로써 보이지 않는 관료주의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과학이란 말이 나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과학이냐고 얘기하려면 정말 그게 과학적이냐,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성찰이 담보되는 것인가 얘기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눈속임으로서의 형식화된 과학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반론을 차단하는 스테레오타입화된 과학이 되는 것이지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관료주의가 '과학'이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고나 성찰은 관료주의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한데 이야기해보면 본인들이 관료주의적인 것에 빠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검증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인정했으니 닥치고 믿으라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문가도 납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소통이 있어야합니다. 물론 그 정보공개와 소통까지도 거부해버리는 음모론자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관료들은 정보공개를 싫어합니다, 정보가 공개될 수록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과학 말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역시 거죽인지 아닌지보려면 정보공개가 되어있는가 그걸 따지면 됩니다.

거창한 담론을 떠나서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건 '관료주의 수혜자'가 되는 것과 동급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입적 측면 이외에도 사람

들이 공무원, 변호사, 의사에 몰린 이유는 가장 '관료주의적인'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서열화가 되어있다, 둘째로 정보가 폐쇄적이다, 셋째 그들만의 리그가 가능하다. 이러니 충분히 갑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일반 양민들을 속이면서 착취할 수 있다는 특성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국 현실과 교육의 괴리가 드러납니다. 현재의 역사적 흐름은 관료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료제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관료제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 시장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서 다수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대가 오고있죠. 하지만 교육은 여전히 '관료'를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등수를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력의 서열화 자체가 예비 관료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예고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졸업하자 관료주의적인 것의 붕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교육은 시장(market)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고 특히 메이커가 되는 것 역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돌이켜보면 이건 '상위 관리자'를 키우기 위한 과목입니다. 시장을 공부하려면 경영, 경제, 컴퓨터, 온갖 공학 기술미술, 제2외국어 등을 어린 시절 부터 배워야하는데 이상한 게 아닌가요? 물론 국영수는 관료만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런 관료주의적인 틀을 그 피지배자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도 하죠.

나이쳐먹고 나니까 더 빠딱하게 봅니다만...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 분들의 양심도 일부 없지는 않지만 본심은

- 복종하라

- 내놓아라

- 의심하지 마라

사실 이 3가지입니다. 저 중에서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져주겠다'라는 건

없습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이 헬조선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노오력을 하고 있고 그로써 저 관료주의가 단기적으로는 지탱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공부해 출세해 올라간다... 라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하지 않나 합니다. 아니, 저건 또 아직아... 가 아니라 저 발상 자체가 관료주의 시작이어서입니다. 이제는 금수저들이 스펙놀이로 관료주의적인 것을 유지하려한다면 흙수저들이 할 수 있는 건 관료주의가 덜 먹하게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걸 적는다면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은 흙수저들의 발등찍기라고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야말로 관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개방하고 경쟁시키면 관료제의 단꿀이라는 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이 악으로 포장되면서 경쟁을 줄이자라는 식으로 역으로 관료주의적인 것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짚은이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본의 음모를 막는다느니 이 사회가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한다느니 라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그걸 유심히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4.7 [헬조선 007] 민낯

2016.05.15

과거총정리 : <http://onepageinfo.tistory.com/74>

문예상 : <http://news.donga.com/3/all/20070215/8407888/1>

공부를 잘해 선생님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고 명문대를 나왔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에 지쳐 있던 어머니, 친척집을 전전하던 어린 시절은 스스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고 나서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을 받은 최 판사는 14일 통화에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외적인 조건이나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

개원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9458&type=Trends&tab=1>

그리고

체포 당시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위선자는 잘 걸려낼 필요가 있다. 똑똑하든 인격이 좋건 그건 상관이 없다. 첫째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리고 무서운지 알아야 한다. 둘째로 돈을 잘 다스리되 절대로 돈에 영혼이 팔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건 말만 쉽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위선자들은 경멸하는 걸 넘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관찰한다. 관찰기간은 1~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옛말은 정말로 틀린 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걸 부러워하는 척만 해야한다. 그 무대의 2편에서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몰락하는 장면이 그려질 수 있어서이다.

흔한 경제, 경영 퀴즈에서는 이런 이야기만 한다. 10%의 100억이냐, 100%의 5억이냐. 그리고 전자를 택해야한다고 말한다. 계산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런 퀴즈의 문제는 항상 그렇듯 숫자 이외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일단 저 퀴즈만 가지고는 정답을 낼 수 없다. 문제는 도박으로 100억이냐 안정적으로 5억이냐 그게 아니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그런 배포와 기량이 있으며 그릇이 크냐, 그리고 정말로 돈에 끌려다니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다.

돈은 일종의 흐름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라고만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능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 무능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는 것이다. 돈의 액수만 신경쓰면 나쁜 흐름이 뭔지 알지 못 한다. 막말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소녀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막상 오피스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그만두지 못 한다. 그 돈이 너무 달콤한 나머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쁜 흐름을 탈 때에는 조기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 권력과 돈과 섹스의 흐름을 잘못 탄 사람들은 정말 헛가닥 맛이 가버린다. 자기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할 것이다.

돈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나쁜 흐름을 타면서 많이 버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으면 '똑같아'질 수 있다.

4.8 [헬조선 008] 혐오발언은 계층화의 시작(메갈의 탄생)

2016.05.19

본격적으로 여혐 증후군이 터진 것은 1999년 군가산점 논쟁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하면 그 당시 헌소를 제기했던 이대 학생 편에 셨던 '이석연 변호사'조차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있어야한다면서 이걸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잘못된 처리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여자들도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높아지는 등 남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남자 조건 따지면서 결혼하는 풍토가 덜 했는데 IMF 이후부터 여자들도 남자들의 스펙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짹짓기하지 못한 '루저남'들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에서 여혐이 보편화된 것이죠. 된장녀 논쟁이 그렇게 터지고 최근에는 김치녀 담론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갈을 통해 남혐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수 멧돼

지(...)들의 소행만은 아니죠. 다 은밀히 공감해주고 있으니까 세불리고 여론전에서 한몫하는 게 아님? 그럼 남혐이 왜 생겼냐, 위 공식대로입니다. **여자들도 이제 루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몸만 오면 받아준다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외모, 키, 사이즈 뿐만 아니라 집안, 학력, 소득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루저녀들도 생겨납니다. 골드미스니 그런 건 환상이고 이제 여자들도 30대 건어물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것이죠.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신랑 감들은 모조리 20대 초반 여자들에게만 관심있지 20대 후반 루저녀는 관심이 없죠. 육체나 실력 면에서 좋은 남자에게 채택받을 수 없는 루저녀들이 어디다 화풀기 시작하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혐하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메갈의 탄생을 좋아(?)해야 할지도 모르죠. 여자들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정사갤, 코갤, 그리고 일베의 루저남들 주장은 그거잖아요. **여자들은 결국 우리 루저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건 메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차별받으니 사회적 약자이니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걍 남자들이 호구가 되어라.** 물론 조금만 생각하면 저 주장이 터무니없는 걸 떠나서, 현실화 되기 힘들지요.

사회 현실은 어떨까요. 위너남은 위너녀랑만 결혼을 하려 합니다. 위너남 입장에서 루저녀는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 '1회용품'입니다. 루저남이 위너녀랑 맷어질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합니다(이 환타지가 일본에서 히트쳤던 드라마 '전차남'이지요) 그리고 루저남이 루저녀랑 맷어진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현실을 개혁하자... 는 것도 판타지고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열심이 노오력해서 루저가 되지 않는 길 밖에 없다... 그게 답입니다. 위너들끼리야 서로 하하호호할 터이니 혐오발언이 생기겠습니까. 위너남이 위너녀에게 더치페이타령하겠습니까.

그러니 루저가 되기싫으면 혀소리하지말고 공부나 하라 6평 틀린 갯수에

1000을 곱한 만큼 뛰고 와라하는 교훈적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갖는 사람들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태풍이 불 지경임.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루저가 되려는 분들은 사람들로 안보임.

+ 과거에는 몸만 가면 받아주었느냐...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랬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첫관계하면 무조건 결혼 확정임. 뭐 예외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분위기였음. 어떻게 보면 미개하다가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스펙을 따질 수가 없죠. 스펙 따지는 것도 연애를 많이 하고 그 후보들을 비교해봐야 가능한데 처음 만난 이성과 19금 가고 생식코스로 가는 데 그럴 겨를이 있음? 그런데 지금은 '연애'란 이름 하에 각자 시제품을 이용해보지요.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니까 남녀가 위너, 루저로 갈라지는 겁니다. 2000년대까지는 여자들이 유리했음. 왜냐면 남자들이 권력을 잃어가던 시기였고 여자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흐름이었으니까. 그런데 2010년부터 이게 역전됩니다. 여권신장도 거의 끝났고 남자들도 영악해졌음. 게다가 서로 눈맞아 어찌구한다... 는 건 냉정히 말하면 남자들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루저녀들이 더 생겨남요. 경제력있는 남자들은 한참 연하만 바라보고 있음. 그래서 그 와중에 버림받은 세대녀들이 메갈리안 쪽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요.

++ 남혐을 하건 여혐을 하건 메시지 뿐인데 그게 뭔 상관있다고 그러시는 지들. 그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전 남혐 발언도 양 어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경청할 건 경청함. 그런 극단적인 발언들일수록 오히려 진실된 측면도 없지는 않거든요. 루저들은 혐오발언 해보았자 사실 달라지는 건 없고 자기 인생만 낭비된다는 것을 알지 못 하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백배 나을 건데. 사실 메갈에서 활동하는 그 코어 분들이야 10년 전이야 짧었으니까 아무 노력없이 '젊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먹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세상 참 잔인한 겁니다. 어차피 남자 여자 모두 나이먹고 노화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 그걸로 벼텨야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기 몸뚱이만 믿고 여성들의 공산주의 폐미니즘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다가 정신차리고보니 뭐.

+++ 그리고보니 흄촘무한 게 성형수술 유통기한도 끝나갔다는 것도 참. 2000년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실리콘밸리에 투자해서 몸값 높여서 갔는데 그것도 약빨이 떨어지기 시작할 시점임. 반면 그 때 루저들이라고 까인 남자들 중에서 죽어라 공부해서 뒤늦게 올라간 사람들은 한창 어린 여자 찾기 시작할테고 광 돌고도는 자본주의 사회 순환 법칙임.

++++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순결이란 게 저런 스펙싸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역설적으로 해주었다는 것도 재미있네요. 왜냐면 지금 기준에서 예쁘고 키 크고 사이즈 좋은 여자들은 연애경험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순결론자 입장에서는 slut이라고 까이면서 강제적인 '평등'이 이룩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니까 저런 여자들이 연애경험이 많은 적든 잘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지적하고 예측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음.

+++++ 대략 지금 20대 초반까지 여성분들은 윗 세대와는 다를 겁니다. 세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 윗세대부터가 문제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거라고 여겨졌는데 이미 되었다고 생각함. 그 세대가 메갈 등을 중심으로 아랫 세대들도 같이 엿먹여보자고 선동하고 있는데 그 아랫 세대도 호락호락할 리는 없죠.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야 '여권신장'의 흐름을 타고 올라간 세대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다고 보기는 힘들 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력도 없으니 지금 도태되는 거지. 경쟁하지 못 하니까 여자들은 약자거든요.. 라고 하면서 받아먹으려고 함. 그런데 그 아랫 세대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 받으면서 경쟁에 익숙해졌음. 경쟁을 당연히 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권리 쟁취를 하지 윗 세대처럼 여자들이 약자 타령은 별로 많이 하지 않을 것임.

그러니 기승전공입니다, 공부나 합시다.

4.9 [헬조선 009] 산부인과 참관문제

2016.05.23

이건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학병원이 갑자기 의대생들이 들어와서 환자 몸을 사실상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다 대학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논리는 좀 아닌 듯.

”동의하라고 하면 다들 어차피 동의 안 할텐데 그럼 교육은 어찌하냐”

저 얘기부터가 환자들이 수치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는 건이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무슨 무급봉사직도 아니고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하다 못해 그 의사들부터 그럼 자청해서 교육을 위해 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다시 말해 의사 사모님들부터 그 학생들의 참관 대상이 대든가 해야죠.

그리고 만약 환자가 VIP라거나 상류층 여성이라도 참관 시킬지는 의문이지 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면 하겠지만 인간이라면 저럴 가능성이 적죠. 일반인들도 수치심을 느끼는데 VIP나 상류층이 잘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돌아보면 ”의사님들 마누라, 여동생, 따님부터 교보재로 쓰세요”라는 댓글에 대답은 전혀 못 함. 그저 한다는 이야기가 동의 받게하면 교육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의료가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특권의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다른 직종조차도 당연히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이 정도로 동의 안 받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님들이 힘들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이죠. 문제는 의사님들이 일 힘든 건 알지만 ’무급봉사’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리.

이 문제는 의사님들 마누라 여동생 따님부터 VIP, 상류층 여성, 심지어 대통령 장관 재벌 여성들도 '교보재'가 되어주면 깔끔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 해서 말입니다.

4.10 [헬조선 010] 시체팔이

2016.05.23

시체팔이의 근원은 유교이지요.

유교에서 뭐라고 하던 그 핵심은 "장례"이죠. 어떻게 상을 치를 것인가, 그리고 그 족보를 짤 것인가 하나 가지고 정치경제문화를 모두 쌈싸먹으니까요 물론 모든 시체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혈통이 좋거나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시체만 취급해오지요.

우리나라에서 볼만한 문화재라는 건 유감스럽지만 산 자보다는 죽은 자를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온갖 왕릉과 사찰도 그렇고 병풍 족자 그림 대부분이 무덤과 관계없는 게 없습니다. 수원성조차도 응건릉을 위한 것이었죠.

죽은 자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돌아가니 조선이나 중국이나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망자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시체팔이는 매우 기막힌 사기캐입니다. 비판이나 반론을 원천차단하거든요. 죽은 자를 추모한다는 명목 하에서 상궤를 벗어난 일을 해도 제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하면 고인모독이라고 탄압받습니다.

조선이 백성을 위한 나라였다고요? 이미 썩어버린 왕족과 양반들의 시체를 위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엘리트들이 몰두했던 음양오행과 풍수지리는 조상을 좋은 데 잘 모시면 자손들이 발복한다라는 믿음 하에 죽은 자에 치중해있었고

그래서 뒷자리를 둘러싼 산송문제가 정말 지겹게 일어났다 하죠. 풍수지리도 만약 산 자를 위한 쪽으로 나갔다면 그건 우연히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재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관념론으로 흐르고 그래서 별 이상한 것에 신경쓰기 시작했죠.

죽은 자를 위한 나라가 근대화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무리수입니다.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6.25까지 겪은 건 비극이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다. 왜구라고 비하하던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어이없이 죽어나가는 한국전쟁을 겪고 나니 '시체팔이'로 돌아가던 유교적 지배체제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쪽의 어느 나라는 공산주의 한다면서 '죽은 자'를 위한 나라로 되돌아가버렸죠.

요즘 와서 대한민국도 다시 그런 아름다운 전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런 식으로 '망자'를 팔아먹는 작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꽤 성과(?)가 좋습니다. 갓 쓰지 않고 도포만 입지 않았지 "죽음"을 이용하면 막 나가는 행패를 부려도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버린 거죠. 그동안 기쓰지 못하던 유교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종화되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요.

살아있는 사람은 평등해야한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도 평등해야 할 터인데 재밌는 건 산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차별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 점에서는 기독교가 지배했던 유럽이 나았던 건 적어도 얘들은 산 자여도 죽은 다음만큼은 평등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시신을 어디에 모시느냐 차이는 있어도 죽은 다음에는 똑같이 심판받는다 라고 하니 동아시아처럼 그렇게 극성을 부리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엘리트들이 예송논쟁 따위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본증식'에 신경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유럽 애들의 사정권에 들어산 시기에 개혁군주라는 정조가 막대한 예산으로 자기 아버지 묘에나 신경씁니다. 수원성? 지금 보면 꽤 유명한 문화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꽤 반동적인 군주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수가 정조가 개혁군주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할 말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널려있거든요.

+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이 죽은 뒤에는 과연? 들개나 물고기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요.

++ 수입 담론 + 시체 + 폭력사태 유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갑질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한두건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이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들어서리.

쓸모있는 담론이야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중력이 높으니 시체도 필요없습니다. 쓸모없는 담론들은 감정에 호소해야하고, 그 점에서 '죽음'과 '폭력' 만한 띄밥이 없습니다. 시위할 때 대부분은 시위대가 폭력을 조장하죠. 그래서 폭력사태 유발을 해서 시체가 생겼으면이라고 유도합니다.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면 애당초 폭력시위는 하지 않았지)

물론 경찰이 죽은 건 취급 안 합니다. 자기들 시체가 아니거든요.

제 5 장

etc

5.1 세상보는 가치관에 대한 지적

2015.08.11

대통령이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젊은이들 다 중동으로 가버리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대략 상상이 가시죠? ㅎㅎ 그동안 칼럼 읽으면서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정된 재화의 분배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는 도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재인 것을 알았기에 정말 딱 거기까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아니였네요. 제 댓글만 보면 아폭아재가 무슨 욕심덩어리로 보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에서 결국 탐욕이 승리하면 손쉽게 금덩어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시절 금덩이를 모두 득치지해놓고 금덩어리가 모두 바닥난 지금 마치 노력이 부족해 금덩어리를 못 얻은 것처럼 (노력한다고 없는 금덩어리가 생기나?) 젊은이들이 게으르고 배부르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니 노력해서 자기가 금덩어리 가져간게 무슨 문제냐? 아폭아재 말대로 정말 굶주렸던 시절 나라를 위해 힘쓴분들이 금덩어리를 많이 가져갔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아재들의 평균적인 사고는 1인 1금덩어리 하자는 이석기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폭아재 생각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북한의 모습이 나오네요) 콕콕려 여러분들이 아폭아재의 댓글들을 통해 재벌들이 왜 탈세를 밥먹듯 하는지, 우리나라의 왜 온갖 불법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땅땅거리며 잘 사는지, 어떻게 독재라는 틀린 방법이었음에도 결과가 좋았으니 (과연?)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깨달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 하고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호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 첫째, 기본적인 경제 관념도 없다. 부를 기득권이 독점하고 안 나눠주는 것으로만 착각한다.
- 둘째, 기본적인 논리도 없으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한다.
- 셋째, 느닷없이 박정희 이야기나 이석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꼴리는대

로 인신공격을 한다.

보통은 무시하면서 하지만 어차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었는데 – 정치적인 설득은 피하면서 – 그래도 설명해주는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 첫째, 제가 저랬기 때문임(그 때는 정말 세상을 선악이분법으로만 보았음)
- 둘째, 역시 단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익명의 댓글러를 통해서 극적으로 저런 오류에서 벗어났기 때문임.
- 셋째, 입시보다도 사실 저 이야기가 중요한 점들이 있기 때문.

우선 저 댓글러는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에 따라 굴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죠. 한정된 재화의 분배에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데, 어째서 조선이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런 역사적인 공부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똑똑했죠. 그런데 실학자들의 대안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였죠. ”한정된 토지의 분배” 즉, 재화를 늘릴 생각 자체를 못 했고 어떻게 하면 땅을 분배해서 ”다 같이 적게 먹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지에만 골몰해있었습니다. 그 때 서유럽은 이미 산업혁명 단계까지 들어서면서 – 물론 식민지 약탈, 착취와 함께 – 파이를 키울 준비가 착착 되어있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에 대해서 품은 증오감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1950년대 이후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런 식의 선악이 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독재가 잘못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독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에 대해선 말을 못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경제성장이 결국 ”피와 땀”을 ’착취’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진실에 고개를 돌리지요.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경제성장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니 인권타령이니 하는 서유럽 역사는 참 지저분하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기도 했던 – 박정희 비판자였던 정운현씨의 저서만 봐도 나와있습니다.

그 책 결론이 그거죠. 그냥 무덤 속 박정희 건드리지 말자. 애당초부터 까려고 집필을 시도했는데 정작 팩트를 발굴해보니까 깔 게 생각 외로 적고 왜 노인 세대들이 독재체제라고 해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저자 본인도 발견해버렸다는 걸 읽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글 한편으로 정리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아무튼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동화적인 이분법'으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로잡히면 20세기 공산주의 시행착오의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즉 폭력 혁명으로 혼란모니를 잡고 가진 자들의 재산을 털어 나눠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유치한 관념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 그거야 간단하죠. "저성장"이니까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 하니까 일자리가 없고 – 거기다가 하필 신기술들이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뺏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니까 1960년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중국과 동남아의 추격,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는 산업의 발달,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들. 이렇게 이미 다양한 이유가 나와있는데도 여전히 "기성세대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탓하는 이런 얘기는 조금만 반론하면 깨지죠. 흔한 예로 기업유보금이 있습니다(기업유보금이 뭔지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기업유보금 풀어서 복지 쓰면 된다라는 유치한 주장이 많죠. 그런게 그 유보금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 기업이 안 망하기 위해서 갖고있는 생명줄입니다. 흔한 대기업 죽이기에 동조해서 그런 것도 다 복지에 써서 기업이 망하면 그럼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죠? 또 흔히 이야기하는 사례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문제니까 세금 짙게 거두고 임대료 낮추고 그러자. 이 역시 경제학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종부세를 나름대로 거두고 있는 나라입니다(위헌적 요소가 많음에도) 세금을 올린다? 그 세금은 당연히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되겠지요. 권리금을 인정해준다? 그럼 임차인들은 봉이 김선달식으로 가공의 권리금을 만들어내겠죠. 아니, 그거 무서워서 세를 내줄까요?

경제라는 건 꽤 복잡다단한 시스템이고, 특히나 선한 의도의 시도가 좋은 결과만을 낳지 않습니다. 흔히 박정희를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친일, 독재, 불공정, 재벌 독과점을 졸졸 나열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 생각없이 다른 누군가 떠든 것을 그냥 받아서 얘기하는 수준인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한물 간 사상이란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나빠도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좋은 결과'라는 걸 낳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단 것입니다. 더 웃긴 건 결과만 좋으면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칼자루를 잡으면 "의도는 좋았다"란 식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나쁜 결과는 외면하죠. 더군다나 경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사실 저 글을 쓰는 사람은 과연 '헝그리하게' 살았을까하는 것은 역시 물어 볼 필요는 없을 건데 이 역시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다보면 철이 들겠지라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가 철이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는 대략 짐작이 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좌파니 우파니 사회적 정의니. 이거 신경을 쓰나요. 사실 철든 사람이라면 안 쓰죠. 왜냐고요? 그것들도 결국 누군가 팔아먹는 상품이지, 그런 것이 뭘 보장해준다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정의를 앞장세운 경우가 알고보니 더 많은 자본을 쟁기려는 시도였더라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분배를 강조하자 정의를 실천하자 하는 경우는 그 메신저가 정계 진출을 하는 건가, 아니면 엽관주의로 공직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하다 못해 대형출판을 통해서 인세를 쟁기려하는 경우인가 빼딱하게 보면 이 중 하나는 반드시 걸리더군요. 친일 논쟁은 더욱 가관이죠. 모 정당에서 친일파 공격하는 주체가 알고보니 정작 자기 조상이 친일파여서 역전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무려 40년 정도나 계속 된 조선-일본의 사례를 프랑스-나찌독일의 사례에 비교하는 것도 모순이거니와 정작 독립운동가들도 자기들의 혜개모니를 위해 친일파와 손잡지 않나, 서로 자기들끼리 암투별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면 흑백논리로 접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건가 깨닫게 됩니다(교과서로 배우는 근현대사는 정말이지 판타지이죠)

무엇보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군사정권의 문제를 깨닫고 박정희 개객기 어찌구 하는 입장이었는데 나이먹으면서 남의 부정 탓하는 자들이 정작 똑같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멘붕해서리 지금은 그냥 회색주의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재벌도 다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만약 한국이 1960년대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냐면 고개는 설레설레. 역사는 윤리와는 다르고, 특히 경제는 그것만의 로직이 따로 있다는 것. 이런 복잡다단한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을 흑백으로 논한다... 자기는 정작 고기 잘만 먹으면서 육식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성향이건 역사적 입장이건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입으로만 놀리는 자기 정의”를 남에게 강요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그런 데 호되게 당해보았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도 과거보단 나아졌을 것입니다만 대학에 들어가신 분들은 ’선배’라는 종자들에게 일종의 사상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온건 한 형태건 강경한 형태건, 알콜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혹은 남선배이건 여선 배이건 말입니다. 제가 보는 최악의 폭력이 사실 그런 것이죠. 스스로 돈도 벌지 않고 그저 문자로만 세상을 접한 사람들이 뭔 뽕이라도 맞았나 자아도취에 빠져서 후배들에게 너는 반드시 XX주의에 빠져야 한다, XX는 강아지들이니 무찌르자... 뭐 이런 망발을 일삼는 경우 지금도 없기만 바라겠습니다만.

기억나네요. 저랬던 선배가 정작 자기는 군대갔다오더니 자기가 그토록 욕 하던 미국으로 냉큰 날라버린 것(...)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제발이지 일상의 **파시즘**. 이런 거나 좀 자제합시다. 뭔 사회정의 외치고 독재 비판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이 파시스트라는 건 아시는지.

아울러 현 대통령의 중동발언.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전 철 저히 결과론자입니다. 의도가 어떻건 정치는 삶이고 결과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저 발언 자체는 혀소리가 아니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 거의 없으니까요. 동남아까지 산업화 단계 성숙되고 나면 그 다

음은 이제 이란, 이라크 등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처럼 바뀌겠고 이란은 이미 확정적이지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중동 가라'는 발언을 무작정 까대는 건, 혼한 경제신문도 안 읽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중동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할 건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5.2 심심해서 쓰는 질문들

2015.08.11

수험사이트니까 수험 형식으로 냅니다. 세상사에 통달해서 이것저것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답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001.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20~30%에 달하는 화장 품 관련 기업 2곳을 적으시오

002. 3D 프린팅 관련업체인 ()는 중국 기업들과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카메라 모듈관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자 품질기준을 강화하면서 카메라모듈 업체들 사이에서 자동화검사장치를 도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003 정보는 독거노인이나 희귀난치성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라이프태그를 도입하기로 했다. 라이프태그는 착용자의 특이 건강상태를 담고있는 팔찌모양의 기기다.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병명, 보호자 연락처가 나온다. 이 라이프태그로 기대를 모으는 곳은 ()다.

004 스마트 전구 관련주를 아는 대로 적으시오.

005 한글과컴퓨터, MDS테크놀로지, 다원텍 등의 지분가치 1000억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의 경우 금융 전자상거래 공공분야 전 부문에 걸쳐 암호화 인프라를 보유한 것이 강점이다.

006 핀테크는 ()과 ()이 결합된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다. 한국은 아직 핀테크 서비스가 나타나기 힘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어)가 통용되지 않으며 인구가 5000만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국내금융, 보안 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요인으로 꼽힌 (브)가 올해에야 비로소 사라진다.

007 무인자동차가 도입되면 택시회사는 살아남겠는가?

위와 같은 수험질문 형태로 만들면 재밌는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채워보시기들. 대졸자라도 관심이 없으면 사실 하나라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문항을 만들어서 답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필요한 공부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꽤 유치한 문항들입니다만, 저것도 답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 문항들은 실제 돈벌이, 투자와 관계된 문항들입니다.

5.3 예쁜 자식은 매 하나.

2015.08.15

미운 자식이나 피섞이지 않은 자식은 오토바이를 사준다는 현대 속담이 있지요(ㄷ ㄷ ㄷ)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 경우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교재'만 언급합니다. 따라서 교재를 비판하는 경우 전제는, 그 교재는 볼 가치가 있다, 다만 xx 한 점을 보완하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꽤 많은 질문이 잇따를 것이고 그 중 90%는 교재질문이 아닐까 하는데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왜냐면 서점에 가서 참고서는 하나씩 다 일별하고 상품가치를 평가해보기 때문이고 출판사, 저자의 동향 같은 것도 찾아보거나 추정해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EBS 교재만 보아도 거기 실린

저자들의 이력이나 흐름을 보면 앞으로 동향을 더 확인할 수 있죠.

현재 방침은 간단합니다. 쓰레기이거나 문제가 많은 교재는 ”언급”을 안 하거나 그게 언급된 경우 ”취급 안 한다고” 가면 됩니다. 웃긴 세상이라서 교재 저자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돈독이나 올라서 자기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광고되고 평가되나 그런 것이나 신경쓰며 심지어 고소한 맛을 전파해서 입을 막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맹점이 많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건 절대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설마 언급 안 한다고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케이스는 없겠죠.

일격필살은 지금 2~3회 둘러보고 특히 B형 1회 30번 같은 것도 다시 봅니다만 머리칼 걸고 권하겠느냐 한다면 권하겠습니다. 단점이야 교재 레이드에서 신랄하게 까서 그런데 장점도 사실 여러가지 많죠.

첫째, **영계** 필진의 충원과 다원화 – 저자가 한명인 경우의 위험을 피했습니다. 사실 A형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데 3회까지 보면 B형이 낫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분은 범을 키우셨네요(저마다 독립하려면 어찌려고) 개인 이름만 내걸고 가는 경우는 풀어보면 느끼지만 편차가 심한 편이나 공동필진으로 가는 경우는 이 점이 덜합니다.

둘째, 가성비 : 12회에 21600원이면 한 문제당 60원 꼴이니 가격이 괜찮은 것이죠. 더 착한 걸로 EBS가 있긴 하지만 EBS를 제외하고 가성비 좋은 게 이것 말고는 있나. 혹자 알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죠. 사실 일격 말고 다른 것도 검토해두었는데 – 본고사 짜라시라거나 – 지금 보니까 일격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풀면서 발견한 미덕인데 해설은 좀 더 토의하고 파워업할 게 있어도 문제 자체는 꽤 많은 논점을 갖고 있어서 복습을 잘 하면 이 12회 분을 적당히 요약해서 마무리용으로 쓸 수 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더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그 저자진들이 그래도 열린 사람들이라 고객의 소리를 들을 준비는 되어있는 거죠(그게 제가 콕콕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 단순히 팔아서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매우 큩니다. 주갤 같은 데에서 흔히 오가는 이야기가 주가 알고 싶으면 그냥 그 사장의 관상(...)을 보면 된다고 하던데 농담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뭐로 가든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돈독에만 빠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허사장 관상은 어떠냐.... 비밀입니다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제가 여기 와서 뺄글을 쓰고 있을리는 없겠죠)

5.4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

2015.11.05

충효가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 현실은 충효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가정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다, 실제로 화목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집안은 성적이 '기압'의 역할을 한다.

보통 아버지들이 나서서 책임지는 경우는 그리 많진 않다. 보통 어머니들이 나선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빈발하는 게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이다. 가장 애정이 많다보니 성적이 안 좋으면 싸우기까지 한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약자인 경우가 많다보니 관계가 대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갑, 어머니가 을이 된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돌아가는 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게 갈까 전략적으로 사고하려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데 가길 바라면서도 결과가 안 좋거나 아들이 공부 안 하는 걸로 보이면 매우 답답해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다고 너 xx대라도 가는 게 어찌나, 너 왜 공부 안 하니... 라고 잔소리를 한다. 당연히 아들 입장에서는 저건 "너 왜 못 하니"로 보이는 공격으로 비친다.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전개될지는 뻔하다. 이 글을 읽는 상당수가 겪어보았을 그런

문제다.

이 경우 해결책은 그렇다. 70%는 대체로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거리를 둬야하고 개입을 적절히 제한해야한다. 어머니들이 나름 자식을 위한 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느끼는 불안함이나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푸는 경우로 가기 십상이다. 나는 열심히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했는데 너는 왜 못 하니.... 라는 것이야 여성으로서 당연하 사고 프로세스일 수 있다. 이건 여자들끼리라면 감성토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자들은 이런 걸 공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자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OX 결론에다가 분명한 대안이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없이 자꾸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비교질을 하면 아들은 폭발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간단하다, 올해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건 죄송스럽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 어머니께서 날 위해 고생한 것은 인정한다, 이건 어머니 탓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수험이 보통 수험이 아니다, 그리고 난 노력해서 조금 늦더라도 내 꿈을 이룰테니 협조해달라.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룰을 하러간다면 답이 없지만.

거꾸로 아버지와 딸은 어떨까. 이 경우는 정반대인 경우다. 일부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들은 두가지다. 나 골프치러가야하니까 몰라 알아서 해, 혹은 개입 한계를 두고 뒤에서 보조해주기. 그런데 이 경우 딸들은 또래 남학생들보단 정신적으로 성숙한 경우가 많다. 아버지가 우리 딸 예뻐, 머리 좋아 라는 식으로 인정해주고 지원만 잘 해주면 대체로 갈등할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무관심해서... 라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자기가 초조해서 딸에게 스트레스 푸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단 이야기. 이게 수험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리한 한 가지 이유는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야 딸에게 돈봉투와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인자하게 쳐다봐주면 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 경우도 갈등은 심해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다. 가장 으르렁거리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사실 갈등이 있어도 이건 '적분'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개입을 할 수도 없고, 보통은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 어머니와 딸의 경우는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보통 어머니가 자기가 못 이룬 걸 딸이 이루는 것으로 대리만족시키는 경우? 그래도 이게 어머니와 아들보단 나은 게 감성토크가 가능할 뿐더러, 이 경우는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낭비 같은 건 그다지 없다.

이와 더불어 논할 건 이건데 – 만약 학부모가 이 글을 보신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 요즘 입시는 현 4, 50대분들 때보다도 더 고난이도다. 문제수준이 쉽다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야 삼수사수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삼수사수가 보편적인 케이스로 가고 있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 안 된다고 다시 수능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덕분인가 10대들도 상당히 똑똑해지고 어른들보다도 수험 정보가 빠삭한 경우가 많다(수험 정보'만' 빠삭한 경우도 있지만) 게다가 정시폭도 좁아져서 패자부활전도 어렵다, 수시야 온 가정이 총동원된 총력전이 아닌가.

+ 핵가족화 영향도 강한데. 보통 형제가 있는 경우 차이가 크다. 이건 다른 얘기로 남학생들의 사회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남학생들은 남자 어른, 형제, 친구들과 적당히 어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케이스는 어떤가. '마마보이'는 기본인 건 그렇다 치고, 사춘기가 오면 이 때가 문제다. 어렸을 때부터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운 어머니들은 아들이 영원히 귀여울 줄 알고 엄마 말만 듣고 잘 나갈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자란 남자애들이 잘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마마보이 코스가 나중에 스트레스, 화를 주체 못 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걸 쉬쉬하기 바쁘고. 남학생들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어른에게 빠따질도 맞고 형들에게 뻥도 뜯기고 친구들과 싸움도 하고...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과장하면 저렇단 것이고. 저런 식으로 남성들만의 수직서열 교육 받고 가야 무난해지는데 요즘은 이런 게 힘들어진다. 어처구니없지만 이걸 해결

해주는 게 바로 '를'이다(...) 뭔가 왜곡된 현대사회의 구조 때문에 결핍된 것을 우회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면도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모른다는 것. 어머니들은 아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아들의 남성성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말만 듣고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해버리니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남자로 자랐어야 하는데 치마 속에서만 자란 남자애들이 설령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앞길이 순탄할지 장담하기는 힘들다. 한국사의 조선왕가도 그렇지만 곳곳을 보면 '창업군주'나 같이 활약한 '2세 군주'는 능력이 좋지만 궁궐에서만 키워진 경우 능력이 별로인 경우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5 OX

2015.11.14

고교시절에 배운 국어영역으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착각합니다만.

그건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정치 이야기를 하자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 김재규와 갈등이 벌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뭔가 장황하게 설명만 하지 확실히 결론을 내지 못하는 김재규의 프리젠테이션 실력이라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고 차지철은 뭔가 무모하긴 해도 확실히 결단을 짓기 때문에 신용을 얻었다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있죠)

인생은 OX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OX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고 죽음의 반대는 삶이죠. 사실 그 외는 문학적 상상력이나 말장난. 합격의 반대는 불합격이고, 불합격의 반대는 합격이죠. 사실 행복과

불행의 중간지대가 있으면 뭐하러 행복을 추구합니까?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다른 길이 있으면 시험공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회색지대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실제로는 '무책임'을 위한 변명인 경우가 많다는 걸 많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냥 심신의 위안을 주는 대화라면 회색지대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극복을 하려면 재도전해서 합격하거나, 아니면 그에 벼금가는 다른 성공을 거두는 수밖에 없지 누가 와서 하는 위로든, 위로 그 자체로든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위로를 좋아하는 쪽은 사람을 속여먹는 사이비 종교인들이죠.

과정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과정도 결과를 위한 것이지요. 다만 인생살이에서 A를 의도한 B라는 과정이 실패하더라도 생각치 못한 C라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반면 D를 의도한 E라는 과정이 성공하더라도 F라는 참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과정이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바꿔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꽝인 것입니다. 반대로 의도가 나빠도 결과가 좋으면 어떻느냐. 인정은 해줘야죠. 다만 그게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결국 '결과가 중요하냐', '결과들이 중요하냐'라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지, 결과가 중요하다는 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결과가 나오면 왜 위로해주나 열심히 노력한 걸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안주해도 좋다"로 끝나면 최악이 되겠죠. 나쁜 결과를 덮는 건 좋은 결과 뿐입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옮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흑백론적인 태도는 그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예, 꼴통들의 사고법이죠. 그런데 살다보니까 시비가 분명하고 책임지는 꼴통들이 낫더군요. 그게 아닌 교

묘한 회색주의는 결국 일은 일대로 별이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부류가 대부분이더이다.

거시적인 역사는 그렇습니다. 서양사에서 수학이 기여한 건 참과 거짓을 분명히 따지는 태도이죠. 검증되지 않은 건 과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것이죠. 그에 비해 동양은요? 참과 거짓을 엄중히 따지진 않았죠. 유교적 도그마, 불교적 윤회론, 도가적 순환론으로 검증을 회피했죠.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 관찰은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사람의 행동은 결국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갑니다. 괜히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릇이 있다라거나 팔자가 있다라고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실은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지요**. 그 사소한 차이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운명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요. 운명론의 장점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한 걸 생략하고 모든 걸 단순하게 왜곡시켜 결론내리기 좋다'

한자 공부 안 했으니까 국어 성적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진술은 일면 비논리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진술은 현실에서 는 맞아떨어집니다. 저런 진술이 나오는 상황은 결국 한자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경쟁을 좌우하는 게 된 케이스인 경우입니다. 즉, 저런 진술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저 진술에서 말하는 바가 꽤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응변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충고를 할 때 매우 극단적으로 단정하는 편입니다. 왜냐? 고 김재규식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건 '전달'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확실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유감스러우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정도까지** 가야합니다. 수술할 때 칼로 째지 않을 수 없듯이 말이지요. 당연히 그건 합당한 근거를 갖춰야합니다.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로 화작문 말고... 인간의 심리를 갖고노는 화술 등에 관한 책은 꽤 많이 구비해서 쭉 읽어왔죠. 각자 유파는 다릅니다만. 제가 선택한 건 남자답게 직선적으로 바로 핵심을 짜르지만 상대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직설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참 약합니다, 사소한 잡술로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텔링을 성희롱한 옆방 죄수를 한니발이 말로써 자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군요.

링크

사채꾼 우시지마의 '세뇌하는 남자'란 에피소드 원안인 실제 사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해보셔도 되고 현대문명이 정말 '세뇌하는 벡터들의 합'이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사실 상담을 할 때에 제가 주목하는 그 수험생이 뭘로 세뇌당했나 가리는 것입니다.

+ 수학을 공부할 때 탈패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기하와 벡터 문제를 풀 때 "집합" 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명제" 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심지어 정규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 이렇게 해보는 게 탈패턴의 시작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직접들 검증해보아야합니다. A라는 문제에는 반드시 A', A''라는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믿으면 그게 패턴화된 상태고 반면 전혀 상관없어보이지만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Y나 Z로 접근가능하다라고 믿고 시도해보는 게 탈패턴화된 상태의 한 예입니다. 눈 앞에 절벽이 펼쳐져있지만 사실은 투명한 강화유리 다리가 놓여져 있어 뛰어가도 된다라고 믿고 시도해보는 것이지요 (수학문제는 시도 하나가 실패한다고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요. 시간은 좀 걸리려나)

+ 그럼 탈패턴화가 뭔 상관이냐가 할 건데. 이 탈패턴화를 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저 OX를 믿는 것입니다. 즉, 수학은 정확히 참과 거짓을 구분해준다 – 즉

고교수학 내에서만큼은 시비가 분명하다라는 걸 알고 전혀 연관이 없어보이는 요소들을 결합해보는 것이 탈패턴화입니다. 넘들은 문제를 풀면서 A란 문제에 X, Y, Z를 써봐도 되는지 직접 시도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수학의 시비 검증성을 믿고 그걸 시도해보아야만 탈패턴화가 되는 것이지요.

5.6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1회

2015.11.17

영상 링크

나무위키 설명 링크

전세계인의 성화에 영어자막을 단 버전이 이제 올라옴.

이슬람권이라고 해도 터키는 좀 달리봐야할 듯. 말이 이슬람 국가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터키는 성속분리가 이뤄진 국가라서. 이슬람을 믿지만 실제 문화는 1화에서는 엉겁결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남녀의 이야기에다가 역시나 전세계 아줌마들을 사로잡는 고부갈등까지 등장하는데 한국 드라마 그냥 능가. 강 비교가 되지 않는다.

- – 아메드 술탄이 즉위할 때 나이가 거의 수험생과 비슷했죠. 그래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장면 구현은 잘한 듯. 즉위식 전에 떨려서 문 닫고 혁혁 댈 때 옆 호위대장 데르비슈가 격려하는 건 따로 메모하고 적어둘 대사인 듯. 터키 배우들 이름이 어려워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아메드 술탄 배우 잘 생기기도 했지만 연기 잘 하네요.
- – 납치당하는 우리 주인공이 저 간지나는 흑누나와 교감쌓는 건 뭐 스톡 홀름 증후군 흑누나 눈빛 정말 지리는 듯. 예니체리 꽃미남(보나마나 주인공 둘러싸고 삼각관계이겠지) 대사를 보니 저 시대에도 먹고 살기 힘든

취업난 때문에 목숨걸고 싸우는 예니체리 직장이 꿀직장이었구나란 생각이. (그런데 꿀직장이면 뭐하나. 예니체리는 원래 독신인데)

- - 시할머니(?) 사피예 술탄이 포스가 장난이 아님. 여자는 여러가지 이름을 갖게된다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꽤 명대사. 실제로 우리 주인공 쾨셈이 나중에 저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여자가 되죠. 역사적 사실로 보면 사피예 술탄 - 한덴 술탄 - 쾨셈 술탄 : 고부갈등 최강갑이 되어서 전세계 아줌마들 양 잡을 듯
- - 하렘은 여성 **내무반**. 저 시대 신병 받아라 하는 식의 농담이라는 건 집 단생활하는 어디든 있지 않나 싶음. 역사적으로 술탄 눈에 들기 위해 별 춤을 다 추고 거기서 발달한 게 벨리댄스라고 들은 바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경쟁은 똑같은 듯. 자기 아이를 술탄으로 만들어야 Valide Sultan 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
- - 로맨스 코드는 적절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리 주인공 아니스타시아보다도 아메드 술탄이 더 예뻐(?) 보인다는 게 참. 아나스타시아는 그리스인 여배우로 아는데 적국(?) 터키의 드라마에 나온 것을 보니 많이 바뀐 듯 (그리스와 터키의 감정은 한일감정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 - 1화 제목이 사자, 늑대, 양인데 이게 참 절묘한 제목이네요. 사자 - 아메드 술탄, 늑대 - 주인공 아나스타시아, 양 - 예니체리 하지만 정작 극 중에서 아메드와 아나스타시아는 선량한 인물들이고(적어도 아나스타시아는 지금까지는) 예니체리는 매우 잔학무도한 광신자들인데 이들이 양(sheep)으로 묘사되다니 그런데 대사들이 참 문학적인지라 연기도 연기지만 영어자막 대사 읽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 - 단, 터키드라마 단점이 1호가 무려 2시간 30분. 진짜 보려면 날잡고 보든가 적당히 스킵해서 주요 장면만 봐야하지 않을까 싶음. 아무튼 배우들

포스가 쥐리고 남녀 주인공 외모가 시원한지라 눈호강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사극은 일단 우리나라 건 포기했고(무인시대 이후로는 맛갔음, 정도전도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일본 것도 지겨운 센고쿠 지다이. 그래서 결국 알음알이로 알게 된 게 터키 사극인데 영어자막이 지원되니까 볼만하네요.

5.7 서적 : 동경대 강의록,

2015.11.18

별 ★★★★★★ + ★★★

그간 읽었던 기존의 사회과학책들을 모두 리셋시켜버린 책이다. 저자는 사카이야 다이치 – 일본 관료계의 이단아이자 학계의 괴물 중 하나 :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도쿄대 학생들

동경대라니 뭐 새로운 게 있겠냐라고 들춰보았다가 일주일동안 열병에 앓았던 기억이 새록. 사회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굳.

그런데 이런 책들은 특징이 있더군.

- 첫째, 그 쓸만한 책들은 거의 다 일본인들이 쓴 것이다.
- 둘째, 우리나라 책들은 쓰레기이다. 좌우를 떠나서 사고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은 게 그 스랙 책들 때문이다.

이번에 삼사조합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혹은 비문학적인 사고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건데 이를 위한 사고의 바탕으로서는 이 책을 읽으시면 된다. 이런 책은 비공개로 가도 좋다고 보지만 어차피 추천한다고 해도 안 읽을 놈들

은 안 읽기도 하겠고 사실 책을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악용되는 경우 때문인데 이 책만큼은 악용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윗 예측은 거의 다 맞았다. 한국사회도 사카야이 다이치가 말한 자가사회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굴지의 재벌에서 그의 견해를 적극 참조해서 반영했다는 뒷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사족일까.

1. 일단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은 지루해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역사의 해석이 곧 미래의 전망임을 알 수 있다. 사카야이 다이치의 세계사 설명(아울러 일본사)을 보면 상당히 프레임이 정확하고 미래 예측까지 담보한 것이다. 그동안 몰랐던 서유럽 문명사에 대한 개괄적 프레임이 이 책 한권으로 깔끔히 정리되었다는 것.
2. 일본사회에 대한 실질적 비판과 전망이 두드러진다. 이 책을 읽고 감전되면서 일본 애니나 만화를 넘어 서적까지도 적극 읽으면서 비교한 것.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교수들은 일본과 비교가 되기 힘들다는 것.
3. 우리나라에서 책을 고를 때는 일본인 저자가 쓴 것부터 참조하도록 하자. 그게 좋은 책을 고르는 비결 중 비결이다.

5.8 [게임] 46억년전 이야기.

2015.11.19

링크

세기의 걸작 『46억년전 이야기』 그동안 과학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명왕성도 퇴출당하고 고생물학에서 수정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게임의 주제는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초기에 피라미에서 출발해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까지 도달해 나가는데 최종보스를 무찌르려면 굳이 인간으로 진화할 필요는 없다(그보다는 드래곤, 박쥐, 아니면 익룡이 더 낫기도하고) 지금보다 파격적인 건 주인공이 진화하기 위해 약자들을 먹어치워 진화포인트 채우고 거의 식인이나 다를 바 없는 짓도 서슴없이 별인다는 것.

저 게임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에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인기 얻기 훨씬도 전인 90년대였으니까. 사실 일어 못 하면서 강 액션플레이하는 맛에 하던 건데 지금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주제를 지닌 작품. 그 시대야 IMF 오기 전이라 다 국뽕맞아서 흥청망청 강 대학가면 무조건 대기업 취업... 그러는 시대였는데 어른들이 우습게 보던 일본 패키지 게임에서 진실을 설파하고 있었으니까.

죽을 때마다 진화포인트를 절반씩 빼앗아나가는 가이아는 2d 여신의 원조라 할 듯. 요즘 게임이라면 엔딩이야 인간이 되어서 가이아랑 (생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이겠지만 저 엔딩은 뭐랄까 '인류의 여명'이랄까. 아무튼 인간이 숲에서 지구의 주인이 되어나가는 동틀녘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

윗 영상은 꽤 슬픈 영상이다. 처음보면 이게 뭐야 ㅋㅋ 그러겠는데 6분대에 가면.

5.9 서적 : 카지노(김진명)

2015.11.19

김진명이 극우보수주의자건 쇼비니스트건 알 건 없고 유치뽕짝 어쩌구 전에 소설이 재밌긴 재밌습니다. 뭔가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한번 읽고 끝내지 않고 여러번 읽게되죠 이런 소설에서 문학성을 기대한다... 는 건 현학적인 것 같고 터무니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재밌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김진명 작품 중에서 '카지노'는 좀 색다르죠. 편의점 과자 코너에 놓인 허니버터칩? (안 팔리고 비치돼있는데 수상) 물론 내용이 풍부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등장인물들이 뭔가 비현실적이고 깊은 한데 도박에 임하는 정신자세라거나 승부기법, 그리고 멘탈관리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이 생각보다 잘 나와있습니다. (바카라의 세세한 규칙이 다 나와있는 건 아니지요)

읽어보시는 분은 왜 제가 이 책이 공부계획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구입할 건 없습니다. 도서관 어디든 다 비치되어있을 테니 대출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생각 외로 재밌단 기억 때문에 현책방에서 구입할까 고려 중이긴 합니다. 어떤 승부에 임하거나 공부할 때 읽어둘 구절들이 있어서 말이죠.

+

허혁재님에게 드렸던 충고 중 하나가 저 책 말미에 나온 겁니다.

5.10 [게임] 화이트데이 신판

2015.11.19

아래 영상은 공포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플레이하지 마시길

오늘따라 학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언제 학교가 정상이었니?

나무위키 소개

링크

원작은 복돌이 때문에 망한(...) 비운의 걸작 귀신보다 무서운 불법복제, 허혁재군이 빽칩니다 염가판 주얼판으로 우연히 구매했다가 감동 쳐먹고 스트레

스 받을 때마다 방 안 조명 다 끄고 서라운드 스피커로 플레이..... 하다가 안경을 끼게 된 무시무시한 게임.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걸작인 게 아니라 다시 나와서 기쁘네요.

매우 독창적인 설정에다가 스토리 철학이 꽤 마음에 들었음. 배경음악인 황병기 미궁가지고 이토록 사운드 잘 뽑아낸 게(... 황병기 미궁 이 게임 때문에 유명해졌을 듯 ...)

일단 주인공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함. 게다가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정신나간 수위가 더 무서움. 이 놈의 대머리 수위 아저씨 봉구형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일하심 학생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잉여짓 중인데 장년인 봉구형님과 달수형님은 휴식도 안 하고 근무 중. 조금만 소음 내도 내일 귀신들 저승사자 입시인데 방해하냐고 길낄낄 웃으며 배트 들고 쫓아오심. 신나게 따돌리고 여자 화장실에 처박혀서 흐웅하고 있으면 스윽하는 마찰음과 함께 머리귀신님 출현(...)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거기다가 등장하는 주인공들 사연이. 뭐 이미 스포 뜰 때로 다 떴지만 스토리 변경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산 게임 치고 정말 설정 잘 해서 누가 귀신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귀신 사연도 참 불쌍. 학교괴담에서만 등장했던 귀신 거의 다 구현시킨 것 같네요. (칠판 귀신 - 수학문제가 안 풀린 걸로 한이 맷혀 죽은 여고생 귀신도 나온 것 같고)

...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음. 그냥 얼굴보고 예쁘다 생각한 여고생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주겠다고 밤늦게 들어간 우리 이희민군, 이거 **스토커** 아녀? 도대체 연두고등학교는 뭘 숨길 게 많기에 수위 아저씨가 무슨 특전사, 해병대 수준 이런 인재들은 대기업 총수 사저나 청와대 경비로 갔어야하는 것 아녀? 도대체 자정녘에 청순한 여고생 3명이 수학교재 한권도 없이 학교에 기어들어와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리고 저 수위들은 보안 철저히 한다면서 미친 아줌마는

냅두고 있음? 당직교사는 없어?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교실 돌아다니다보면 참고서 한권도 안 보임(...) 학교 시설만 좋지 졸라 꼴 통 학교였던 듯. 구관이든 신관이든 공부한 흔적 일체 안 보임. 애새끼들 대학 진학은 강 포기하는 참교육 실현의 현장이었구나.

이러니까 학교 강당이 작살나도 소방차는 커녕 아무도 오지 않지. 누군가 학교를 개박살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학생들 대입특례전형을 받는 걸 기대했던 것 같음(...).

신판에서 지현양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고(구판에서는 정말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주인공 외모가 좀 기생오래비급으로 바뀐 것은 그런데 우리 수위 아저씨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햄쑥해지셨고 메인 히로인 1 소연이는 수학 1000문제는 풀어냈는지 졸라 초췌해졌고 메인 히로인 2 성아는 수시합격 개꿀이라도 빨았는지 왜 이리 피부가 좋아졌어?

... 어 그런데 양정화 성우는 10여년 넘게 훌렸는데 목소리가 그대로다 ... 이 것도 까악.

그나저나

이거 입수 못한 건 아깝다. 초레어 극강아이템 머리귀신 우산

저거 비오는날 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쓰고다니면

링크

경찰서에 끌려가겠죠 뭐

5.11 머리가 좋은 경우

2015.11.21

간단히 말해서 공부할 환경이 아닌데 – 정상대로라면 농사나 짓거나 노가 다나 뛰고 있어야하는데 환경의 강요와 정반대로 '공부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케이스.

이 경우야말로 머리가 좋다라고 보는 케이스다. 두뇌회전이 빠른데 환경이 좋다면, 이건 환경 덕분이다. 이런 케이스는 좌절 몇번 경험하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명청해진다.

하지만 환경이 매우 안 좋은데도 진짜 아득바득 공부해서 올라가는, 포기하지 않으려하는 케이스가 있다. 실제로는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같은 환경에 처한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그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그런데 본인들은 계속 공부하려고 하면서 결국 '탈출'에 성공한다.

머리가 좋다고 하려면 환경을 극복하느냐로 봐야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이런 케이스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좋다는 걸 모른다. 이 케이스들은 방법론만 잘 가르쳐주고 정신적 서포를 잘 해주면, 요즘 말로는 캐리 잘 해주면 정말 자알 올라간다. 바꿔 말해 자기가 환경이 옛같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몰락하는 경우도 많다. 머리가 좋더라도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몰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가 밀어준다고 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케이스는 잘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선 사람들은 사실 뭘 해도 먹고 살거니와 결국 이겨내는 걸 보게 된다.

5.12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2화

2015.11.24

<http://www.alaturcaseries.com/kosem-episode-2-english-subtitles-please-use->

the-donate-button-below-to-support-the-translations/

2화 총평 : 전세계인 공략을 감안한 웰메이드

이번 화에서는 예니체리가 상세히 그려져 있어서 좋았고 하렘에서 여자들끼리 별이는 온갖 종류의 싸움(신경전, 예의전, 그리고 육박전)까지 벌어져서 만족. 로맨스, 음모, 가족애, 액션 등이 정말 잘 어우러져있음.

거기다가 주변부 인물들의 개성이 두드러지는데 칭기스칸의 자손으로 오스만 황제 자리를 노리는 샤힌 기라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만렙 캐릭터이고 웬지 짜리 기운이 강한 메메드 기라이는 알고보니 아흐메드의 고모와 러브레터 주고받는 사이(이 녀석이 어째 샤힌 발목잡을 뻘이다)

우리의 주인공 아나스타시아는 아직까지는 순수한 소녀 남주 아흐메트가 동생 무스타파를 죽이려다가 살리는 치유계 인물 역할 잘 해냈음((그런데 역사상 최악의 악녀 중 하나로 흑화할 건데 어찌될까) 마흐피류제가 아흐메트와 첫날밤 보낼 때 질투하는 표정 연기가 두드러지는데.. 아, 이 배우 아나스타시아 치칠리우(주인공과 배우 이름이 같고 국적도 같다)는 시즌 1에서만 나오고 그 뒤에 하차할 테고 흑화된 케셈(=어린 시절 이름 : 아나스타시아)은 Beren Satt라는 나름 유명한 터키 여배우가 맡는다고 하는데 위화감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봐도 귀여워 소리나와 쇼타증후군을 부추기는 무스타파 꼬맹이는 연기 할 때 힘들었을 것 같다. 거의 1시간 분량동안 울고 쫓기고 감금당하고 심지어 교살당하기 직전까지 최악의 경험까지 연기 다한 건데. 실제 역사에서 무스타파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감금당해 살았고 술탄으로 즉위했을 때는 금치산자 수준이었음. 그 미치광이 술탄이 꼬맹이 시절에는 저렇게 귀여웠다니... 에서 저쪽 시청자들의 심금을 수백번은 울렸을 듯.

샤힌 기라이는 카리스마 장난 아니네

22:30 – 아흐메트 살해용으로 쓰려다 실패한 사자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사

자=황제라는 점에서 은유적) 54:30 – 콘스탄티노플을 탈출하려는 무스타파 일행을 공포스럽게 막는 장면 56:51 – 무스타파 일행의 공범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태연히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한니발 렉터급으로 대처하는 장면.

배우가 보통이 아니라서(캬. 눈빛 보소, 형님 저를 가지세요...) 검색해보니

링크

교육적 차원에서 예니체리 훈련장면도 흥미 일단 주인공 이스켄데르(=알렉산더)는 '안드로'가 본이름이 아님. 타인사칭을 보니 이거 분명 첩자 같다. 능력이 범상치 않고 예니체리 내부를 유심히 탐문하는 걸 보니

34:00 – 내무반 우두머리를 뽑을 때 달리기 시합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brain test. 이스켄데르는 꿀찌하면서도 1등하는데 01:40:30 – 군대 내무반의 아침, 오스만이 당시 잘 나갔던 건 일찌기 저런 식으로 근대적 조직체제의 군대를 훈련시켰다는 장면 01:45:00 – 예니체리가 실은 거대한 요리사 집단이기도 한 것을 보여줌 ; 참고로 예니체리의 거의 모든 용어는 요리 용어였음.

극 중 마지막에 손자에게 복수하려는 사피예 술탄의 대사가 ”솥을 뒤엎고 수프가 끓어오른다”라는 건데 예니체리가 솥을 뒤엎는다는 건 말 그대로 '역모'를 의미하는 것임. 이 드라마에서 예니체리가 반역하는 건 최소 2번은 일어나기 때문에 솥을 뒤엎는 장면은 여러번 나온다.

가슴아픈 캐릭은 마흐피뤼제 술탄. 자기 부모도 모르고 그냥 하렘에 혼남해서 황제에게 몸바치고 아들 낳을 것만 생각하는 걸로 훈련된 소녀인데 지금으로 치면 정시로 대학가려는 친구인데 낙하산으로 아나스타시아가 훙 오더니 술탄 마음을 빼앗아 갔으니 실제 역사도 불행함 아들인 오스만 2세가 즉위하긴 하는데 젊은 개혁군주 오스만 2세의 운명도 참 박복했거니와 마흐피뤼제 술탄도 30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이유가 불명. 아마도 코셈에게 암살당했을 것으로 여겨짐(드라마에선 그렇게 그려지겠지) 배우는

링크

사실 외모는 좀 투박한데 몸매는 육감적인 – 애 잘 낳게 생긴 걸로 묘사되었으나 캐스팅은 나쁘지 않은 듯.

반면 아나스타시아는

링크

이 정도면 고생한 엘프는 되지 않을까 싶고

기대된다는 배우 Beren Saat(성년의 코셈 연기)는

링크

사랑과 전쟁을 잘 연기할 배우로 보임(터키에서는 매우 유명하다던가) 나머지 꽃청년(주인공인데 나머지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예니체리(첩자) 이스켄데르 역

링크

술탄 아흐메트 역

링크

저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무슬림이라고 찍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 학교에서도 터키 형님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돼지고기 못 먹는 백인 정도. 이슬람 관습만 아니면 사실 터키, 이란 남녀가 전세계를 쪽 발라버릴 거라고 생각함.

중간에 무슨 배우사진 올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2화는 참 잘 짜여졌다고 생각. 우리나라 제작진들도 저걸 열심히 표절 벤치마킹하겠지.

+

한편 흥미로운 건 그리스-터키 관계는 한일 관계 저리가라할 정도로 앙숙. 사실 민족주의도 그리스 독립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후덜덜한지라. 그런데 터키 사극에서 그리스 출신인 코셈 역을 그리스 배우인 아나스타시아가 맡은 것을 보면 문화적으로는 역시.

위대한 세기 이전 버전에서야 하기야 그리스에서도 이 터키사극이 인기가 매우 좋아서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문화적 침략이라고 시위까지 했다던데 그와 별개로 저 드라마 제작진들은 그리스에서 추파를 던지기로 한 듯. 하기야 코셈이 그리스 여자가 아닌가. 거기다가 베네치아를 강조하고 이탈리아어까지 극중에 집어넣은 것을 보면 유럽 시장까지 다시 정복하려고 한 듯.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작가를 포함한 드라마 진들이 국뽕은 그리 빼지지 않았다는 것. 자기 조상들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도 광 사실 그대로 집어넣음. 그리스인들이 왜 독립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것도 집어넣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집어넣는 건 힘들겠지?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대만을 역사적으로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장제스조차도 좋은 의도로 그랬다라는 식으로 띠우기 시작하던데.

5.13 환경 얘기

2015.11.28

상식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10명 중 2명 꼴도 못 됩니다.

그러나 저 환경에서 자란다고 다 공부를 잘 하거나 비뚤어지지 않느냐 환경은 가정환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안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 이

경우만 머리가 좋다고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잘 나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당위가 현실을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담론이 놓치는 것은 정말 ”상위 1%”라는 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인격자 부모 밑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랐다’는 것으로 정의해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유전자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전 유사과학자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염색체냐고 놓거는 순간 말을 못 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검증한 것도 아니거든. 그냥 들은 얘기 썰 푸는 수준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죠. 그러나 환경은 나이먹다보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공부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도대체 환경 차이도 논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 유전 타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말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 그저 들은 썰대로 읊는 사람들이 어떨지 뺀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러면 차단리스트 감이죠.

우리의 도전이라는 건 그냥 좋은 환경에 들어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입시도 ”최고의 교육환경, 취업도 ”최고의 근무환경”, 결혼도 ”최고의 생활환경”에 들어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올라설 때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그 차이에서 ’노력’, ’사교육’, ’교재’ 등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을 다 빼고 남은 것이 비로소 ’머리’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온갖 교육 다 받고 노력을 습관화시켜 서울대에 갔다고 머리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막장 집안에서 태어나 어디 북한 저리가라하는 동네에서도 교과서만 가지고도 인서울 들어가면 이건 머리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노력 해보았자 소용없다라는 사람들, 한명한명 보면 그 사람들이 흔한 택배 상하차 알바부터 정말 밑바닥까지 고생한 적이 있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우는 무시합니다. 정말 고생해 본 사람이거나 진짜 올라간 사람이면 노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특히 경쟁의 핵심은 자기 경쟁자들을 노력하지 않도록 선동, 도발하는 겁니다. 제가 경쟁한다고 해도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의 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환경이지만 본인이 노력하거나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만드는 것들도 역시 환경입니다. 즉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당연 우리의 초점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어떤 강의냐 교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능이란 시험 – 즉 제시간에 문제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해야하느냐부터 고민하세요. 수능 당일날 집중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 꾸준히 유산소운동 한다거나 기상시각 조절하는 것. 자기의 경우는 아침에 저혈압 증세가 있으니 무조건 걸어서 도서관에 가서 3시간만 공부하고 집에 가서 낮잠 30분 잔다거나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부부싸움하니 어쩔 수 없이 혼자 나가서 살거나 아니면 하루 웬종일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간다거나 시각적 사고가 강해 교재 읽는 게 더 잘 되면 교재 읽기로 커버치기, 반면 청각적 사고가 더 강해서 강의 듣는 게 편하다 싶으면 학원을 간다거나 도서관에서 인강을 줄창 듣는다거나. ...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해보고 그렇게 가세요. 무조건 생각없이 업자들 손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도대체 자기 인생 바꾼다라는 사람들이, 절박해 미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환경 개선에 의지도 없이 안이하게 나중에 수험상품 쇼핑하는 것보면 저 색기는 강 대학 떨어져도 싸다란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학에 간다고 한들 요즘 대학도 살벌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 이후 취업전쟁은 애당초 불공정을 깔고 들어가 거요.

일지를 쓰던 일기를 쓴자가 ‘매니저’라면 나라는 답없는 녀석을 어떻게 매니지먼트할 건가 하는 마인드로 가세요. 혼자 관리가 안 되면 경쟁하는 친구와 서로 딜해도 좋고, 그게 안 되면 현강 들으러 가세요. 학원 가는 건 강의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남들의 시선에 놓이면 방만해지거나 딴짓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 한다? ↵ CCTV

놓고 찍으면 그거 거의 다 본인이 땀짓하고 게으름피우고 태만한 걸로 귀결됩니다. 자기야 안 그렇다고 하고 싶죠? 그럼 님들이 한번 도서관 가서 다른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나 뒷짐지고 평해보세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자가 남들 공부는 참 신랄하게 평가합니다(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공부 안 되면 그 환경 떠서 남들과 같이 싱크로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적의 답입니다. 합격이고 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도서관 가서 가장 먼저 앉고 가장 늦게 일어나는, 누가 오래 자리 지키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가 안 되고 올해도 시험 망했다 하는 사람들, 슬그머니 말 걸어보면 공부 외의 온갖 연예, 문화, 시사 이런 건 '차암' 빼삭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런 걸 할 시간은 널렸나보지요.

5.14 A, B, C의 비교

2015.11.28

특정인 지적 댓글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느끼고 정신차리라고 쓰는 글입니다. 칭찬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 A – 환경을 극복하고 올라서려 한다, 과거에 사로잡혀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커리를 제가 잘 압니다. 양치기 기본에다가 효율적 인강으로 단기적 목표 성공 그런데 가끔 얘기하면 과거에 많이 집착합니다. 당연히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지요. 안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공부환경을 쟁취하고 이겨낼 테니까 슬럼프 몇번 겪겠지만 극복하겠죠

- B – A와 비슷한데 자신감이 떨어진 케이스

잘못된 정보에 사로잡혔다가 어느 정도 올해 극복했습니다. 흐름을 탈 줄 아니 오버하지 않으면 성장하겠죠. A와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는 그냥 자

신감 문제입니다. 자신감은 스스로 성과를 거두고 대화하면서 쟁취할 문제죠. 다만 대화할 상대들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겁니다.

- C – 머리는 좋은데 잘못된 습관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나 두뇌가 습관을 못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당장 해야 할 일을 늦게야 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A, B보다 절박감이 매우 덜 합니다. 지금도 안이해졌는데 자칫하면 내년에도 올해 전철 또 밟는 거죠.

대충 본인들은 이걸 알고 쪽지로 테러할 건데 뭐 겪는 일이니까. 차이가 있다면 A는 제가 하는 말은 그대로 잘 들었고, B는 남에게 한 말까지 캡쳐해서 다 들었고(이건 소름끼칠 정도였음) C는 제가 가장 많이 말해주었는데 가장 많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하라는대로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고집피우다가 나중에 제 탓 하면 심히 골룸하다고 지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또 청자들과 알바들 들어온 티 나던데 그 자들이 아니면 너무 관심이 많은 댓글을 쓰시더군요.

뭐가 무서워서 여기 와서 청자질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저주받아 죽으라고 덕담 기도해주고(이건 관계없잖아) 그리고 일지 꾸준히 써서 인증한 사람 빼고는 역시 대접할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닥잡으면 됩니다. 반면 눈치코치 모르고 활동하는 사람은 관심 끊습니다.

이중아이디로 활동하다가 걸린 사람들이야 많죠. 관상에도 티가 나죠. 개버릇은 못 준다는 이야기 사실인 듯.

5.15 빛개념에 대해서

2015.11.30

5수생이 있다칩시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관념이 문제나면 자기가 날려먹은(?) 4년만큼의 본전을 챙겨야한다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더 높게 잡으면서 자기가 수험고수이니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별 의미없는 자기학대에 불과합니다.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고 해보았자 그 4년이 빛나는 것도 아니죠. 4년동안 공부했다면 당연히 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학습되었을 뿐더러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있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일단 4년은 잊어버려야합니다. 그냥 4년동안 병원생활, 식물인간, 징역살이, 외계인에게 납치... 당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아요. 그 4년은 경제학적으로는 매몰비용입니다. 뭘 하더라도 사실 복구는 못 해요. 심지어 성공한다 하더라도 4년이 의미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들 이런 매몰비용을 복구하겠다고 목표를 무리하게 잡는 걸 넘어 학습방법도 터무니없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 4년은 안 돌아옵니다. 내년에 시험치는 사람이면 겸손하게 자기가 고3과 똑같다고 여기세요.

만약 개인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기본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라면 유의미하다고 반문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 경우 손해는 더 큩니다. 4년동안 해서도 되지 않는 **실패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여러번 쳐도 안 되는 이유는 공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게 가장 큩니다. 학원

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지식을 전수해주겠지만, 학생 개개인의 실패 패턴을 지적해주거나 잡아주진 못 합니다. 본인의 과제죠.

하지만 이걸 하는 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에 근사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는 친구에게 너는 달릴수록 불행해지니까 달리지 마라고 하거나 아주 얼굴이 예쁜 여학생에게 자네는 얼굴이 불행의 근원이니 차도르를 쓰고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도록 하는 것과 동급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을 포기하고 여태껏 살아온 방식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실패는 또 반복되죠.

빚을 못 갚으면 파산신청하고 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험 응시할 분은 과거는 싹 잊으세요. 과거에서 챙길 건 오직 교훈, 그리고 자기의 실패하는 패턴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구식무기를 버리고 신식으로 갈아타면서 자기를 잊는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계속 한탄만 하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또 실패합니다요.

5.16 산업공학에 관하여(초안)

2015.11.30

일명 Industrial Engineering :

그 시조는 Fredreick Winslow Taylor https://en.wikipedia.org/wiki/Frederick_Winslow_Taylor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과 같은 계보. 산업공학이라기보다는 공업경영이란 말이 맞음. 공업에 더 특화된 경영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공학”이라는 말이 적절.

그러나 실체는 어디든 마찬가자이지만 희대의 ’박쥐학과’ 일단 좋다는 것에

는 다 빨 걸치고 있음. 그래서 학부과정에서 돈과 무관한 건 안 배운다. 우선 수학도 공수는 빼고 선형대수학과 통계학으로 쇼부. 나머지 과목들은 경영학과와 공학에서 쓸만한 것만 가져와 '뿌리없이' 배움 대신 수행할 과제는 컨설팅업체의 결과물 비스무리하게 내놓아야함.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견드려보는데 깊이 다루지 못 함. 그러나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학부과정에서는 어차피 전문성은 크게 기할 수 없음. 학부과정에서는 시야가 넓어야 함. 그 점에서는 이 박쥐학과적 안목이 도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막말로 진출분야는 거지와 국회의원 빼고는 다 가능하다는 말이 있음.

뿌리는 없지만 꿀이라고 하는 이유는 취업부터 대학원인데 쓸만하다고 하는 알짜 분야의 대학원으로 빠져나갈 수 있음. 수학, 컴퓨터, 경영과학, 생산관리, 품질관리 금융공학, 제조공학, 통계분석, 시뮬레이션 기타 등.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공학은 "관리자"의 안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알짜들만 제대로 모아놓은 것임.

교수에게 뭘 배워야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나온 3가지 답변은 산업공학의 3대 학문 : 수학, 컴퓨터, 통계학

5.17 20대를 넘기면 부모가 아니다.

2015.12.01

어디서든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문제가 많다.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돈이 없더라도 행복한 줄 아시길. 다시 말해 하하호호 행복한 케이스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

대가족 체제에서는 권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니 부모들도 윗사람 눈치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가부장 시절에는 남편은 돈을, 마누라는 밥을 주기

때문에 역시 견제기능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개개인이 돈도 벌고 밥도 다 하는 시대에는 눈치볼 것조차 없다. 사소한 갈등으로도 공격성을 내비친다.

3, 40대가 과연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나조차도 회의적이다. 나 이와 인격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배우고 경험했느냐에 달렸을 뿐. 그래서 이야기들 들어보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 부모에게 기눌린 케이스, 부모에게 기대하지만 좌절하는 케이스.

내가 제안하는 건 거리두기이다. 그리고 본인이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도 과거의 부모로 보지 말길. 키워주고 교육시킨 것에 대해선 빚이라는 건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부모에게 기대하진 말라는 이야기.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그 세대 어른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 그러나 부모에게 많은 걸 기대도 하지 말란 이야기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폭언을 퍼붓거나 해도 그냥 이건 '개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본다.

가능하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님과 떨어져있는 것, 대면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된다. 상담해보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가 '대면시간이 기니까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 비법은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다. 아주 가까워지지도 않고 아주 멀어지지도 않고. 부모자식이니까 가까워야한다고 보기 좋지만 글쎄, 원래 자식이 성년이 되면 부모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다, 다 자기들만 겪는다라고 착각하겠지.

5.18 환경 넘어서기

2015.12.01

자기 처지를 불행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음. 꽤 많이 공감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꾸짖을 때는 꾸짖는다.

불행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 불행함 자체를 평계로 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자기가 판자촌에 살았다고 공부 안 하고 유흥 즐기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건 인육까지 먹으며 엽기살인 일삼은 지존파나 유영철이 동정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문제는 그걸 극복해야하기보다는 평계로 쓴다는 것이다.

한번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안 되는 이유다.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은 친구들이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평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까지 부모가 잘 해주었는데 네가 못 하면 누구 책임인 줄 알지... 예답변을 못 하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나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 실패를 전가할 대상은 많다. 그러나 전가해보았자 피해는 누가 입을까.

속칭 이걸 **피해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 사회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과 계약질을 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 이들은 그 피해의식만으로 자기들이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엄하게 대해야 한다.

환경 탓만 하다간 아무 것도 못 바꾼다. 바람피우고 술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부전자전이 되는 이유? 그 아버지 탓만 하는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를 배워버리기 때문이다. 진정 극복하려면 그런 아버지를 혐오하고 우습게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경멸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아버지가 어찌구... 하면서 그걸로 환경 탓만 하면서 벗어날 노력을 안 한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길을 걷는다.

아래 부모글과 연관짓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억압만 당하면 역설적으로 그 부모가 선망 대상의 위치에 놓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모를 배워버리고 만다. 넘어선다는 건 2차원에서 놀다가 3차원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말한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못 되게 구는 사람을

마치 체스의 말처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다간 똑같아져버린다.

넘어선다는 건 여러분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 빼고 길이 있을까?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면 그 실패를 반드시 객관화하고 사소한 걸로 여길 수 있
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당한 좀비를 불태워버리듯 과거의 자기를 서슴없이
버려야 한다.

적어도 내가 관찰하고 느낀 바 – 그리고 수험상담을 해주는 것도 나 나름
대로의 수행이지만 – 는 그렇다. 부모가 학대한다면 가장 편한 물리적 방법은
대면시간을 줄이고 공간도 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부모에게**
감염된 나를 어떻게 처리해버리느냐이다. 폭력이 무서운 건 고통과 상해 때문만
아니다. 로봇을 때린다고 해도 고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인간은 얻어맞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감염되어버린다. 그래서 같은 행
동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마법사들은 이걸 읽고 그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상처에 공감해준다는 것만이 절대 능사는 아니다. 상처입었다는 사람들도
곰곰히 보면 그 상처를 이용하는 비겁한 모습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5.19 3s

2015.12.05

사고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머리가 나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그냥 99%
라고 생각하면 된다.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명제'를
생각없이 자신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경우고 보통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분석해보면 알고리즘이 엉켜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스피드를 포기하고 순서대

로만 사고, 행동하면 해결될 것을 엉뚱한 데 답 찾는 경우가 많다.

1년간 분석해보면서 느낀 결론이란 게 참 허망.

- system
- sequence
- speed

이 3s로 그냥 결정나는 듯. 사람과 대화하다보면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을 추상명제화시켜서 분석가능하게 되고 그 명제들끼리 서로 논증되면서 추론되는 결말이라는 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게 아닌가하는 중2병급 망상도 들긴 하지만 공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잘못된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그렇고 문제풀이가 안 된다는 경우는 시퀀스 통제력이. 그냥 순서대로 사고하면 되는 데 그걸 못 해서 무조건 추종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게 스피드. 시스템과 시퀀스가 잡힌 다음에 스피드를 높여야. 스피드를 추종하면 시스템과 시퀀스가 망가진다.

5.20 메모 : 칭찬

2015.12.05

- 가장 아름다운 미인 : 칭찬

남녀외모야 30대 넘기면 어차피 다 아재 아짐 되니까 그건 알 바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고파하는 건 '칭찬'이라는 사실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시절의 외모라도 진정성이 담보된 칭찬보다 예쁘지 않음.

만약 모든 사람이 서로를 칭찬해주고 다닌다면 칭찬이 먹히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칭찬이 잘 먹힌다는 건, 사람들이 서로 차갑고 혹독하단 이야

기이겠지. 늘 부정적인 평가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려니. 나폴레옹조차도 ”우리 황제폐하는 칭찬하는 아첨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란 칭찬에 흡족해하지 않았다고 하던가.

- 인간관계, 저주풀기

바른 소리를 하면 인정받겠지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다를 것이다. 아첨하지 않고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칭찬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실속이 없더라도 은연 중에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거라면 그 관계는 꽤 오래간다.

칭찬이 지나치면 아첨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게 상대방을 웃애고 있는 저주를 푸는 것이라면(판타지스럽긴 하지만 이건 실제로 그렇다) 권장할만하다. 예컨대 본인이 아름다운데도 못 생겼다고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혐담하고 깎아내려서. 이 경우 예쁘다라는 말을 10번은 해줘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저주가 풀린다는 황당한 일이다.

-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윗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자아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생각없이 던진 걸로 보인 ’폭언’을 수십년 품고 산다든가. 특정인의 언행을 분석해보고 상호피드백을 하면 남들과 다른 ’아픈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픈 개성은 어린 시절로 추적해 가다보면 보통 상처와 연관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이 비만일 가능성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성적매력을 줄여서 도파하고자하는 것 이었다든가. 꼭 이 경우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자기파괴적인 행위”는 도피를 의도한 경우가 많다. 도피를 해야만 괴로웠던 과거나 현재에서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미래는 불확정적 명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사실 명제일 뿐. 그나마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매우 부정확.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 개인은 자기 미래를 명제화시켜 거기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 사실 인과관계가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어버림. 일단 믿기 시작한 순간 절대불변의 명제가 되어버림.

시간이 뭐냐하면 보통 시계를 가리키겠지만 그것도 인위적으로 정한 하나의 계량수단. 그리고 심리적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초가 1시간처럼, 1시간이 1초처럼 실제로 와닿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물리적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느냐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적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

- 행복은?

생각이 정지될 때. 논리는 거짓말아니고 ’현자타임’을 유발, 자기가 몰입하는 상황을 칼로 자르고 해부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 의문문을 던진다는 건, 주어진 명제나 상황을 ’부정’해본다는 이야기. 그 때는 절대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칭찬의 기능은 저런 ’의문문’을 차단해준다는 것임. 그럼 칭찬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개인이 품는 의심 중에선 별 소득도 없는 쓸데없는 의심들도 많기 때문. 나 못 생겼죠, 머리 나쁘죠, 이렇게 살다간 이번 생 답 없죠.... 등은 하나님마나한 의심. 이런 건 보통 저주받은 결과임 그 저주를 풀어주는 칭찬은 적절한 것임.

5.21 글을 읽을 때 3가지 문장과 3가지 틀

2015.12.10

3가지 문장

ⓐ 기술

ⓑ 설명

ⓒ 주장

기술은 저자를 배제해도 상관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술.

설명은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이치에 맞춰 논리적으로 풀어쓴 것.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님. 설명은 기술이 글쓴이를 통해 해석되어 재기술된 것임. 그래서 '의도'와 '관점'이 있음.

주장은 말 그대로 글쓴이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위 기술과 설명에다가 연역 추론 혹은 귀납추론으로 논증하는 것. 물론 현실에서는 논증 없는 주장도 많음. 그러나 수능 지문에 등장하는 주장은 거의 다 논증임. 의도, 관점, 강조, 한계는 당연하지만 '토론', '비판'도 뎅달아 따라나옴.

글을 읽을 때 **기술, 설명, 주장을**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체화되어 있어야함. 기술은 상대가 아무리 개새끼더라도 받아들여도 되는 것 설명은 일단 수용은 하되 내가 다시 한번 검증해보아야하는 것 주장은 상대가 여친 혹은 엄마더라도 일단 '아니오'라고 부정해봐야하는 것.

그 다음으로 글을 읽을 때 중요한 3가지 틀

소재 – 화제 – 주제

④ 소재 : 글의 대상.

⑤ 화제 : 글쓴이가 소재를 가공한 것 - 설명문은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음.

⑥ 주제 : 글쓴이가 화제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 - 설명문이 아닌 글은 이게 부각됨.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저런 소재-화제-주제를 묻고 답해야 함.

.....

국어 독해의 시작과 끝은 저걸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된 것으로 적기도 그렇지만 어차피 공부할 인간들은 저걸 체화시켜 알아서 끝낼 것임. 저 틀도 못 잡고 문제푼다면 점수가 올라갈 리도 없겠지만 앞으로 인생살이도 힘들 것임.

과거보다 국어교재는 확실히 퇴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어교재가 현재보다 10배는 더 나았다는 생각. 수학은 야매방향으로 강조되는 기이한 풍토기도 하지만(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자연대, 공대 가서 잘 할지도 의문) 사실 심각해진 것은 국어. 인터넷 이전의 미개한(?)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교육되던 것들조차 찾기 어려워짐. 거기다가 독서하는 학생들을 보기 힘듬.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음. 윗 방법론도 그렇지만 기본교양 조차 부실한 학생들이 많음. 어디선가 읽은 게 16 수능 A형은 특정 지식에 치중해있어서 불공정한 출제다... 옛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임. 그 정도는 우등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익힌 교양수준이었다고 얘기했을 것임.

딴 이야기하면 과목 중요도는 영어 & 국어 ????????????????? 수학

업자들이야 화날 이야기겠지만 사실 지금 입시수학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본인이 수학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 그걸로 호구들 낚아 장사하고 싶다면 입시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공대조차도 수학은 별로

필요없음. 공업수학조차도 그냥 주어진 텍스트 암기도 벅찬 판인데 뭘. 고교수 학에서 배워야하는 건 근대적인 사상, 그리고 '문제풀이의 자세' 그 이상 그 이 하도 아님.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왜냐면 영어텍스트는 항상 신선한 충격을 주기 때문.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진 책만 읽고 살아도 미개해지는 건 막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남보다 앞서서 판단할 수 있음. 어차피 대학가면 다 영어 원서 본다는 거야 알고 있음. 공학 같은 경우도 교수 강의는 버려도 되지만 원서는 버리면 안 됨.

영어를 잘 하다보면 국어도 덩달아 잘함. 어차피 국어의 읽기 기술이라는 것도 영어에서 가져온 것 아닌가? 그보다도 국어를 열심히 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줄어듬. 위의 6가지 틀을 응용하면 상대가 말하는 걸 기술, 설명, 주장으로 분류해서 기술만 수용하고 설명은 반수용하고 주장은 씹으면 끝남. 그리고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역추적해서 화제, 소재로 분해하면 끝나는 일임. 의도파악이라는 건 이걸로 정리됨.

5.22 자아 집착

2015.12.09

무사가문 출신의 료마는 20대 초반까지 검술훈련을 받았다. 어느날 료마가 동향 무사인 하가키 세이지라는 옛 동료를 만났는데 그는 무사들이 보통 많이 갖고 다니는 장검을 차고 있었다. 료마는 그에게 실전에서는 단검이 다루기가 좋다고 하였다. 그렇겠다고 생각한 친구는 단검을 갖고 다녔다. 단검을 찬 그를 보자 이번에는 료마가 품 속에서 총을 꺼내며 총 앞에서 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 총이 미국회사 스미스&웨슨(Smith&Wessen)이 만든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친구도 바로 총을 샀다. 세번째 만나 친구의 총을 본 료마는 이제 부터는 세계를 알아야한다며 서양의 만국공법(국제법)책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기쿠수이(菊水)에서 발매한 료마 소주가 있다. 칼 레벨 – Smith & Wseen 레벨 – 만국공법 레벨이라는 참 해괴하지만 의미심장한 라벨링이 되어있다.

일본이 운만 좋아서 조선을 집어삼킨 게 아니다. 료마가 사망한 연도가 1867년. 19세기 중반에 조선의 집권자들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유교 체제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일본의 엘리트들은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과감히 과거의 것을 쳐냈다.

승부에서 이기려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 시험에 장애가 되는 건 운도 출제 경향도 제도의 불합리도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서 정말 나를 버리면서 과감히 베팅했나... 하며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다. 칼을 좋아하며 냉병기만이 진정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탄이 오가는 전쟁에 나가면 어찌되겠나. 사서삼경만 외운 선비가 오랑캐 학문을 배울 수 없으니 수능에서 수학, 영어를 빼달라고 하면 용납되겠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자아는 바로 ’임종 직전에 야 완성될지도 모르는’ 미완성 그 자체다. 하지만 대화나 상담을 해보면 각자가 지금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느끼곤 한다. 다들 유치원 다닐 시절의 꿈을 지금에 품고 있나? 사달라고 했던 장난감이나 인형을 지금도 고집하나? 자기가 **바뀐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려는 경향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분명 변화 한다. 자기가 **바뀌느냐**, 아니면 스스로 **바꾸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승리를 생각하면 과거고 나발이고 과감히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그래도 과거에 많이 노력한 것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망상인데 패러다임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것이다. 구시대적 체제가 발전해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모순이 누적되고 폭발하고 붕괴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것이다. 만약 경쟁자가 없다면 아무렴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자가 있으면 먼저 바꾼 사람이 이긴다.

10년 뒤에도 현재의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가.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10년 뒤에 우리는 절대 지금의 우리가 아니다. 미래에는 ~ 할 거야라가는 포부에 대해서 난 99%는 그냥 무시한다. 그 마음이 과연 10년, 아니 5년 뒤에도 유지될까? 그나마 스스로 바꾸면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안 좋은 방향, 퇴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 좋게 바뀐 다음 얹어터진 다음에야 나도 한 때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살까 하다가 세상 탓을 또 하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20대의 모습이란 거의 다 허상이다, 그건 30대도 40대도 마찬가지겠지. 죽기 직전이야말로 참자아. 그런데 이게 좋다는 보장은 없다.

각설하고 저 에피소드는 우리 한국인에게만 비극으로 다가왔다는 후일담. 실제로 일본의 엘리트들은 만국공법(=국제법)을 잘 활용해 조선을 참 평화롭게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 청, 러시아와 전쟁 별일 때 맷은 조약들로 무난히 먹어치우기 위한 준비를 다 해버렸다는 것.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없던 유생들이야 뒤늦게 국제법을 알아보면서 혹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부질없는 희망을 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보통 을사조약을 을사오적 매국노 이토 히로부미 개객기로만 접근하지만 그냥 먹어치워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속국화로 나갔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 애들은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하여 수천년간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독립시킨다(...) 당시 일본의 속내를 모르는 조선의 엘리트야 일본이 진정한 은인 T.T 그랬지만 그럴 리가 있나. 일본은 당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눈치를 보면서 '합법적'으로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과정을 참 천천히 밟아왔던 것이다. 아무리 국력이 개차반이어도 어째서 허무하게 먹혔을까라는 걸 우리가 되물어보아야 하는 과정을 보면 참 일본은 치밀하게 수십년간 준비해서 그 보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그런 치밀함이 군부의 폭주로 날라가면서 나중에 다 토헤내고 일시적으로나마 망했던 것.

여기 오는 수험생들은 두가지다. 부모가 참 공부를 잘 해서 자녀에게 그 교육모델을 세습시킬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경우. 교육모델이 세습된 녀

석들은 순둥이에다가 뭔 이런 어리버리가 있나 해도 성적은 잘 나온다. 자기들만의 검증된 모형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건 이미 나이먹은 부모가 검증한 경우여서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라면 정말 과감히 '나'를 버려야 한다. 자기 삶의 방식이 부정적인 결과이면 편집증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한다.

5.23 평가라는 건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2015.12.10

A가 잘 나갈 때 A를 칭찬하는 병신보단 A가 망하더라도 A의 가능성은 읽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잘 나갈 때에 칭찬해주는 건 사실 개나소나 할 수 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아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아무에 중독된 A가 어떻게 될지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반면 A가 해변에서 파도만 보면서 나도 한 때에는 잘 나갔는데~ 한탄하고 있을 때 앞으로 크게 되겠군... 지금이 기회다라고 격려해주는 건 그냥 빙말할 게 아니라 정말 '근거'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작업이야말로 논리적이어야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똥발 시절의 강남을 빛내서라도 모두 매입했을 것이라거나 1990년대로 돌아가면 SK나 삼전 주식을 샀을 것이다라는 탄식은 흔하게 듣는다. 그러나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냥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지금도 저평가된 것과 고평가된 것들이 널려있다. 그걸 정확히 꿰뚫어보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작 머리 쓴다는 게 "그럼 자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군. 부자들을 따라가면 되니까"라는 것이겠지만 이걸 역이용한 게 바로

작전세력들이 아닌가.

이건 수험도 마찬가지이다. 입시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 자기를 '쓰레기'로 취급한다. 쓰레기로 취급당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막 나가게 된다. 반면 운이 좋아서 찍은 게 다 맞아 합격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 역시 막 나가게 된다는 건 마찬가지이다.

올해 수능에서 실패했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가 1년살이 운명인가? 10년의 스케일을 감안해보자 B는 올해 수능에 승리해서 대학에 간다. 그런데 적성에 안 맞아서 학점이 안 나온다. 3년 뒤 또 수능쳤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C는 올해 수능에 실패했지만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공부해 내년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합격한다. 3년 뒤 대박나서 수억대 부자가 된다.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올해 수능에서 실패했거나 아쉬운 전적을 거두었다면 이걸 철저히 분석해서 그 다음 승부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싸우고 있어야지, 과거에 집착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다. 게다가 주위의 평가는는 건 무시해도 좋다. 평가는 그 내용보다도 **평가자의 스펙을 더 보아야하는 문제다**. 한국사회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는는 걸 기대하는 건 미련한 짓이 아닌가. 평가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미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저평가된 것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고 있었을 테니까.

자기 교재만 보면 잘 된다고 하는 업자들이 현재 수능결과에 책임지고 있나? 반면 저 애는 도저히 수능 안 될 거예요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급선회해서 찬양하는 건 콕콕에서도 있었다(...) 현명한 사람으면 올해 수능은 짹 지우고 내년 수능을 생각하며 지금 달리고 있어야 맞다.

5.24 머리좋은 사람들의 꼼수

2015.12.18

전문직 A의 경우는 원래부터 1000명씩 뽑아대던 텃에 사실 위기가 오고 있었다. (다른 전문직 B와는 다르다. 전문직 B야 분과별로 나눠지거나 워낙 로딩이 길기 때문에 선후배 시장경쟁이 심하지 않다)

그 와중에 대학교들은 시멘트 비용 선투자를 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했다. 그리고 정부관료와 의원들은 A를 전문교육기관으로 뽑는 걸로 사실상 밀어붙여버렸다.

사실 이건 매우 큰 사건이다. 저 교육기관 통과 이후로 ”돈있고 집안좋은 애가 다 해먹는 건 당연하다”라는식의 사회적 인식이 퍼지기 시작. 적어도 그 전까지는 가난하든 안 하든 ’공부만 잘 하면’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었는데 저런 법안이 통과되어버리고나자 공부 잘 하면 뭐하나 집안이 좋고 돈이 많아야지라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어버렸다.

그리고 8년 정도가 흘렀다. 원래 그전부터 우려가 많았지만 교육의 질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참 듣는 이야기가 많다. 무엇보다 그 전문직 A는 매우 위기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예정된 코스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 이 사회의 거룩한 분들이 **자녀들의 직업세습**에 성공하셨다. 7년은 매우 충분한 기간이었다.
- 인원수 과다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 성골과 진골을 나누면 된다
- 성골과 진골을 나누면 평범한 A들은 성공할 수 없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거나 SKY를 나오거나 부모 쉴드가 강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걸로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머리좋고 높으신 분들의 잇속 쟁기기라는 건 정말 ’법망의 틈새’ 내지 ’반사적 이익’이라는 형태로 실현된다라는 씹쓸한 것만 재확인. 내가 10대 시절에도 돈많은 사람들을 위

한 '기부금 입학제' 같은 게 나오다가도 철퇴맞기도 했다. 그게 불완전하게나마 관철된 형태가 저것이다.

자세히 적긴 그렇지만 지금 10, 20대들은 그걸 알까. 정작 자기들의 기회를 앗아간 게 바로 자기들보고 사회를 바꾸라고 하던 그 사람이라던 걸. 언론에 간혹 B나 C같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보고 사회를 바꾸라고 한다. 그런데 그 B나 C가 직접 나서서 사회를 바꾸긴 하셨나, 아니 자제분들은 어렵니까라고 물어보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라는 건데 웃기는 이야기다. 그 메신저가 실천하지도 못 하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겠나.

왜 그 거룩하신 분들께서 한국은 공부에 찌들었다, 입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능력이 아닌 인성을 보아야 한다라고 외치셨는지는 그런 분들의 '자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서민과 대중"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요즘 들어 더 재밌는 건 금수저들이 흙수저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저 A와 관련된 교육기관 학생들이 일부러 흙수저 흉내내면서 금수저 아니예요라고 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겠지만 그나마 아직까지는 '부모 잘 두었네'라는 소리는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는 세상이라 그런 점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법이라는 건 국회 소관이고, 의원들은 여론에 신경쓰기 때문에 그 여론을 속이려면 '서민'인 척 해야한다. 더 웃긴 건 그 서민인 척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듣고 자기가 기득권과 싸운다라고 착각하는 부류가 아닐까 싶지만.

5.25 미래예측

2015.12.26

논리 ≠ 현상

why?

우리가 아는 질서 ∈ 환상 세상 ∈ 환상 진짜 세상 = 우리의 오감이 불완전한 이상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 수학자들의 기막힌 수리모형과 컴퓨터만 구비되면 영원히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환상이 무너진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링크

시간이 나시면 윗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우상화한 '이공계 천재'들이 실제로 어떤 사건을 쳤는가 잘 나온 책이죠.

1. 미래예측이라는 건 믿을만하나.

역사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알건 10,000명이 알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A라는 직업이 잘 나갈 거라는 고급정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고급정보가 99%로 맞다고 합시다. 무엇보다 그 A라는 정보를 다 해독할 수 있다 치면 그 이 예측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다수가 A라는 직업으로 몰려서 경쟁이 치열해지겠고, A라는 직업분야의 과잉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 이후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접하는 예측이라는 것은 거의 다 대중적으로 공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만 믿고 움직이는 건 위 메커니즘 때문에 이득을 주지 못합니다. 대중들이 읽지 못 하는 파격적인 가설을 읽어낸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당사자의 독해력에 달린 것이라.

2.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도 훨씬 좋은 컴퓨터를 이용한다.

앞으로 세상은 더 진보될 것이고 그래서 이공계 지식이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좀 겨우뚱합니다. 예컨대 C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16비트 시절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좋은 맷폰을 잘만 쓰고 있죠. 만약 16비트 시절 흑백모니터 당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던 사람이 단순히 기계의 진화만 보자면 2010년대에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라고 엉터리 예측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미래 예측에 대한 신문기사가 거의 이 수준입니다. 만약 맷폰으로 이성을 유혹하거나 하는 등 SNS질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국어실력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 미래예측은 참 쉽습니다. ”어라, 컴퓨터가 발전하네. 컴퓨터가 다 대체하겠네?” 이거 하나로 결론을 정해놓고 부합하는 근거만 모아놓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미래예측은 맞지 않아도 누가 와서 돈 내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충 써도 되는 것입니다만 이와 별개로 그런 예측글을 쓰는 사람들의 교양이라는 게 짐작이 가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하나.... 차라리 그 시간에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체화시켜서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을 익히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기술로서의 프로그래밍은 사실 별 도움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계론적인 것만을 심화시켜 편협한 관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미래를 읽고 싶으면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한 15년 넘게 보면서 ’검증’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이 누군지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봅니다만 비결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와 ”심리”에 강하다는 것. 저기 어디도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이 사는 문명세계이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이 문명세계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사 = 절수 따기 옛같은 암기과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죠. 동서양 고종세의 ’상품, 교역’ 역사 같은 것을 읽다보면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텐데 말입니다.

정말 공부가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은 헛되이 보내기 싫다라는 분께 권하는 건 첫째는 외국어를 공부하라는 것. 그런데 첫째도 싫다면 도서관에 가서 그냥 재밌게 쓰여진 역사책들을 수십권씩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들 꿈이 커서 내 재능을 발휘... 는 헛소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니면서 간지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는 건데 실천을 제외하고 비결만 보자면 그건 역사책에 나와있지 수학이나 과학에 나온 것입 아닙니다.

4. 미래예측의 정확성 담보 : 추상성

구체적 현상을 반드시 부정할 수 없는 '추상화된 개념'으로 환원해보면서 그것이 왜 다른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가 이게 논증이 되지 않으면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공상과학 수준도 못 미치는 학설이 된다고 하겠죠. 예컨대 유력한 예측 중(뭐 이건 출처는 묻지 마시길. 그냥 저도 검증해보고 싶어하는 것이라서) 하나는 다시 종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런 논증이더군요.

- 첫째, 미국, 유럽, 동아시아는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쪼개지는 개인주의로 갔거나 가고 있다. 이런 모더니즘이 극에 달하면 개인의 자아 까지 해체위기를 겪으며 이건 상품이나 이미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빈 공극을 채워주는 건 바로 신앙의 문제고 또한 다시금 공동체를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 둘째, 출산율이 높은 집단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이다. 종교를 믿지 않는 개인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에서 비율이 줄어든다. 반면 근본주의적인 종교를 믿는 공동체들의 출산율은 높다. 그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간다

그렇다면 종교 이전에 카운셀러가 – 이게 수익을 창출할지는 몰라도 – 주류가 되어간다는 판단인데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카운셀링을 10대

들은 사교육, 그리고 그 이상은 역술가, 무당, 목사, 승려들이 담당하고 있죠.

이미 검증되었다고 하는 예측은 이른바 ”호연사회” – 즉 개인들은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뭉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데 콕콕사이트도 그렇겠지만 요즘은 아프리카 잘 나가는 BJ 들이면 (뭐 잘 나가야겠습니다만) 남 부럽지 않다고도 하죠. 과거 법인사회에서 이제 초개인사회로 가고 있다.... 가 되겠고 그 때문에 각자의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각자 방송하는 시대라면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해야하는 것.

5.26 공포게임에 등장한 참고서들

2015.12.28

수학의 정석 책깔보니 개정 과정인데. 깨알 같은 현장재현(...) 거기다가 피문은 정석도 등장.

챗과 결합된 인터넷 방송이야말로 수십명 앉혀놓고 히틀러식 연설하는 강의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 좋고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진화된 체제라는 것이죠. 기존 인강이 영화라면 아프리카 방송은 '연극'이 아닐까 싶은데.

저라면 기존 과외 + 학원 강의 장점만 살릴 수 있다는 것.

갑자기 과거가 생각납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에 언어영역 문제집을 풀 시절. 참고서 저자들이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라 무려 저자직강이기도 했는데 당시 등장했던 지문이 ”흥을 돋구면서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마당놀이에서 영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국어선생님이 그랬죠. 뭐 썰이야 그럴싸한데 어떻게 스크린으로 관객과 영화가 상호작용할 수 있냐.

라는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 피드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상이 왔죠. 그 당시 와우를 어찌 알았을 것이며 1인 방송이 쉬워졌다는 것을 감히 예측?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건 안 바뀌었습니다만.

- ex) 저런 방송을 잘 하려면 어찌되었든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

5.27 부모 자격

2015.12.29

가정이 '사랑'으로 유지된다라는 말만큼 허황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커플이나 부부가 '속물적' 이유로 헤어지거나 추태를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진짜 인격자들이라고 느껴지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은데 "윤리적, 종교적 의존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좋으면 한 배우자에게만 성실함을 다하긴 힘들 것입니다. 물적 조건이라는 건 바뀔 수 밖에 없고 상대의 성적 매력도 곧 질리거나 노화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찾는 키크고 잘생긴 부자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기' 딱 좋고, 남자들이 찾는 예쁘고 어린 베이글녀들 역시 유혹하는 남자들이 많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판이 대문호 양성소라고 하지만 전부다 주작은 아닐 것이고 저 역시 보고듣고 경험하는 것 보면 막장. 가령 건물주들이 웃는다는 변화가의 유흥 숙박은 '남녀의 바람'이 아니면 영위되기 어렵단 말조차 있죠.

그렇다면 사랑만으로(?) 맷어진 남녀가 자식을 낳더라도 잘 키울지는 의문이지요. 그 사랑은 허구에 가깝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거의 10억에 가깝게 들어가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그 반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O, X 를 가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

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런 문제로 적지않게 상담하면서 느낀 건 ”사랑만능론”을 주장하는 인간부터 잡아서 조리돌림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잘못된 풀이법을 전개하더군요. 해법은 간단할텐데 말입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악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최소한의 도덕도 강제하기 힘든 곳입니다. **가족구성원에게는 온갖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집 밖에만 나가면 인격자가 되는 경우**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야 간단하죠. 집 밖에 나가면 법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 그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그런 일이 지켜질 수가 없지요.

제다가 더 심각한 차이는 그나마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우는 반면에 어른들은 교육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 교육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으니 이 분들의 언행이 옳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격이 망가지다가 나중에는 폭발하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건 금전적인 것만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은 부모인데 실제 인격으로 치면 부모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꽤 있습니다. 본인들이 냉정히 판단해서 ”낳아준 분들이지만 인격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지체없이 그냥 ”낳아주고 키워준 건 고맙고 그 빛은 갚겠습니다만 제 인생은 제가” 이렇게 나서야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폭행당하거나 상처입은 건 인정 하지만 그걸 본인들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려는 경우도 간혹 없지는 않더군요. 부모가 뭘 어떻게 하든 자녀 양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그건 본인들의

태만한 학업 핑계가 될 수 없는데 그리는 친구도 가끔.

아무튼 요새 제가 느끼는 건 그건데 그 놈의 사랑만능주의가 생각보다 문제 가 많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부모자격이 없는, 그리고 그걸 상실해나가는 어른 들도 많아지고 있단 것입니다.

5.28 저녁이 있는 삶이 불가능한 이유

2016.01.08

'이게 다 기득권층 때문이다' 는 그냥 일본을 공격한다 식의 도피.

실제로는 저녁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모두에게 살기 좋아졌기 때문" 이라는 역설.

- 교육수준이 높아졌다, 모두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 실제로는 계층간 이동이 활발하다
- 전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쟁 싸이클이 0918에서 2400으로 바뀌어버 렸다(해가 지지 않는 경쟁)

우리가 자고 있을 동안에도 부지런히 사업계획을 짜면서 어떤 상품이나 서 비스를 어떤 고객에게 팔까, 그리고 경쟁자 누구를 몰락시켜버릴까 고민하는 사 람들이 전세계에 널려있다. 전세계를 향해 뛰는 대기업일수록 그래서 저녁 따위 는 있을 수 없다. 저녁을 즐기면 그대로 추격당하기 때문이다. 그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관(官)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고위직일수록 인간다 운 삶은 없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모두가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단 이 야기이다. 즉, 살기 짜증나는 건 역설적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

기 때문이다. 나 혼자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은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저녁있는 삶'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촌놈들을 멸종시켜버렸다.

흙수저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야말로 인터넷에 떠도는 밑을 무분별하게 복제한 것이 아닌가. 역사상 지금처럼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세상은 없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냉정히 비교해보아도 그렇다. 소위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전 금수저 아니예요", "민중 만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라고 빙민 가면을 쓴다. 가진 사람들일수록 인기를 모으기 위해 일부러 없는 첫, 못 버는 척, 힘든 척 한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그리고 있는 척 해대면 오래 못 갈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이 신경쓰는 건 교육이다. 그건 후계자 교육도 그렇지만 이제는 본인 교육도 무시할 수가 없다. 교육받지 못 하면 야생에서 생존할 수라도 있었던 석기시대 사람만도 못 하기 때문이다. 20세기라면 10년 교육을 받아 30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0년 교육을 받아도 10년을 따라잡을 수 없다. 모두가 자유롭다, 모두가 경쟁상대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진보한다 - 그러니 자기교육을 하지 못 하면 도태당해버린다. 다들 먹고살기힘드니 뭐니해도 계속 승부에서 이기거나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있다. 그 사람들은 학벌이 보잘 것 없을지 몰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 교육 및 훈련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런 데 저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5.29 외모지상주의.

2016.01.10

아주 보기 흉하다면야 어쩔 수 없다쳐도 그냥 평범한데도 잘 생겨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고 하는 병자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냥 컴플렉스 덩어리들입니다

다. 생긴 대로 걱정없이 근심없이 씨뿌리는대로 먹고살면 되지 저 존못이니라는 개드립치면서 괜히 ”나 잘 땡겼지? 나 에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 극혐. 얼마나 결핍감을 느끼면 지 얼굴 가지고 저러고 있나 그러는 것이죠.

물론 잘 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는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관계일 때만입니다. 참매력이라는 건 얼굴 이전에 그 사람의 ”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럼 그 뇌는? 많은 경험과 독서와 공부를 해야죠. 어느 자리 건 가서 화제를 유도하는 이슈메이커 아니면 분위기 잘 살리고 노는 회식부장 스타일이 낫죠.

일단 이건 진짜 나이 처먹으면서 느끼는 거라서 적겠음. 남자의 경우는 기생 오래비과는 잘 해보았자 소용없습니다. 눈빛이 맛탱이 간 경우가 많거니와 어차피 노화 못 이김. 남자는 그냥 눈빛 하나로 90%인데 (뭔 나루토 찍냐하면 할 말 없지만) 이건 진짜 그 사람의 경험치, 공부치에 비례하고 있음. 남창할 것도 아닌데 꿀피부 자랑하고 무슨 지가 웃가게 마네킹도 아니면서 고급 웃 걸쳐보았자 눈빛이 마약한 듯 맛탱이가면 답 없음. 여자들은 아무리 외모 그래도 슬프지만 연령빨이 가장 강해요. 마찬가지로 노화 못 이깁니다요. 얼마나 곱게 늙느냐 – 평소에 많이 웃고 다니고 좋은 생각하고 다니면서 청정하게 살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흔한 아지매들이 10년 전에 소라넷급(...) 모델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당.

외모만으로 서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냥 관계 끊는 게 좋습니다. 얼굴 잘 생기고 웃 잘 입는다... 하는 인간들이 나이먹으면 가는 게 양 콜라텍, 등산 그런 것이고(뭘 말하는지 알 것임)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예술을 감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보아야합니다. 저 중 하나라도 안 되어있으면 그냥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에 치중하는데 도덕관윤리관도 없고 머리에 듣 게 없으며 학습할 의욕이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먹고자는 것이나 좋아하고 나중에는 남녀관계로 마제정이나 고려시대 말기를 연출하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과연 배우자에 충실할까,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보았습니다. ’난 안 그러는데요’ 해도

그래서 전 안 믿음. 트리밍 잘 되어있어도 향수를 뿐이고 화장을 해도 돼지는 그냥 돼지인 겁니다.

5.30 머리가 좋다는 것의 정리

2016.01.25

대체적으로 여러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단언코 말하면 이건 훈련으로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한 것들.

1. 인내심이 강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즉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법이 먹히지 않는 골렘과 똑같은 내성이라 보면 되겠는데 혹자는 차분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인내심이 매우 강한 것이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냉정한 판단과 확실한 실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사소한 데 안 흔들리는 걸 넘어, 중요한 것에도 안 흔들린다. 그래서 ”독하다”라고 할 수 있다.

2. 끈기가 있다.

인내심이 자알 버티는 것으면 끈기는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다. 이것 역시 중요하다. 끈기가 있어 오래 버틸 수 있다면 공부를 오래할 수 있고 그래서 가시적 성과도 맛본다. 12시간 공부해야 진전이 있는데 A는 끈기가 없어 8시간만 하고, B는 끈기가 많아 16시간을 한다면? A는 아무 것도 얻지 못 하지만, B는 뭘 하든 성과를 보기 때문에 슬럼프가 덜하다.

3. 약속을 잘 지킨다

계획은 누구라도 거창하게 잘 세운다. 그러나 계획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1000명 중 1명이다. 계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공부했다라고 자부할 자격이 없다, 물론 현실은 노오력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계획을 지킨 경우 별로 없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이다. 왜냐면 얼마든지 파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긴 대가를 심하게 치러야 할 것 역시 자기와의 약속이다. 계획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자기와의 약속이란 말을 쓰는 게 더 적절

4. 언어능력이 풍부하다.

수학조차도 언어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잘 한다. 첫째는 이해능력, 둘째는 표현능력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언어능력을 좌우하는 건 바로 ’대화 경험’과 ’독서’이다. 언어능력이 없으면 국어와 영어에서 바로 타격을 입는다. 아래에 논하는 이미지 능력과 차이는 바로 가치 판단이다. 언어능력이 좋아야 가치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다. 조기교육 하에 이미지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많다(인터넷 덕분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언어능력이 좋은 경우는 드물다.

5. 이미지 능력이 좋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던지면 그걸 구체화된 이미지로 상상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두뇌회전이 빠르다는 게 별 게 아니라, 감각 이미지와 행동 이미지가 잘 형성된 경우다.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이미지를 즉시, 선명하게 떠올릴 수록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 머리뿔을 타고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장애가 아닌 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중요도는 1_i2_i3_i4_i5

5.31 인간의 탐욕

2016.01.26

여전히 철지난 진보 vs 보수 이야기가 있던데 뭐 이건 정치 글을 쓰기보단 그냥 시행착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만. 대략 과거대선을 보면 1997년과 2002년은 극적이긴 해도 모두 현재 야당 쪽이 뽑혔는데 그 때도 사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첫째, 당시 여당의 장기집권에 질렸다 둘째, 사회정의를 바로 잡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

그런데 재미난 게 그 지지계층들이 2007년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극적인 게 그거죠.

”부동산 폭등“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집을 사지마라,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정말로 사람들은 그걸 믿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행정계획도시라고 해서 세종시를 개발하자 시중에 물경 200조나 되는 돈이 토지보상금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서울의 강남부동산으로 몰려버리면서 ’투기열풍‘이 조장되죠. 투기열풍이 조장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건설사들에 자금이 돌면서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가 하는 건 해석에 맡겨둘 문제입니다만(사실 고의 같은데) 이렇게 레드x나 핫식x를 과잉복용한 대가는 언젠가 치르게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죠.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무튼 당시에 집 판 사람들은 수억을 손해보고 반면 대통령 말을 믿지 않고 강남의 돼지엄마들처럼 빗내서 집산 사람들은 수억을 벌었죠. 그리고 집집마다 가정불화가 많아집니다. 수백만원 가지고도 싸우는데 수억이면 칼부림 안 나는 게 다행이죠. 종부세 그런 것 하나도 안 먹혔죠. 거대한 자금이 풀렸는데 그게

뭔 소용이겠음 그런 걸 눈치까는 사람이 집 한채만 구입할 리가 없죠. 그렇게 당시에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거기다가 펀드열풍도 장난이 아니었으니.

그런 빈부격차의 카오스를 겪고난 사람들이니 정의고 뭐고 다 모르겠다, 아니 정의에 대한 회의론이 감도는 것이죠. 그 다음 선거 결과는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건 앞으로도 10년 넘게 쭈욱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동산 게임 앞에서는 기존의 역사라느니 철학이라느니 정의라느니 다 무색해졌습니다. 궁정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인데 역사적으로는 지혜가 쌓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상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느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 부동산을 바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적지않은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이 그 부동산에 연동되어버렸기 때문이고 만약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건 바로 조세전가가 이뤄질 것입니다.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 어차피 임대료를 높여버리겠죠. 이런 문제의 해법은 늘 그렇지만 '공급' 확대 -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중요한 관공서를 지방으로 보내거나 하는 것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게다가 그런 시도가 있으면 항상 투기가 엮이게 되어버립니다. 지방혁신도시의 사례처럼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의 대학교육 - 고급교육이 저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 되어있느냐였는데 그게 아니었죠. 욕을 먹는 저자 분이 바로 공병호, 그리고 역시 비판을 많이 받은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책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나마 적중을 시킨 게 저런 '탐욕스러워보이는' 저자들의 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학수험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다 돈이 안 되니까 의치한으로 몰린다 그건데 만약 의치한조차도 겨우 본전을 챙기는 수준일 것이다... 로 되어버리면 그럼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수록 그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가정해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사실 한국인들은 트랩에 종속된 것인데 하나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끓여있어서 열심히 부동산에 착취당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대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어떻게 먹고살고투자하는 가에 대해선 거의 까막눈이나 다를 바 없단 것입니다.

5.32 화낼 줄 아는 법

2016.01.28

우리나라 교육 중 잘못된 것 :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다.

참는다는 건 본인의 의사, 의지에 따라서 주어진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것이다. 이것은 부조리한 것에 무조건 침묵하는 것과 다른 것인데.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참으라는 건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는게 불편한 진실.

사람은 웃을 줄도 알아야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를 잘 낼 줄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화를 낼 때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화를 내지 않으면 폭력이나 자해, 그보다 더 끔찍한 극단적 행동에 호소해버리고야 만다.

그런데 우리나라 꼰대들은(... 그리고보니 나도 꼰대인가 ...) 어이어이 좋게 해결해, 다 참으면 그만이야(물론 본인이 그런 경우는 참지 못 한다) 화내지마, 웃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

우리나라만큼 인내를 강요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써 모두가 인격자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싫은 것은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인데 이런 건 왜 안 가르칠까. 무조건 ”네”, ”Yes”라고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제 권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3~4월에 대학가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이상한 걸 강매하거나 괴상한 동아리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 애들일수록 ”아니오”라는 걸 못

하는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한 결과다.

화를 내는 것은 고함지르는 것과 다르다. 무작정 고함을 지르고 샤우팅을 하는 것은 그냥 히스테리를 부리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고수들은 상대가 히스테리를 부리도록 냅둔다. 히스테리를 부린 사람은 그게 부끄러워서 저자세가 되어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화를 내는 사람은 폭발하지 않는다.

첫째,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쳐다본다. 둘째, 하고싶은 말, 해야하는 말을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히 전달한다. 셋째, 자기가 화를 낼 수 밖에 없는 윤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이유를 말하며 상대방의 부조리함을 고발한다.

자신이 진정 분노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의사, 즉 뜨거운 마음을 상대에게 전도시키는 작업이다.

타겟에 정확히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폭발해버리는 걸 화를 내는 것이라 착각한다. 제대로 화를 내는 건다고 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끄러워'는 한다. 즉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수치심을 느끼지 못 한다면 그 때에는 화를 내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상대는 이미 정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정말 싸우거나 아니면 멀리해버리는 단계로 가야한다.

5.33 공부보다 인간성이 중요하다?

2016.02.07

이건 논란이 있다. 일단 공부보다 인간성이 중요한 건 맞다. 공부는 노력해

도 되지만 인간성은 노력에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인간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다.

실제로 안 좋은지를 아려면 겪어보아야하는데, 겪어본다는 것은 상대가 악인이면 우리가 이미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게다가 **악인일수록 미소짓고 착한 척 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영업용 미소라거나 장롱 윤리라면 애교지, 실제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놈이 더 무서운 녀석인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갑자기 옛날이 기억나서. 어린 시절에 한 어르신이 그랬다. ”공부가 뭐가 중요해? 인간이 되어야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보니까 그 어른은 인간보다는 개과에 가까우신 분이었고 그나마 **배신하지 않고 남은 게 공부였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성이 안 중요하나. 그건 아니다.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과 엎히면 본인 인생도 망한다. 그런데 그 인간성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 공부를 해야한다고 정리되는 것 보면 결론은 정말 간단한 것이다.

인간성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당연히 최악은 인간성이 나쁘고 공부도 안 하는 경우겠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공부” 하는 걸 믿는 게 나을 것이다. 그나마 공부한다는 건 그 사람도 ’노력을 중시하는’ 률을 준수한다는 이야기고 사실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인간성의 전제 이기 때문이다.

5.34 하류교육

2016.02.08

애시당초 의전원이나 로스쿨이 독과점 구조 깨고 자유로운 교육 하겠다 다양한 성을 충족시키겠다... 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결과야 보시다시피. 제도 하나 바꾼다고 공부의 본질이 달라지겠냐만, 그리고 공부의 본질은 ”주입식”이 아닌

가. 특히나 카리스마 강사들이 잘 먹히는 것도 그런 이유, 사고는 정지시키질 몰라도 주입은 정말 잘 시켜주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없는 게 아니라서 '자유로운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교육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부모들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게 아니다, 나름 성과를 보고싶어한다. 거기다가 학생들조차도 참교육 그런 건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성적이 오르거나 수능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이거야말로 절박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사람들도 간사하긴 마찬가지다. 곁으로는 과정이 중요하다거나 취지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이든 물질적 보상이 따라오길 바라며 결과가 좋길 바란다는 점에서는 속물과 큰 차이는 없다. 자기 전공이나 소신을 보통은 20대 초까지는 강조한다. 물론 20 후반이 되면 왜 진작 주입식 공부해서 의대에 안 갔을까, 혹은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다고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조언을 안 해주었느냐면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취업난이다 백수 천지다라고 해도 할 놈은 한다. 다만 그 준비는 10여년에 걸친 장구하고 무서운 과정이다. 자기 주관을 강조하면서 자유분방하게 간 사람들이 사실 목적을 이루는 경우는 별로 없고(역시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다) 주관이라는 것은 없지만 극성 부모가 시키는대로 하면 나중 일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평타는 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다. 부모가 강하게 막아준 것에 고맙다라고 말하면 훈훈한 해피엔딩은 되지 않을까 싶지만.

다들 부의 세습만 경계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격차를 넣는 건 바로 지(知)의 세습입니다. 부의 세습은 계량화할 수 있고 세금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당히 가혹한 편이다(물론 탈세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 이걸 막아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오늘자 금수저 기사에서 영어유치원 월 200만원이 지적되던데 사실 월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파시즘적으로 교육시키려

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부의 세습만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복지를 하면서 밥먹이자고만 하면 그건 바보들이다. 저 사람들은 물론 많은 걸 사회에 환원하겠지만, 이 경우 환원되는 건 어차피 '뻥튀기된 재산'이니만큼 그리 타격이 크지 않다. 그보다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품가는 교육을 시켜서 실력과 지위를 보장해주려고 하지 않는가.

반면 하류층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따라간 결과 – 무슨 선행이냐 책이냐, 마음껏 뛰어놀아라 – 일본에서 비판받는 여유교육을 완전히 따라갔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하향평준화되어버린 것만큼은 사실이다. 다소 논외적인 사실이나 서술의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체형, 얼굴에서도 인종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영어 절대평가를 한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건 그렇다. 현재 수험생들의 영어 격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출제하기가 참 어렵다. 그나마 EBS 연계로 어떻게든 강제로 평준화시키긴 했지만 이것도 극에 달해버린 것이다. 정말 궁금해지는 데 10년 전에 영어광신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던 지식인들은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시켰을까, 그렇게 비판받던 그 영어 광신도(?)들이 결국 그 부모들 뜻대로 잘 나가는데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 논쟁도 사실 대중들의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게 갑자기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적어도 2000년대 초에는 이 정도까지 격차가 지적되지는 않았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하향평준화라는 게 얘기되었고 하필 이걸 예리하게 지적한 데가 바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에서 격찬한 책이 바로 미우라 아츠시란 사람의 '하류사회'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418162

지금 보면 뭘 이런 당연한(...) 내용이냐고 할 건데 당시에는 설마 저럴리가 하면서 판타지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책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것이다(목차만 훑어보아도 다들 반론 못 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조선일보는 일단 집중해서 볼 수 밖에 없다. 중요한 떡밥을 정말 잘 짚어내기 때문이다)

그럼 2006년? 직장인 - 재테크 - 부동산 주식 펀드 열풍 학생들 - 열심히 해서 학벌 세탁하기, 의치한 갈아타기. 당시에 뭐하러 토익을 보냐, 나라를 바꿔야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야 보시다시피. 천박하다 소리 들어도 열심히 재테크하거나 학벌세탁이나 의치한 갈아타기에 성공한 사람은 그나마 마지막 열차를 탄 것이다.

사실 헬조선 어찌구하는 것도 거부감이 드는 게 그걸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러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짚어야하는데 역시 그런 건 없다.

+

더불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128396

이 책도 당시 참 관심있게 읽고 정말 그렇게 되나 보았는데 다는 맞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 지금이야 수저론으로 상식이 되었지만, 역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부모 설드라는 게 먹히리라고 보지 않았기도 해서리.

교육측면에서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76285

이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맞다. 더군다나 상담하면서도 느낀다. 특히 지금 수험생들은 당시로 치면 거의 초딩들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인과관계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다.

++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저런 걸 지적하는 책을 쓴 것은 본 적이 없다 (... 당시도 예송논쟁이었지 아마 ...) 일본인들이 쓰는 미래예측이라거나 적어도

거기에 버금가는 건 일단 믿고가는 게 좋다.

+++

뭔 얼치기 사회과학도 아니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3/05/0301000000AKR20130305217500002.HTML>

통계자료 댈 필요조차 없는 문제일텐데.

첫째, 널려있으니까. 양극화는 지금 다들 동감, 동의하는 사안이군요. 둘째,
그건 그냥 2000년대 당시 바로 피부에 와닿았고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인데 참.

그 시대 양극화 진행을 겪고 목격한 사람에게 '뇌피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회과학이나보군요. 이 경우라면 정상적인 태도는 ”교육비 지출이 부의
양극화를 낳지 않는다”라는 통계자료를 먼저 본인이 제시하면 되는데 그게 있
으려나요?

+++

아니 무엇보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정책이었죠.

참여정부 수능/내신 등급제 링크

이해찬 세대 링크

다수 대중들이 저기 휩쓸리는 동안 상류층들은

링크 교육비 격차 자료 보시면 끝나네요.

당사자가 겪지 않았다면 스스로 검색해보고 통계자료만 보아도 뇌피셜 이야

기 못 할 것이고 이거 검색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정도면 그냥 '뇌피셜'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진의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회과학 강조하는 사람은 글을 읽고 "뇌피셜"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리는 없을텐데 말입니다.

5.35 대중의 선택이 혼명한가

2016.02.08

사실 이건 너무 간단히 논증되는데 – 간략히만 보아도 주식투자만 해보아도 체감할 수 있지만 –

대중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게 아니면 똑똑한 소수가 절대 군림할 수가 없다.

대중의 선택이 우매하다라거나 자업자득(?)이라는 데 발끈했다는데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하는 건데 뭘 어찌란 건가.

물론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이 경우는 **"다수의 선택으로 위협이 분산"** 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식료품이나 전자제품, 그리고 살아가는 몇가지 상식에 있어선 소위 다수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증된 것에 한한다. 실제로 다수가 한다고 해도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중 검증되지 않은 건 나중에야 해악이 드러나 경악하는 경우가 많다. (ex. 폐섬유화를 촉진하는 걸로 알려진 가습기. 로마시대의 납 등)

실제로 대중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더욱 많이 하며 그로써 생기는 차익을 똑똑한 소수가 누린다. 대중들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건, 돈놀이를 하는 금융사나 보험사건 어떻게 대중들을 갖고놀까 그걸로 매일 머리를 쓰고 있고 국회에 통과되는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은 그것의 진정한 의도나 side effect가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대중들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 한다.

혹자는 이것조차 대중 탓이 아니라 지배계급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것도 무의미한 이야기다. 대중이 똑똑하고 현명하면 지배계급에 착취당하는 일 이 벌어질까? 가령 노동문제만 하더라도 원샷보다 사실 더 해악인 것은 바로 불체자들을 마구 수용하고 지문날인을 받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당시에 그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나중에야 이게 국가탓이야라고 할 때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지금 무상보육(누리과정)이나 급식 같은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복지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다들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100원을 내면 80원만 서비스받는 격이다. 그에 비하면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知)의 격차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쓰지도 관심쓰지도 않는다. 사실 교육격차는 국내문제만 아니라 한중일 전체로 보면 심각한 것인데, 결국 노동경쟁력이 교육수준에 좌우되는 것. 그리고 저 인구 수 많은 중국에서 어떻게 밀고 들어오나 보면 사실 지금보다도 10년 뒤가 가망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10년 뒤에 그 때에는 중국제가 더 이상 대륙의 기상이 아니고 중국인들의 교육수준을 우리가 못 따라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말하지만 이런 건 우려될 때에는 다들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항상 현상으로 나타나고 난 뒤에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온다.

수저론에서도 불편한 것은 대안이다. 흙수저라고 무작정 우대할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능력있는 사람을 대우해주느냐이다. 현재의 논란은 빈부격차를 넘어, 금수저면 별 노력을 안 하고도 프리패스하고, 흙수저는 노오력을 해도 기회를 안 주는 경우다. 그런데 이 역시 입시제도를 '다양성' 확보라고 수시나 입학사정 관제로 바꾸거나 면접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혹자는 수시도 열심히 한다, 학점이 좋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알지 않나, 수시만큼 가정환경 뺨을 많이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대중들은 언론에서 고발하는 '결과'로서의 현상에만 예민하지 진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사실 알지 못 한다. 혹자는 이런 걸 거리에 나가 시위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제는 모든 것이 '시장 논리'에 연계되는 식으로 나오는데? 가령 이번에 사드 배치와 같은 미국 무기를 쓰는 문제를 자주 국방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주는 대신 미국에 수출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리베이트성 관계를 안다면 말이다. 다시 말해 사드를 배치한다 안 배치한다하는 문제도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시장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정권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다.

물론 이런 배후사정에 표피적으로만 접근하면 음모론의 함정에 빠지기 좋다. 즉, 그 모든 것이 특정주체가 설계한대로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건 다들 아실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시장을 확보하거나 룰을 더 유리하게 고치기 위한 경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면 우리가 속한 대중이 명청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한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측면에서도 좋다. 반면 대중이 혁명하고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착각한다면(슬프지만 역사에서 그런 대목은 없다. 프랑스 혁명조차도 배후는 부르주아)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의 마리오네트인형이 될 뿐인 것이다.

한국근대사로 따지면 군부독재시절은 어차피 독재자들의 뜻대로였으니 대중들이 면피를 할 수가 있었지만, 정말로 직선제로 정치적 의사를 행사할 때부터는 다르다. 그 때부터는 스스로의 책임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현저히 낮은 투표율 - 선거날에는 놀러갑니다라고 정리되기도 하지만 역시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빈부격차는 커지고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간다라는 건 "그래도 대중들이 명청한 건 아니예요"라고 면피하기만은 힘들다.

+

조선왕조가 일본에 먹힌 것은 백성들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 조선은 군주제였으니까. 그러나 4.19 혁명 뒤 다시 독재자가 등장한 건 국민들 본인의 책임도 있다. 독재자들은 '혼란'을 틈타 집권한다. 그런데 그건 국민들 스스로

가 그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부추긴다. 그리고 그게 커져서 스스로 감당 못하면,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길 바라고, 그게 독재의 탄생을 낳기도 한다.

미대입시에 떨어진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한 것도 저런 메커니즘이 덕분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은 혼란의 극치였고 당시 독일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수습하지 않고 누군가 정리해주길 바랬다. 만약 독일국민들이 스스로 그걸 해결했다면 나찌독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들 히틀러를 욕하지만 실제로 욕먹어야할 사람은 당시 독일 국민들이었던 것이다.

작금의 풍토도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먹고살기 힘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국가가 알아서 해달라,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줘라 하고 요구만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독재를 출현시키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재밌는 건 가장 극우적인 독재는 초기에는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나타난다는 것.

5.36 교육격차와 지리격차

2016.02.09

교육격차 → 지역격차 → 부동산 계급 → 끼리끼리 → 조선시대

따분하지만 인상적인 책이다(출판사부터가 김영사다) 도서관에서 빌려읽은 계기는 아마존저팬의 한 깐깐한 일본인 리뷰어가 보기드문 별 다섯개를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을 읽은 후 분석해보는 사회 현상이 정확히 위 책에서 얘기한 룰을 따라간다.

진정한 격차는 사실 교육격차이다. 부의 격차는 정부정책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마음먹고 투표해서 영향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교육격차는 결국 지역격차를 낳고, 한국사회 특성상 지역격차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한국사회는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거칠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희망은 그런 교육이 차라리 무쓸모하다는 것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 실제로 직업의 지리학이란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교육 강화 →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 → 가치 창출 및 혁신 → 해당 지역이 부유해짐** 이런 루트를 밟는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몇몇 교육특구는 집값이 비싼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헤게모니가 무너질 일은 당분간 없어보인다. 그럼 거꾸로 교육이 지역격차를 낳는다면, 거꾸로 지역도 교육에 영향을 주느냐 할 수 있다. 이건 '클러스터 링'으로 설명된다. 극성 학부모나 경쟁이 심한 학원이 있는 곳은 정보가 빠르고 분위기도 분위기마다가 효율도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질좋은 조기교육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는 사람들의 직업, 소득, 교육'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직업과 소득도 교육이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별 의미없는 담론에 빠질 바에 과거 교육정책을 복기해보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한국 최강의 첨보종족 강남 아줌마들은 진작에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그들이 진작에 은밀히 교육정책이나 교육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아파트 재건축 등에 힘을 행사하며 부를 유지해온 것은 그야말로 연구대상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명쾌한 결론은 나온다. 미래에 어떤 직업이 좋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건 '고급두뇌'가 되어야한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건 결국 저런 고급두뇌들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보면 간단해진다(의사부터가 그렇다)

비싼 돈을 들여서 외모까지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 다만 바꿀 수 없는

건 '두뇌'와 '키'와 머리카락이다. 그렇다면 이제 초점은 한 인간의 두뇌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시킬 수 있느냐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간다. 교육이 결국 장래의 직업, 소득, 그리고 지리까지 결정해버리는 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결국 고급교육+미개척분야라고 한다면 이 분야로 미리 눈돌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5.37 복부인들

2016.02.09

”의사 좋아요?”

”공무원 좋아요?”

”앞으로 뭘 직업이 좋아요?”

좋은 직업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데 소용이 있을까. 앞으로는 직업도 직업이지만, 이제 사람을 더욱 볼 건데? 의사나 변호사라도 실력있는 사람 찾는 것 아냐?

실력없는 의사라면 사람 죽이고 작살나겠고 지적능력없는 공무원이라면 일 엉터리로하거나 민간에 휘둘리다가 망하겠지. 수험사이트에서 대학서열화나 의대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좋아서 그럴 것 같냐. 그런 걸로 '장사'해야하니까 그런 거지.

과거 50년간 대통령 빼고 진짜 승리자가 누굴까? 공대 박사? 의사? 변호사?

아니다, ”강남 아줌마”들이다. 농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생각보다 저런 직업들이 돈을 그리 많이 벌지는 못 한다. 의사만 하더라도 사실 학업 기간이나 로딩을 보면 그것에 비해 많이 받지는 못 한다. 그 사람들은 다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만큼 받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거두며 수입도 제한한다. 그러니 실제 재산 증식은 '부동산 투기'였고, 이건 아줌마들이 정말 맹활약한 것이다. 이 분들이 무서운 게 '폭락'할 거라는 경제전문가의 예측도 가볍게 무시하게 만들고 집값 유지를 넘어 상승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눈여겨볼 건, 저 분들도 과연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가방끈은 생각보다는 짧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계층이 계층이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아줌마들끼리 정 보교환하고 탐색첩보전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정성이면 차라리 본인들이 입시치는 게 나을 정도다. 뭉칠 때는 뜰뜰 뭉쳐서 자기 지역의 이권을 수호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남편들을 침대에서 사주해서 사실상 밤의 대통령(...)으로 활약하시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고급교육을 시켜 계속 해계모니를 유지해나간다. 건물주 금수저의 배경은 사실 저런 치열한 노력에 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결국 공부하는 게 살아남는 것이다.

김광수나 선대인 같은 전문가들의 부동산 폭락론은 설날특선드라마도 아니고 10년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왜 그런 걸까, 정량적인 분석은 그 방법론이나 데이터로는 틀린 건 없다. 그렇다면 정성적인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분들의 문제는 부동산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걸 까먹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대단히 불확실하며 예측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걸 모른다는 것도 있다. (사실 이 분들의 예측을 보면 부동산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게 많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이 놓친 건 아랫 글에도 적었지만 **교육격차**다. 국토의 진정한 의미 : 농경시대는 농지, 공업시대는 공장과 식민지, 정보시대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누리꾼이라는 말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부는 '첨단산업'을 주도해나가는 **과학기술과 그 고급인재로부터**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비밀을 유출해나갈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교육문호를 개방하고 장학금 지원해주는 것? 잘 해주면 어차피 알아서 미국으로 귀화할 것이고 그게 미국의 국력이 된다, 실

제로 우리나라 고급두뇌들도 미국으로만 가버린다.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은 아파트, 토지, 이자율만 보지, 거기 사는 사람들의 '교육'을 보지 않는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부는 그런 교육동네가 좌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집값이 쉽게 떨어지겠는가. (혹자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를 작살내리라고 하지만 그다 지. 어차피 저런 동네의 교육은 알아서 잘 돌아간다)

만약 진로 선택이 그 전공으로 진학한 다음 철밥통을 누리는 거라면 양 망상을 버리는 게 좋다. 이제는 어느 직업이건 공부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직업이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다. 의치한도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공부하지 않은 직업인'에 한해서이다. 거기서 탑인 사람은 잘 나갈 것이다. 당연히 공대든 자연대든 인문사회대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것을 가지고 그 분야가 망한다라고 오버하는 게 현실 아닌가?

가능하면 콕콕에는 부자들만 웠으면 좋겠다. 10대와 20대의 부자란 수억 소득이라거나 외제차라거나 아파트가 아니다. 부의 기준은 바로 두뇌다. 매일매 일 푸는 국영수 문제나 읽는 책이 자산인 것이다. 실제 이건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정말 냉정한 현실적인 지적이다. 공부를 하는 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본'을 축적해나가는 것이다. 내가 1000문제를 풀었다면 10문제 푼 녀석보다 100배나 부유한 것이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공부해도 소용없어, 좋은 대학 가는 놈은 한정되어있어, 아 이 빌어먹을 운명... ? 이거야말로 삼류 업자들이나 공부 모략가에게 '세뇌', '선동'당한 결과가 아닌가?

노오력해도 소용없어, 이게 다 기득권 때문이야, 민중은 진보한다... ?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놀도록 냅둬라. 망하려면 자기들이나 망하라고 하든가. 사실 실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임여들이다. 정말 노오력하고 노오력 욕하는 사람들은 단 한번도 못 보았다. 정작 기득권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노오력은 잘만 한다. 그리고 민중이 진보한다는 데 왜 그 사람들은 공부는 안 하고 유흥산업의 호구가 되어주시나.

5.38 고소득층 교육비가 7.8배

2016.02.09

링크

저런 현상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넘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나 봐야한다. 이건 앞서 얘기한 '지의 격차'로도 설명되는데

- 하류 : 돈만 본다
- 상류 :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

국가에서 돈은 뺏아갈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을 뺏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미래에는 고급인재는 어느 나라건 환영한다. 그 미래에도 '대한민국 만세'거리고 있을 리야 없지않나.

지금도 하류들은 수저론 T-T 거리면서 대기업 법인세 빼액~ 복지 확대 까 악~ 만 거린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움이 되느냐 하면 안 그렇다는 게 문제지. 실제 '부'는 교육으로 이전되고 있구만.

다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저소득층이 구매력이 없어서라고 해도 7.8배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그건 바꿔 말해야지. 현명한 선택을 상류와 하류 중 어디서 하겠나? 하류들은 그저 국내에만 시선이 머물러있어서 복지확대나 부의 재분배만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상류들은 이미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국경을 넘는 능력의 확충을 목표로 한다면 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저건 수험사이트에서 말하는 쉬운 수능 비판과는 거리가 있어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저출산까지 감안하면 사실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격차는 훨씬 더 커진 것이다.

참조할 수 있는 모형이 중국 화교들일 것이다. 화교들은 원래 국가를 안 믿는다. 그들의 기원부터가 정부의 탄압을 피해 본토에서 탈출한 것. 특정 국가에서 가서 유대인과 같은 짓을 한다. 동향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지역의 경제를 손에 쥔다, 단 나머지는 그리 욕심내지 않는다. 쓸데없는 낭비는 안 한다. 그러나 자녀 교육 투자만큼은 정말 천문학적 수준으로 한다.

지금이야 대중들은 낙수효과 어디있냐 대기업이 부를 분배해야 한다 복지 를 늘려야한다고만 소리치겠지만 저렇게 해서 능력치가 넘사벽이 되어버리면 그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이거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저거의 해결책은 공교육 강화 – 즉 학교도 결국 학원화시키는 것, 신자유주의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하는 순간 교육이 무슨 산업이냐 입시냐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 물론 그걸 주창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는 좋은 교육을 시키지. 사실상 계층이동은 이제 맥이 끊어지는 게 아닐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하요'라는 영화가 1989년에 히트친 적이 있었다. 성적을 비관한 여학생이 자살한다는 충격적 엔딩이었다고 하지만... 요즘 이런 게 개봉되면 뭔 한물간 소리하나는 평을 들을 것이다. 실제로 행복은 성적순이 되어버렸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적이라도 매겨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현실이다. 사람들이 응시 같은 드라마를 보는 건 재미있어도 그러겠지만, 그 시대가 지금보다 살기 좋았다라는 미화된 추억도 한몫한다.

그러나 그런 고성장 시기가 다시 돌아올 일은 없어보인다. 적어도 저 시기에는 소위 재벌이나 졸부(강남 개발로 앉은 자리에서 떼돈 번 사람들)들은 자녀들이 개차반이다 망나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그런 졸부 자식들이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걸로 혀를 쫓아 차면서 말세라고 소리쳤는데...

생각해보면 저건 희망적(?)인 것이다. 부유층 자제들이 공부를 안 하니 부를 대물림하기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소비까지 증진시키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의미가, 가진 자들도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킨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나 형평성을 고민할 위치는 아닐 것이다. 결국 교육해서 올라가는 저 라인에 끼느냐 못 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일 뿐.

5.39 특혜

2016.02.10

대한민국은 감성팔이가 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건은 있죠. 요구하라 얻어낼 것이다. 부정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브레이크는 없다.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거나 정의를 추구한다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않는 걸로 실천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기하게도 메시지는 메시지고 실천은 상관없다라는 논법을 써먹는 사람들이 많죠.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구호는 선동이되고, 선동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결국 피해를 줍니다.

특히 정치가 그런데, 이건 삶의 문제로 직접 느껴보아야하는데, 그 이전에 메시지로만 접한 사람들이 많아서리. 그래서 명문대 진학해서 증세와 복지 정책 지지하다가 자기가 대기업 입사한 뒤 세금 뜯기는 것에 빡쳐서 변절해버리죠. 북유럽식 복지 해야하니 부자증세해야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대상에 해당한다는 걸 아는 순간 소신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시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과연 그런 특혜까지 가는 걸 알았어도 그들을 응원해주었을 것인가... 라는 건 다소 회의적입니다. 동원되는 논거가 '어차피 대학경쟁은 불공정하다'라거나 (아니 그럼 대학을 없애버리든가 그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마찬가지로 국가는 과한 보상이나 부조리한 것도 책임져야하는데?)는 논거인데 엄밀한 검토 없는 정치적 의사란 늘 이렇게 부조리함을 낳습니다.

이런 걸 일찍 깨닫는 게 좋을 건데 말입니다. 약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할나위없이 강자들이고, 반면 강자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 실제로는 약자를 배려하는 면도 없지 않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광우병 집회 이후 퍼졌던 냉소주의와 같은 결과를 낳아버리겠네요. 지인들은 그 당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기껏 뜻있는 사람이 일궈놓은 진보운동이 이제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간단, "근거"도 없거니와 "일관성"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이죠. 취지는 좋지 않았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광우병은 한우도 자유롭지 않은 문제였고(한우가 오히려 미덥지 않은 게 많았죠) 처음에는 국민 건강을 강조하더니 급기야는 청와대로 진격하자 해버렸으니(...)

더군다나 이해찬 세대와 더불어 그 때의 10대들이 지금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있죠. 아마 성향이 안 바뀌었다면 작년에 광화문에 나갔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자기 앞가림도 바쁘거든요 자기들보고 사회를 바꾸라고 하던 어른들이 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고 특히 대입보다 더 부조리하고 '잘 태어났느냐'까지 확인하는 취업시장에서 물먹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곤대충고가 이 점에서는 맞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세요**" 그 다른 생각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싫은 사람이나 그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공부할 때입니까? 나가서 사회를 바로 잡아야지**"

5.40 혁신

2016.02.10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진보하는데 정부는 1차함수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으

니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의치한교대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만 불편한 걸 제시하면 저기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연 현재의 기득권이 10년 뒤에도 유지될지는 회의적입니다.

원격진료는 계속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교육기관들은 사실 가장 보수적입니다.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건드리기 까다롭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해 다른 곳의 취업이 힘든 건 경기도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분야는 '진보'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고 노가리까기나 하는 화이트칼라들이 컴퓨터로 대체됩니다. 정말로 이윤창출을 하는 영업이라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창조하는 기획연구개발이라거나 이게 아니면 쓸모없어진 건데 이건 거꾸로 말해서 취업이 잘 안 된다 → 시스템 진보에 성공했다 →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며 리스크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던져봅시다. 그럼 시대 진보를 따라가지 못 하는 분야에서 언제까지 자기 밥그릇을 수호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인 것으로도 커버 안 되는 혁신적인 게 등장하면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p2p, 토텐트, 웹하드로 저작권도 무용지물화되었지만 방송국은 해게모니를 잊었습니다(거기다가 종편 등장도 한몫하겠지만) 저작권을 수호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프리카 1인 방송 체제가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겠고, 지상파 방송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그 해게모니가 봉괴되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마 이런 건 미래예측서에서 얘기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이 느껴졌지만요 여담이지만 연예기획사들은 그런 사소한(?) 저작권에 신경쓰기보다는 세계적으로 규모를 넓혀서 공연료, 광고비 등을 받는 전략으로 바꿔나갔고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이미 정착된 키워드가 1인 기업입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미소해지거나. 즉, 전세계를 아우르는 다국적 법인화되거나, 혹은 뛰어난 초개인으로 영업하거나. 그런데 이걸 대학에서까지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에 대처 못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프리카 1인 방송, 1인 기업에 더불어서 쏠쏠이 이문을 남긴 게 '직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처음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고, 국내 고객들을 갖고놀던 대기업은 할 말이 없으니 말돌리기 시전했죠.

특정업계가 잘 나가는 것을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고 그걸 자기가 누리겠다라고 할 때 주의하시길. 결국 혁신은 하게 됩니다. 그 업계가 자발적으로 혁신해서 사람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혁신당해서 사람을 잘라버리거나 물론 이걸 특정업종이 잘 나간다 어쩐다 이런 걸로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살아남겠죠, 다만 철밥통은 없습니다. 예컨대 문과를 예로 들자면 대학교 문과들이 그렇게 된 건 자기들이 혁신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구조조정하고 과통폐합으로 인원수 조절하고 고급과정은 대학원 과정으로 바꾸고 경쟁을 강조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과에서도 초엘리트들은 잘 나갑니다.

+ 회사가 사람을 자르는 건 비극으로 인식됩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곳이 주가가 유지 혹은 상승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미래가 밝으니까요. 정반대로 인력을 뽑아놓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곳은 썩게 되어있습니다.

5.41 교육비 격차 : 가축에게도 밥은 먹인다.

2016.02.11

대략 2000년대 초반에는 약 3배 정도였던 게

링크

극빈층의 교육비 비중은 3.97%에 불과해 최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2.65배**에 달했다. 이같은 격차는 2·4분기 기준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현재는

링크

계층 간 교육비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소득 5분위는 월평균 교육비로 1분위의 6.3배, 2011년에는 6.1배를 쓰는 것으로 집계 됐다. 하지만 2012년(6.5배)부터 2013년(6.6배), 2014년(**7.9배**)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저 격차가 좁혀질 일은 이제는 요원해보인다. 10년 전에 약 3배, 지금이 8배라고 한다면, 그 다음 10년 뒤에는 어림잡아 15배가지도 치달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이미 교육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교육격차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넘사벽 차이도 이로써 설명된다.

링크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 격차는 무려 100년에 달했다. 브루킹스 산하 ‘보편교육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레베카 원스롭 선임연구원이 2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누구나 일정 수준의 보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게 산업혁명 이후 번영기인 19세기 중반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1948년 유엔인권헌장이 발표된 뒤에야 그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은 학교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단지 학교교육이 본격화된 시점만 100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수받는 교육 기간을 따지면 문제는 더 심각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의 성인들을 조사해봤더니, 학교교육 이수 기간이 평균 12

년이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6.5년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그럼 이 격차가 줄어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레베카 선임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6.5년의 교육 이수 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나는 데에만 6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 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 이수 기간이 4.5년인 후진국의 경우 85년이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그 사이에 선진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2100년에는 선진국의 평균 학교교육 이수 기간이 14년을 넘어서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12년, 후진국은 11년을 넘는데 그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교육 기간과 함께 교육의 질도 문제라면서 “현재 선진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과 수준을 개발도상국이 따라잡으려면 역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벌어지는 내전은 물론 방치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조장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전이 만약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유럽, 미국, 동아시아는 저 지역의 자원을 착취할 수 없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도 그렇다. 당신이 상류층이면 하류에게 밥을 먹이겠나, 책을 읽히겠나. 당연히 밥을 먹인다. 온갖 휴머니즘적인 배려로 – 어차피 **가축도 밥은 먹여야하니까**. 한 때 무상급식이 정의인양 포장되었다, 물론 그걸 추진하신 분들의 자녀교육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닌 걸로 안다. 남의 자식들에게는 밖에 나가 뛰어놀라고 하고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녀들은 특목 고에다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하는 이중성. 물론 밥먹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교육격차는 다들 눈을 감았다, 이런 게 세상인 것이다.

하류들은 지금 복지가 확충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건 실현될 것이다. 하류들 자신의 빚으로 어차피 상류들은 겉으로는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돈 낸다 생색내지만, 그건 다시 벌어들일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종세 없이 그냥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다 책임지면 된다고 ‘말’로만 이야기한다.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교육격차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그렇게 복지를 책임지는 대신 더 많이 벌어들일 테니까.

사실 그 포퓰리스트들의 진정성도 의심이 간다. 그들이 서민들의 교육이나

실력 양성에 대해 제대로 신경쓴 적은 없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을 쉽게 내야하면서 주장하는 게 하향평준화이다. 그들이 활약하면서 살기가 좋아졌다면 모르겠다. 혹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에게 발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관찰한 바, 그런 이들이 활약할수록 격차는 계속 커지기만 했다. 그리고 그게 10년 넘게 지속된 현상이다. 그리고 그들 중 명망가는 정계에 투신 한다.

심지어 몇몇 매체에서는 토익과 공부가 아니라 거리로 나가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자기들 기자 뽑을 때 그래서 학벌, 스펙, 영어점수를 안 보시던가? 기사 쓸 때에는 서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정작 인재채용에서부터 경영은 정반대로 하면서 뭔 이야기하시던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공부 밖에 없다. 공부를 하려면 대학도 대학이지만 저런 상류들에게 말빨이나 머리빨리 지지 않는 수준까지는 달성해야 한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는 건 단지 공부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이다. 살아남는 비결이 거기 도서관에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안 읽을 뿐이다. 그저 계시판에 올라오는 말초적인 화제에다가 뉴스 댓글만 보고 추종, 따라하면서 남의 호구나 되는 삶을 살 것인가.

5.42 수학 과학 과잉

2016.02.11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문적 지식이 아닌 '사고하는' 방식이라면 다양한 철학을 익히고 문제해결적 태도를 익히는 건데 지금의 수능 수학이나 과학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처럼 뭔가 이상하게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수학은 정말 현실의 문제해결을 수리적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별 쓸모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런 경험을 하나 제대로 해보는 게

비싼 인강보다 낫다는 것이고, 과학도 실험을 제대로 하고 보고서를 쓰지 않은 것은 그냥 죽은 사람들의 똥만 먹는 행태일 터인데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 (물론 근거는 꽤 많이 찾아질 겁니다. 이게 참 뚜렷해지고들 있어서) 현재 토끼띠 이하부터는 수학과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와 '인문사회' 교양 결핍이 아마 대두될 겁니다. 해리포터나 나니아 연대기를 원서로 읽히지만 고전 소설이나 세계 명작, 그리고 삼국지를 읽는 애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친구들도 탐문해보면 이런저런 교양은 없구나... 라는 판단인데

이게 실제 스펙으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10대들이 나중에 차별화되고 싶으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차별화가 가능할 겁니다. 남들이 영어에 빠져있다면 몰래 한자와 한문을 익히고, 남들이 수학과학에만 빠져있다면 온갖 역사와 고문(古文)에 통달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 '독특한' 인재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잘 나갑니다.

스마트폰과 가상현실의 증가로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들이 외로워질 거라고 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개인이 쏟아내야 할 텍스트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외모와 체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양한 언어와 문자, 그리고 육감적인 표현력에다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의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종이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헌책방 애용자들이 유리해지는데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더군요.

5.43 강남강북격차

2016.02.11

며칠 전 의사 친구가 해준 이야기.

xx대 병원에서 일할 때는 : 주로 오는 사람들이 강남 노인네들인데 말만 노인네지 의욕적이어서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 한다.

현재 xxx 병원에서는 :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어리석다, 암수술 보험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암이라고 하면 죽으려고 한다(...)

사실 이야기하다보면 기승전'부동산'되는 게 기성세대(...)의 성숙한(...) 대화가 아닌가 하지만 어떤 화제건 '격차'는 참 공통주제다. 물론 이건 일종의 쾌락을 준다, 사파리 동물원의 즐거움과 같다, 밖은 위험하지만 나는 안전한 데에 있다는 느낌? 적어도 상류에 속하는 사람들로서는 격차 이야기는 즐거울 수도 있는 것이다.

강남강북 격차가 뚜렷이 나타난 게 아마 200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그 전까지는 단지 '돈많은 출부들, 천박한 것들'이라는 인식만 있었지 실제 그런 격차는 적었던 이야기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강남 사람들 이야기로 – 비록 몇가지 범죄나 불성실한 걸로 연루되더라도 – 평균적으로는 근면 성실 의욕적인 건 사실이다. **부자인데 잘 생기고 키도 크고 예의바르고 인격자이기조차 해서 열받는다....** 라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다. 일부 정의론자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양쪽을 경험해보면 확실히 느낀다(물론 부자들에 게는 그들 특유의 위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동안 격차도 벌어졌지만 동시에 '경쟁'의 기회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게 철밥통 때문이기만은 아니다. 사실 수능과 공무원 시험 빼고는 이제는 경쟁의 기회가 사실 없다. 언론에서는 공무원 시험 열풍이 망국적이다라고 참 속편하게 개탄하지만, 그럼 다른 경쟁의 기회나 패자부활전은 존재하는가? 빈부격차를 걱정하는 기자나 아나운서조차도 실제로는 '상류'들이다. 방송에서 가난한 아이나 애들 보고 눈물짓는(?) 여자 연예인들도 연상의 사업가 만나 귀족처럼 살며 육아예능을 찍으려 한다.

물론 심증 뿐이긴 하고 물증은 없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게 참 상류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온라인 필기시험이 문제가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의 대안들이라는 것들이 '부모 잘 만난 애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진실을 왜 말을 못 하나. 그 이야기는 과거처럼 필기시험의 비중이 커다면 패자부활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도에 막혀 좌절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단지 '혐오'의 폭력성만을 문제 삼는다. 그 지식인이 어디서 살며 무엇을 먹으며 자식교육은 어떻게 시키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지만. 저런 격차에서 발생하는 혐오가 어째서 '자기혐오성'에 가깝냐는 것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통 혐오하는 사람들은 지금 2~30대들인데 이들은 2000년 대부터 정말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사실 얻어맞은 세대들이다. 격차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부지런히 공부했을 사람들이 부조리한 제도나 여러가지 선동 등에 참 많은 걸 낭비했다. 그러니 이는 자기 환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거다. "내가 괜히 이상한 펩에 빠져서... 광 실속있는 공부나 하거나 재태크나 할 것을 T_T" 그런데 진짜 기성세대는 저렇게 젊은 세대들을 속이거나 이용해 먹고 또 다시 거리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젠 먹히지 않는 것이다.

5.44 결혼 격차

2016.02.12

교육격차 말고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결혼격차.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수준이 아니다, 자녀등급까지도 직결된다. 고스펙과 저스펙이 만나는 일은 드물다, 고스펙은 고스펙끼리 어울리게 되어있다. 남자의 고스펙과 여자의 고스펙이 어우러지면서 빈부격차의 효과는 더욱 더 벌어져버린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국가의 복지가 부족해서는 아니다. 사실 육아나 결혼을 복지 탓을 하는 건 '베이비붐 세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보다는 결혼은 '신분과 계급'을 결정하는 일생일대의 도박이라는 게 중요하다. 결혼 전에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시대라면 결혼이 지닌 의미는 결국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경을 쓴다, 자신과 자녀의 계급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고스펙 배우자를 만나야한다. 한데 그런 고스펙 배우자는 드물다. 저스펙 배우자를 만나기 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교육비 격차도 여기서 발생한다. 부부 양쪽 전문직이라고 하자, 양쪽이 월 1000을 번다면 월 2000만원 소득이므로 교육비의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남편이 일용직이고 아내는 살림한다면 많이 잡아도 월 300만원이다, 교육 투자는 꿈도 굽 수가 없다. 아울러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 지역간 격차도 커져버리고 이것이 현재의 미친 부동산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지만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런 실태를 고발하든가? 사실 이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방송인과 기자들도 결국 '상류'다(방송인이나 기자가 '서민'이라고 보는가) 이런 넘사벽 격차 앞에서 '죽창',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란 말인가. 근원은 여러가지이겠지만 확실한 건 "교육의 차이"가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화제를 바꿔서 그럼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복지는 커녕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도 출산율이 폭증했다. 단지 피임율이 낮거나 아니면 별 다른 방도가 없어서일까? 그 때는 한국전쟁 이후였다. 상류층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극소수였고 사실 대부분이 가난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으로 신분과 계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느냐가 결정적이지는 않았단 이야기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적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격차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 격차를 줄이는 건 절대 하향평준화가 아니다, '상향평준화'였다.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수학과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류층들의 입시 실력을 높이는 게 방법이다. 아울러 대학들도 진작 구조조정을 하고 보다 과통폐합과 더불어 현실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소위 '진보'라는 미명 하에 지체되거나 정지당했고, 그 대가를 지금 20대들이 치르고 있다(...)

5.45 쉬운 수능이 격차를 더 벌였다.

2016.02.13

링크

본지가 최근 10년간(2005~2015학년도) 수능 성적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을 쳤든 어려운 수능을 쳤든 고득점이 많이 나온 고교 순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이과 수능 상위 각 5000등 이내(서울 최상위권대 합격 가능 수준)에 드는 학생을 가장 많이 낸 상위 학교를 쉬웠던 수능과 어려웠던 수능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비교적 쉬운 수능이었던 2007학년도 수능(국·영·수 평균만점자 비율0.85%)과 어려웠던 2011학년도 수능(만점자 0.21%)에서 상위 5000등 이내 수험생을 많이 배출한 고교는 2007학년도 수능에선 상위 10개교 모두 외고 또는 자사고였고, 2011학년도에는 10개교 중 9곳이 외고·자사고, 1개가 일반고였다. 상위 20개교로 보더라도 2007학년도 수능에선 일반고가 6개, 2011학년도엔 일반고 5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링크

불수능 반대입장

흔히 문제가 쉬우면 작은 실수 하나에 등급이 갈라진다는 이유를 드는데, 문항의 난이도와 실수 여부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근거는 없다. 또 시험의 변별도가 낮으면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입학 사정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학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등급, 비교과 활동, 면접, 논술시험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면 수험생의 창의적 소양을 도출하는 데도 훨씬 유익하다. ... 비교육적 평가다. 만점자 비율이나 1등급 컷 등 최상위권에 초점을 맞추어 시험의 난이도를 판정하려는 태도는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만점자는 거의 예외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이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해석하는 것은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대가 될 수 없다. 수능 출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상적인 덕목은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수험생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초 해당 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을 공지하면서, 큰 틀에서 전년도의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변별력 강화 혹은 대학 선발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켜온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간 축적된 이 중요한 노하우를 가벼이 방기해 버릴 이유는 없다. 사교육비 조장 문제다. 수능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변별력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는 과도하게 증가할 게 뻔하다. 한 번 시험의 고난도를 체감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면 그 불안감에 비례해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심리는 가일층 팽배해질 것이고, 공교육의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불수능 찬성입장 시험이 어렵기만 하다고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배합해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가 전문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이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이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수능에 대한 논란과 항의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능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주장이 ‘쉬운 수능’을 고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하기야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전대 미문의 해괴한 법이 제정되는 정치권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강박관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수능 쪽이 더 논리적이라고 보는지라 사실 저기서 불수능을 반대하는 분의 논거는 몇가지가 뒤집혔죠.

- 첫째, 수능 이외의 평가항목들이야말로 부모님 빨을 많이 받습니다. 인성, 면접, 스펙... 이런 것만큼 부모님 능력 테스트죠.
- 둘째, 만점자 비율에 대한 답변은 그냥 회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양 무책임으로 나선 거죠
- 셋째,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는 매년 난이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과 다름없는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죠.

사실 사교육비 이야기도 이제는 한물간 이야기입니다. 그럼 EBS에서 거금으로 잘 나가는 강사 스카웃해서 고급과정 신설해도 되는 겁니다(이게 그리 어려운 건지) 사실은 지금 사교육 과잉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잘 가르친다라는 것이 과연 입담이 좋고 농담을 잘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지가 관건인데 잘 나간다는 강의들이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온갖 알바 공작질이 성행하는 것이지요.

난이도 하향은 지금처럼 공부할 게 늘어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 한, 이른바 관료주의적 편의라고 볼 수 밖에 없지요.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격차를 벌였습니다. 수능 쉽게 낸다고 상위권들이 공부를 안 할리는 없지요. 반면 중하위권들은 그런 하향평준화 기준에 맞춘 공부를 하니 대학 과정까지 감안하면 그냥 내리막길입니다.

결국 이건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EBS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으니.

이 사태의 본질은 다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링크

인권위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에 30대 지원자와 합격자 수 등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 가운데 고려대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부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 나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며 이 대학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들 대학은 1한겨레에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무리 인권위라도 해도 원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돼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로스쿨들은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태도다. 연세대 로스쿨 관계자는 “전국에 로스쿨이 25개나 있는데 3개 대학에 집중해서 나이 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도 “(인권위에 자료를 제출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서울대의 경우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 전국 꿀찌인 30대 이상 ‘허수’ 지원자들이 10여명이나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게 현실입죠.

실제로는 사교육비를 줄인다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하지만 뒤로는 결국 '학력'까지 상속하는 걸 방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5.46 어째서 하류가 더 막장이 되었나

2016.02.17

이건 가설입니다만 – 물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명제죠 – 대중의 자업자득(?)인 하류들의 교육빈곤화에 맞먹는 이야기이니 불쾌하실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패스하시길.

IMF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빚을 지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으며 돈을 벌면 무조건 저축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장려되었으며 특히 신용카드는 딱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용카드는 안 씁니다. 딱 한번 발급받은 게 있는데 지인 분이 실적 올려야한다고 등록해준 뒤 한번도 안 쓰고 잘라버렸죠)

그런데 IMF 이후에는 빚을 지는 게 장려되었고 신용카드가 남발됩니다. 개

인들이 빚을 지면서 소비를 늘리니 기업들은 살아납니다.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용되었다**”라는 말이 이것이죠. IMF 극복이니 뭐니 사실 그건 체감 못하는데 해외여행 갈 사람은 다 가고 쓸 사람은 다 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빚을 안 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커진 씀씀이는 줄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 3, 40대가 앞으로도 막장일 수 밖에 없는 게, 실질강건의 풍토가 사라져버리고 빚내서 흥청망청하기 시작한 때 20대를 보낸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 60대 이상처럼 보릿고개를 겪거나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10대는 평탄하게 보냈단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겸소하게 살면서 윤리적인 걸 실천할까 하기보다는, 남들이 구입한 명품은 왜 나도 구입하지 못 할까, 친구는 유럽갔다는데 나도 가야겠네...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가려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를 못 모니까 불우이웃, 결혼하는데 남자가 3억 집 못 해오면 파혼... 이런 게 현재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렴 삶을 살려면 월 1000은 기본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라 그런 직업이 의료계 쪽이네... 하면서 다 서로서로 의치한 거리는 것이죠. 그저 많이 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사명감이나 책임감 그딴 건 없습니다. 이제 개인이나 사회나 완전히 병들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10대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최소한 20대~40대들은 혹독한 도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옮기는 전략 – 즉 신용카드를 남발해서 서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후유증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법과 윤리도 아작내기 시작하죠. 자기가 돈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속물도 있지만, 더 한심한 건 그런 속물을 보고 나도 그래야지하면서 배금주의에 눈먼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껴쓰고 더 많이 배우고 미래를 향해 투자할까... 그러기보다는 배금주의나 한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까지도 학대해서 몰래 살해하여 암매장하는 것도 적발되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의 도덕 그딴 건 없습니다. 오직 ’타인’에게 잘 보이

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설교하는 번듯한 종교인이어서 xx님이라고 인정만 받으면 딸아이 죽여도 관계없는 것이죠. 이제 윤리관 그딴 건 없거든요? 많이 벌어서 타인들에게 '상류층'이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인간답게 사느냐 그딴 건 모르는 겁니다. SNS에 어떤 뾰샤시한 사진이나 올릴까 이 고민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콕콕에서도 저에게 커리 물어보는 사람은 무조건 까고 볼 건데 간단해요. 커리를 제대로 물어보는 사람은 기본적인 걸 공부하면서도 꽤 크리티컬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건 일방적인 Q&A가 아니라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좋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집 한권도 제대로 풀지도 않으면서 ”~ 좋냐?”라고 확인만 받고 하라는 공부는 절대 안 합니다. 다시 말해 공부도 안 하는 병신들이 참고서니 강의 평가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류들이 신용카드 빚내서 명품이라고 알려진 것 충동구매해놓고 나서 나라탓하는 짓을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디씨든 ○ㅁ든 어디든 간에 정말 '합격'은 못 했으면서 수년째 똑같은 강의, 교재평만 하고 있는 고정닉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바를 뛰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쓰레기짓하면서 똑같은 썰을 풀고 있죠. 그 양반들이 그럼 머리가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인간들은 잘못 교육받아서 그래요. 실천이 우선이니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어야한다, 코 앞의 일도 처리 못 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이 인간들 보면 수년째 참고서 한권도 제대로 안 보고 뭐가 좋냐 하다가 2~3년 날리고 재종이나 고시원 가야하냐 이러고 앉아있죠.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 첫째, 자기통제를 못 한다.
- 둘째, 배수의 진이 없다

- 셋째, 무한한 자유

만약 신용카드 남발이 없었다면 하류들이 빚지는 일은 적었을 겁니다. 쉽게 빚을 낼 수 있으니까 마음껏 소비해서 기업 좋은 일만 한 것이죠. 그렇게 쓴씀이 가 커진 건 잘못 교육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훈나고 배워야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럴 듯한 궤변으로 사치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나라탓, 정부탓, 사회탓이라고 미쳐가기 시작하죠.

수년째 공부 안 하고 그러는 잉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들이 바로 내 쫓아버리거나 일을 시키거나 했어야하는데 그 부모들이 자녀를 방임하거나 무서워해서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그저 썰뿐인 수험을 인터넷에 풀면 몸에 전기라도 통하거나 밥이 안 나오거나 하는 등 제재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없죠. 사실상 자유가 무한하게 허용되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잘못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돈자랑하는 게 문제가 없다? 헛소리입니다. 결국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안 따진다면,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까다롭게 증오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막장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돈 많이 벌고 명품 사는 건 안 말리는데,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명품 자랑하고 다니면 본인은 결국 '윤리적인 일이나 봉사'도 안 하고 그저 돈쓰는 걸 자랑하고 다니는 돼지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우왕, 저 친구 성형 괜찮은 데에서 했나봐, 차 외제차네, 웃은 이태리제 명품이네... 하면서 부러워하는 인간들도 돼지들이죠.

자기들도 황금만능주의나 방종에 빠진 걸 모르면서 부자들 증오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부자들을 정말 이기려면 본인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겸소하게 살면서도 부자들보다 가치있게 산다는 걸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라집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면 그건 재벌이 독점해서도 혹은 정부가 무능해서도 아니면 안보가 위험해서도 아니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근면, 건실하고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지혜를 짜낼 수 있다면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런 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5.47 전문가 드립

2016.02.18

잘 알지도 못 하는 자가 '책임있는 발언'을 회피하기 위해 쓰는 흔한 말장난이죠.

A : "#@\$@#*(*(ㄴㅇㄹㄴㅇ라고. 그럼 네 주장을 해보렴" B : (할 말이 없다) "너는 전문가 아니잖니.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그래?" →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 경우 A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A :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부터 전문가도 아니잖아" B : "그래, 너도 나도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건 끝도 없어" → **양비론**

시도 때도 없이 전문가 드립 쓰려면 그냥 자가기 전문가 테려와서 전문가 보고 대신 발언하라 하는 게 낫죠.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하지만 자기는 '모른다', 하지만 네 말을 공격하고 싶어라고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전문가 드립입니다. 말 하지만 그럴려면 직접 전문가들을 데려오시거나,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전문적 답을 제대로 인용해오면 됩니다. 그러나 늘상 그렇듯 B와 같은 인간들은 "내가 왜 그래야하는데"라고 또 회피해버리죠.

여기서 인간성이나 능력 테스트는 사실 걸러지죠.

그럼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전문가들은 어떤가 제 뇌피셜 기억에 살려서

이야기 적죠

- 의새 -

A : ”야, xx 병역 사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 확실히 그 사진 이상하지 않아?”

C : ”으으음, 그건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 라고 말은 하는데 나도 정확히 장담할 수 없어”

- 변새 -

A : ”야, 그 사건은 ~ 잘못한 것 아냐.”

D : ”사실 나도 잘 몰라. 그건 그 분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지. 기록을 더 봐야 알 것 같은데”

이상은 지인에서 기억나는 사례인데

- 첫째, 신증함을 강조한다.
- 둘째, 자기도 모른다라고 무조건 말한다.

그럼 과연 '전문가' 드립을 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를 만나보셨는지는 가히 의문.

왜냐면 사회에서 xx 전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문가라기보다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쁘고 피곤해하고 꼴통스럽습니다. 귀찮은데 왜 불러 그런 케이스

- 기계 전자 -

A : ”아이고 이 노트북 이상해요. 자꾸만 꺼지고 아무래도 CPU나 팬이 잘못된 것 같아요. AS 되나요 ? T_T”

D : ”... 이거 강 포맷하고 윈도우 다시 까세요 ...”

A : ”이 자전거 브레이크 고칠 수 있어요?”

E : ”(뜸 들이다) 이거, 강 새거 사는 게 빠르겠는데. 아, 돈이 좀 깨지겠는데 그래도 수리하시겠나?”

가장 흔히 접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상기할 수 있죠.

전문가들일수록 '돈 안 되고 귀찮은 것'은 매우 싫어한다. 하지만 '돈'을 주면 그래도 구색을 갖추려고는 한다. 물론 소위 그 전문성이란 '현금'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 드립치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부터 전문가가 되시든가**.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가 드립은 안칩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그걸 줄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배우려고 하지.

공부 안 하고 전문가 따져보았자 전문가 사칭하는 사기꾼들 – 즉 거짓말의 전문가들에게나 넘어가죠. 입시판에서도 아이고 선생님~ 거리는 아줌마들이 많죠. 선생이 어디 학교 출신이라더라 진도는 어디까지 빠진다더라 하면서 간 빼줄 것처럼 다 하지만 자기가 그 과목도 모르는 채 '어디 나온 선생이라더라' 그런 거나 따지는, 즉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녀가 공부 잘 하길 좋아하는 부류. 이런 케이스들이 자녀를 정말 잘 망칩니다. 하도 흔해서 그냥 얘기하다가 스포 때리면 짐장이냐는 반응도 지겹게 나오죠 자기들은 모르죠, '흔한 케이스'라는 걸요.

+ 전문가들도 결과를 100% 보장은 못 하죠. 그리고 의견들도 갈리고 다만 자기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방법만큼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때 ”죄다 공구리쳐야한다”라는 서균렬 교수였죠. 그런데 그 때 전문가가 서균렬 교수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특정한 사건에 ”냉소적”으로 ”잔인한 해답” 제시하는 게 가장 전문가스러운 듯.

5.48 관계 = 돈

2016.02.21

모 소설가의 소설을 읽다보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옴.

자식이 공부를 못 해서 고민하던 아버지가 재산 1억 5천만원을 털어 공부 잘 하는 학생 셋에게 급부로 제시하면서 계약을 함. 자기 아이가 시험에 붙을 때까지 친구로 지내달라고. 그리고 그 세 친구 덕분에 무사히 시험에 합격.

픽션이면 픽션이라지만 사실 저게 정말 '환경'의 핵심을 짜른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부모들이 극성을 떨면서 학군 좋은 데로 이사가거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들의 클래스에 따라서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것이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물과 공기를 사먹어야하는 세상이 설마 오겠어 하는데 오고야 말았음. 마찬 가지로 인간관계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지만 친구 관계도 이미 간접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음.

이렇게 보자면 "교재", "강의" 이전에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무형'에 가까운 삶의 양식 – 즉 행동과 습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음. 1등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1등하는 친구에게서 배울 것을 배우고 그 친구와 경쟁하면서 뎅달아 올라가는 것임. 반대로 실패하는 친구가 있다면 본인이 그걸 비판하고 개선하지 못 한다면 뎅달아 실패할 수 있음.

물론 절대적인 성공, 실패 공식은 없음. 왜냐면 게임의 룰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험도 매년마다 룰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 예컨대 수학도 꿀강의 꿀교재본다에서 기초교재본다는 걸로 바뀌는 것도 그런 것임. 만약 당사자가 성공하는 양식을 복제하거나 거기에 전염된다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 반대면 실패하는 것임.

그래서 이게 오싹한 이야기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란 자기를 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핀볼처럼 충돌해나가는 과정임. 본인이 분별력이 있어서 잘 취사선택한다면 모르겠지만, **우유부단하고 잘 훨쓸리는 성격이라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다간 막장이 되어가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는 마녀사냥하는 종교재판관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음. 조금이라도 해롭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컷하고 검증된 방식만 채용해 그걸로 노력해가야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10대들이 이걸 알아서 할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나 멘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임.

무엇보다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성공과 달리 실패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음. 성공패턴이 쉽게 학습된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것임. 반면 실패가 많다는 건 실패하는 패턴은 학습하기 쉽거나, 따로 학습이 필요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그걸 따라간다는 이야기임. 자영업하다가 말아먹는 경우도 그렇고 n수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관찰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 당사자가 종교처럼 집착하면서 버리지 못 하는 뭔가 있음. 사실 그게 실패의 요인인데 그걸 '버리려'하지 않음.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투를 자를 때는 자르고 창씨개명도 할 때는 해버림. 아예 자기를 버림. 자기를 버리니까 실패하는 패턴도 덩달아서 날라감, 그러니까 청소는 확실한 것임.

결국 자녀교육을 시킬 때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성공하는 사람들 곁에 가깝게 둬서 거기에 전염되도록 한다... 이거야말로 잔인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임.

5.49 대안없는 비판

2016.02.22

보통은

ⓐ 인신공격, Ⓠ 비난, Ⓡ 대안없는 비판, Ⓢ 대안있는 비판, Ⓣ 대안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은 저 다섯가지로 나뉘어지는데

ⓐ, Ⓠ는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한 것이니 적대관계를 도출하는 반면 Ⓢ, Ⓣ는 그래도 뭔가 준비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우호관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애매한 것이 Ⓡ이다.

사실 이건 그 당사자는 자기가 '비난'했다라는 걸 면피하고 싶으면서도 자기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형식을 취하고 싶은 것인데 이 때 "그럼 대안은 뭐니"라고 하면 당연히 말을 못 하면서 "그럼 대안이 있어야 비판을 하느냐"라는 말을 한다.

물론 '대안'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안있는 비판만을 주문한다는 건 가혹해보일 수도 있다. 엄격한 논증과 고찰 하에서 비판을 하면 구체적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상적 대안까지는** 나온다.

아무튼 20대 초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대안없는 비판도 괜찮은 건가 아닌 건가 그랬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대안 없는 비판"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걸 하는 사람, 즉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문제해결의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든 끼어들어서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만 하고 그런 걸로 한자리 해먹으려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정말 중대한 권한이 주어지거나 하면 일처리는 제대로 못 한다. 사실 비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뭘 해먹겠나.

정말 문제해결에 의욕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해결'해놓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비판'한다. 다시 말해 불이 났다면 누가 불냈어라고 짜증만 내지 않고, 먼저 불부터 다 끈 다음에 범인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실천이 '비판'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중요, 다만 비판은 실천이 담보되었을 때에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문제해결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는 미주알고주알은 그냥 소음 공해 아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걸려내야할 사람은 다시 말해서 ”실천 여부”만 보면 된다. 뭔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네가 해결해 봐...** 라고 하면 온갖 평계 대서 빠져나갈 사람부터 먼저 걸려내야 한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만 멀리 하더라도 삶은 매우 평화로워진다. 갈등 대부분이라는 게 사실 ’언행불일치’에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상당수 차단되기 때문이다. 말로만 ~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면 피곤한 일들이 사라진다.

+

개인적으로는 실천도 높은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듣는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뭔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다지. 일단 이런 사람들은 아직 철이 없나, 그 생각 밖에 없다. 자기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정보도 준 게 아닌 데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나서는 거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는 ’거래’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거래는 상대방에게 급부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임을 모르는 것 같다.

아주 어린 애라거나 10대 학생의 경우는 차지상 거래로까지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달라지는 문제지. 타인의 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으면, 자기부터 구체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을 상세히 하시면 된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거래가 되는 거지. 이건 인격 이전에 ’거래관념조차 없는’ 뭔지 모르는 무전취식범에 다름이 아니지.

5.50 ”때리면서 말렸어야죠”

2016.02.22

”때리면서 말렸어야죠”

진짜 이건 내가 화자이기도 하고 청자이기도 하다능 인간은 애초에 간사

ex 1 -

A : ”야, xx고는 졸라 빽세. 내신 때기 옛같다니 다른 꼴통고 가자”

B : ”아, 열심히 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팬찮아욧”

일년 뒤

B : ”아니, 왜 안 말렸어요 T-T”

A : ”네가 간다면서”

B : ”때리면서도 말렸어야지 으흑흑”

ex 2 -

A : ”공무원 시험 쳐”

B : ”에이, 별 거 없잖아요. 나 해외 나가서 원피스를 찾을거야”

오년 뒤

B : ”나 왜 그 때 붙잡아두고 공부 안 시켰어요 T-T”

더 쓰다보니 패턴이 똑같아서 라는데 정말 많다. 결혼 버전이야 음성지원되는 수준이다보니 생략

그게 사람은 초기에는 꿈과 이상을 보지말, 말기에는 결과와 금전을 본다는 씁쓸한 진실. 무조건 어른들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어른들이 뭔가 말리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아야한다는 것.

단순화시킬 수 없지만 독재자 부모가 시키는대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와 본인이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판단해서 성공하는 경우 중 어느 게 많을까.

경쟁은 그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따지진 않는다.

사실 본인은 특정 시험에 합격 못 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 못 산다고 하더라도 정신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친구'가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정 지역 고급 아파트에 입증했다는 걸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하면 우울증이나 정신병 차원으로 가기도 한다.

엄마들은 자기 친구 아들딸을 언급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자기 아들딸의 친구들을 언급해야지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느끼면 빡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걸 모를까

아무튼 처음에는 민주주의적이고 자상해서 좋다는 사람들도 나중에 결과가 시망이면 욕하게 되어있다. 반면 독재자적이고 성격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면 그 때에는 굽신거리게 되어있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죠... 라는 건 어디까지나 좋은 결과가 보장될 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어른들이 반대하는데도 특정한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왜 안 말렸느냐는 그런 걸 안 따지는 각서는 쓰시라는 이야기

5.51 직업소득 비교가 한심한 이유

2016.02.24

보통 대학가는 사람이 졸업하면 10년 뒤일건데 그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역대 직업예측이 맞아떨어졌냐.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10년 뒤에 잘 나갈 직업들은 저평가되었거나 혹은 태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해당 직업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걸 봐야한다는 것이죠.

- 첫째, 누구 돈을 먹느냐.
- 둘째, 기술 진보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 셋째, 공급과 수요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만 분석해보면 수험사이트에 올라오는 썰은 구라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그럼 의사들은 그럼 서로 치료해줘서 경제활동하나요? 떡팔러가는 친구 A와 술팔러가는 친구 B가 서로 물물교환해서 떡과 술 같이 먹고 한 것도 수입으로 쳐줘야하나요?

의치한 말고 다른 직업이 망했다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전문직이 버는 돈이 그 다른 직업인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의치한 백날타령하는 인간들이 기본적인 사고조차 안 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아니 돈을 써줄 사람들이 망하는데 그럼 의료인들이 버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직업이 망하면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도 개판일 건데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쓸 수가 없을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는 ”수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들 주제파악 못하고 왜 기업 우대하느냐 어찌나하는데 자원도 없고 이제 노동력도 중국만도 못

하게 된 나라에서 뭘로 벌어먹죠? 좋든싫든 대기업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경쟁이 되어야 달려 벌어와서 수입해오는 거지. 입으로만 단군 한민족거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태반은 거의 다 '수입'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꼬우면 각자가 한번 대기업 역할을 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수출해보고 달려벌어오면 되는 거지 뭘 그러나. 입으로는 딱 대기업 욕하면서 정작 취업할 때는 x성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하는 케이스 참 지겹게 보지요.

지금이야 그나마 의료인들이 상대하는 고객들이 돈이 있으니까 의사도 고소득 거둔다하는 거지 **그 의사 이외의 직업이 다 망해보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런 근본적인 것도 따지지 않고 소득이 어찌고 비교하는 것보면 참 개한심들 하죠.

저성장시대인데 그럼 거기서 공무원과 의사는 잘 먹고 나머지는 다 백수되고 굶어뒤진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지만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 공무원과 의사가 나아보이는 건 왜 그러냐 다소 과장되어있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다른 직업들이 '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1980~90년대의 경이적인 고성장 시대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따지면 아직 '망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분야건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100명 중 10명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이게 심각해보여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한국 제조업은 잘 나가는 편입니다. 미래가 암담해보여서 그렇지

오히려 특정직업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는 게 더 낫겠죠. 제가 업자라고 하면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고객(=수험생)**도 줄어가니 신규 고객 창출하기 위해 의대 빼고 다른 직업 다 망한다 그럴 듯.

+ 그리고 의료 바이오로 먹고 산다... 그럼 미, 중, 일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수입품은 다 잘 들 쓰면서 시야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돌아가는 꼴 보면 대충 보이죠 뭘

아주 어린 시절에 중공이 있었던 시절 – 삼국지 읽으면서 중국 관광갈 수

있을까, 공산권인데.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건 없었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 똑똑한 척 하는 지금 담론에서 걸려들어야할 것. ”강남 2세 마인드” 부모들은 강남에 정착해서 직접 개척한 사람들인데 자녀들은 그냥 강남 수저들인 케이스인데 이 친구들은 똑똑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어요. 파더 쉴드 장난 아닌데다가 시야가 강남을 못 벗어나죠.

대체로 금수저로 지목되는 게 이들인데 별로 열등감 안 느껴도 됩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다만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류들은 곧이곧대로 믿죠.

5.52 가격 가치

2016.02.25

소득은 가격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건 '가치'의 일부일 뿐.

가치 ≠ 가격

공기의 가격이 0원이라고 해서 공기의 가치가 없다고 할 리는 없다. 반면 수백만원한다는 금반지가 배고픈 상황에서 소용이 있을까.

뭐가 좋나요... 하는 흔한 질문은 결국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다. 가령 인강의 경우 가격으로 치면 사설 ; EBS로 보인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설 인강보다 EBS 무료 인강이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가격은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래자들간의 경합이 붙었을 때 붙는 것. 그 이야기는 시장의 범주에 들지 않거나 혹은 듣다 하더라도 거래자들의 경합이 없다면 가격;가치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결국 '가치투자'가 진리라는 것인데 그럴 듯한 논리이지만 사실 실천성에서는 많은 면이 공백이다. 그럼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특정직업이 돈을 많이 번다.. 그걸 못 한 게 후회가 된다.. 정작 그런 직업인들과 얘기해보면 자기들도 불평불만이 많다. 무엇보다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라면 빽센 것은 기본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모든 걸 '가격'으로 평가하려 한다.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일단 잡히고 나면 변동이 덜 한 반면에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폭등, 폭락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

그런 가격만능주의자는 싸구려 상품도 비싼 가격이 매겨지면 명품인 줄 아는 무식한 고객과 똑같다. 직업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로써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생각해보아야하는데 무작정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 경우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런 사람 자체를 멀리하면 된다.

가격으로만 따지면 소위 '오피', '조폭', '사기꾼'도 매우 좋은 직업이 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수험 외적으로도 공부해야하는 이유 첫째,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서이다. 둘째,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그런데 그런 가치와는 별개로 그냥 가격에 환장한 돼지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짹퉁명품도 고가에 내세우면 아무 생각없이 빛내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

5.53 심리회계 – 원금을 어느 선으로 둘 것인가.

2016.03.01

공황이 오는 기준은 ”원금”을 잃었느냐

예컨대 100만원을 걸었다고 치자. A는 101만원, B는 99만원이다. 별 차이는 없어보일 것 같지만 심리적인 동요는 다르다 A는 원금을 안 잃고 1만원을 번 것이라서 차분하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B는 원금을 1만원이라도 까먹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수할까에 집착하면서 판단을 못 하고 만다.

그럼 우리가 B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 원금 기준을 95만원으로 낮추라고 하면 될 것이다 아니 애당초부터 100만원으로 투자할 때 원금을 8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건 수험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어떤 눈높이를 갖고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들이 생각보다 성과가 안 좋으며 한 번 실패를 해버리면 미친 듯이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절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그런 특목이나 자사고는 학교가 교육을 하기보다는 평가를 하는 쪽인데, 보통 내신기출만 봐도 뭐 이런 SM쇼가 다 있나 할 정도. 문제는 그게 수능과 사실 거리가 면 경우도 많고, 만약 학생 본인이 소화 못 시키는 경우 주화 입마되는 케이스도 있다 짐작되지만 이건 더 상세히 검토할 사안이라서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눈높이를 말하면

특목자사고에 간 친구들의 눈높이는 보통 사람보다 높다. 허영심에 가득찬 부모님들이야 거액을 내면서 자기 자녀가 남과 유별나게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겠지만 이건 다시 말해서 저 친구들의 ”기준 원금”이 높다는 것이다. 그

래서 이 친구들은 조그만 성과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대박을 거두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 위에서 바로 B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좋다. 만약 한번 시험을 쳐서 실패해버리면 자존심도 크리티컬하게 상처입고 이걸 어떻게 '대박'으로 만회할까.... 하는 생각에 계속 무리수를 두고만다.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이 운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왔으며 자기는 머리가 좋지 않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초부터 다지고 가면 되었던 것이 무리수를 두면서 물결 5년 이상을 낭비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오히려 꼴찌에서 시작한다고 마음먹는 편이 그래서 바람직하다. 가령 자기가 5등급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면 2, 3등급이 뜬다고 해도 차분하게 왜 더 올라갈 수 없는지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무조건 1등급이라고 한다면 저건 성적이 떨어진 것이라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

5.54 이미지 차크라

2016.03.02

좌뇌와 우뇌로 설명하자면

ⓐ 논리적인 사고를 꼼꼼히 할 수 있느냐,

ⓑ 아니면 이미지를 잘 구사할 수 있느냐.

이 두가지로 나뉨.

천부적으로 머리가 정말 좋아서 이해가 빠르고 문제를 신속히 푸는 것으로 보이는 고수들이 있음. 물론 공부를 열치기로 하거나 적당히 야매교재 만드는 파들이야 이걸 머리가 좋다고 통치겠지만 적어도 내가 분석하고 탐문한 결과는

”이미지, 즉 심상구사능력”임. 문제만 보아도 관련 정의와 개념, 그리고 식과 그래프와 도형이 바로바로 연상되는 것임. 엄밀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이미지”와 무관한 문제를 내면 평범한 학생 수준이거나 그만도 못 함. 신속히 풀어댄다는 것은 다년간 쌓인 차크라... 아니 **심상 능력**이라는 가설을 반박하기는 힘들어보임

그런데 이 경우 심상만 강조하다보면 술법에 환장하다가 나중에 개차반이 되어버린 오로치마루로 전락할 수 있음. 이미지로 다 풀리다보니까 ’논리적’인 것이나 ’기본 개념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복기’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임. 게다가 공부를 잘 있다고 주변에서 떠받들어주고 본인도 거기에 만족한 나머지 이런 단점을 눈치채지 못 하다가 결정적 크리 한방 먹음. 적어도 수학은 이런 이미지파에게 다소 불리하게 출제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즉 논리를 강조하기 때문. 다만, 탐구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이런 이미지파들에게 불리한 출제는 되고 있지도 않고 되기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즉, 결국 이미지 차크라를 갖추는 것이 손해볼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임. 하다 못해 본인이 록리여서 그게 힘들다 하면 ’풀이과정’을 신속정확하게 적는 훈련을 해서 보조를 해야함(전과목 모두) 어정쩡한 이미지 차크라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음. 사실 수학을 망하는 흔한 코스인 ”**중딩 때 잘 했는데 고딩 올라와서 망했다**”가 이 케이스임. 중3 때까지야 어설픈 차크라를 발현하더라도 스피디하게 100점 맞는 게 가능하지만 고딩수학은 이런 게 잘 안 먹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논리력’을 훈련한 경우에 논리적 사고를 정확히 하는 경우는 확인했음. 물론 이 경우는 부모뻘이 큼 – 유전자보다는 바로 가정, 교육환경. 논리력을 갖추었다고 확인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 때문.

아무튼 이런 괴수들은 패턴화도 필요없음, 문제를 한번만 풀어도 그 패턴을 그대로 이미지 차크라로 흡수함(...) 다시 말해 어떤 새로운 과제나 문제를 풀 때에 거기 나온 패턴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습관도 들어있거니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이미지의 중력으로 그런 것들을 빨아들인다고 보면 되는 것임.

대략 초딩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가정하면 반올림해서 10년 정도 그렇게 훈련된 것이니 능력 차이가 크다고 할 수 밖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최근에 등장하는 이런 괴수들이 과거의 괴수들보다 더 하드코어하다는 것임. 소위 영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활약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음. 가짜 영재였거나 아니면 재능이 잘못 발현된 경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의 평가 시스템도 좀 병맛이었다는 것인데 최근에 등장하는 무서운 괴수들은 인터넷 시대가 펼쳐진 이후에 부모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양성된 애들임. 아마 다들 관심없겠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교재들을 보면 두뇌개발을 섬세하게 신경쓴 내용과 편집이 돋보임.

이 추세라면 지금 20대도 현재 10대들에게 밀리겠고, 현 10대들도 아마 ... 물론 ”아니 댁말과 달리 요즘 애들 바보이던데요”라는 얘기도 맞는 말임. 중하위권은 더욱 더 뒤쳐지고 있으니까.

5.55 제가 느낀 10대 후반~20대 중반의 문제

2016.03.07

”경험”해보지 않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려 한다.

재밌는 건 이른바 환락(술담배19금)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해도 잘만 하면서 수험에 있어서 참고서나 강의는 그냥 서슴없이 본인이 들어보고 평가해보는 등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데

경험해보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분야에서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소비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돈을 팍팍 쓸 테니까요.

자기들이 부딪쳐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뭔가 창출해 볼 수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팀 단위로 과제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대부

분 맨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데 부딪쳐보지 않고 계산하기만 해서 뭐가 좋을까... 우유부단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프리라이딩만 하기 딱 좋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결국 남이 시키거나 가르쳐주는 일만 하겠다는 이야기이겠죠.

웃지 못 할 현상이지만 인터넷 쇼핑이 그런다죠. 특정한 상품의 이미지와 평가를 보고 하앍... 하면서 구매해서 배송오길 기다림 상품 포장을 뜯을 때까지 행복함, 그런데 상품을 본인이 만져보고는 혼자타임, 그리고 그 상품은 훽 던져 둠. 소위 이미지와 평가에 중독된 '똑똑한 소비자'들의 자화상입니다.

50대 중반 이상 꼰대들이 뭐 이런저런 걸로 욕먹어도 절대 현재 젊은 세대들이 뭐라할 수 없는 게 저 세대 분들은 가방끈도 짧고 뭐해도 맨땅에 헤딩해서도 만들어낼 건 다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뭐가 좋냐... 그러기보다 직접 부딪쳐서 경험해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배워나갔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나라를 일궈낸 것 이죠. 그러나 뭐 이건 저도 반성해야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어져있을 건 다 주어져있으면 그 꼰대들보다 생산성이 높아야 하는데 정작 경험은 안 하고 평가가 어떻느냐... 그것만 보다가 아무 것도 안 함.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확실히 경쟁이 빡세지고 힘들어진 건 맞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시대탓이기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고난이도는 6.25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노인 세대들이 최고지 지금은 그에 비하면 훨씬 낫다보이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서 적자면 전반적으로 저렇단 것이지, 지금 10대 후반~20대 중반도 상위권은 예외입니다. 아래 언급한 미래준비자들의 특징이 강해서 학습 성취라거나 경험 스펙 쌓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아재 이거 환타지 쓰는 거지 뇌피셜이지 하면 '이 색기 정말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는구나'라고 한숨이나 짹 내쉬어야죠. 학력보다 무서운 게 '제량할' 수도 없는 경험 스펙입니다. 부모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시켜주면서 자식들을 예비 정치가, 예비 CEO로 키우는 케이스는 거의 티가 안 나죠.

다른 이야기지만 대학교에서 수시나 지균리들이 학점이 잘 나온다.... 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하는데 그럼 대학공부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대학공부야말로 사실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하거든요. 프리라이딩에다가 족 보빨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회에서의 경쟁상황에서는 저건 사실상 허용되기 때문에 뭐라할 수도 없죠. 지금도 많은 수험생들이 책만 졸라 파서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 필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고, 대입 후에는 정말 공부 빼고도 온갖 음주가무부터 시작해서 잘 생기고 키도 훈칠하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정치에다가 사업까지 잘 할 것으로 보이는 애들이 넘친다는 것, 내가 수험만 죽어라했는데 저 녀석들은 수험 뿐만 아니라 저런 것조차 부모나 친척을 통해 견습받았다는 데에 아주 경악할 겁니다.

저런 경험 스펙을 이기기 위해선 본인들이 용기있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 부딪치고 느껴보아야하는데 정작 현실은 하지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해도 경험하고, 해보아야하는 건 이런저런 평계를 대면서 멀리들하죠

5.56 정치적 낭만주의의 종말

2016.03.08

앞으로는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단지 '낭만주의'가 사라졌을 뿐이다.

그럼 낭만주의가 사라진 배경 : 가난

이런 가정을 해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전쟁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하고 내치에만 신경썼으면 낫지 않았을까. 독재자들은 뭐하려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현명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도 부유하게 키워주면서 땅땅거려도 되지 않을까.

물론 독재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독재의 비결은 별 게 아니다. 피지배자들을 궁핍하고 무지하게 냅두는 것이다. 북한 독재가 오래가는 것도 막장독재를 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순진한 발상. 재들은 절대 인민들이 풍족해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의식주가 충족돼야 '정치적인 욕망'이 생긴다.

대학 1학년 때 심리학개론에서 배우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그대로이다.

북한과 반대되는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박정희 정권 말년이나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이 나름 활발했던 건 역설적으로 저런 독재 체제에서 경제 발전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지금은 민주주의도 별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도 무관심에 수렴해가는 것은 사는 게 정말로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죽어라 공부해서 학점도 4점대 만들고 인턴질 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2010년대 반면 적당히 시위에 참여만 하고 술먹고 연애질해도 과사무실에 제발 취업해달라 대기업에서 홍보하던 1990년대

독재자들이 일반적으로 막장 통치를 하는 건 저러한 사실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어서이다. 아랫 것들을 궁핍하게 못 살게 하면 '앞가림'하는 데 바빠서 기어오르지 못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 독재자들이라고 하면 총칼만 떠오르기 쉽지만 실제로 그들은 '엘리트 문돌이'들이자 '낭만주의자'들.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을지, 그리고 어떤 식의 책략을 써야할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자가 오래 해먹고 싶다면 좋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 김일성도 말글에는 한가닥하는 양반이고 폴포트도 그렇다, 정작 이 분야는 이공계 출신은 그리 많지는 않아보인다 –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정치인들을 꾸짖고 이 나라가 부동산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는 지식인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은 유학보내고 있고 그 자신도 부동산 게임에 골몰하는 데다가 대학에서 갑질하는 경우가 많다. (여담이지만 그런 지식인들이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찾아보시길. 그

들의 진면목이다) 이제는 저성장 시대인 건 부인할 수 없고 어떻게든 판에서 살아남아야한다... 라고 해서 다들 착취에 몰두한다. 물론 착취당하는 젊은이들도 그 판에서 살아남아서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을 착취해서 그 빚을 갚아야지라고 계획 중일 것이다. 그럼 이 판이 뒤엎어질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원리가 현실에서는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난다. '학생부 스펙'을 위한 사교육까지 창궐한다. 빚을 내더라도 순위 안에만 들면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한다. 단지 무서운 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수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가난해져버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낭만주의를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상이 바뀌어서 다들 아프리카 방송이나 게임 방송을 보고 해외 드라마를 시청하며 주말에 가끔 대형영화관 가는 세상인데 비싼 돈을 내고 자신들의 열정이 담긴 연극을 보라고 강요하는 꼴인데 이걸 누가 믿겠는가. 거기다가 그 정치적 메시지에는 실제로 중요한 사회의 "룰"을 제대로 고치는 건 없다.

그럼 룰의 개혁은 약자에게 유리한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

5.57 딜레마 : 진보는 강자들에게 유리하다.

2016.03.08

콕콕에서도 가정환경이 힘든 친구들과 적지않게 상담하는 편이다. 물론 내 경우는 잔인한 해답으로 충고를 해주지만 사실 그 뿐이다. 물질적인 지원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래도 나는 애들 위하는 척 하면서 장사는 안 하잖아"라고 얘기하겠고 사실 그 뿐이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벌어졌던 진보 실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경고하지만 이걸 보고 '정치적 성향에 거부감 느낀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뒤로 가기를 놀려주길 바랄 뿐이다.

일반적으로 **진보가 서민에게 유리하다** 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엉터리이다. 사실 이런 간단한 거짓말을 다들 간파하지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특정한 메시지의 주입은 사람들의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많은 청년들이 나중에 당황한다. 서민들이 진보를 지지하고 부자들은 보수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서민들이 보수를 지지하고, 오히려 강남부자(특히 젊은 자제들)들이 진보에 호의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국개론을 펴거나 서민들이 우매해서라는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한다, 참 한심한 이야기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알지 않는가. 여태까지 모든 입시제도는 "교육의 진보"를 위해 변경되어왔다. 수시든 입학사정관제든 어떤 것 이든 표면적 명분은 좋았다. 아니 실제로 그것들이 정말 입안자들의 진심이 담겨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룰이 바뀌었을 때 빨리 적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겠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겠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온갖 제도들조차도 똑똑하고 부유한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소수의 예라는 게 그나마 '입시경쟁'의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던 부와 지위의 세습 차단 효과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

입시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럼 경제, 노동은 어찌겠나. 이건 내 성향이지만 내가 스스로 진보에 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진보적인 것 자체가 빈부격차를 벌이고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서민들을 더욱 노답으로 만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파업 같은 것도 단지 대기업-노동자

의 틀만 강요하는데 실제로는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머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들은 나가 죽으라고 하는 진심이라는 건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대 당시야 그럴 리야 있겠느냐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나.

현재 보수에 표를 던지는 서민들은 그런 데 정말 제대로 치여버린 사람들이 다. 그래서 룰이 가능하면 변경되지 않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룰이 변경되어 버리면 서민들이 해왔던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반면 정보력이 빠르며 제도나 법률을 악용하는 강자들일수록 더욱 해먹을 기회가 많아진다. 그래서 곁으로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보를 추종하며 착한 척 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뇌피셜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절대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교육제도로 돌아가보자. 돈없고 빼없는 학생들에게는 정시 확대야말로 최고다. 물론 돈있는 애들이 앞서나가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시는 노력으로 커버칠 수 있는 영역이란 게 있다. 그러나 절대 힘있는 자들은 이걸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서 절대 정시확대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더 늘리는 건 자기들 알 바는 아니며 오히려 대학에서는 이런 걸 더 반길 수가 있다. 대학도 ’힘있고 부유한 학생’들이 입학하길 원하지 더 이상 개천 용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제도든 하다 못해 대중적인 교양서든 ”룰을 바꿀 때 차익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선 잘 소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번 사기당한다.

- 첫째는 공교육에 사기당한다.
- 둘째는 공교육이 기득권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에게 사기당한다
- 셋째는 투자만 잘 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칭 투자의 달인들에게 사기당한다.

적어도 '속지만' 않는다면 공부의 성과는 특특히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5.58 인공지능

2016.03.09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로봇은 이제 변호사, 회계사, 금융 앤널리스트, 의사 등 전문직 영역까지 넘보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특히 방대한 양의 문서들이 오가는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백, 수천장의 문서를 일일이 읽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아내 그에 맞게 서류를 다시 작성한다.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이 이를 대신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확성 면에서도 사람을 능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 '주디카타(Judicata)'는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해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부당 해고를 당한 히스패닉계 동성애자 남성'에 관한 기존 판례를 모두 찾아줘 변호사가 도서관을 직접 가거나 검색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식이다.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잡글을 읽는 분들이 부딪칠 문제이니 각오하셔야하지 않을까

링크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 골자다. '인더스트리(Industry) 4.0'으로도 표현되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개념이 비슷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스마트(smar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다. 기계들은 갈수록 똘똘해진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기계가 늘어난다. 자동화보다 기계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산성은 더 높아진다. 사람의 손을 대체하는 기계도 빠르게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정보기술(IT)은 물론 자동차, 바이오, 의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추다. 디지털에 기반한 ‘자율주행 자동차’(무인 자동차)의 상용화시대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 분야 선두는 구글이다.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 업체가 무인 자동차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업체들도 무인 자동차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강자’가 혁신을 주도한다.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혁적 풍경이다. 가전제품·전자기기뿐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진료,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기기)들이 서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춰 일을 처리한다. 냉장고가 주인 마음을 읽고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식이다. 영화 같은 얘기지만 인간의 현실로 하나둘씩 파고드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은 초연결사회다. 인간이 인터넷을 통해 기계와 연결되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 연결되는 사회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IoT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바꿀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방대한 정보량,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형태, 초고속 전파속도,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데이터가 바로 자본인 시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앞서간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빅데이터의 대가 쇤베르크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인과관계에 집착하는 사고의 습관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빅데이터가 어떤 지표나 성향을 보여주면 ‘왜’라는 데 지나치게 집착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 연관성을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야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상용화될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2년 사이에 다 바뀌더군요.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것으로 영화를 보고 다니면서 화상통화한다... 뭐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고

기사에서 드러난 인공지능은 이제 '상용화'를 앞둔 것이라고 하겠는데(대표적으로 무인자동차) 거두절미하고 이건 사람 vs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 vs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저기서 굵은 글씨 처리한 쉰베르크의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저렇다면 오히려 이공계 사람들이 더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공계의 장점이 핵심만 찾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건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59 실패를 미리 경험해보라고 하는 어른들

2016.03.09

젊었을 적에 실패를 경험해보아야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메신저들은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생각해보자면 소위 루저들은 이미 실패를 밥먹듯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루저라는 게 바뀌기는 한 것인가. 더군다나 금수저라고 일별되는 사람들이 정작 실패 경험은 적은 것은 무얼 이야기하는 걸까. 마리텔에서 뜬 다음 편의점에 온갖 사진이 도배되는 한 요식업체 경영자님도 왕년에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고 하지만 집안 배경이 막강한 점을 본다면 이게 진짜 실패일까... 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번 실패한 다음에 그걸 수습하지 못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 당사자를 계속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패턴이 혼하지 않나?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빼끗한 다음에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도 어디든 가면 혼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상담이라는 걸 해주다보면 분명 상대방이 실패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망하는 길인줄도 모르고 있고, 무엇보다 그걸 고치라고 조언하면 화부터 내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서

제대로 말해야지, ”일찍 실패를 겪어보되 그걸 제대로 수습하고 교훈을 얻어야만 자산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해진다. 10대들이 실패하는 경우 그럼 누가 수습하고 가르쳐줘야하나, 그건 부모님들이 아닌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자

녀에게 공부하라 이것저것 경험해보라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사건 터졌을 때 수습해준다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실패를 위로하는 것 : 사실 위로야말로 가장 싸가지가 없는 짓이 아닌가. 왜냐면 위로는 **돈이 안 들거든**. 돈이 들지도 않고 뻔한 소리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위로의 순기능이다.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정말 물질적으로 돋거나 그 일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주거나, 아니면 강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깔끔하다. 더군다나 실패한 애들이 '위로받는 쾌감'에 빠져버리면 그건 불행중독과 비슷한 루트를 밟아버리고야 만다. 젊었을 적 고생은 돈주고 산다... 라고 말이 들리면 일단 그 말을 어떤 어르신께서 하나봐야한다. 물론 메시지는 메신저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지의 진정성은 그 메신저로 결정된다.

남의 아이에게는 공부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굴러봐라, 실패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 상류층 인사가 자기 자식들도 과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굴릴까. 하다 못해 고생시키는 경우라도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해준다.

난 노오력주의자이긴 한데 무조건 노오력한다고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말했지만 진보(?)를 혐오하는 건, 진보를 평계로 률을 바꿔 타인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지만. 불행중독자들나 실패중독자들은 노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친구들은 잘못된 패턴 자체를 다 알아엎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잘못된 패턴이 어디서 비롯되었을 것 같나.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지, 성공에서 우러나온 자만심. 물론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소설, 만화, 애니에 자주 나오는 것이라서 과장된 것 뿐이다. 일단 성공할 확률부터가 낮지 않나. 그보다는 아예 조명되지조차 않는 실패의 트라우마부터 언급하는 게 더 타당함에도 이건 얘기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번 실패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도 강해지고, 냉정한 판단보다는 기도에 의존하게 되며 실패로 받은 상처가 한이 되어 감정적이 되기 쉬운데다가, 그 책임을 타인에

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젊은이들보고 고생해보라하는 노인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진 않는다.

꼰대들의 이야기도 가려 들을 건 가려 들어야한다. 그게 얼마나 간지나냐가 그런 걸로 따지면 안된다.

1. 그 사람이 돈을 내는가
2. 그 사람이 정말 실천해주는가

성인군자인 척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이먹고 추궁해보니까 반응이야 군이 적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5.60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

2016.03.09

1. 나이를 먹지 않는다 – 즉 원칙적으로 수명이 무한정. 그에 비해 인간은 2~30년 교육시켜서 20년 굴리면 많이 굴리는 것이고 그 외는 사실 쓸모가 없어서리.
2. 감정이 없다 단점도 없지 않겠지만 사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인간의 감정 때문에 벌어지는 실패와 참사가 더 많은지라.
3. 욕심이 없다 뛰어난 인간은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거나 사리사욕을 쟁기지만 인공지능이 그럴 일이 없다는 것.

이것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적어보니까 그냥 '신' 아니면 '부처님'이네요. 수명 무한정이고 감정 문제가 안 겪고 무욕이니.

그런데 이걸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뺏는다, 즉 대체한다고만 보는 건 단순한 + - 셈법이 아닌가 싶은데. 여태까지는 인간+인간+인간+... + 인간인 덧셈식 발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 X 인공지능 : 이런 곱셈적 발상으로 가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인간}, 혹은 인간^x이라는 지수적 발상으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인간이 자기 영역을 뺏긴다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할 듯.

5.61 메이드 로봇의 꿈이 멀지 않았다.

2016.03.09

걷어차일 때 마음이 아프죠.

기계음이 나서 그렇지 만약 사람 스킨만 씌운다면야

4족 보행로봇입니다. '승마'의 개념이 좀 바뀔지도 모르죠

보다시피입니다.

일단 여기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 3d 프린팅

- 양자 컴퓨터

까지 있어야합니다.

3d 프린팅이 상용화되지 않으면 로봇사회의 수급을 지탱할 수 없고, 양자 컴퓨터까지 가야만 인공지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것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한 개인이 저런 로봇들을 부리며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시대가 온다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5.62 인공지능처럼 공부하면 된다.

2016.03.11

인공지능처럼 공부하면 되죠.

1. 좋은 알고리즘을 갖춘다
2. 학습패턴을 늘린다(양치기)
3. 감정과 욕망을 자제한다
4.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
5. 아름답지 않더라도 이기는 길만 궁리한다.

그에 비해 인간은

1. 나쁜 알고리즘에 집착한다
2. 양치기를 피하려 한다.
3.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 한다
4. 특정한 경우에 집착한다(특히 과거집착)
5. 아름답게 지는 방법에 도취한다

개인적으로는 알파고의 2연승을 지지하는 건데 이건 역설적으로 소위 머리 좋다고 해서 기득권 해먹으려는 사람을 '소박한 인공지능'이 제대로 엿먹인 케이스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이 인공지능이지 실제로는 인지컴퓨터라고 보는 게 맞고 이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인지 과학'의 역할이 매우 큰데, 이건 신성화되고 신비주의화된 학습법을 과학화한 것 이죠.

인류 사회의 진보는 저 인공지능이 담당할 겁니다. 적어도 말도 안 되는 아래와 같은 핑계를 대진 않겠죠.

링크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것들 – 윤리, 아름다움, 진보 등을 정작 인간이 실천 못 하는 데 인공지능은 해버린다는 게 문제고 학습 역시 그렇습니다.

전에 수업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강조되던 게 '학습'이었는데 이것이 원래 인간의 그것을 따온 것이라는 것.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인간이 했으면 왜 인간은 이걸 실천 못 하는 거야?"

5.63 인공지능 소녀 vs 아이돌

2016.03.11

vs

저 시대가 오면 아이돌도 끝장날 것 같은데(...) 참고로 저 인조인간 소녀는 파이브스타스토리즈의 발란쉐 파티마 휴트랑. 최약체 주인을 꼬셔서 강자와 승부하는 식으로 주인을 학대하는(...) 그 장면은 여기 <http://www.gearsonline.net/forum/viewtopic.php?t=1>

안 그래도 파이브스타스토리즈에는 현실 여성들이 저 파티마들을 극혐(질투)해서 신체 노출에다가 복장까지 온갖 규제를 다 하는 설정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남성 파티마도 없는 건 아닌데 웬지 비중이 적죠 물론 중 최강 기사가 파티마였더라하는 것. 링크

그런데 지금도 연재가 안 끝나기는 커녕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은 게 더 공포인데과학 좋아하는 분들은 공부 안 되면 저 만화 소장해보시면 됩니다 (왜 빌려볼 수 없는지는 직접 보시면 아실 테고) 생각보다 꽤 심오한 작품이라서리(짜깁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짜깁기도 참 예술적으로 해서) 투명드래곤 급 설정도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있구나 생각되죠.

5.64 금융, 제조, 실업이 궁금하면

2016.03.12

ktbook.com 고교 교과서에 보면

링크 ([ㄱ ~ㄹ](#))

여기 가보면 다양한 서적들이 있는데

관심있는 몇 개의 교과서를 주문해보니 내용이 훌륭함. 사실 집필진들도 그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분들입니다.

특목고로 분류되는 마이스터고야 이미 떴지만 공고 상고 등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학력이 낮아서 기피된다고 하지만 과거 외고의 선례로 보다시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기성세대들도 '기술'이라도 익혀두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지 그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과서 내용들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에 비하면 사설인강들의 교재라는 건 사실 기출과 잡개념 짜깁기이고(...) 님들 배우는 국영수라는 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위질당한 것이거나와 전체적

으로 하향되어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이커“의 시대로 가는 추세이죠.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데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속달시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이 정도 밖에 못 하고 사실 지금도 그 정도 밖에는 하지 못 합니다.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이 침해하지 못 하는 최후의 분야는 ’종교‘입니다. 왜냐면 종교는 비합리적이기 때문. 그건 ’제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설계하고 제작한다는 것의 초기 과정 자체는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실업계는 저평가되었죠.

다수의 2, 30대들이 자기를 명문대에 갔으니까 현재의 5, 60대들처럼 땡땡 거릴 시기가 언젠가 올거야라고 기대하는 건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지. 5, 60대야 고성장시대니까 자리가 많아서 문제였던 하지만 지금은 학벌 뿐만 아니라 ’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꼬우면 자기가 창업하는 수 밖에 없는데 창업을 배운 적은 없잖습니까.

5.65 신용

2016.03.13

추한 것을 혐오하지 않는 자는 아름다운 것을 칭찬할 수 없고 나쁜 것을 증오하지 않는 자는 좋은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화내지 않는 자는 사실 싸우지 조차 못 한다.

나이 차먹으면서 소위 어른들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 그것도 검증해보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하는 것은 잘 가려듣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 저기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은 적당히 눈치 보아서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것‘

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 정도로 그쳐야지, 저걸 양비론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 걸로 가거나 본인의 호불호를 버리는 걸로 가리는 말라는 이야기다.

말이라는 것도 그런데 인간관계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에 연연해야하는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약속을 저버리는가.

전자가 미학적으로도 그럴 듯 해보이지만 사실 '실리적'으로도 좋다는 판단이다. 상대에게 좋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싸바싸바하고 가면 상대가 결국 나를 우습게 보게 되어있다. 왜냐면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건 '신용'이 날라가는 것이고,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도 소용없다, 그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으면 언제든지 여포처럼 배신해먹을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냐 질문하는 데 사실 하나마나한 질문. 본인부터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며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칼같이 잘라버리거나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 본인이 신용을 갖추면 모여드는 사람들도 신용있는 사람들이니 서로 협조해나갈 수가 있다. 반면 본인이 신용을 버리면 신용있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신용없는 인간들끼리 모이니 서로 통수나 먹이게 되어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가족간에도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 이기 때문에 신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잘못된 통념이 퍼져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자식 통수를 때리고, 자식이 부모 통수를 먹이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가령 금전적 지원을 받는 n수생이면 공부만 하는 것이 신용을 지키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반대로 자녀에게 뭔가 약속하고 그걸 어겨먹거나 그저 자녀를 체면의 도구로 보는 부모들도 많다.

신용을 지키리면 잘라버릴 건 잘라야 한다. 하다 못해 상대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어기면 화를 내야 하고, 반면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다간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추락해나가는 것이겠고 어그로 끌자면 지금 자기 처지가 개막장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가족들도 신용이 있지도 않겠지만 본인도 과연 신용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은 단순히 노력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다, 말이 천금의 가치가 있는 사람, 즉 그 사람의 말이 법이나 다른 름없는 사람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쳐지만 호소하는 사람이면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내 경우는 일단 멀리할지 않을까 싶은데 인정에 호소하지만 신용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인정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엿먹이기 좋고 실제로 많이 당해보았다. 자기가 얼마나 불우한가 비참한가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안 겪어 보았겠냐만 문제는 그래놓고 통수치는 경우가 많았단 것이다. 통수를 치지 않는 사람들은 반면 필요한 말만 하고 약속을 꼭 지킨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다, 한마디가 법이니까. 하지만 어떤 친분을 강조한다고 해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말이 결국 '거짓말'인데 내가 좋게 볼 수 있을 리가 없다.

이십대 후반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인정에 휩쓸렸고 참 많이도 얻어맞았는데 위와 같은 가치관대로 가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를 사람은 잘라버리고 신용있는 사람에겐 조심하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갈등이 줄어들어 해피해졌다.

5.66 M갈리안 현상

2016.03.13

이른바 M갈리안 현상 – 한남충 비하라는 것에 충격을 먹는다거나 그것들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이 순진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이런 남자들은 와타나베 준이치라는 의사이자 작가의 수필을 읽어보길 권함(통찰력이 꽤 좋은 사람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남자 ? 여자인 것 같지만 생존력, 공격력을 포괄해 소위 독하다라는 개념으로 치면 사실 남자는 여자에게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남자들은 카사노바가 아닌 한 꾸미거나 거짓말을 칠 줄 모른다, 이건 선량하기 보다는 무능에 가까운 개념, 그러나 여자들은 기본이 일단 자신을 꾸미고 보는 것이다. 거기다가 조직 차원으로 갔을 때 온갖 권모술수와 정보능력, 소위 정치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 없다.

M갈리안 현상은 '뭐 당연한 것 아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게 일본 만화나 애니를 단속하고 게임을 공격한 YWCA 아줌마들에게서 이미 드러났다. 미용실 계모임(...)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엄마들이 주류일 수 밖에 없는 학부모 모임만 보아도 그렇다. 여자들이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 모성애 때문에 지독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원래 저게 **본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똑똑하냐를 알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금융 엘리트들을 능가하는 게 우리나라 복부인이라는 것을 아시나. 일선 여교사부터 어린이집 원장에다가 여교장, 거기다가 약사나 공무원 등이 밤새 부동산 토론하고 스터디하는 복부인 집단,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규제법률이 결국 복부인들과의 싸움인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나면 폐미니즘은 참 공산주의만큼이나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잘 나가는 여자들이 폐미니즘에 관심이 있거나 신경쓰기조차 하느냐는 건 사실 의문, 학생 때야 좀 관심 갖지만 나중에 사회물 먹고 본격적 돈벌이하면 그런 때가 있었지... 라는 건 공산주의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은 진짜로 남녀평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공격용 무기'로서 폐미니즘을 써먹으려 했다... 라는 건데 세상은 의외로 공평해서 여성들이 차별 받는 분야도 있지만 반면 남자들도 역차별받는 분야, 즉 여자들이 이득만 보는 분야도 많다. 물론 남자들이 자기가 이득보는 분야를 말하지 않듯, 여자들도 그런 걸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다.

원래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하고 무섭다라는 건 여자들도 잘 알고 있다. 내색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결론 : 그냥 이런 걸 모르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온 **마마보이** 남자들이 병신이다 그 이야기지.

거기다가 IMF 이후부터는 가부장주의가 한물가버린 데에다가 가정에서 남

자가 위축되는 게 두드러지고 엄마들 목소리가 커진다. 그걸 보고 자라는 아들 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봄직한데 그래서인가 연령대가 어려 질수록 여자애들은 정말 강해지는데 남자애들은 소심해지기 시작한다. 일종의 '섬세함'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남자애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 중에서 '희소한 마초'라고 할 수 있는 애들 – 즉 남자답고 씩씩한 경우는 10명 중 1명 꼴인데 역시 그 아버지가 권투나 격투기를 한다거나 정말 '형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산적같은 분이더라.... 는 케이스.

물론 이런 글의 진 취지는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자기 일이나 잘 하고 능력과 힘을 키우자"가 되는데 꼭 이런 글 보면 '너 여깄이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자들이 살기 어려운 줄 알아'라는 시비가 걸리곤 하는데 나야 뭐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그럼 실천하거나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민 가세용'이라고 하거나 '오전 시간 대 스타벅스나 백화점 가면 돈 쓰는 건 누구게웃'이라고 얘기하면 그만. (냉정히 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여자들에게 천국인 곳이고, 남자들이 월급통장 맡기는 경우도 참 유례없을 텐데)

그리고 애초에 남자가 여자랑 논쟁하는 것도 참 쓸데없는 짓이다. 논쟁해서 결론이 날 것 같냐 하면 절대 아님. 논쟁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지향하는 바가 그냥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평행선을 그을 뿐. 남자로서 다른 남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는 과감히 컷하라'하는 것만 권하는 것일 뿐. 가령 탕수육 논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떡볶이로 바뀐다거나 우리가 어디서 탕수육 먹었나느냐하는 걸로 싸움질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우주의 온갖 삼라만상을 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5.67 인공지능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2016.03.14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 : 우리가 이미 전기로 돌아가는 기계문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특히 컴퓨터 없이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

해졌다라는 기본적인 현상조차 망각하고 있다.

인공지능보다도 더 현존하는 위험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 하지만 그 덕분에 저렴한 전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공지능이 법조인, 의료인,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공리공론 나열할 바 없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된다.

ⓐ 기능 : 적어도 지금 추세로 보자면 인공지능이 훨씬 낫다라는 걸 부인 할 수 없다.

ⓑ 비용 : 당연히 인공지능이 낫다

ⓒ 윤리 :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자동차도 타지 말고 인류를 위협하는 원자력부터 날리고 밤에 호롱불 밝히면 된다 .

여러가지 관점에서 검토해보자면 대체는 확정적이다. 물론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통제하며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의 '집단지성'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뭘 해도 빡하면 검색질해서 그걸로 대답하는 시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다. 하다 못해 강의도 무조건 현강으로 들어야지, 고작 강의를 녹음 한 인강으로 감히 배속수 조절하는 것부터가 문제있는 게 아닌가?

즉,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일자리를 잃느니 아우성치는지 모르겠다. 물론 해당 전문직은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값싸게 애용하는 농산물과 공산품도 '자동화'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의 한숨이 담겨있지 않나.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건 그런 분야를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그런 속도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이 될 수도 없고,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도 힘들어진다.

어제 이세돌이 첫승을 거둔 것은 매우 뜻깊어졌다. ”이미 대단해진 인공지능을 한번 이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알파고가 3승하면서 이미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세돌의 첫승은 ‘이미 인공지능이 우월해졌다’라는 걸 전제하는 셈이 된다. 인공지능이 반신(半神)으로 격상된 것이다.

그래도 인간이 잘하는 것은 그거 아닌가, 바로 학습과 적응. 인공지능이 우월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있지 않나? 지구가 이 모야 이 꼴이 되고 인류멸망의 가속이 촉진된 것은 바로 인간이 지구의 실질적 지배자가 된 이후라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이 그냥 인공지능의 말을 충실히 따르며 보좌한다면 그 인류멸망의 주범인 인간=주인이란 전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다. 물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것도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덕분에 지금 예정된 암울한 시나리오가 수정될 수는 있는 것이다.

5.68 금수저의 시대

2016.03.16

오늘 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이력서를 보건대 거참, 자녀 이력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모범적인 교과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더군요. 더 소름끼칠 것도 없는 건 본인이 금수저인데 흙수저 문제에 공감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정작 흙수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본인들이 금수저이거나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들이 흙수저를 살려야한다고 말하고 있죠. 서민 복

지를 확충해야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알고보니 기득권이라는 건 지겨운 패턴이라서리. 실제로 입시전형이 다양화되면서 간접적으로 음서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금수저의 시대가 터진 것인데 여전히 바보들은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되었다거나 이게 군사정권 독재 때문이다라고 혗진단을 하고 있죠. 그 음서제 용인이 200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0년대에 터졌던 교육과 부동산 문제가 바로 2010년대의 수저론으로 지적되고 있죠.

일제잔재청산이나 군사독재비판은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현안과 큰 관계가 있을지는 의문. 그러나 정작 지금의 문제와 관계없는 과거사 언급이란 오히려 '현안'을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공작인 경우가 많죠. 부동산과 교육에서 기득권 챙긴 자칭 진보인사께서 군사독재를 비판해서 여론을 거기에만 골몰하게 하면 자기가 공격받는 일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기득권이 공격받으면 '너 친일파지?'라고 받아쳐서 문제의 핵심을 흐리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들 속아넘어갔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일제잔재와 수시입학 비중은 정말 1:1000의 문제입니다. 일제잔재의 경우는 청산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잔재가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요. (엄밀히 말하면 1945년 이후 대한민국시스템이 그냥 일제가 남기고 간 시스템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일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수시입학 비율은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 문제고 이건 학업성취와 독립적으로 말하면 부의 세습 비중을 늘려줍니다. 정시도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적어도 '기회의 평등' 면에선 달라집니다요.

이 경우 그 위선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위선자들에게 속아넘어간 대중이 문제인지... 답하기 곤란하겠지만. 결국 그 대가는 **대중들이 치릅니다**.

5.69 그 분들도 피해자들입니다

2016.03.17

<http://m.cafe.naver.com/sayalang/1612>

그 분들이 또 일을 저지르신 모양. 그 한심한 분란짓에 대한 답변이 매우 훌륭한지라.

우리나라 남자들도 하는 짓이 하도 막장짓이 많기 한데 – 3만 코피노, 소위 '영업'이라고 뺏치는 접대, 가정폭력 – 문제는 소위 '미러링'이라고 평계대는 걸로 해서 똑같은 폭력을 저지른단 것임.

그런데 알고보면 저 분들도 알고보면 피해자들임, 일단 남성우월주의나 가부장주의를 극복하자는 건 좋은데 그 윗 선배들이 주창한 폐미니즘에는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방법은 전혀 나와있지 않죠.

이건 희대의 떡밥쟁이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똑같습니다. 자본론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여겨볼만한 중요한 설명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건데라는 말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절반 정도가 정말 50년동안 삽질을 하며 살아야했죠.

폐미니즘 책들을 읽어보면 나름 그럴 듯한 개념들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라는 말은 나와있지 않죠. 아무리 정교한 이론도 결국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많이 퍼줘야한다"로 귀결된다라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백마디 말보다도 여성들끼리 어떻게 해서 기존의 남성우월주의나 가부장주의와는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 보여줬어야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방법이 나오지 않은 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되었죠? 현실에서의 모순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긴 커녕, 정치적 탄압과 숙청을 일삼았죠. 그나마 소련과 중국은 뒤늦게 개방이라도 했는데 북한은 결국 주체사상이라는 희대의 사이비 종교국가로 가서 뻃뜯고 있게 되죠. 그 공산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마르크스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요 양반

도 글빨만 좋았지 직접 땀흘리고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씰씰이가 해픈 금수저였죠. 게다가 친구 앵겔스가 보내주는 생활비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죠. 가정부를 범해서 사생아 낳고 입양보낸 것도 흑역사고.

실제로 폐미니즘 투사들이란 사람들도 '싸우는' 건 좋지만 과연 실천하신 분들이 계시길 하는지 가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감화받으신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대안이 없으니 이 분들도 인터넷 폭력으로 가는 것이죠. 분명 폐미니즘 사상이 맞는 것 같은데 **대안은 없다** → 이게 다 **한남충과 거기에 의존하는 여자들 때문이다** → 혁명! 2000년대초인가 폐미니즘이 등장했을 때 괜히 까인 게 아닙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초의 곡해나 탄압으로 보였겠지만. 문제점 비판은 좋다 그건데 그래서 '그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하는 대안이 없으면, 이건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동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헬조선인들이 천조국을 빠는지 알아봅시다. 단지 이게 헬조선이 조그만 반도국이고 천조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찰국가라서 그런가요?

헬조선은 입으로만 떠들지 실천은 못 합니다. 어른이고 아이이고 목소리는 큅니다, 비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그러나 직접 나서는 거물은 없습니다, 외려 비판만 하면 되지 대안을 왜 요구하냐라고 화를 냅니다. 천조국은 그들의 2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실천이 따라옵니다. 공부 이전에 일단 '일'을 하라고 하며 노동의 중요성을 설파하죠. 이들은 그 노동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년 이후에 전세계를 사실상 지배합니다요.

물론 중국과 일본에 끼인 신세와 드넓은 아메리카 대륙이 펼쳐진 상황이니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 가치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리'(혹은 대기업 사원)가 되는 마인드를 깔고 갑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대학은 학생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님들 마인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승진하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그런 조언이 먹히나요?

중국에는 문혁 세대, 일본에는 전공투 세대, 그리고 한국은 386 세대. 현재의 결과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대안 없는 메시지'에 혼혹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하던 이상향이라는 건 허구에 불과했으며 그들 스스로가 젊은 날의 자신을 '배신'합니다. 바꿔 말하면 철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초기 폐미니스트들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저런 피해자들이 양산되진 않았겠죠. 요즘 저 분들 하는 행동에 말이 많은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 분들이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리. 문제는 그동안 낭비한 시간을 보상받을 수가 있겠냐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불편한 대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담당하는 여성고객에서 저분들이 차지하는 지분이 크다는 것인데. 소비자로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생산자'로서는 어떻느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소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려되어야하는 것이죠, 단 전제는 그 소비자는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자'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소비는 생산에 비해서 과도한 편입니다. 이런 모순을 결국 **"능력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걸로 해소하려 하죠**. 초기 폐미니즘은 이런 결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는데, 요즘 문제되는 그 분들은 **'돈없고 키작은 한남충'**을 까지 돈많은 남자를 비난하진 않습니다(물론 이혼이나 결별시에 적지않은 위자료를 뜯어내고 재산분할한다는 걸 전제하죠) 그런데... 이게 발상만 그렇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철없는 대머리 아재가 2d 미소녀와 현실 미연시를 한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저 분들을 이용해먹는 드라마 작가나 업자들이겠습니다만.... 이건 나이먹고 나서야 다들 깨달으실테고.

5.70 먹방이 뜨기 시작한 이유

2016.03.18

과거 90년대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동의보감(드라마 허준), 한 권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등이 대박난 적이 있다. 그에 대한 출판시장의 분석은 명료했다고 알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미친 듯이 일하면서 소득이 늘어서 여유가 생기고보니까 ”자존심”과 ”정체성” 문제에 대한 욕망이 생겼다는 것.

하지만 요즘은 저런 민족주의나 국뽕이 안 먹힌다. 이제는 먹고살기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뜬 것이 ’먹방’이다. 김준현이나 이국주 같은 푸짐해보이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모은 것도, 각종 배우들의 연기에서 ’먹방’이 필수요소가 된 것도,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이 뜨기 시작한 것도 그렇다. 과거보다 가난해지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나 자존심은 살리고 싶다 여기서 먹방이나 소위 요리/셰프쇼만한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정신이 순수한 독립적인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수험서로 돌아가보아도 그렇다. 도저히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맞나... 하는 책이 역설적으로 많이 팔린다. 사실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건 품질과 관계없는 경우도 있느냐는데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를 알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안단물부터 시작해 검증 안 된 암치료제들도 많이 팔린다는 것, 특히 ”부적”이라는 것은 고가에 팔린다는 것에 비춰보면 이런 현상은 가볍게 설명된다. 아, 지금 수험생들은 정말 불안하구나. 그러나 서점에서는 원래는 부적을 팔지 않잖아, 그러므로 부적을 대용하는 뭔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그런 부적을 파는 사람들은 적절한 시점의 교주 코스프레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부적들은 너무 위대한 나머지 효능을 보는 사람도 선택해준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주는 신묘한 부적들)

개인적 의식이든 집단적 의식이든 정말 사소해보이는 것 – 즉 물질적인 것

에 거의 좌우된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에 비해 돈이 많이 벌리는 사람들은 거만해진다. 능력에 비해 돈이 적게 벌리는 사람들은 환병을 앓거나 겸손해지거나 그 중 하나다.

수험에서 정신론만큼 허망한 것도 없는 이유다.

5.71 그들이 원한 건 평등이 아님.

2016.03.18

말하지만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95%는 "우월"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이런 논리가 평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적어도 20세기 후반부터는 평등을 요구한 결과가 역차별을 낳는 '우월주의'인 경우가 왕왕 보임.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임. 그리고 이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하면서 뭐가 같고 다른지 세세히 따지면 끝도 없는데 이런 복잡한 것을 생략하고 무조건 '같게'라고 하는 건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임. 가령 10년 죽어라 공부한 사람과 10년 논 사람은 똑같이 명문대에 입학시키자하는 게 평등이라고 볼 수는 없음.

모처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비추기능로 쓰이는 데 이 유래가 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죠. 이x루스에서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모 블로거 글이 계속 차단, 삭제당했음. 사실 삭제당할 이유도 없는 합리적인 논거의 글이어서 그 신고자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변명이 가관이었음

"민주화를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로 민주화라는 게 그런 식의 내로남불을 비아냥대는 표현으로 쓰이

기 시작했죠.

한국사회도 저런 민주주의적인 이념을 평계로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하거나 이득을 누리는 케이스가 적잖게 많고 본인이 남을 부양할 필요가 없는 학생 시절에나 왜 그런 것을 까느냐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관용으로 이해해줘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나이가 되면 바로 **우회전**해버리고 말지요. 그 때부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민주주의를 평계로 남의 피 뺏아먹는 존재가 확실히 느껴지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가 ~ 할 테이니 ~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 답변은 간단함. 미래형으로 얘기하지말고 현재완료형이나 현재형으로 얘기했으면 좋다는 것임. 다시 말해 입으로만 어찌구 하지말고 본인들이 그에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함, 평소에 정의 어찌구 하는 사람이 다 자기 돈 걸리면 그 때는 짹 입장 바꿈.

이번에 M갈리안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씹치남이니 갓양남이니 그런 거야 알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데이트를 하건 뭘 하건 자기가 먹은 밥값을 자기가 내는 게 당연한 건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해야겠음. 그게 거지근성이지 그럼 뭘 잘 했다고 그러나. 말로만 평등하지 말고 자기몫은 자기가 책임지시면 됩니당. 물론 남자가 밥값을 다 낼 수는 있는데, 적어도 더치페이파들은 남자가 사주면 고마워하지만 더치페이하지말자파는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 인간성과 가정교육에서 강 문제가 있는 것임.

복지 문제도 그런데 이거 증세해야한다고 하면서 님들 세금 거둔다고 하니까 짹 입장 바꾼 모 사이트 사례도 있어요. 상위 10% 증세해야한다고 했는데 월 200 이상이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하는 걸 뒤늦게 알고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런 것도 모르고 북유럽식 복지 주장했다는 이야기인데, 남의 선동이나 받아쓰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버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가 너무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서 행동 이전에 키보드를 두들기길 좋아서 그러는데 평등이 어찌고 소수자의 인권 어찌구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길

바닥에서 고생 직살나게 하고 돈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면 진짜 소신 있는 영웅캐릭터 빼고 나머지는 짹 돌아서버릴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 몽상주의적인 이야기하는 애들 보면 '아 애들은 고생 안 해보았구나'라고 추론해도 별로 틀리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정말 독립해서 자기 수명 깎은 돈으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은 저런 주장 안 합니다.

요즘와서 엽기범죄에다가 그냥 집단적으로 맛이 가는 사례가 왜 생겼냐 해보니 저 '민주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는 걸 나쁘다,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꾸짖을 건 따끔하게 꾸짖어야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순간 '혐오'라느니 '차별'이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흐지부지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제 민감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묻고 싶음.

1. 의대에 가서 인술을 베풀고 봉사하고 살고 싶어요

이거 전에 소감문으로 지겹게 들었음. 그 분들 어디 가시나. 그냥 수도없이 접하는 사례는 다 돈을 어떻게 버나 고민하는 케이스던데. 따라서 거짓말.

2. 이제 여성이 주도하는 화목한 가정.

이게 가장 궁금함, 한번도 못 보았기 때문임. 물론 그 분들 말로는 여자가 돈을 벌어주고 남자가 가정에서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작 그럴 능력을 갖춘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좋은 남자들과 결혼하심(...). 그래서 저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는 남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남자는 이혼위기에 처해짐(...) 아니 뭐 결혼부터가 이미 남자는 2억 집해오고 여자는 3천만원 혼수해오면 장땡인 시대임, 강 '거짓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해본 가정들은 잘 돌아가는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남자가 더 능력이 좋은 '보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3.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 고통스러운 한국으로 불법으로 들어오시나,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있음. 게다가 그 고통을 겪는다는 분들께서 수원역 앞 정육점(...) 앞에 주말이면 줄서고 계시고 로데오거리에서 여학생들에게 수작거는 건 아시나. 명목상 저임금이지만 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벼는 수준으로 벌어가고 있음 이 분들께선. 거기다가 결혼전략으로 다문화가정 하면 또 쏠솔한 지원금 받으심 그러므로 이와 관한 이야기도 거짓말. 고통 겪는다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

4.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문제

'댁 자식이 서울대에 합격해도 취소시키겠군요'라고 하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대학교에서 일하는 강사나 교수들은 등록금 문제에는 침묵함, 그렇게 기득권 까대던 분들이 자기 자식이 서울대에 가거나 자녀가 판검사급이 되면 짹 침묵한다는 걸 발견함. 그리고 그 때 대는 평계 : "난 실제로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자였습니다"

...

쓰다보니 거짓말쟁이들이 짜증나서 더 적기도 그렇고. 아무튼 입으로만 ~ 하겠다, ~ 할 테니 대우받고 싶다... 라는 건 일단 양 무시함. 모든 미래형은 처음부터 거짓말임, 즉 그걸 실천해야 참말이 되는 거지 실천 안 하는 이상 거짓말인 것임. 콕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 이거 일단 거짓말부터 한 것임,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비로소 거짓말쟁이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키배를 뜨건 소통을 하건 상대가 ”저 ~ 할 거거든요”라고 하면 한숨부터. ~ 할 게 아니라 **당장 하면 되잖아**.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그에 부합하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일텐데 부모님이 자꾸만 제 꿈을 가로막아요... 라고 할 자격은 일단 자기가 죽어라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일텐데 기본적으로는 세끼 밥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이상은 발언권은 양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임.

5.72 목소리만 내면 뭔 소용이 있나.

2016.03.23

1. 드라마나 영화에서 '선역'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실생활에서는 악역인 경우가 있다. xxx가 실생활에서 개차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xxx가 착한 주인공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더 중요한 사실은 xxx도 입으로는 나쁜 놈을 깡을 거란 이야기다.
2. 최근 뉴스에서 아이를 남몰래 죽이거나 버린 부모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도 역시 다른 뉴스나 드라마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못 살게 구는 타인의 소식에 혀를 차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들 역시 악인을 비판했을 것이다.
3. 자기가 을(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헬조선은 왜 젊은이들을 못 살게 구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별로 믿을 필요가 없다. 정작 그들이 갑(甲)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때 기성세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보니 더 해먹더라는 게 현실이다.

4.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이 아이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던 사람들이 체벌이 줄어든 이후 학생들끼리 폭행을 넘어 엽기범죄까지 저지르는데다가 일진놀이를 하는 데에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뭐 이런 분야 운동가들이 알고보니 자기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한 폭력에 중독되어있더라고 까발겨진 경우도 적지 않다.
5. 다시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하면 – 작중에서 분명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빌려 돈만 아는 세상을 비난한다. 그런데 정작 뉴스 등을 통해 확인해 보면 그런 작가들은 엄청난 인세를 챙기고 있다. 황금만능주의를 까면서도 '거액'을 벌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다면 까일 대상은 없지 않나?

쓰다보면 참 끝도 없을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착하게 살아라,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난 이렇게 반박했다. "지금은 나쁘게 살래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착해지면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한 말이지만 저게 정답이었다. 그리고 내 말을 내가 배신했다가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다. 정말로 사람 말을 믿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의심'을 안 했다가 데였거든. 그리고 인간성 타령하던 어르신들은 종적을 확인해보니 인간성이 좋은 커녕 막장의 행보를 보여주더라는 현실.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건 '문서'와 '공부'다.

업자들은 말과 행동의 괴리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하는 걸 당연시 한다. 업자들의 권력을 호구들의 무지에서 나온다. 호구들은 말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구들은 3년간 정치인들이 병신짓을 하다가 막판에 쇼를 하면 거기 감동해버린다. 반면 업자들은 정치인들이 3년간 잘 하더라도 막판에 쇼를 하는 순간 '너 불합격'이라고 매겨버린다.

한가지 예만 들어도 그렇다, 피라미드 계통 장삿꾼이든 영업맨들은 '인간미'에 호소하는 전략을 편다. 영업맨들과 대화나누는 호구들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미안해서라도 거액의 돈을 쓰게 되지만 업자들도 씨익 웃다가도 막판에 '곤란합니다,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얘기하죠'라고 차단해버린다. 설명을 신나게 듣지만 정작 물건과 서비스의 품질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적 메시지야말로 더 많은 호구들을 늘리는 짓이다. 사실 사회가 진보하는 해답은 여기에 있다. '메시지'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된다. 정치인이 뭐라고 치장하던 개무시하고, 그가 여태까지 실제로 뭘 달성해왔나 어떤 문제해결을 했나 그것만 따지면 된다.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정치인들의 주가를 신경쓰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정치인들을 일을 열심히 하고 딴 짓을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나, 선거철만 되면 프로야구경기처럼 패갈라 싸우다가 선거 끝나면 늘 통수에 당한다.

현재 20대들이 헬조선이라 힘들다 한다. 뭐 다 각자 힘든 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이들이 소리쳐보았자 그건 무시당할 거란 사실이다. 왜냐면 순전히 메시지에 불과하니까. 사회 전체는 이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실천이 없는 메시지'는 그냥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고발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던 순진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 시대는 고발을 해도 바로 '명예훼손'으로 맞받아칠 수 있다. 네티즌들이 거기에 동요되어보았자 한 일주일 정도만 공격질하다가 질려버린다. 떡밥이 사라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모 드라마로 모 지역 범죄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들을 응징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어땠나? 알파고 떡밥에 끝나버려지.

5.73 질적 교육

2016.03.24

1. 천재로 태어났는데 정글에서 자랐다
2.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영재교육을 받았다.

둘의 결과는 어떨까 가정하면 끝나는 일이라서리. 물론 유전은 무시 못 하죠. 뇌가 문제가 있으면 나이먹어도 유아 수준에 머무르니까. 1번은 선천적으로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면 정글에서 생존왕으로 살아남겠지요. 그런데 '문명적인 것'은 유전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이미지 프레임 하나를 처리할 때 열가지 이상을 동시에 떠올린다거나 손으로 써서 계산해야하는 것을 암산으로 끝내버린다거나 하나의 명제를 보면 그와 관련있는 일곱가지 이상의 명제를 떠올려서 바로 개요를 짤 수 있는 것은 분명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현행 교육과정에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서리. 공교육의 목표는 호구를 키우는 것이지 천재를 키우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일찌감치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한다.... 라고 얘기하죠. 늘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가 답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과정을 적당히 요약하면서 뭔가 만드는 과제 던져주고 팀을 가르쳐주고 두뇌를 단련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은 드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이래서 파더마더 쉴드가 참 중요한데 – 부모가 애초에 지적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사실상 그 분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부모가 지적수준이 높아도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과는 기대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이 이게 명백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 고대 : 선택된 왕족과 귀족만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 중세 : 종교인과 상공업자들까지 확장
- 근대 : 일부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
- 현대 : 여성과 포함해 모든 사람까지 적용

사회진보의 척도는 교육 대상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격차'라는 것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신분제가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는 이유는 특권계층이 교육을 독점했으므로 능력과 문화를 그들이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질은 왕족만 갖고 있다라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을 그들이 독점했으니까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강남애들만 교육받는 것이 10년 이상 이어지면 사회의 모든 중책을 강남 애들이 해먹고 나머지는 그냥 잉여질이나 하고 살자라는 걸로 체념해버리겠죠.

다만 교육의 양적인 면은 확대되었어도 과연 질적 수준까지는 담보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저기서 질적이란 말이 중요하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자... '양적 인구'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질적 인구'라는 점에서는 아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은 자식을 천재로 만드는 질적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거기까지는 책임지지 못 하죠. 교육과 복지는 (최저 수준)이란 수식어가 교묘히 숨어있으니까요.

5.74 인공지능이 나왔으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2016.03.25

역사의 진보란 교육받는 객체의 확대입니다.

20세기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육의 권리를 받는다면 21세기는 이제 사람을 제외한 동식물부터 인공지능까지 교육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귀족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여러분들이 두들기는 컴퓨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노예였음. 그 때에는 교육이 즉 계급이었습니다. 노예나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보았자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니다요. 아는 게 없으니까 소통할 수 없고, 소통하지 못 하니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교육받는 세상입니다(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 활동으로 인공지능을 키워주고 있는 셈) 이제는 인간이 안 하면 인간취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죽는다 어쩐다 해도 ”해당 직무의 인공지능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자”로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언론에서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한다는 것의 전제가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접근권의 보편성인데 그럴 리는 없잖습니까.

5.75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불길하다.

2016.03.27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다짐도 빨주노초파남보로 분리되는 햇빛처럼 분리해보아야한다.

정말로 잘 하고 있는데 겸손을 가장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치기 슬럼프였는데 그걸 극복하고 공부하는 맛을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기

그런데 이건 5%도 될까말까하고

대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말이다.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한다라는 말은 별로 안 한다. ”힘들어죽겠다”, ”피곤하다”, ”더 편한 길이 없느냐” 이러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오력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금수저 때문에? 아니면 기득권층이 워낙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그 사람이 노답이라는 얘기다. 그 사람은 그저 인터넷과 매스컴이 떠드는대로 반복하는 앵무새이니까.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거지가 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횡재의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일종의 '곱셈 효과'로써 성공한 것인데 이건 누구에게나 분명 기회는 오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나중에 논하겠지만 '곱셈'은 "같은 덧셈의 반복"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오력만 해서 힘든 이유는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노력보다는 않고 머리를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조정한다. 이들과 대적... 아니면 모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결국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즉, 단순 노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게 머리를 쓰기 위한 더 색다른 '학습'을 해야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혁명한 수험생이라면 자기가 변절할 거라는 현실을 미리 인정할 것이다. 자기가 극단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놀아제끼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즉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사실 입으로만 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학대하다보면 공부가 되는 걸로 '착각' 한다(그거야 공부를 안 해보았으니까, 아니 뭐라도 성사시켜본 적이 없으니) 정 말로 실무적인 사람이라면 죄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부터 찾아서 시스템을 만든다. 어디에 진지를 구축해야 유리한가, 그리고 무기나 식량은 다 잘 되어있는가, 병사들의 사기는 괜찮고 앞으로 날씨는 어떤가.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손실을 접게 입는 지구전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걸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그냥 '우라' 돌격하다가 고기방패되는 경우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실패하는 패턴을 수험에서 만 반복해먹는 게 아니란 것이다.

5.76 만우절 기념 폭론

2016.04.01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5.77 스포츠와 게임

2016.04.01

최소한의 운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균형' 때문입니다.

우선 현대문명이 편리해졌다라는 건 프로세스 컷, 혹은 행위 삭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사려 직접 상점에 가서 고르고 결제한 뒤 가져와야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간략히 결제하면 배송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는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죠. 비만이 많이 먹어서만 일까요. 열량만큼 몸을 움직인다면 그런 게 생기지도 않죠. 다들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생활합니다(이거야말로 근본적인 혁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은 대략적으로 낮밤 주기에 맞게 진화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콕콕러들이 콕챗을 하면서 그 불균형의 노예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만.

이 신체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 운동하라는 건 전문적으로 스포츠 수준까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걸어주고 광합성을 하는 정도로 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싸이클에 맞춰 움직이라 그 이야기죠.

스포츠의 경우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로 다른 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포츠 = 건강이란 것이야말로 고정관념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만 실증해보아도 뒤집혀질수 있는.

만약 스포츠를 해서 몸이 정말 좋아진다면 왜 '스포츠 마사지'라는 분야가 발달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신체 속의 피로요소

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거꾸로 말해서 스포츠 분야의 사람들이 그런 걸로 고생한다고 얘기되는 것이니 스포츠=건강이라는 통념은 붕괴됩니다.

스포츠=건강으로 인식된 것은 어떤 운동이건 모두 햇볕에 탄 건강한 피부, 아무진 역삼각형 신체, 가슴이 두근거리는 말근육... 일 것인데 정작 사람들이 요절하거나 노년에 고생하는 건 근육 때문이 아니라 뇌혈전, 뇌출혈, 심장마비, 심근경색, 심부전, 간경변, 각종암.... 등의 '내장' 문제입니다. 이런 내장은 근육 보다는 '신체 싸이클'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선수들의 신장이 일반인에 비해 안 좋다거나(소변 검사)라는 건 수십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들의 전성기가 끝난 뒤에는 일반인들보다 더 골골해 사는 것부터 시작해 평균수명이 높은 편도 아니죠. 오히려 지나친 신체 활동에다가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빽빽한 스케줄로 노폐물 축적이 심하고 그걸로 내장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중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라는 말은 "신체 싸이클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의 부담없는 운동을 한다"가 적절할 듯.

이런 식의 분석을 하면 마찬가지로 '게임 역시' 저격당합니다. 사실 게임도 이제는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은데 스포츠가 건강에 좋고(그리고 춤바람난 아재 아줌마들도 춤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 교미가 더 좋아서겠지) 특히 두뇌에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고 게임도 그렇지 않나 하지만

정작 사회에서 스포츠나 게임으로 성공한 사람은 '상업성'이 있는 분야에서 탑을 보여주는 소수 뿐이고 나머지들은 들러리들로서 얻는 것이 그리 없다... 라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건강이라거나 엄청난 두뇌수준을 보여 준다...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알파고로 각광받은 바둑도 사실 그걸 잘 둔다고 그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아 학술적 발견을 이끌어내거나 크게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면 글쎄요. 그것

도 팬들이 있어서 돈이 오갈 수 있으니가 그런 것이지. 생각해보면 수학 역시 입시과목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참이라고 생각하던 명제들이 하나하나 붕괴되기 시작하죠.

공부하다 휴식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한다, 혹은 게임을 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뻔합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 적당히 먹고, 구경하고 싶은 것 적당히 구경하고, 아니면 그냥 '자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수면을 취하는 게 합리적인 휴식이란 것이죠.

다소 비약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확실히 우수하다고 파악된, 그것도 유전자보다는 역경과 교육으로 우수해졌다고 보이는 유대인들. 그들의 풍습이 바로 4000년 전통의 '안식일'. 즉 일주일에 하루 쉬고 정말 아무 것도 안 하는 건데 그들의 우수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휴식의 효용'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인류사회에 공헌한 게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만든 것이죠.

5.78 트럼프가 인기를 모으는 이유

2016.04.04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드립을 칠 망정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 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들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짓말에 질려버렸음. 그럴 바에는 개드립이 낫다는 것임. 이건 우리나라에서 여당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와도 비슷함. 기독교가 보수꼴통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하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아야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최근 유럽 난민 사태부터 IS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좋은 예임. 사실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보수적인 개신교보다 더한 폭력성이 있었음. 이걸 짹빼고 편견 갖지 말아야 한 결과가 현재임.

인종차별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인종별로 학력, 소득, 범죄율 차이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음. 왜 대기업만 지원하죠? 중소기업도 살려야죠라고 하는 누리꾼들이 폰이나 컴퓨터를 어디 것을 사겠음? 정치적 메시지와 소비행위가 엇갈려버린 이상, 즉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 그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임.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기들과 노선이 다른 쪽을 강경하게 배척함.

그러다보니 오히려 정치적 소수가 시끄러워지고, 정치적 다수는 침묵해버림. 그러니 인터넷에서 진보 쪽이 더 많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남. 과거에는 군사정권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었거니와 아직까지 사람들이 공권력 무서운 줄 알아서 몸사린 게 있었음. 그 때야 정부가 탄압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탄압하고 희생양으로 만드니 다양성을 추구하자라는 메시지의 실효성이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너무 정반대로 달려가면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소수를 무조건 보호하자 하다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예컨대 불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사람들은 불체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그들로 인한 임금정체에 대해서 짹 침묵해버림. 게다가 그런 진보적 인 쪽을 팔아드신 정치인이나 학자 나오리들은 정작 자기들은 보수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감.

이걸 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해지는 것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것임. 일찌기 미국에서부터는 히피, 여피를 겪으면서 이에 아주 냉소적이 되어버렸고, 일본은 전공투 세대에 대한 성찰이 지금도 이어져내려옴. 유럽에서 극우파 정권들이 부활하고 심지어 콧수염 히씨의 중2병적 책이 인기 모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정치적 약자를 가장한 소수들이야말로 강경한 꿀통들로서 우리의 삶을 침략해오는데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느냐, 빽치지 않을 수 밖에 없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낱 광대로만 보였던 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 이유가 이것 때문임.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적어도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이 하고싶은 솔직한 이야기임. 그의 주한미군이나 동북아 안보

에 대한 발언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라면 틀린 이야기는 아님, 주한미군이 미국 이익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건 사실 우리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지, 여태까지 주한미군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던 건 사실임.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게 고마워하나? 양키 고품이라고 까기나 했지. 알고보면 하나도 잘 해준 것은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고 관대하게 대하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한국에 잘 해준 게 훨씬 많은 미국에 대해선 적대적으로 굴어야한다는 비일관적 태도를 취했음.

그나저나 트럼프는 꽤 대단한 인물임. 대통령 후보로만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이미 그 전에 부동산 재벌로써, 그리고 ”거래의 기술”이란 책에서 보다시피 그 분야는 참 천재적인 인물임. 예능쇼를 잘 해서 그런가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음.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하는 개드립 때문에 사그라들거라는 사람들이 지금 현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음? 20세기의 온갖 정치학적인 수사가 이미 안 먹히고 있는데도 여전히 20세기의 담론에 빠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광인으로 보였을 것임.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환호보내던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은 정치적 올바름을 가장해서 그냥 수사적으로만 그럴싸한 메시지 얘기해보았자 먹히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확실히 시대가 또 바뀐 것입니다.

+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샌더스 지지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언행일치론자라서리. 다만 미국 역사상 캐네디 이후로 또 암살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그 나라는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정치인이 암살당해서리.

++ 미국도 이득을 취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건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입는 수혜이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지. 만약 미국 안보우산이 아니면 군복무기간도 현재의 2배는 늘려야 하고,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나게 증가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만 누릴 것은 못 누리는 일도 일어나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 우리가 미국의 무기 사주고 있지 않느냐. 맞는 말입

니다만, 그럼 자주국방한다고 해서 미국 무기 구입 안 합니까?

단지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까고보자하는 논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미 FTA에는 그렇게 시위해대더니 한중 FTA에는 침묵, 위협이 극도로 과장된 광우병에는 아주 떠나갈듯하게 시위하더니, 멜라닌 분유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에는 다들 침묵하죠. 이 정도가 되면 합리적인 척 하면서 미국 까는 논리가 어느 진영에서 생산해댔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고작 나온다는 얘기가 트럼프가 저 발언 하니까 ”미국이 이익이 되는데 왜 철수하겠어 ㅋㅋ”라는데, 그거야말로 대착각이죠. 미국 입장은 이제는 주한 미군을 빼내서 인계철선 부담 없애고 대신 한국 보고 자주적(?)으로 북한, 중국 상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책임은 안 질 테니 알아서 하라 그건데, 이 걸 막는 것이 바로 ”의리론”이 아닐까 싶은데. 무조건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 준 것 없다 하면 미국에서야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데 뭐하려 그 짓을 하냐 하면서 빼면 그만이죠.

물론 이게 미국을 찬양하지 말라, 미국도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냉정히 손익득실 따지면 이거 사실상 일방적인 원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익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알고 벌써부터 수사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틀린 말은 아니라서 우리도 가만히 선거를 지켜봐야합니다.

반미감정이야 군복무기간이 늘어나고 국방비로 내야 할 세금 항목이 신설되거나 그러면 단번에 날라가지 않나 싶은데. 원래 누리기만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연해보이던 게 상실되면 어떤 입장 취할지야 뭐.

5.79 성격이 급한 사람의 문제

2016.04.07

그 테스트는 '시간감도'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만.

성격이 급한 사람의 문제는

1. 과욕을 부린다 → 터무니없는 스케줄을 짠다 → 자폭한다
2. 사소한 것에 민감하다 →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 빨리 GG 친다
3. 필수 단계를 생략한다.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인데 보통은 3가지가 있죠. 성격 급한 사람은 독학재수를 하기 좋아한다는 것도. 그래서 **망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학원에 가면 다른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므로 자기 성격이 급한 것을 보정할 수 있을텐데. 학원이 싫다면 최소한 도서관이나 스터디를 해도 되는데, 자기가 무슨 달려라 하니도 아니고 빨리 달리고 싶다보니 n수의 끝까지 달려라 콕창이 되어버립니다.

성격 급한 건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제가 그러니 잘 알죠) 1번의 경우는 그래서 계획을 안 짜는 걸 권합니다. 그냥 과제 하나 정한 다음 그걸 천천히 끌내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빨리 끝낸다고 해도 대충 할 게 뻔하거니와, 당사자가 정말 잘 지칩니다. 2번의 경우는 둔감력을 키워야합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대범하게 넘기고 고통을 덜 느끼는 식으로 가야해요. 3번의 경우는 사소한 행위라도 5~10단계로 세분화해서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메모지에 뭘 해야할지 하나하나 적고 그걸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조언조차도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는 귀찮은 걸로 보이겠으나, 저대로 만 한다면 그 사람은 기존에 저질렀던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으며, 적체된 부채들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5.80 혼인율 최저

2016.04.07

시골이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이유는 하수구가 없기 때문이다.

시골에서는 오페수가 그대로 티가 난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대로 지저분해지고, 폐수가 생기면 하천이 더러워진다. 사람들이 얼마 없고 다 아는 사이인데다가 노인들의 입김이 강하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하며(예외적인 야만 행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의 기회가 없다. 그야말로 시골은 자기만족에 빠진 나머지 자유가 제약당하는 그런 공간인 것이다.

반면 도시가 시골보다 발전하는 건 하수구가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수준만 지키면 각자 뭐하고 놀든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망을 마음껏 해결하고 돈만 있으면 더럽게 놀더라도 내일의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도시다. 다시 말해서 도덕에 꽉 매이지 않아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자유가 있으니 새로운 것들이 늘 고안, 실천된다. 기존의 가치관 구속이 심하지 않아 좋은 것이 바로 채용된다. 환락을 즐긴 찌꺼기는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다음 날 깨끗이 샤워하고 멀쩡하게 다녀도 되는 곳이 도시다.

아무리 대자연이 좋다고 한들 시골 인심이 최고이죠라고 한들 이건 다 거짓 말인 것이다. 그 누가 답답한 곳에 가서 살려하나. 그래서인가 원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도시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적당히 욕망을 충족하고 자기들 만의 룰을 지키지만, 촌사람들이 도시에 오면 자제력이 없어 막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수구가 무한하다고 믿는 것이다.

역대 혼인율이 최저라고 한다. 물론 내 경우도 별로 결혼은 생각이 없는데 지식인과 언론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이 낮고 혼인율이 떨어진 게 정말 **집값 때문이겠나**. 그런 논리라면 과거 베이비붐 세대에는 단칸방에 살아도 애 둘 셋은 넣고 살았다. 과거에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자. 어느 시대에나 희망 못지 않게 절망은 있었으니까.

불편한 진실은 그것이 아닌가? 이제 결혼이 거추장스러워졌기 때문이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 공히 성욕을 채울 수 있다. 아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다양하게(?) 채울 수 있지 않나? 유명한 인기인들이 뒤늦게 결혼하는 이유가 뭐나. 즐길 건 다 즐기고 이제 막판에 '꼰대' 노릇을 하고 정착하겠다는 얘기다. 그건 생전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기 전에야 세례를 받아서 '깨끗한' 상태로 천국에 가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적어도 90년대까지는 프리섹스에 대해선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혼인 전의 관계나 임신에 대해선 정말 가혹해서 결혼이 강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있나?

거기다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다. 많이 넣는 것보다는 1~2명 나아서 집중적 투자를 하는 게 낫다. 딱히 자녀를 낳지 않아도 어차피 남의 자식들이 일해주는 걸로 생기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다. (거기다가 자녀를 안 넣은 걸로 폐널티를 입으면, 국가보고 왜 차별하느냐고 시위하면 된다) 그렇다면 원없이 연애질을 즐기다가 한계선에서 "집안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M&A를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유교적 가치관 내에서는 남녀간의 연애라거나 성적인 것들이 터부시되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걸 즐기면 제재받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즐기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되었다. 즉, 결혼이 바로 하수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물론 결혼해놓고도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결혼이 바로 욕망실현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결혼이 더 이상 하수구 역할을 해주지 못 한다. 욕망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었다. 결혼=시골, 미혼=도시와 같은 구조가 완성되었다. 사

람들이 선망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과 즐기는 프리섹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극강의 자아실현을 하는 것 등이다. 현재의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는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럽게 놀 수도 있다(이제는 더럽게 놀아도 제재받지 않는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왜 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나. 사실 일부일처제가 인류 탄생 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역시 과거의 신분제도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경제적 문제'만 언급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짹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이 유물론적으로 설명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사상이 왜 틀렸나. 그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 활동을 물질적인 것에 종속된 관념으로 명쾌히 정리해버렸다. 그걸 맹신한 공산주의자들은 수많은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복지를 강화하자,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자. 이건 그냥 대책부터 정하고 원인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10년 내에 두가지가 사라진다고 보고있다. 하나는 취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인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저게 zero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포장지는 있는데 속은 텅 비어버린다. 예컨대 취업의 경우 분명 취업들을 형식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다음 3년 내에 다수가 퇴사해버릴 수도 있다. 이미 비정규직을 뽑는 것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으로 가고 있는 경우다. 혼인의 경우도 그렇다, 이제는 혼인이 이혼의 예비절차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간통죄가 사라진 이상 외도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변호사를 통해 돈을 얼마나 주고받느냐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기득권이 다 해먹어서? 과거 봉건제 시대에 그래서 저출산이 있던 건 아니지 않은가. 첫째는 피임이 가능해서이고, 둘째는 자식을 낳기보단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확실한 해법이 뭔지는 안다. 하지만 그건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기이에 선택할 수가 없다. 저출산의 원흉은 "자유"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면 무슬림 국가들이나 살기 힘든 곳이 오히려 출산율만큼은 높다(물론 사망율은 예외다)

그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위 영상처럼 되어서 점점 아이큐가 낮아질 수도 있다(어떻게 보면 대자연의 조화가 아닌가)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유력한 것은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192691

이 책에서 경고한 바처럼, 출산율이 높은 종교인들이 득세하면서 근본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근본주의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심 때문에 애를 낳는다. 이게 사소한 차이로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지수함수적 변화라는 것. 특히 저출산 재앙을 목도한 종교인들은 사회를 중세 시대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할 것이고 이건 정말로 잘 먹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혼은 다시 상식적(?)인 수준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의 민주주의나 자유지상주의는 물건너가겠지

5.81 자전 확대

2016.04.12

<https://www.hankookilbo.com/v/e59f2a6643204521a60fcd49cdba8d70>

대학이 신성한 상아탑이라는 메시지와 관계없이, 저출산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죠. 게다가 수시나 정시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뽑고 난 다음에 갈라버리겠다는 것이죠. 10여년전인가 대학이 무슨

취업하는 학원이냐... 라는 지금 생각하면 매우 배부른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는 취업만 시켜준다면 갓학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역시나 수구 기득권 자본의 음모... 하더니만 구조조정 못 한 채로 현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다 침묵. 대기업들도 노조의 입김이 강한 곳이 유감스럽지만 오늘 뉴스 뜬 거제도 꼴이 나버립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구조조정 **당해버리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저래버리면, 대학 과정까지도 선행학습해버리는 케이스가 생겨나겠네요. 입학하자마자 유리한 과목과 좋은 학점으로 '돈되는' 분야으로 갈 것이 뻔하니. 과거에야 학과별로 모집해서 경쟁을 줄면서 계급장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릴 듯. 다시 말해서 상위권 고딩들이 대학교 과정 미리 준비한다고 대학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김x종 교수님 미적분 책을 보고 대학 물리, 화학 선행하는 것도 일도 아닐 듯(영어야 뭐 이미 그 정도는 지금 다 선행하고 있으니)

5.82 취업과 결혼

2016.04.12

생각해보면 조선 말기에 '양반 제도'가 감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도 없겠고 말 그대로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1940년대에 일본이 전쟁에 져서 물러날 거라고 본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더 이야기하면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일본 밑에서 조선인들의 세력을 키워서 크게 한건 해먹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조선인들이 자기보다 못 한 일본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따는데. 현재와 같은 취업제도는 역사가 사실 100년도 될까말까이죠.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에서 보다시피 조선인들이 취업과 실업으로 고민했던 게 일제시대였지 조선시대는 아니었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연애결혼도 역사가 50년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결혼이라는 것도 산업

화된 1970년대에야 본격화되었고 그 전까지는 농경사회였으니 부모가 점지어 주거나 선보는 식으로.

현재의 실업이나 미혼에 대한 진단의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야 법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착취해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고용이 늘었겠으나 정보화 시대에는 일시적으로만 부려먹거나 아웃소싱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럼 정규직을 많이 뽑는 건 미친 짓이 되어버립니다. 씹쓸하지만 결혼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시대착오적이 되어버립니다. 프리섹스가 보편화되었고 간통죄가 사라진 이상 배우자에게 종속될 이유가 없고 맞벌이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도 돈으로 키우고 있죠. 거기다가 결혼의 관행이라는 건 불만족스러운 게 많죠.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선택이 해답이죠. 이미 사회가 변했다, 그리고 저것들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비정상이 알고보니 '정상'인 것이죠. 저것들을 비정상으로만 보면 그냥 일시적인 문제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다른 현상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1980년대~2000년대는 정말 배부르게 살았구나... 라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586 비난론의 일부이기도 한데 비난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이 586식 가치관이나 당위적 명제는 지금 봐도 시대착오죠. 다만 지금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늙은 세대는 여전히 박정희 시절 환상에 젖어서 그 쪽 정치세력을 지지해주면 그 시대의 호황이 올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지금 먹고살기 힘든 게 다 기득권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간판만 진보지 한물가버린 쪽을 밀어주고 있죠. (그런데 가장 불편한 진실은 그 늙은 세대가 1980년대 민주화를 달성한 세대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일단 빚을 내고 취업과 결혼으로 가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취업과 결혼이 정말 그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주느냐를 검증해보아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갔다가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며, 연애도 '소득이 많거나 집안이 좋은' 배우자를 골라서 정략적으로 하게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시장주의를 경멸하는데 현실에서는 철저히 시장주의를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런 시대흐름을 그나마 이야기한 사람이 공병호(...)입니다. 거의 책을 찍어내다시피 하는 분이라서 책의 희소성은 떨어지지만 메시지 자체는 지금 보면 그리 틀린 건 없었죠. 유하 감독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도 지금 보면 참 소름이 끼치네요. 처음 보면 정말 이런 로맨스물이 있구나, 감우성씨 엉덩이 탄탄하구나... 그랬는데 지금보니 남녀의 복잡한 심리라는 게 참, 유부녀가 애인과 남편을 오간다.... 는 건 당시 웬 미친 발상이냐고 했는데, 지금은 어, 이런 경우는 현실에도 널렸어(...)라는 게 인식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 해체될까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그 다음을 잘 시사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5.83 롯데월드타워

2016.04.12

졸릴 때 보면 좋습니다.

저것도 지을 때 상당한 풍자글이 많았는데. 소위 문인들은 토목공사를 비판하면서 그게 시대정신인양 이야기하지만 경부고속도로, 63빌딩, 남산타워, 청계천,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결국 "인식의 수준"을 바꿔버리지요.

청계천도 왜 자연하천이 아니냐 하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비판이 많았으나 일단 그게 뚫리고 나서는 다들 서울 한가운데 인공 녹지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죠.

과거에는 서울에 상경한 촌사람들이 63 빌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지만

지금은 에이 시시해하여도 롯데월드타워를 밑에서 올려다보면 하늘이 저렇게 높았나를 실감하게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빌딩들이 더 많이 들어서겠구나라고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런데 마천루의 저주가 여기에도 먹힐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

5.84 국가 신용등급

2016.04.15

링크

호불호가 갈릴 지점이긴 하지만 저걸 무시 못 하죠.

선거에서 수권 정당이 누가 되느냐 그런 건 큰 차이를 낳지 못 합니다. IMF 다음부터는 국가는 거의 회사나 다름없이 변해서리. IMF 이전까지는 정말 경제, 경영 관념이라는 게 없었음. 으쌰으쌰하면 경제가 다 살아난다 믿었죠. IMF 터지고나서야 알았던 것이죠. 위대한 한민족은 양 허상이고 제삿상 시루떡마저 '달려'라는 것을 현 야당이 집권할 때에도 무디스, S&P, FITCH 눈치 보는 경제정책 꾸쳤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는 건 이제 먹히기 어려워요. 전세계적으로 단순노동 가치는 낮아지고 대체되는 추세라 인정받는 건 고급노동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정말 '자본'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죠.

아니 이 꼴대가 왜 그러냐 하는데 이건 기시감 때문입니다. 아이엠에프가 터진 뒤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나 노동투쟁이 아이엠에프가 원인이라 주장이 비웃음을 산 적이 있었죠. 그 당시 주류설이 이게 다 개발위주 독재, 분배를 안 한 것 때문이다라고 했고 저도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공부하고 느낀 건 저 이야기가 개소리만은 아니었다는 것

입니다. 개발위주 경제가 원인이 되긴 했죠. 개발을 안 해서 아프가니스탄 수준이었으면 아예 망할 리도 없으니까. 성장해야 망하죠(...) 당시 아이엠에프도 유tan에 맞아서 치명상 입은 게 컸고, 당시 정치권이 잘 대처하면 잘 넘길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시 노동자들 기득권 지킨다고 했다가 다 망해버렸고, 구조조정을 안 하니까 구조조정을 **당해버렸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부자들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공적자금이야 회수 못 하고 증발댄 것도 많았고 외국계 자본은 혈값에 알짜기업을 먹었죠 현재의 건물주들도 그 당시 혈값된 땅,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이고

지금이 저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노동개혁(?)은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외국계 자본이 나가는데 별 수 있음? 그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 대기업이 다 부담하라 하겠지만 그럼 부자들은 외국으로 토끼면 그만이고 대기업도 외국계 자본 나가면 양 망하죠. 삼성은 염밀히 말하면 외국인 회사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위대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망하는 경제가 복지확대로 늘어날지는 가히 의문입니다. 복지 확대를 하면 빚이 늘어나는 거지 그걸로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느는 건 아니죠. 한국경제는 내수경제로 버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지금 그나마 버티는 게 중국 덕분이라서 알아서 중국에 박박기고 있는 현실인데 저러다가 중국 쪽도 여의치않으면?

노동개혁(?)이라는 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때는 그냥 각자도생하는 걸 기대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노동개혁은 되겠죠. 우리가 하든가, 아니면 **당하든**가. 그런데 하면야 중장년층 울상이지만 청년층은 살아도, 당하면 둘 다 답이 없겠죠

아마 야당도 이걸 안다면 결국 은근슬쩍 여당이 하던 걸 좀 소프트하게 가지는 않을까 싶지만 하필 내년이 대선이라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1997년대와 비슷하단 느낌이 들고 있어서리. 생각해보면 머리좋은 사람은 더 벌어댈 수 있는 구조이긴 하니 그 사람들이야 환호하겠네요.

돌아가는 것 보시면서 금전적인 분야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5.85 [인물 vs 인물 001] 제갈량과 사마의

2016.04.19

경영에 있어서는 미국식 합리주의, 일본식 품질주의, 그리고 중국식 다면주의가 있다. 이 근거가 뭐냐고 한다면 그거야 절반은 뇌피셜이다. 미국식 합리주의는 테일러리즘, 즉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그걸 밀어붙여 수율을 높인다, 다만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없다. 일본식 품질주의는 잇쇼肯메이 정신에다 도요타 시스템으로 재고를 최소화하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달인이 되어 품질을 극대화, 이게 미국에 lean system으로 역수입되긴 했다만 이 역시 불확실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

중국식 다면주의는 그 실체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뇌피셜의 영역이다. 가령 삼국지의 유비는 천하를 눈물을 흘려서 집어 삼킨다. 초한지의 항우만큼 인간적이고 능력좋으며 효율적인 지도자도 없다. 그러나 그 항우는 무능하고 비정하며 곡선적인 유방에게 패한다. 그런 중국인들의 역사적 노하우가 허세만이 아닌 건, 화교를 포함한 중화권의 성장을 보면 된다. 중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강조한 건 시스템보단 사람이었다. 그것도 사람의 이면과 본성을 통찰해온 것이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과 사마중달을 비교하면 다수가 제갈공명이 한수위라고 평할 것이다. 다만 천운이 따라주지 않은 거라는 주석을 붙이면서

그러나 실질로 보자면 제갈량은 사마의보다 못 한 인물이었다. 유교적 관점에서나 혹은 일본식 스타일로 보자면 제갈량이 더 비장하고 극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갈량은 저 중국식 다면주의 측면에서는 낙제생이었다. 그건 바로 '사람'을 통찰할 줄 몰랐으며 자존심이 강했던 것이다.

우선 삼고초려 얘기부터 보자. 이게 허구인지 아닌지 떠나서 이 얘기부터가

제갈량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허구이지만 오나라에 가서 키 배를 뜨는 장면도 제갈량이 매우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오장원에서의 승부에서 족쇄로 작용한다.

제갈량이 마지막 북벌을 하면서 위의 사마의에 어그로를 끌어지만 사마의는 철저히 반격하지 않는 전략을 세운다. 여자옷을 보내고 분을 보내 도발하여 다른 장수가 화를 내도 사마의는 아무런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즉, 사마의는 자존심 따위는 승리를 위해 버릴 수 있던 인물이었던 얘기다. 실제로 제갈량 사후 사마의가 조상과 권력다툼을 할 때 일부러 정신나간 척 치매걸린 척했던 것도 자존심이 없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만약 사마의가 제갈량처럼 자존심이 강해서 심리전에 휘말리는 냄비였다면 삼국지의 결말은 매우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이건 실제로 그들의 승진 과정만 보아도 그렇다

제갈량은 요새로 치면 융중에서 책이나 읽으며 백수짓을 해도 굽주릴 게 없는 나름 금수저였다. 그리고 자신을 초빙하려 온 유비를 두번이나 쫓아냈으며 세번째 만남에서 등용되지마자 바로 요직에 앉아 권력을 행사한다. 이건 바꿔 말해 제갈량은 낮은 직급의 일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 따위는 할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에 비해 사마의는 애초에 후한의 군역소에서 일하던 하급관리였다.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 일하다가 조조에게 인정받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물이다.

공명과 대진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명이 사마의를 떠보기 위해 사자를 보냈을 때, 중달은 다른 건 궁극의 말돌리기 기술로 회피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묻는다. 공명의 잠자는 시간, 공명이 뭘 먹는가. 바보같은 사자는 자기가 존경하는 공명의 일상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우리 승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까지 켜챙 군사일에 힙쓰고 계십니다. 작은 일도 다 챙기고 식사는 적게 하십니다”

사자가 돌아간 후 사마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공명은 식사 양이 적고 할일이 많다. 이건 공명이 부하들에게 큰일을 맡기지 못하는 걸 말해준다”

”이제 공명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명이 사망한 후에도 사마의는 공명이 이끌던 촉군을 추격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뒤쫓지 않는다. 이것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는 문구의 진상이지만, 이건 사마의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미끼도 물지 않는 냉정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사마의의 손자가 진을 건국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공명이 정치적으로도 공명정대했다라고 보기만도 어렵다. 첫째로 마속을 중용했던 것. 만약 사마의였다면 마속 같은 인간을 중용하지도 않았겠지만, 중용했어도 브레이크 장치는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명은 선주 유비가 마속을 쓰지 말라고 유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 수제자라고 중책을 맡긴다. 보다시피 말아먹는다. 둘째로 위연을 홀대했던 것. 물론 나중의 일이지만 장안을 공략하는 건 위연의 방법이 훨씬 더 나았다. 그러나 공명은 위연을 터무니없이 홀대했고 끝까지 푸대접을 한다.

즉, 공명은 단지 백성들을 부리는 정치는 잘 했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인재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짚병이었다는 것이다. 선주인 유비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 놈의 말빨과 눈물로 각 지역의 인재들을 쓸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파죽 땅이 위보다 작아서 어차피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겠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다. 원래 촉이 차지하던 곳은 중국에서 꽤 비옥했던 곳이다. 문제는 바로 그 놈의 인재풀이었다. 유비가 근거지가 없어 사방을 떠돌아다니고 자존심도 죽였기 때문에 본인의 매력으로 인재들을 쓸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5.86 관상술과 사주팔자의 문제.

2016.04.19

음양오행과 관련된 동양적인 것들의 문제는 이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원된 서유럽의 철학, 과학과는 다르단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서유럽의 수학, 과학, 철학은 참과 거짓을 명쾌히 나누려고 한다. 그 참과 거짓을 가리지 못하거나 모순이 생기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이 세계를 재패한 이유다.

그런데 동양학문이라는 것들은 – 사실 학문이라고 보기는 무리일지 모르지만 – 이런 서유럽식 접근방법으로 가면 낭패를 본다. 말하지만 이것들은 True나 False로 명쾌히 구분되지 않는다. 음양이란 말부터가 모든 사물에는 이면이 있단 얘기이다 오행부터가 대상 하나를 개별적으로 고찰할 수 없고 반드시 관계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얘기다. 즉, 서양학문은 참이냐 거짓이냐 명쾌히 따진다. 그리고 거기다 확률, 통계적인 기술과 장치를 마련해둔다. 그에 비해 동양학문이란 것들은 애초에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것들은 사이비다라는 말은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왜냐면 애시당초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도 힘들지 않나. 달의 위상변화를 보아도 그렇다. 서양적 패러다임으로 치면 저 달은 모월 모시에 보름달이다라고 정확히 말한다. 동양적 패러다임은 '달은 차니까 기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동양적인 것들이 심오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다. 뛰어난 요리사라면 퓨전푸드겠지만, 평범한 요리사라면 개밥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학문을 직관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직관이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상술이나 사주팔자를 '참과 거짓이 뚜렷이 구분된다'고 믿고 여기에 미쳐있다 망한 사람이 많다. 풍수지리만 예를 들어보자. 고전적인 풍수지리는 배산임수에다가 남향을 선호한다. 북으로는 산, 남으로는 강 실제로 조선시대 건축물들이 이런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강남이 이 고전적인 풍수지리 틀에 맞춰져있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방위 개념을 절대화시켰기 때문

에 그렇다. 북쪽방향이 반드시 그 북쪽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주팔자의 경우도 그렇다. 아마 한번 정도는 소문난 곳에 가서 죄인이 된 심정으로 자기 사주를 물어보고 과거맞추는 것에 놀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미래는 못 맞춘다. 이걸 가지고 혹자는 콜드리딩이라고도 하는 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그렇다. 우리가 평가하는 과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과거 당시에는 매우 잘 나간다 혹은 좋았다 느껴진 게 지금 생각하면 최악이고,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먼 미래로 가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서양적인 OX로 명확히 구분되나?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참과 거짓으로 재단하려하지 않나.

아무튼 이 분야도 참 골치아프기 때문에 나름 책을 읽고 정리해보고 느낀 건 사람들의 접근방법 자체가 애초에 틀렸다는 것이다. 사주관상 그런 것들부터가 검증 안 된 사이비가 많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유의 틀'부터 다르다. 예컨대 시간 개념을 보자. 서양식 시간 개념은 시분초로 미세하게 나눠서 한 점이라는 걸 따지려고 한다. 즉 정오라고 한다면 12:00:00로 한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동양적 시간 개념은 한자 풀이 그대로 時間 – 즉 시와 시 사이를 중시했다. 보통 '오시'(午時)라고 한다면 그건 자정 개념이 아니다. 어렵잖이 11시와 13시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 그건 바로 서양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양적 사유로 간다면, 좋은 것 이면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 이면에 좋은 게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이면을 통찰해 흐름을 잘 탈 수 있을까하는 것으로 가야지, 뭔가 단정하고 가는 건 이미 접근방식이 틀린 것이다.

어떤 미녀를 보고 뽑반했다. 그녀가 좋아졌다.. 라는 건 실제로는 까놓고 말해 교미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운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당신의 운은 바람직하지 않겠네요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런 건 없어 하면서 노력을 해서 그 여자를 쟁취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늘 그렇듯 초반에만 좋다가 사랑과

전쟁을 찍고 이혼해버린다. 그리고 본인은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 자, 이걸 좋다고 할 것인가 나쁘다고 할 것인가. 그래도 본인이 노력해서 적어도 교미까지 가고 인생 화끈하게 산다는 점에서 보자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상처만 남고 화평하지 못 했으니 나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느 쪽이든 사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역시 스킬보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먹히는 영역이다. 직관으로 쭉 바라보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건 잡다한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을 관(觀)하는 본인의 마음이 맑아야한다는 것이다. 즉 욕심을 버리고 아주 차분하고 온화하게 자신의 비극까지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 관상, 사주, 풍수에 혈안된 사람들은 욕심과 불안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니 **똑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똑바로 볼 수가 없으니 사기꾼에 휘둘리기도 하고 지나치게 운명론적인 데 빠져서 스스로 접싯물에 코박고 익사해버린다.

5.87 성과 계급

2016.04.25

이건 20대 초에 지겹게 보았던 스테레오 타입의 명제 중 하나가

성(sex)은 계급이다.

그런데 납득이 가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동어반복에다가 네가 부르주아 마인드에 젖어서라나(...) 그래서 그냥 무시했던 명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나서야 귀납적으로 납득이 가기 시작했다.

과거 봉건영주의 초야권으로 설명하거나 귀족 이상부터는 소위 처녀성을 따지지만 그 이하는 신경쓰지 않는다면 것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속어에서 드러나는 권력관계.

헬기방자한 시절에야 성은 신비이고 호기심이며 욕망부터 부추기니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너무 과잉이 되어버려서 초딩들도 알 걸 다 아는 세상에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 그건 바로 **권력**.

성과 관계된 온갖 변태적인 것들이 사실은 ”권력”적인 것들의 요소를 강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권력이란 말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권력은 적어도 20대 후반 정도는 되어야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둘째는 공교육에서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주입당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평등하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르노, 즉 야동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성욕 때문에만 그걸 본다고 하는 건 오산인 것 같다. 보는 목적이야 제각각이지만 실제로 야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권력’이다. 그 권력이 명쾌한 논리가 아니라, 신화화된 기호로 표상되어 있다. 이 말이 너무 현학적이면 ”원초적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야동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다. 이 대목부터가 중요하다. 야동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호구’들이다. 그래서 야동을 보면서 몰입 (...)하면서 자기가 권력자라도 된 것과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포르노에서 평등한 관계가 나오나? 물론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공과 수가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대등한 경우는 없다**.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는 심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물 간 고대, 중세’ 시대를 다룬 사극을 보는 것과 같다. 사극의 낭만이라고 해보았자 반민주적인 봉건주의에다가 무식한 전쟁으로 인적자원이나 낭비하는 광경, 혹은 귀족이나 왕족이라는 코스프레를 뒤집어 쓰고 평민들을 농락하거나 혹은 농락당하는 코스프레쇼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챗방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나쁜 남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괴인다”.

그건 당연하다. 첫째로 대중매체에서 강조하는 사랑이란 말은 사실 실체가 모호한 일종의 선동에 가까워서이다. 발끈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럼 사랑

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 그리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깨지고 망하나?

둘째로 그 나쁜 남자들은 바로 사람들이 소망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눈이 맞거나 심쿵한다는 건 상대와의 관계가 불평등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불평등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계급이 아닌가. 이과 수학으로 얘기하면 불평등이 벡터라면 계급은 바로 시점과 종점이다. 문과 수학으로 얘기하면 불평등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면 계급은 각 점들의 좌표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성이 계급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비로소 오게 된다.

보통 이맘 때 쯤에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다수는 깨진다. 군대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방 질려서인데 이유야 간단하다. ”평등”하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권력은 생겨나지 않는다. 권력이 없으니 결국 성적인 것도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것 말고 그냥 매력이 있어서.... 라고 하는 순간에도 움찔할 것이다. 매력부터가 이미 타고난 것의 불평등을 전제하지 않나?

사람들이 까대지만 실제로는 궁금해하는 건 바로 사주팔자, 그 다음이 픽업아티스트술(...)이다. 픽업아티스트에 관한 것도 여러가지 책을 읽고 거기 나온 대사를 연구해본 결과는, ’감언이설’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로 정리된다. (여담이지만 이 분야가 의외로 과학적이다 -- 바로 진화론을 철저히 써먹고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과 국어의 만남)

5.88 소수자의 딜레마

2016.04.29

소수자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 그

러나 그 상태로 모두가 행복했습니다라고 끝날 리가 없다. 배려받는 것도 잠시 뿐이고 그 소수자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다수의 상식을 깨고 자기들이 주류임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다양성의 존중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면 이미 진작에 해결되지 않았겠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애들은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순간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딜레마가 생긴다. 그 옳지 않다라는 단정도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일종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사태 이후 유럽의 무슬림들을 존중과 배려로 바라보는 시선은 사라졌다. 솔직히 말해 싸늘해졌다라고 보면된다. 어떤 존재건 소수자일 때는 그 진면목을 알 수 없다. 그들이 소수자임을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진면목이라는 게 보이는 것이다. A가 억압받고 차별받을 때는 A는 정말로 선량한 존재인데 펍 박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별이 끝나는 걸 넘어서 A가 권력을 쥐면서 갑질을 하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 재밌는 건 그 순간에도 A는 자기가 약자(들)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이것만큼 편리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메시지건 정말로 그 누드 메시지 – 즉 '솔직한 욕망'이라는 걸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여자들이 서양남자들과 만나다니 이건 불결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서양남자들을 부러워하는 심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B라는 애가 여자들은 조신해야한다고 한다면 그 B는 새디스트 C라는 애가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외치면 그 C는 마조히스트. 다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자면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일 뿐이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메시지가 참이냐라는 반론에 날라올 것이나 유감스럽지만 역사적으로 선량한 존재들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이타주의적인 실천을 하는 경우도 찾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학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진정한 이상 사회 구현보다는 학벌로는 해먹기 힘드니 다른 걸로 출세해야 하니 이 학벌 게임을 무효로 하지 않을래... 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 x대생이나 x고생은 별 것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실은 캠플렉스 덩어리인 게 보이지 않나. 실제로 x대 나오건 x고를 나오건 신경쓰지 않는 사람은 x대나 x고를 형식적으로 라도 추켜세워줄 것이다.

개인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그 소수자들의 옹호자들은 지금 아는 한, 오히려 더 한 갑질을 해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고속후진해버린 것으로 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들이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해주는 것은 정말로 그 취지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거나 밑에 있는 그 소수자들이나 약자들을 보호해주면서 반사적으로 '권력자'가 되는 효과를 나오기 때문. 그리고 시간 지나보니 주류 쪽에서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다면 고속후진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5.89 양적축적은 질적변환을 초래한다.

2016.04.29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사실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 한다라는 말 다음으로 양적인 축적은 질적인 변환을 초래한다... 라는 말은 매우 즐겨쓰는 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운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수년동안 그 관련한 점성술이나 팔자 책을 읽어보았는데 지금 정리해보면 한가지 문제가 있다.

서양적 사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모순”의 발견이다. 이 모순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기존의 것들이 전복되면서 새롭게 발전하게 된다.

반면 동양철학 – 정확히 말하면 음양오행에 따른 어떤 기(氣)의 설명은 상생

상극의 순환을 따라 조화로워보이지만 여기 어디도 '모순'이라는 게 없다.

물론 성급한 절충론자는 그럼 모순과 순환을 둘 다 챙기면 되겠군요... 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가장 알맞지만 현명한 태도다. 그러나 굳이 경중을 두자면 순환은 모순에 비하면 깨도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우리의 가치관으로 가져오자.

운이나 환경 타령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동양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단 것이다. 좋은 운이 오면 나쁜 운이 오겠지, 나쁜 운이 지나면 좋은 운이 오겠지라는 건 그럴 듯 하지만 사실 그렇게 순환한다는 100% 증거는 없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는 결국 그런 운이라는 패러다임을 무조건 믿고 보면서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또한 수저타령하는 환경론도 마찬가지다. 이건 사실 역사로도 반례가 많다. 한국만 하더라도 20세기 100년동안 정말 적지 않게 변했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다 잘 된 것은 아니다.

운이나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순'에 이르는 것이다. 모순에 이르게 되면 한 세계의 붕괴를 맛보게 된다. 상술하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틀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노오력을 하는 이유는 별 게 아니다. 성과를 맛보기 위해서? 노오력이라도 안 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일지도 몰라도 근본적인 답은 아니다. 노오력을 하는 이유는 노오력하다가 그 양적축적이 질적 변환을 초래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기성 세계관의 모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노예가 죽어라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믿고 죽어라 일했다. 그런데 죽어라 일해도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았다. 그럼 그가 헛되게 일한 것인가? 적어도 그는 죽어라 일해보았자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의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가 어떤 허위와 허상에 사로잡혀있는가를 전신으로 느끼게 되면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

여기서 성미가 급한 사람은 노오력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가 특정한 모순에 도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학제적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다. 관념적인 삶과 죽음이나 생과 사는 그저 '닫힌 세계'이다. 그러나 본인이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삶은 열린 세계에 좀 더 가깝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믿고 있던 세계가 붕괴되는 것을 운좋게 경험할 수 있다. 알다시피 중세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 했다. 바꿔말해 우리들도 이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전부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 한다.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거의 쓸모가 없는 건 그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모순에 부딪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온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동양철학적인 순환론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거창한 이야기 그만두고 수험으로 돌아오면 간단하다. 공부하는 것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건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라 공부하는 건 기존의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공부가 힘든 건 당연하다. 기존의 내가 모순에 부딪쳐나가는 과정, 즉 나를 부정하는 과정이다. 힘든 공부를 하려면 기존의 나로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해나가야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만약 본인이 양적축적 → 모순의 발견 → 질적 변환이라는 싸이클을 빨리 탄다면 이만한 행운도 없을 것이다.

5.90 지식

2016.04.29

일반적으로 지식이 정보보다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지식은 정보를 가공해서 체계화한 것이므로 정보에 없는 가치를 담고 있다가...그 골자인데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소리다.

지식의 문제는 그 자체로는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모순이 없어야지 뭔 소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어떤 분야건 활동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느 분야건 이론과 실무는 일치하지 않는다. 모순의 머리카락 정도는 보이고 있단 것이다. 그럼 그 모순은 어디서 배태되는가? 세상이 모순의 집합이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앎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말해도 실무에서 발리는 이유는 모순을 다루지 못 하기 때문이다. 실무상 문제는 대부분 그런 모순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분야로 가보자. 분명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재정거래(아비트리지)는 성립할 수 없고 공짜 점심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은 균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아비트리지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시장의 모순을 파악한 투기꾼들은 엄청 벌어들이고 있다. 거기다가 시장은 매일 붕괴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불안하다. 수험분야로 가볼까. 분명 교과서만 열심히 읽고 기본적인 걸 충실히 하면 잘 나온다는 게 원리인데 실제 성적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또 웃긴 건 그렇게 성공한 친구들은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니 어느 걸 따라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보는 지식과 달리 아직까지 모순의 '원석'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는 같이 가져가야 한다. 실시간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을 뒤짚어 엎을 수 있는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식은 반드시 실천과 결부되어야만 비로소 지혜로 탈바꿈한다(지혜=지식+실천) 상술하자면 본인이 실무 과정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가감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키워지는 것이다.

모순을 보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모순이야말로 변화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는 건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예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에 의지하는 걸로 나타난다. 왜냐면 예언이야말로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된다하는 '모순없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언을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무엇보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의존적인 병신이 되어버리고 만다.

둘째는 예측 과거의 자료나 패턴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시나리오 및 확률로 계산하여 선택한다. 적어도 예언보다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역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과거 일이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정말로 중요한 사건은 ”늘 새로운” 것이다.

셋째는 모순의 응시 미래의 변화는 현재 시스템이 품고 있는 그런 모순에서 변증법적으로 비롯되는 것임을 알고 그 모순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차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현실에서 너무 당연하게 먹히고 있는 것이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향해 발산해가는 것. 혹은 호황일색에다가 100% 긍정과 찬양으로써 수상한 것들부터 보는 과정이다.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도 암묵지적인 것에 속한다.

이 세가지를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언과 예측의 문제는 당사자가 특정한 시나리오에 ‘사로잡혀’버린다는 것이다. 예언은 그렇다 치고 예측을 보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한국사회가 암울하다는 예측을 들은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 양 착각해버린다. 앞으로 로봇기술이 발달해 노동력을 대체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1인당 자본이나 일자리가 늘어나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애당초 저출산이 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정상이었고 과거와 같은 다출산이 비정상이지 않았나하는 식으로 통찰하다보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5.91 제2의 IMF

2016.04.29

1997년 당시인가 S모씨께서 경제위기가 온다는 식의 글을 썼다가 설렁탕 드시러 가셨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독극물일수록 달콤한 향기를 내고 위험한 곳일수록 절경을 뽑내며 사기꾼일수록 좋은 사람인 척 하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얼핏 보면 전세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다 오르는 것 같아 호황인 것 같지만 실제 민심은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다시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분명 뭔가 이상하게 굴러간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보이니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집안에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 갚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 –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익성이 없는 대학교 학과에 진학할 바에는 그 돈을 킁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 – 본인들도 철저히 허리때 졸라매고 아껴쓰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 치킨이나 피자도 끊고 편의점 음식도 가능하면 금지하고 지출 내열 철저히 적고 통제하시길.

1997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적인 문제였지만 이번이 위험하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상실되어버린 상황이어서입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필 시험장 뒷자리 녀석이 조폭이어서 망했다하는 게 전자라면, 정말로 실력이 없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와서.... 라고 하는 게 후자이겠죠.

경쟁력 상실도 상실이지만 이걸 정부, 시장,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글쎄요. 결국 **누군가 희생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해주는 사람은 늘 약자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정체되어있으니. 즉 다들 질주하다가 멈춘 상황이니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선 부활의 기회가 되겠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던 경우 양날의 검에 베여 오히려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잃을 것도 없으니 고효율에 절약형으로 자기 분야를 준비해나가면 희망이 있겠죠.

+ 검색하다 읽은 흥미로운 글

링크

++ 흔히 경제위기 와서 집값, 건물값 떨어지면 주워담는다... 하는데 그건 현금으로 10억 이상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개드립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

손으로 잡는 짓인데 그게 정말 금덩어리인지 아니면 참치캔뚜껑급 칼날인지 모른다면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997 IMF는 그래도 일시적인 걸로 끝난 셈이고 서브프라임은 그나마 잘 대처했기 때문에 끝났지만 이번 건 그렇게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치한은 잘 나간다, 그래도 건물이 최고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반론이 나옵니다. 의치한도 환자가 와서 돈을 써주지 않으면 답이 없고, 건물도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으면 부질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 다수가 가난해지는데 나 홀로 돈변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돈의 가치는 그 경제활동의 흐름 속에서 창출되니까요.

5.92 목숨값 : 마이크로모트

2016.05.06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널드 하워드 교수는 '마이크로모트'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마이크로모트는 우리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감수해야하는 비용의 단위다. 마이크로모트는 사망가능성의 100만 분의 일이다. 우리는 1천만 달러를 받고 인생 전체를 팔진 않겠지만, 10달러를 받고 그 100만분의 일을 파는 건 허락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이크로모트는 한 단위에 10달러인 셈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안전한 차나 비행기를 탈 것인지는 현실적인 결정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경차는 해마다 100만대당 109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중형차의 경우 100만대당 53만명이 사망한다. 우리의 마이크로모트를 단위당 10달러라고 가정하면 경차로 1마일을 가는 비용은 0.0109 마이크로모트인 반면 중형차로 1마일을 가는 비용은 0.0053 마이크로모트이다. 우리가 10만 마일을 자동차로 달릴 때 경차의 안전비용은 10900달러, 중형차의 안전비용은 5300달러이다.

출처 : 알라딘 중고시장에서 님들이 찾으삼

신뢰성 100%가 아님에도 우리가 현대문명의 이기를 '위험'하지만 누리는 건

과학이 아니라 경제적인 걸로 설명한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니 자동차를 없애자라고 하면 절대 과학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다. 왜냐면 정말 그걸로 사람이 안 죽는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설마 하겠지만 사망 원인이 자동차로 기록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건, 이 자동차 때문에 사실 삶이 쾌적하거니와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교통과 수송 기능을 포기하면 그로써 사라지는 목숨이 많아진다. 당장 구급차도 그렇지만 이로써 사회적 기능이 정체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리고 이걸 그나마 제대로 설명해주는 개념이 위에서 상술한 마이크로모트이다. 우리는 목숨 전체를 내놓진 않는다. 단지 그 일부를 떼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건 수협이든 노동이든 뭐든 사회 전분야에 적용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숨의 일부분을 조금씩 매매하고 있다. 부자들은 일부를 팔고 나중에 더 많이 수거하는 반면, 서민들은 사람들은 많이 팔고 일부만 수거한다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왜 대기업에서 월화수목금금금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옮겨타는지도 이걸로 설명된다(목숨값을 버는 거니까)

상품과 서비스는 과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모두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과 소비를 하는 건 '싸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면 건설도 양자역학(...)에다가 상대성 원리까지 적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걸로 건설을 중단한다면 손실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이 경제원리를 따라간다는 건 '어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걸 사회적으로 떠들 수는 없다. "그 선택이 몇몇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지 경제적이니까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돌려서 말한 게 '전문가들이 겸증한 과학'이라는 수사다.

예컨대 후쿠시마 방사능이 한반도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건 편서풍 덕분입니다... 라는 건 구라로 밝혀졌지만 다들 이건 침묵한다. 왜냐면 그걸 떠들어서 한일관계 경색이 되어보았자 이득볼 게 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미세먼지가 한

반도를 급습해도 반도민들은 침묵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만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경제' 때문에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고 조차 말까지 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세먼지 일부가 한반도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과학적 수사로 넘어가는 것이다.

마이크로모트의 지불자는 정부가 아니라 '본인'이다.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검증을 확실히 하면 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 있다. 첫째, 그건 정부나 전문가 카르텔이 만든 일방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둘째, 발언자는 자신의 마이크로모트, 즉 목숨값을 전혀 생각하지 못 하고 있다.

아니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이 목숨값이라는 개념을 중고 교육에서 가르치진 않는다. 중고 교육에서는 과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한다고만 얘기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한 얘기다. 그건 결국 권력자들의 말을 듣는 충실한 '종속자'들만 양산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과짱임이라고 해보았자... 그 이과짱들도 교수든 연구자든 '대기업'과 '정부'가 주는 돈에 기대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정부는 개개인의 목숨값을 아주 저렴하게 매긴다. 우리나라의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과연 소신껏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터져보았자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죽은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런 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사실 이 논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병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못 쟁기고 있다라는 결론이라서리.

그리고 선의의 시도조차 실은 돈을 췄는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가령 설탕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비만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건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 그게 실효성이 떨어져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인구수를 늘려야 역시 장기적인 돈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100% 추진되지는 않는다. 언론조차도 대기업 스폰서가 없으면 영위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은 조져도 적당히만 조져야 한다.

어떻게 보자면 합리성이라는 환상으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목숨값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전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사태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전자파나 첨가물의 해악은 어떤가? 간혹 TV 방송에서만 공포마케팅으로 조장되지만 결국 없던 일처럼 지나가지 않나. 물질은 아니지만 딸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V에서 성적 대상으로 여중생, 여고생들이 소비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지만 과연?

이런 걸 곰곰히 생각만 해보아도 어디든 부조리는 가득차 있다. 다만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기 힘들고, 우리 개인은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기도 벅차지만 문제는 그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조차도 정부나 전문가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자기 권리를 포기할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한몫하는 것이 결국 ”담론” 형성인데, 이 담론 형성을 담당하는 자들이 바로 지식인들이다. 하지만 이 지식인들조차도 중요한 건 침묵한다. 그런 건 자기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일반인들도 검증해야 한다. 만약 검증 주체에서 일반인이 빠진다는 건 ’주권포기행위’나 맞먹는 것이다. 직접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시도조차 몇이나 있었느냐는 의심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의 다소 선을 넘어보이는 것과 같은 활동이 이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이 사람들이 막 나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조용히 묻히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거의 갑질 비슷하게 나갔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로 보상받고 이슈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하면 이들의 행동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 했단 것이지만.

5.93 역산적 사고법

2016.05.07

서른살이었을 때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 마흔살이었을 때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 죽기 직전에 어떤 것을 후회할까.

일단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즉, 이상적인 미래상을 정한 다음에 그 미래상을 미래의 현실 시스템과 결부지어 교정한 다음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아야하나 보면 되는 건데.

한데 상당수가 ”과거지향적”인데다가 ”누가 잘못했나”하는 식의 데카르트 사고의 노예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훨씬 더 잘 나갔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작 자기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게 없어서 결국 모든 것에서 탑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있습니다. 다수 수험생들도 그렇지만 콕콕러들도 이런 경향이 없는 게 아니죠.

예컨대 대학과 자격증에 관한 생각도 뭔가 잘못되어있습니다. 대학도 ’창업’, ’취업’을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미국에서는 창업을 취업보다 더 쳐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분위기죠) 만약 본인이 창업, 취업에 자신이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다면 대학과 자격증은 그냥 악세사리일 뿐입니다. 먼저 말해서 자기가 마흔살에 어느 직장에 어떤 부서 직책을 맡고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역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못 하니까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명문대에 꼭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오히려 망가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10년 뒤에도 과연 학벌만 가지고 베텔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서른, 마흔살이 되었을 때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정확히 보아야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의 직장(공무원 포함)이나 대기업 때려치우고 고시친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이 변하고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신의 직장이나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죠. 절대 변호사가 망할 리 없어라고 했습니다만 미래 예측서에서는 의사나 변호사를 오히려 몰락 1순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마 의사가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라는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고양이처럼 바뀌니 이런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산적 사고는 미래를 개척하는 유일무이한 사고법입니다. 수학도 이 역산적 사고로 굴러가죠. ”해가 있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 $x=?$ ”라고 잡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이러한 x 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때려맞추기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산적 사고를 쓰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운명에 수동적으로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현명한 친구는 국영수를 잘 하는 친구가 아니라, 현실을 꽤 정확히 예측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미래상을 정확히 잡고 거기에 매진하는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고딩에게 현실예측을 바라다니... 라는 것이 안 먹히는 이유는 어차피 이 분야는 연령성별불문하고 다들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얄궂은 블루오션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성적대는 대로 대학과 전공과 직업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알아서 좋은 자리가 들어오겠지라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중학생이 어른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어른들은 돈에 감염되어버렸거든요)

5.94 봉괴

2016.05.08

일본의 빈집 링크

테슬라 예약주문 40만대 링크

알파고 시대 우리아이 알파백수로 링크

우버의 확장 링크

매년 초마다 발간되는 박영숙 교수의 유엔미래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기만은 힘들 것 같다. 이 책도 짜깁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짜깁기도 정말 꼼꼼히 된 짜깁기다. 풍부한 자료에서 쓸만한 것만 추려낸다.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저렇게 기사화된다.

그 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색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다. 그건 기업들이 '이윤추구' 이전에 '사회적 공헌'을 내세움으로써 실현된다. 이제는 사회적 공헌을 하지 못 하는 기업은 살아나지 못 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알던 것들 90%가 거짓말로 판명났다고 보면 된다.

우선 기사들을 보자. 일본의 빙집이 시사하는 건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붕괴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혹시 부모님이 부동산에 환장하셨다면 바로 말리길 바란다. 철저히 현금을 확충하고 빚을 줄여야 하는 시대다. 지금이 제2의 IMF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상태로 접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미분불가능한 뾰족점이었다면 지금은 미분가능한(...) 접점이라는 차이 뿐이다. 이 상태에서 어디 하나라도 무너졌다간 아작이 나버린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로 빙집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 일본을 10년 늦게 따라간다. 괜히 전셋값이 높은 게 아니다.

테슬라나 알파고가 시사하는 건 우리 사회 후진성이다. 현기차 등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누가 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테슬라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성 생산/소비는 중세시대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의 이권 때문에 그런 중세시대적인 것을 지키고 있다. 2018년에 코딩 교육을 하고 문이과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늦은 게 아닌가. 우버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안다. 물론 카x

오 쪽이 그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 과격한 혁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

그동안 제시되던 패러다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다. 이럴 때는 ”갈아타라”는 게 답이다. 우리가 알던 기성의 교육이나 산업은 화석이 되어갈 건 분명하다. 물론 기성 시스템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갈아타지도 못 할 게 뻔하다.

5.95 인간관계

2016.05.08

개인적 경험에서 오래가는 순

(오프없는) 온라인 :::: 중고등학교 친구 ; 그 외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과거에 하이텔, 나우누리 시절에 번개(...)라는 걸로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양식을 즐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오프에서는 철저히 외모와 재산이라는 걸 보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웃기냐면 채팅방에서 영혼을 나누었다는 남녀가 오프를 트고 서로의 외모에 실망하니까 어떻게 평계를 대고 안 만날까. 이런 궁리를 하던 게 그 당시 PC 통신 시절의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덜한 이유는 이미 온라인에서 끼리끼리 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짜 오래가는 친구는 힘든 시절을 공유한, 다 같이 짊어 뛰지면서도 서로의 오줌을 나눠먹는 그런 사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저기 듣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상담하다보면 현금 다발에 서로 배신하거나 생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 만약 잘 나갈 때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못 나가면 그대로 떠

날 수도 있다고 여겨야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못 하다.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기에 잘 나가던 사람들은 더 외모에 신경쓰고 빛을 내서 더 화려한 소비를 하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자취를 곧 감춘다.

순수하게 오래 가고 싶으면 온리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게 경험적인 판단이다. 저기서 중고등 친구조차도 일년에 1~2번 만나는 수준이니까 오래 가는 것이지 그 이상 가면 현실적인 이해관계상 힘들어진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 빌려줘', '좋은 보험이 있어'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당연하다. 아무리 친구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하며 일부러라도 만나는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그에 비해 순수 온라인은 서로가 거리를 분명히 확정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넘어선다는 불문율을 지키니까 더 치페이처럼 편한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그런데 언제라도 트면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 중고딩 친구니까) 정말 인간관계에서는 너무나도 환상적이어서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 수준으로 엽색행각을 벌인 친구가 진리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 사이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내 경험상은 저 말은 진리이다. 물론 거리를 유지해도 오래 가지 않는 관계도 없지 않는데 그건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인 것 뿐이다. 얼치기들은 비즈니스 관계를 진정한 관계로 오해한다. 예쁜 여자가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대해주면 정말 자기를 좋아하나보다라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좋은 예다. 비즈니스 관계는 그냥 비즈니스로 쿨하게 끝내야 한다.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겪는 건 사람 사이의 배신이다. 그건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인간관계가 자산이라도 되는 줄 알고 일부러 잘 꾸미거나 친절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낭비다.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해놓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외제차나 명품백에 거금을 쓸 수 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데 돈을 쓰지 않으면 무시당하니까. 차라리 무시당하고 강 손절해버리면 되지 않냐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지 못 하다. 여기서 또 말리는 것이다.

하나 재밌는 예만 들면 어디든 커뮤니티가 망가지는 길은 간단하다. 모 사이트에서는 자기가 여자인 걸 드러내는 걸 금지시켰는데 그거 경험과 관찰에서 우러나온 썰일 것이다. 보통 잘 나가는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마니아 덕후 남자들이 완성해놓는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자료 올리고 행사 진행하면서 사람을 모은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작은 사회가 완성되는데.... 재밌는 건 이런 데가 있으면 귀신 같이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새로운 여성회원이 늘 있다. 온갖 애교에다가 착한 소녀 기믹으로 오빠 어찌구 하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바로 '오프모임'에서 터진다. 그 때까지만 해도 유비 관우 장비의 의형제 정신으로 벼텨오던 남자들이 오프에 참여한 여자가 예쁘더라면 그 때부터 심각해지는 것이다(...) 자기들은 초연한 척 하지만 결국 그런 예쁜 애가 슬그머니 갑질을 시작하고 남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 경쟁한다. 거기에 질린 다른 여성회원들은 점점 활동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표출되면서 판 살림차리러 나간 사람들은 독립해서 나간다.

저렇게 망가진 커뮤니티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 그럼 여성들만이 모인 사이트가 괜찮겠네요 – 라고 하는 것. 검색 사이트에는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런 곳들이 없는 건 아니다. xx 오빠 팬클럽이라거나 드라마 덕후질 같은 경우야 꽤 오래 간다. 그런데 이런 곳은 남자들이 보기엔 '군기'가 잡혀있다(...) 빠심이나 팬심 아니면 베틸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되는 것은 증오심(남혐) 정도. 이걸 빼고 나면 사실 여성사이트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 회원들은 다시 남성들이 모이는 사이트 공략을 시작한다는 뻔한 패턴.

5.96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 – 자존심 상처입히기

2016.05.09

키배 조장 → 자존심 환자 발생 → 게시판 헤게모니 욕망 → 악순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양적완화술 중 하나. 게시판에서 키배가 벌어지면 거기서 패한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든 자존심에 사로잡힘.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특히 남자들)은 게시판 승부에 환장함.

타인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데도 특정 커뮤니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음. 왜냐며 그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임. 그래서 과장해 말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온라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남의 문제로 보지 마셈.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게시판 뿐만 아니라 과거 싸이월드도, 블로그도, SNS도 다 그렇습니다. 이 맛에 중독되어버리면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집니다. 중독의 배경은 다름아닌 자존심이지요. 당연히 그런 건 본인 인생을 위해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 건 근절되지 않죠.

본인이 사이트 열어서 장사치되고 싶다하면 이 방법 쓰면 됩니다. 다만 칼부림 날 가능성이 있죠. 참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키보드 몇자로 마음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겁니다. 이건 게시판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게시판에서 서로 의견 다른 걸 존중하고 그냥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게 하고 그 이상 가면 무조건 컷시켜야 작성자들도 하면 안 되는 것임을 알고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바뀌는 것이죠.

게다가 저런 상태에서는 어느 커뮤니티에서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침묵하는 능력자들이 질려서 떠나버리지요. 활동 회원을 보는 척도는 그 회원의 ”공헌도”와 ”비판도”를 종합해서 따져야합니다.

공헌도가 높고 비판도가 높다면 실천자

공헌도가 높고 비판도가 낮으면 종속자

공헌도가 낮고 비판도가 낮으면 방관자.

공헌도가 낮고 비판도가 높으면 **파괴자**.

당연히 실천자를 늘려야합니다. 파괴자는 언뜻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그냥 암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환자들을 양산하는 전략은 피해야 합니다.

5.97 고민의 절반 이상이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2016.05.09

아래 적은 역산적 사고법을 참조해주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고.

과거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둔 땅이 올랐다거나 주식이 배당금을 준다는 것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약속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결과는 '선택'과 '실천'할 때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령술한다고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간혹 죽었다고 착각한 케이스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망치는 게 자존심과 과거 집착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요. 흔히 하는 착각이 자기가 죽어라 하면 과거의 실패조차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헛소리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성공했으니까 재평가하는 윤색에 불과하지, 정말 그게 자산이라면 지금 도움이 되어야죠. 나는 삼수, 사수했으니까 다음에는 입시 성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흔한 미신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 3번, 4번 실패했으니까 실패할 확률도 크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되, 현재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역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입니다. 자신의 단점은 자존심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존심을 버리면 단점도 처리할 수 있단 이야기죠.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몇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은 없지만, '포기당하는' 사람은 물론 많죠. 정말 제대로 망해버린 뒤라면 말이죠.

서른이나 마흔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어떤 걸 했어야 덜 후회할까 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자기가 **지금 가장 하고싶지 않은 선택이라거나 자기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그게 알고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5.98 1년 뒤 일은 고민해보았자 무의미하다.

2016.05.11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에게 털리고 있을 거라는 예측은 10년 전에 겨우 나올까 말까였죠. 짱깨라고 업신여겼지만 지금은 주권을 내주면서까지도 중국인에게 굽신거리야 할 시절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중요한 걸 10년 전에 알고 예비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개인 차원에서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에 들어가거나 학업을 밟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변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지의 변동에 대비하도록 늘 준비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하라는 준비는 안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험사이트 학생들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너무 정확히 알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다고 준비 따위 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준비는 안 하고 어떤 직업이 좋나 서열놀이나 하고 앉아있죠. 쓰레기라고 불려도 별로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다.

1년 뒤는 커녕 사실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

릅니다. 그나마 계획을 세워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예측불허의 사건은 늘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사건이 안 터지는 방법은 우리가 전지전능해서 미래를 모두 알고 있어서 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죠. 그러니 미지의 사건과 조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미래를 훤히 안다는 것의 문제는 '자기예언 실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도 공부할 수 없어, 그냥 편의점 알바로 살아야겠다"라고 좌절하면서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정말 편의점 알바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 시야를 좁히고 노력을 안 하죠. 예, 뇌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5.99 일본 로스쿨 정원미달

2016.05.13

링크

우리나라는 정확히 일본을 따라가죠.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서 깡던 일본의 온갖 음란한 풍습, 반도민들이 더 해먹었음. 원조교제한다고 일본 애들 문란하다고 깡지만 한국은? 성상품화한다 어쩐다 하는데 여학생의 성을 상품화한 아이들은 더 잘 팔아먹고있죠.

세대간의 특성이나 직업문제도 그렇죠. 재밌는 건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가 무슨 바깥 일이냐, 살림이나 해야지라고 하면서 전업주부가 암울하다가 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업주부야말로 여성의 상위계급이라는 이야기가 미우라 아츠시의 [하류사회]에서 나와서 기묘하다 했건만 지금도 여자들은 전업주부 이제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저것도 정확히 따라갈 겁니다. 한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드라마 [공부의 신]도 원래 일본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변호사지만 돈을 벌 수 없어서 학교 재생사업에 나선 것이었죠. (여담인데 이 작가 만화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훌륭한 교본인데 번역이 잘 안 되고 있죠)

5.100 안중근 의사 논란

2016.05.13

개인적으로는 아이돌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안중근 의사 모른다고 마녀사냥당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원태우 열사'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지. 원태우 열사 모르지? 그럼 갈굼당해봐라하면 다들 억울하다 하겠죠.

사실 안중근은 세컨드죠. 퍼스트는 원태우 열사. 안양역 에스컬레이터에 부조로 새겨지신 분이죠. 그 근처 철로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를 전복시켜 죽이려 했던 대담한 분인지라. 쫄아버린 동료가 철로에 놓은 돌을 치워버리니까 짱돌로 이토가 탄 객실에 크리를 먹여 얼굴에 유리조각이 박히는 부상을 입힌 분입니다. 고문당해서 고자(...)가 되신 분이지만 조국의 광복까지는 보고 돌아 가신 분입니다.

안중근은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에게는 그럼 원태우는 아느냐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안중근이 유명하다... 라고 하는 건 그건 본인들이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배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죠.

사실 안중근도 꽤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긴 했지만 '반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중근은 냉정히 말하면 '친일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재판 받을 때 자기가 '일본 천황을 위해서 간신 이토'를 죽였다라고 만 이야기했지, 일본 제국주의를 까지는 않았거든요. 즉, 일본은 서양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지 않았느냐, 그런 착한 일본이 한국을 먹어치울 리 없고 일본 천황도 그럴 분이 아니다(참고로 안중근은 '일왕'이라고 하지 않고 '천황'이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농간 부려서 그런 거다, 이토만 죽이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하죠.

지금 보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죠.

오히려 이토는 조선을 강제병합까지 시키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호국'으로 관리하길 선호했죠. 사실 조선왕조 입장에서도 그 정도까지 타협을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봅니다. 이토가 죽자 고종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예우를 기렸거든요. 어차피 나라도 작살나는 판이라면 왕조라도 존속시키는 게 남는 일이었는데

이토가 살해당하자 오히려 강제병합이 빨라졌죠. 이토가 살해당하자 오히려 일본의 강경파들이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 조선왕족은 일본 황족에 편입되었고(사실 조선왕조가 고려왕족들을 어떻게 살육했는가 반추해보면 관대한(--) 조치일수도) 그냥 깔끔하게 병탄당해서 사직이 무너져버렸죠.

사실 이토야 우리 입장에서는 원수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메이지 혼법의 초안을 만들었거니와 무엇보다 '인권'을 강조했으며 전쟁보다는 외교를 선호했죠. 당시 조선의 엘리트들이 이토에게 괜히 넘어간 게 아닙니다. 원래 동양평화론도 안중근이 아니라 이토가 원조였어요. 이토가 원조 동양평화론으로 한중일이 합쳐서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하자라고 하면서 구워삶자 하니까 다들 헛가닥 넘어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조선은 무조건 일본에 흡수되어야한다는 것보다는 '보호국'이라도 가는 게 낫다는 건 그 당시 엘리트로서는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인데 이토가 죽자 이게 물건너가버립니다.

그렇다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사살이 폄하당할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치밀한 계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인가하는 건 다소.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면서 발표한 15가지 이유를 보면 당시 정치적, 국제적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죠. 예컨대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고메이 천황이 암살당했다는 루머를 그대로 담은 것도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직접적인 반일은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그저 이토 히로부미 개인에게로만 돌린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첨병이 바로 메이지 천황인 걸 간과하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일본인은 고대사 컴플렉스가 강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근대사 컴플렉스가 강하단 말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얘기하는 고대사, 한국 중국이 말하는 근대사는 걸러들어야합니다. 흔한 반박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라고 하지만 그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동아시아 역사 기술은 '패배' 컴플렉스를 화장하는 데 치우쳐져있고, 이건 공자의 춘추필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고교 과정이라면 입시니까 어쩔 수 없이... 라고 쳐도, 입시가 아니라면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 보호국화하더라도 어차피 일본이 조선을 먹기는 마찬가지였냐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약간 국뽕적 시선이 있다고 봅니다. 이토도 성격이 좋아서 보호국으로 관리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는 직접 관리하기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곳이어서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지고 평야가 적고 자원도 종류만 많지 물량은 별로입니다. 외교를 선호하는 파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굳이 직접 관리해 돈들일 필요 없습니다. 협조만 받고 비옥한 만주나 중원으로 가는 게 낫죠 반면 전쟁을 선호하는 강경파 입장이야 다르죠. 호전파들은 보호국화한 조선이 통수칠 수도 있으니 **병참기지화**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었죠.

++ 또한 일제시대 수탈을 이야기할 때 조심할 게 많습니다. 가령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들이 땅을 잃었다라는 기술이 교과서에 되어있는데 이건 원래 조선에서 농민들이 양반들에게 종속된 상태였다라는 걸 은근히 은폐하고 있죠. 사실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수탈했다고 하는데 합병 이후 농지들을 독식하던 지주들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쌀도 일본 본토에 팔아먹어서 일본농민들을 올 상에 빠뜨리죠. 교과서에서는 쫓겨나다시피 만주로 갔다고만 나오는데 이것도 딱히. 그 당시 만주는 드넓은 평야에 무주공산의 기회의 땅이었으니까 간 것이죠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면서 중국을 침략할 때 조선인들도 한몫하면서 실리를 쟁긴 건 사실입니다(...)

+++ 이토가 온건파건 아니건 뭔 차이가 있느냐하면서 기존의 역사관을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래선 발전이 없죠. 이토가 장기적으로 치밀하

게 식민지화하려 했으니 더 잘 죽인 것 아니냐하는 논법은 두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그건 이미 식민지화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장기적인 것이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닐텐데요 둘째는 우리 측도 일본에 완전히 복속당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텐데)

그리고 일본의 노엄 촘스키인 마루야마 마사오부터가 이토가 죽어서 일본이 강경노선을 걸었다고 얘기했고 이에나가 사부로라고 태평양 전쟁을 반대한 사학자 역시 이토의 죽음을 베트콩이 베트남전 반대 운동가를 죽인 것이라고 얘기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중근의 저격이 이런 나비효과를 불러왔다라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적해도 그럴 리 없다라고 눈을 감는 사람들도 많죠. 그 눈감은 사람들의 양산이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사 교육이라서 사실 한국사 교육은 그냥 안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

++++ 독립군을 너무 추켜세워주는 것도 문제인데. 6.25, 즉 한국전쟁의 전초가 이미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가르치지 않죠. 윤치호 일기에서 지적했던 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기호파와 서북파로 나뉘어 분열상태였고 그 와중에서 사상적으로도 민족주의파와 사회주의파로 갈라져 있다는 것. 이 분야를 공부해보면 이승만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나마 국제정세를 가장 잘 읽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설마 미국을 치겠나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당시에 JAPAN INSIDE OUT을 써서 일본의 해악을 경고한 사람이 이승만. 그 외 나머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정세를 읽었다 보기 어렵죠

5.101 국가입장에서는 전문연 이제 해줄 이유가 없어요.

2016.05.17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글이지만 그냥 핵심만 적겠음.

1. 전문연 자체가 ”이공계 인력을 굴려서 고성장 시대에 과실 따먹는” 시대에는 유효한데 지금은 고성장 시대가 아니죠.
2. 이미 ’국내’ 이공계 석박은 넘치기 시작했으며, 차후 교육과정에서 이과 문과 구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초딩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3. 정부에서 관심있어하는 대상은 해외 석박입니다.
4. 기업에서 관심있어하는 대상은 국내 석박 쌍값에 굴려먹기인데 **병특 없어도 가능해졌습니다**(그 때야 저런 데 취업 안 하려고 했죠)
5. 원래 이 제도는 **특혜였지** 당연히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죠.

댓글보니 그냥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해외로 가는 걸 정부는 더 좋아 할지도 모릅니다(...) 해외라 보았자 미국 일본 유럽인데 어디가든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배타적이 되면 최상위 아니면 다 국내로 되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무엇 보다 국민여론이 중요한데 이해관계자들 빼고는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소위 국익 이야기하면 사실 한류스타 빼줘야 한다는 딜레마 그 사람들 1인이 벌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부조리. 정부에서는 사실 특례 주고 싶으면 **‘중동가는 젊은이’** 주고싶은 심정일지 모르겠고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그냥 신속히 손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아보입니당. 조심스럽게 적는다면 이거 만약 언론에서 취재 조사 들어가면 당사자들에게 더 불리하면 불리해졌지 유리할 건 없어보여서(...)

5.102 전문연 논란

2016.05.18

오르비링크

글이 어그로성이긴 하지만 딱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댓글들이 더 문제 있다고 여김, 검색하면서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인신공격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는 제도만은 아니었다고 여기죠. 사적으로 보고듣고하는 것도 없지는 않기도 하지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일보 단독보도 출·퇴근 멋대로…'군복무' 신분 잊은 연구요원들

국방부의 갑작스런 발표대로만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놓치는 게 그것이죠. ”정말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제도”였나. 개인적으로는 국방부 발표는 언론플레이성이 다소 없지 않고 아울러 유예기간도 꽤 비현실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들과 별개로 저 제도가 정말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물으면 정말 마땅한 대답이 나올지는 의문. 별로 비리가 없지 않나 하기에는 한국은 발견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 뿐이고 어디든 털면 그냥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이 초용기하는 수준인지라 그리고 내부자들은 같이 연루되면 그 죄의식이 사라집니다요. 사건사고로 등장하는 용의자나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을 안 욕하고 살았을까요. 내로남불이지. 다른 것 떠나서 저 제도에 대해서 만약 언론이 뭔가 떡밥을 물고 들어가면 과연 어찌될 것인가. 공보의나 전문연을 완전히는 없애긴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국방부 정책과 별개로 만약 저 실태라는 게 언론에서 캐고 들어가면 그 때 결과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95가 잘한다고 해도 나머지 5가 문제가 있다면? 이와 별개로 흥미로운 건 이 걸 수험생들이 관심갖는다는 건데(참 쓸데없는 짓) 현재 대학생 2~3학년까지는 몰라도 수험생들이 저 제도에 관심갖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때는 정말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발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적어도 현 대학생 1학년까지는 그래도 구제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어야하는데 지나치게 짧게 잡았네요. 아마 유예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저렇게 되면 전문연 바라보고 공부한 분들은 신뢰가 깨지면서 피해를 보는 거죠. 거기다가 공보의 폐지는 사실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5.103 남혐 여혐을 막을 필요가 없음.

2016.05.18

어느 쪽이든 다 그렇게 주장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리. 어차피 말 뿐인 주장은 의미가 없죠.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상대 진영이 뭘 주장하느냐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일일히 거기 대꾸하고 하는 것도 바보같은 짓이죠.

예컨대 남자들이 막을 위시한 여성 진영이 뭘 하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워하는 건 여자들이 정말 노오력해서 실력으로 남자 자리 차지하고 가모장 행세하고 자기들 말대로 것양남(...)을 국내에 데려온다면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메시지 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아무리 여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호구짓하고 있는데 사실 누굴 까리. 더치페이하고 싶다 하면 눈높이 낮춰서 그런 여자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고 다들 그리고 있잖음,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결국 지불한다고 보면 손해보는 것은 아님.

가만보면 세상 은근히 공평함.

가장 극혐인 건 남혐 여혐 부질없다 하면서 기득권을 욕하자(그 기득권이 누군데 그래서) 남자 여자 억지로 화해하자 그건데 갈등이 생기면 싸울 건 싸우고 투쟁할 건 투쟁하는 게 낫지, 괜히 억지로 화해시킨다고 해서 그거 억누르다 간 나중에 더 큰일납니다. 여자들도 여혐을 계속 당해야 뭔가 바꾸고 남자들도 남혐을 접해야만 반성하고 바꾸지 무슨 이 사회가 혐오사회냐 그런 것이야말로 철없는 짓입니다.

저 개인이야 남자지만 사실 여자가 남혐 어찌구 하더라도 메시지가 일리있으면 고개 끄덕이고 어 그래 ... 그리고 할 것임.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실적을 얼마나 거두며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 그거라서리 부모님께 말로만 사랑해요 하는 것보다 저축해서 선물세트라도 하나 바치는 게 실질적 효도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이 말로만 그렇지 실천하는 것 보기나 했음?

상대집단을 격하해서 혐오한다고 해보았자 자기에게 돌아올 콩고물 없어요. 뭘 하든 능력자만 대우받게 되어있어서리. 남혐한다는 여자들이 그래서 실제 잘 생기고 유능한 남자 오면 거부하고 여혐한다는 남자들이 쭉빵미녀도 깔 것 같음?

실제로는 남혐 여성들은 '여성 아이들' 까기 정신없고, 여혐 남성들은 엄친아 남자는 못 건드리면서 왜 여자들이 후궁노릇하느냐 울고 있는 게 현실임. 그런데 그 까는 애들이 과연 왜 까겠음? 뭐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동기는 광 '컴플렉스'임. 이쯤해서 언질을 던지면, 뭔가 비판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의 명분이 천명인지 아니면 컴플렉스인지 그건 구분해보시길요. 이번에 설현 같은 애들이 정말 안중근 의사 몰라서 까였겠습니까. 자기들 컴플렉스 자극하는 예쁜 애라고 까인 거지.

다시 말하지만 입으로만 뭐라 하는 건 사실 무서워할 것도 없음.

5.104 마이크로소프트 입사시험 마지막 문제

2016.05.19

링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큅니다.

5.105 그래서 남혐 여혐의 대안이?

2016.05.20

남혐 여혐은 둘 다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대안이 뭔지 궁금하지
말입니다(...)

예컨대 남자 무서워 못 살겠다 그건 이해는 갑니다만. 이 논리는 한가지 딜
레마에 부딪칩니다. 그런 어떤 식으로의 요구도 '남자'에게 하지 말아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죠. 다시 말해서 남자 경찰관이라거나 남자 경호원도 믿을 수가
없다고 봐야 일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라면 여성들이 호
신술을 배우거나 하다 못해 군사훈련(...)이라도 받아서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
는 게 대안일 터인데.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이거 남혐 백날
해보았자 소용없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미친 놈들은 본인이 막는
수 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혐도 딱히... 착한 여자 만나고 싶다는 남자들이 그래서 착하
지만 못 생긴 여자 찾는 경우는 없더구만요. 말이야 한국여자들은 어찌구하면서
결국 이런저런 남자들 후리는 여우같은 경국지색 여인들에 훌려다니더구만. 그
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돈만 밝힌다... 라고 할 게 아닌 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자들의 미모도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라.

한국사회는 참 재밌는 게 문제제기는 잘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번 강남 문지마 범죄
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이야기 나와야하는데 이게 여성혐오증 없앤다
고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왜 다들 이런 질문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 범인이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라고 말했다던데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여자들이 남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
그건 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능. 즉 사건의 본질을 보기보다도, 먼저 "이 사회는
여혐이야"이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훼어맞추는 분위기?

천하제일 추모대회(...)라고 해도 딱히 이상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것도
유구한 동아시아적 전통이죠. 고인의 장례의식에 집중하고 그 재해석에 골몰하
지, 정말 산 사람을 위한 대안을 세우지 않는 것. 남혐 여혐할 시간이 있으면
도대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데 집중해야하는데 정작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포스트잇 붙이는 사람들도 사실 그 사건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자녀들이 학대당해서 부모에게 살해, 유기당한 게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녀혐오'라고 하던가요? 이것도 사실 자녀혐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죠. 이런 걸 노리는 세력이 없다는 것.

남자들이 문제야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어떡할래”라고 할 때부터 답답해집니다. 그럼 추모를 할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 하여금 치안확보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호신술 교육기회를 달라 그래야하지 ”한국남자가 문제야” 백날 그래보았자 바뀌는 것 하나도 없죠. 아니, 이 모든 걸 남자 탓으로만 돌리는 것부터가 사실 가장 위험한 '남성종속적인 사고'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하고 그럴 의지를 보이는데 사실 그런 집단적 의지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포스트잇이나 화환으로 추모대회 하는 것이야말로 ”예송논쟁”에다 ”당쟁”으로 허송세월하던 조선시대 관행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5.106 [영화] 님포매니악 1, 2 (스포 주의)

2016.05.20

님포매니악 = 색정광 라스 폰 트리에의 이 경악스럽지만 매우 철학적인 영화에서 등장하는 색정광은 여주인공 조만이 아니죠. 이상은 스포성인지라.

색정광 증세를 못 이기고 온갖 성관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잊혀진 오르가즘을 되찾으려고 중독적 행위를 하는 조에게 상담해주는 모쏠(...) 샐리그먼이야 말로 색정광이었다는 사실. 샐리그먼은 조에게 상담해주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

에 자신의 지적인 자신을 덧붙여 추상적인 오르가즘을 느끼려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현학주의적인 추론과 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의 색정광 인생은 쾌락에서 고통으로, 과잉에서 상실로 바뀌어 온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녀의 섹스는 결국 중독이었다라는 걸 샐리그먼과 상담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엔딩 직전에 금욕주의를 선언하면서 섹스중독자들을 치유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만...

샐리그먼은 여기서 실망해버리는 것이고 결국 상담을 마치고 그는 조를 덮치다 그만(...)

영화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달리 ”마음의 평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면서 위선적인 지식인을 까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샐리그먼이 상징하는 건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유럽의 지성 그 자체겠죠. 성경을 근거로 마녀사냥을 실시해 여자를 잡아와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마침내 시신을 해부하여 백과사전적으로 완성한 지식의 총집합. 이 영화의 메시지는 그런 서구적 사고에 대한 반박이자 해방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의 권총 한방보다 충격적인 건 ”어차피 넌 수천명의 남자와 잤는데 나랑 자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샐리그먼의 위선적인 발언. 거기에는 사실 공감대라는게 없죠. 그가 많은 책을 읽었던 지적이든 간에 그건 다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 위안 – 즉 평정심이라는 건 하늘의 햇님과 같습니다. 흐린 날 빼고는 늘 볼 수 있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지만 사실 영원히 잡을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 기억 속에 묻고 있던 잊어버린 사람들 – 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평정심이라는 것을 잡지 못 해서 그토록 방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도 있고 반면 느끼지 못 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불안한 자기 마음을 추스리긴 정말로 힘듭니다. 불안하니까 중독에 빠지나... 중독은 결국 신경을 마모시키고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느낄 수 없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위선적인 샐리그만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라 사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찔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샐리그면은 조의 경험에 실제로는 황홀해하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이고 코멘트하는데 히익 저건 내가 하는 짓이잖아.

그러므로 샐리그면과 달리 2차원에 정사영이나 해야겠다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결론으로 마무리~

+ 샐리그면에 가까운 인물은 플라톤이겠네요. 거기에는 데카르트가 살짝 혼합된?

5.107 [논란주의] 여혐 프로파간다의 이유

2016.05.20

말머리상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저 나름대로 시장분석을 한 것이니 그렇게 받아주시길. 사실 저는 강 그런가보다라는 방관자에 가까운지라

결혼시장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

남자는 최소 1억 5천만원의 전셋값을 마련하고 여자는 3000만원의 혼수를 준비한다

이게 핵심이라능. 그리고 이건 진짜 다들 침묵하고 있죠.

지금 남자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여자들에게 퍼주기 그만하자, 그리고 자기들도 여자들처럼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사귀겠다라고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혐 지적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게, 그럼 과거

에는 여혐이 정말 없었겠습니까. IMF 이전에는 여혐이 없어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때에는 여자들이 그냥 결혼이나 하고 살림이나 해야한다 취급받았으니까. 사실 그 때가 더 심각한 겁니다. 한반도 역사상 여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때가 현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 때 여혐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이제야 여자들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혐이라는 건 뭔가 핀트가 안 맞다는 것이죠.

아랫 글에서 적었지만 이제는 여자들도 'give'해야하는 시기기 왔거든요. 그녀들도 경쟁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2000년대처럼 권리신장하는 시기는 끝났기도 했지만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비혼으로 가는 추세는 점점 커질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는 확실히 거품이 많이 껴있거든요. 집값이 하락할 일은 당분간은 없어보이지만(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10년째 주장하는 평론가들 안다) 제 생각에는 5년 내에 결혼(과 취업)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실 꽤 많은데 유럽 쪽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기보단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뒤 동남아 쪽으로 가서 딸, 손녀뻘 여자를 품는 남자들이 늘어나질 않나(...) 우리나라로 이미 프리섹스가 상용화되었고 피임에다 낙태까지 자유자재로 해서 결혼의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어버렸으며 커플도 연령차가 커지고 있어서 굳이 결혼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 저런 거품성 거래가 지속될 거라고 신뢰한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메갈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도 여혐을 문제삼는 다수의 여성들은 이런 시장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10대나 20대 초까지는 공부할 시간도 많고 혼인적령기와 거리가 머니까 상관없을 건데 거기 도달했거나 넘어선 여자들은 힘들어집니다. 공부에다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여자들이라면 사실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려고 하죠. 혼자서 자유롭게 취미 생활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남자들이

펴다주는 결혼하는 걸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남녀평등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준에는 여성들이 약자였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생각 외로 양보를 많이 했던 편입니다(이걸 인정 안 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에서 남자들만 군대 끌려가는 것도 그렇고, 위에서 말한 결혼비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결혼을 하면 통장은 여자가 관리했죠. 그래서 결혼하면 시댁 돈은 내 돈.... 이라는 게 관행이었는데

남녀평등으로 가면 이게 깨진다는 것이지요.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들이 '여혐'이라고 주장하는지요

'여혐'이라고 하면 다시 여자들이 '약자'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남자 여자의 정치공학적인 문제로 환원해서 이게 다 남자들이 여자를 혐오하기 때문이라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약자라는 프로파간다를 강조하면, 남녀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여자들의 과거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울러 인터넷에서 유포되거나 혹은 과장되는 여성들의 문제점이라는 채무도 일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더 비약해 말하면 ”우리는 이제 남녀평등이 싫어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서 대우받을래요”라고 바꿔 말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건 다른 여성분들이 심각하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답변을 안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분이 어떻게 사나 그리고 어떤 결혼을 하나 보면 되니까요. 실제로 20대 초에 이런 걸로 다른 여성분들과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답이 안 났지만, 시간이 흘러 보니 그렇게 보수적인 남성과 마초를 비난하시던 분이 정작 ”시댁 재산이 많고 소득도 괜찮은 마초”들을 만나 여자로서 행복히 살더구만요(...) 다시 말해서 남녀평등 주장하던 분들이 결혼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그 분들이 전생에 애국이라도 하셔서 한미모하셔서 그런 것이고(그런데 페미니즘은 그 미모팔아먹는 것 까지 않나?) 그렇지 못 한 분들이야 뭐...

게다가 저 분들도 막차는 잘 탄 것이죠. 지금 같이 제2의 IMF가 온 시점에 저렇게 정신나간 결혼을 할 남자들은 별로 없죠. 이제는 각자 플레이인지라 정말 남자나 여자나 열심히 공부해서 각자 능력 키우고 대등하게 가야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20대 초반까지는 별 문제는 없다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콕콕에 들어오는 여학생분들도 많으실 건데 저거 보고 휘말리지 마시고 넘들 공부 죽어라 하세요. 우리 사회가 이제 부모님 세대처럼 남녀가 화합해 결혼하다는 건 개뿔이고, 이제는 정말 개인으로 살아가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소위 정상적인(?) 결혼은 위너남과 위너녀 말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모도 사실 한 때이고 결국 돈발라서 관리 잘 받아야 짚음 오래가는 것인데 이것도 본인이 졸라 공부해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 공부 안 하고 외모타령 해보았자 별풍선이나 타먹는 아프리카 BJ녀들 빼고 답이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전성기가 일찍 오기 때문에 – 즉 미모가 꽃이 피는 20대 초중반까지, 남자의 눈에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생식'하기 좋은 시기 – 별 노력을 안 해도 꿈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20대 후반부터 아작납니다. 그래서 그 때 선배들이야 주가 떨어지기 전에 빨랑 결혼해서 호구(...) 잡자 하는 식으로 결혼하는 사례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먹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밀리는 건 신체적 파워 이전에 중년, 장년층이 되었을 때에 실력과 자본이 없으면 재기가 힘들단 겁니다. 하다 못해 남자들은 망하더라도 노가다판을 떠거나 온갖 굽은 일을 하면서 베틸 수 있는데 여자로선 그걸 하기도 힘들죠.

지금 선동하는 메갈언니들이 그 세대니까 반면교사 삼으시면 됩니당.

5.108 [논란경고] 여자가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2016.05.20

그게 추상적으로는 당연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정작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은 밤에 술마시고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게 아이러니. 우리가 떠받드는 천조국만 하더라도 뉴욕 밤거리에 여자가 지나가보셈, 거기 남자들이 어떤 반응 보이나

정작 치안이 개판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건 터져도 별 문제 삼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 아니 이건 약간 좀 비꼬아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왜 여자들 보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하느냐 문제삼는 분들이 **치안이 개판 5초전인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살도 그렇게 대자보 붙이고 시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아니, 정말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면 강남역 10번 출구라고 해도 그 자정에 포스트잇 붙이는 게 가능하긴 할까.

그렇다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 인식' 측면에서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치안을 구축한 건 일단 '남자'들이 아님? 국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지만 자정 넘은 시각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남자들이죠. (사실 치안 측면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정말 궁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도면 다른 나라 여자들이 환호할 정도로 우수한 측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게 참 궁금

이번 사건 같은 것 막는 거 "추모 메시지" 해보았자 의미없다니까요. 확실한 해결책을 세워야지 그런 차원에서 과거 군사정권 때 있었던 "통금조치"를 하면 어떨까 하면 돌맞아죽겠죠? (그걸 해제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정권 때) 남녀공용화장실 없애고 화장실을 조캔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그런 곳은 어떤 건물이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신분 조회한다... 이것도 확실한데 이건 또 반대하겠죠.

피해자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려면 어떤 해결책을 내세워야하느냐는 거지. 그런데 현실은 참 말도 안 되는 생트집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혐하지 말라는 건데 그건 핀트 잘못 잡은 게 아님? 결국 이 문제는 '정신병자'나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 범죄 어떻게

막느냐... 그려는 건데 여혐 때문이다라고 하면 어이구 답이 안 나오지요. 혹시 원하는 게 ”인터넷에서 여혐 글 차단 먹이고 그런 글 쓰는 놈들은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라면*(어 이건 가능성 있어보이네) 자기들이 알아서 파시스트 사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솔직히 피해자 추모와는 관계없이 그냥 화풀이하는 것 같은 데 정말 우리나라 치안 좋은 걸 모르고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여혐이 성총권을 뚫고가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여자들이 밤에는 거리를 걷지도 못 합니까.

5.109 [논란경고] 한국의 치안지수

2016.05.20

링크

여기 가서 확인하셈, 혹시 1위에 왜 한국이 없냐 하는 반응 보이면 답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눌러앉는 경우가 치안이 좋아서라는 게 큰 이유가 되죠. 그리고 결핏하며 이민 간다는 사람들, 말로만 그렇죠. 타국이 치안이 좋은지 따져보기는 하셨나.

이 현실 보면 저걸 가지고 '여혐 범죄'라고만 소리치는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 있는 건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거꾸로 말해서 한국이 치안이 안 좋았으면 이런 논쟁도 안 터집니다. 치안이 안 좋은 나라면 강남역 술마시는 사람들도 없고 뜰하니 그 정도 범행은 일어나지 않죠. 밤 8시 이후면 아예 못 다닐테니까.

냉소적으로 말해서 여자라서 두렵다 무섭다 하는 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만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도 다소 회의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수준에 맞출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 반응은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싫으면 이민 가겠다... 그럴 리야 없죠. 그럼 통금조치 하자, 당연히 반대하겠죠. 호신술 교육하고 군사훈련 받아서 몸 지키도록 하자, 이건 아예 시위하겠죠.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실제로 여혐이더라고 하더라도 본인 몸은 스스로 지켜야하고 사회적으로 요구할 건 분명히 구체화시켜 요구해야하는 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것도 남자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식으로 '의존적 행태'로 간다는 게 가장 심한 문제죠. 그런데 남자들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수작 부리고 폭력 휘두르는 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 차원에서는 그러지 말자고 윤리적인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나쁜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막을 수도 없죠. 게다가 성폭행 범행현장에서 범인과 싸우다 죽은 남자 장례식에 정작 도망간 여성피해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죠? 여자란 이유만으로 희생할 이유 없듯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돌아다니다보니까 재미있는 게 "여자친구와 ~하게 대화했다", "강남역 여혐 범죄사고로 헤어졌습니다" 이건데. 비위 맞추는 수준이라면 몰라도 거기서 여자 말을 들어야할지는 의문입니다. 말하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건 남자라고 특별히 깎고 여자라고 특별히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빠가 지켜줄께... 라는 치킨순살 멘트 원하는 여자라면 양 빼이니 그냥 헤어지라고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라거나 '우리 여자들은 불안해 미치겠다'라면 뭐 그런 반응이면 모르지만. 남녀평등 주장할 거라면 일단 도와 달라면 모를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매드맥스 보고 퓨리오사에 환호할 때는 언제고.

하여간 이 광경은 다음 짤방으로 요약됨

매우 적절하다

5.110 주식할 때 망하는 패턴 중 하나가

2016.05.20

물타기입니다. 사놓고 떨어지니까 수익율 높인다고 그 주식에 또 돈을 퍼붓는 것이죠. 그런데 예측과 달리 또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원래 가격보다 오르면 나오는 수익으로 손해 메꾼다고 빛까지 지다가(...)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임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 자기 능력은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6월달부터 빠세게 하면 된다.... 체력과 지구력은 돈과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하건지? 체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 이것도 잘 추스려야합니다.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지만, 원래 못 했는데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제 시간은 2배 빨라지는데 해야할 일은 생각한 것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무리하지 않게 벼텨나간다는 자세로 가야하는 것이죠. 실력과 점수는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는 것인지 늘어나라 한다고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벼락치기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거야 더워지기 전까지입니다 (...) 이제 더위가 시작되었으니까 관리모드 가야함요. 그리고 냉정히 봐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힘들다 하면 내년까지도 염두에 두시길요. 어차피 공부하는 자세가 안 되어있으면 대학 가도 소용없습니다. 서울대도 은근히 학업 못 따라 가서 휴학, 유급, 자퇴 코스 가는 사람 없지 않거든요. 앞으로 10년 공부해야하는 것 밑바탕 잘 잡는다라고 마음먹고 제대로 하시기들 바랍니다.

5.111 인공지능의 김대식 교수 쪽

2016.05.20

링크

◆ 김대식; 학자도 아니고 유발 하라리 분은 정말 훌륭한 역사학자이십니다. 제가 유발 하라리라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역사학자이고 호모사피엔스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600장 책 맨 끝에 한 장에 들어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의 100% 또는 95%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파키스탄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건 ‘이야, 대한민국 국민 머리 또 언론인들 머리 안에 상당히 깊게 박혀 있는 지적인 사대주의가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우리가 100년 전부터 결국은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됐죠. 어떻게 산업 발전 할까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까요? 환경보호는 어떻게 할까요?

◆ 김대식; 결국 우리가 100년 전부터 했었던 것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타인이 이미 경험한 문제들을 우리는 겪다 보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압축성장으로 빨리 배운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답을 모릅니다.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본 것이기 때문에.

◆ 김대식; 연구분야에서 좀 앞섰겠지만 인공지능 사회는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우리가 기술적인 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직업의 50%를 대체하고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알파고 덕분에 어떻게 보면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보다 인공지능의 이 문제성은 우리가 먼저 본 거거든요.

◆ 김대식; 저는 이걸 사실은 약간 역사적 행운이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

요. 이야, 우리가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다가 당했지만 이번만큼은 우연의 결과로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봤기 때문에 먼저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김대식; 이 세상을 남의 답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우리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적나라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무섭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부모님들, 우리보다 좀 더 큰 어른들 눈을 통해서 대신 보려고 하는 약간 좀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우선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까지 표현하셨는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 김대식; 당연히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의 사회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정답을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상당히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 김대식; 물론 미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10년, 2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지금 10대들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 나이에는 다른 건 몰라도 기계가 국영수를 우리보다 잘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다면 지금 10대 이하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국영수를 배운다는 것은 불도저가 등장하는 시대에 열심히 삽질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10대 이하들은 나중에 커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하고 경쟁해서 직업을 얻어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들한테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기계가 우리보다 당연히 더 잘할 것들을 열심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겠죠.

◆ 김대식;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이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우리가 꼭 했었어야 하는 행위들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웬만한 성인 남자는 하루 종일 벽돌을 짚어지고, 무게를 짚어지고 건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퇴근하고 네 돈 내고 어디 가서 무거운 짐을 2시간씩 드세요. 누가 했겠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꼭 했어야 할 노동적인 행위를 우리가 돈을 내고 취미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과 지적인 노동을 기계가 하는 순간 인간이 손을 놓을 필요 없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후에는 그게 우리의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대식; 기계인 척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만둬야 할 것은 반복성이 있고 내가 볼 때도 내가 하는 일이 기계적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까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현실과 인공지능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뭐냐하면 인류역 사상 인간은 항상 이기는 자 쪽으로 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30년 후에 기계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지금 대체하고 더 잘나가고 더구나 동시에 기계는 인간이 가진 단점들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죽지도 않죠. 밥도 안 먹죠. 잊어버리지도 않고 더구나 이세돌 9단은 우리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는 구글이 원하기만 하면 100만번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zero marginal cost. 아무 돈이, 추가비용이 안 드는 상태로. 그렇다면 인간의 심리상.

우리가 가진 가치관의 99%를 버려야 할지도 모른단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접한 인공지능 썰 중 그나마 유용한 이야기네요. 나머지야 그냥 무속 수준의 얘기였으니

사실 가장 찔리는 건 한국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답부터 찾는다. 이건 수험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정답에만 집착하면 킬러는 못 풁니다

5.112 일본의 풍토 : 곤카쓰

2016.05.21

링크

알고리즘

1. 남자들의 결혼기피
2. 결스푸어현상
3. 전통적인 남녀역할로 복귀

일본에서 만난 젊은 남성들은 결혼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남자들이 결혼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여기자 타격을 받은 것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되레 여성들이 ‘결혼 활동’에 더 적극성을 띠게 만들었다. 특히 3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가 은퇴하면서 수입이 급감한 2000년대 후반부터 결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파라사이트 싱글’ 자녀에게 부모가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약해지자 젊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다시금 결혼이라는 전통적 해법을 찾아 나섰다. 청년 스스로의 욕구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 등 떠밀려 결혼 상대를 찾아나서는 형국이 됐다.

2012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44%가 ‘아내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3년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후쿠시마 미노리 도코하대 교수는 “여대생을 포함해 전업주부를 꿈꾸는 20~30대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일벌레 남편’과 ‘가정주부 아내’라는 부모세대의 젠더 화된 생존 전략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나리오.

1. 재산에서 주택 비중이 높은 586 세대의 몰락 : 집값 하락
2. 캠거루 가족을 지탱하기 어려워짐. 남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당연 해짐, 여자들이 일자리 찾기 힘들어짐.
3. 경제력 있는 남자에 대한 한국판 취집 현상 늘어남.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지금 이미 여성들이 경제력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이들을 지탱해주던 5,60대 부모들의 지원도 힘들어집니다. 이 와중에 일베와 메갈이 생겨나서 그러한 빈곤을 인정하지 못하고 ”혐오”로 세몰이합니다. 물론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세몰이므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성비불균형이 있어서리. 다만 서울의 경우는 여초 지역이니 저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국도 이 길을 따라하고 있다고 보는 증거가 근래의 메갈 활동이죠. 만약 여자들이 속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아무 준비없이 시집갈 수 있다면 저러진 않았을 겁니다. 원래 메갈의 주본거지가 디씨의 아이돌, 연애인 갤러리인데 그러면 딱히 짐작가는 것이죠. 저런 걸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야지 똑같은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혐오활동을 하느냐. 그 혐오 행위에서 연대감을 느끼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혐오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속될 공동체가 없고 거의 외면받기 시작한 루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갈의 경우도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이 투철한 여성들의 모임이죠. 이들의 결속은 한국남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그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넓히기 위해 한국남자들에 대한 증오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색다른 걸 창출할 수는 없지요. 일단 이들은 루저들이니까요. 일베가 기발한 컨텐츠를 제작해보았자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NS 문화도 한몫하죠. 페이스북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소속되어있느냐 하는 '스펙'입니다. 구경하다보면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유령조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런 데 소속되어있다라고 뻥카치는 경우도 봅니다만. 가족보다도 SNS 친구와 더 많이 대화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맥에 소속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사진'으로 증명해야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로 치중하는 추모대회를 여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점잖게 '조의금'을 냈을 것입니다.

5.113 강남역이 시사하는 것

2016.05.21

저걸 보고 절망했다는 남자도 철이 없긴 마찬가지이다. 원래 여자들 저런 거 몰랐다는 거냐

여학교에 환상을 품지 말라고 하거나(여학교가 돼지우리보다 더럽다라는 이야기) 아줌마들 집단이 무서운 거 다 헛소리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여성고객 다루는 건 인간관계 중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영상의 저 남자는 매우 순진하게 '설득'할 수 있다고 믿은 모양이다.

굶주린 식인종 부족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주면 다들 기독교도로 개종할 수 있다고 믿는 풋내기 선교사나 다름 없다.

현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저런 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고 모래알로 황금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돈줄은 대부분 여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알지 못 하면
굶어죽기 딱 좋다(...)

다른 사람들은 메갈과 워마드에 화가 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다지... 그게 메
갈과 워마드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여자들이 그런 거 몰랐어?**

남자들은 성욕만 없으면 초식동물에 가깝지만, 여자들은 성욕이 없어도 기
본이 육식동물이란 사실을 나이처먹고 나면 알게 되는 것 몰랐나?

무엇보다 저 린치당하는 남자는 경험이 없는지 말하는 게 참 어리버리.

연애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빠 그러는 것 속지 말고 집단 속에서 그 여자가
어떤 완장차나 꼭 보아야한다(...)

물론 적극적인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적어도 그런 여자가 명청하지 않다면
남편까지 먹여살릴지도 모른다.

남자들이 여자들 본능을 저 정도로 몰랐느냐... 라는 게 더 의아스러울 정도
다.

이성과 논리 그게 먹히는 줄 알았나. 그냥 저 자리 갔으면 딱 완장차기 좋은
여자 지목해서 연설을 시켰어야 한다.

여자들이 스스로 눈물 흘리면서 다 털어놓게 만들면 저 남자는 호감도가 올
라갔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저 남자는 자기가 말할 게 아니라, 여자들보고 떠들라고 했어야
한다.

여자들이 왜 모였겠냐? 평상시에는 여자라는 강요 하에 얌전하게 얹눌려살아야했는데 저 장소가서 분출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선교” 가능하다고 믿는 남자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진짜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은 퀸베충(...)인 듯. 그거 하나로 인지도 올리면서 팬들을 모았으니까.

남혐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이 깔깔대고 떠들어댈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저 정도 동영상 가지고 린치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녀들이 불쌍하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

5.114 그리고 떠들게 냅두지 왜 끼어드는지.

2016.05.22

주장이 타당하면 다 납득할 것이고, 주장이 이상하면 그 정도 밖에 안 되었느냐... 그 정도일 터인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예요”라고 소리치면 ”아, 그래요”라고 하고 양 가볍게 대꾸해주면 지나가면 그만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 주장하는 여자들이 과연 현실을 바꿀 힘이 있는 능력자일까. 담론과 시위. 그거 어느 쪽이든 힘이 없으면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 여자들이 한국남자 못 되었어요, 다 거세해버려야한다고 소리친다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막말로 거기 이부진이나 이명희가 참석한 것도 아니다.

거기 참석한 여자들이 ’여성 인권’을 위하여 가난한 남자도 바보온달처럼 키워주고 결혼하고 뒷바라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왜 그런 바보같은 시위를 했을까 하면서 잊혀질 권리 주장하면서 돈많은 남자

나 찾으려 할 터인데 뭘 무서워하는지. 역으로 거기 대꾸하는 일베 애들이 힘이 있나. 이제 천하제일 丙申 대회 개최하고 그냥 노는 것이지.

보루토 보고 히잉 나루토 죽은 거야라고 소리쳐보았자 그거야 나루토팬들이나 광분할 일이지 현실에 영향 미치는 것 없다. 막말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인 것을 내놓거나 자기 '시간'을 바쳐서 실제로 뭘 해내느냐 그런다면 몰라도 그냥 모여서 쓰잘데기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한풀이한다면 양 냅두면 되는 것이다. 이건 초창기 촛불시위 당시 미군도 알았고,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정부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말 이념이나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보나? 그런 사람은 정말 없다. 배부르고 할 짓 없을 때나 눈물 흘리며 쇼하지, 배고프면 밥 어디있나 어슬렁거리는 건 다 똑같은 것이다. 사람은 먹고 싸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현학적인 담론보다 국밥 한그릇이 더 임팩트가 있단 것이다.

다만 한가지 짜증나는 건 이 때문에 '옥시 사태'가 묻히고 있다 그 정도다. 그러니까 다들 병신들인 거다.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해악을 끼치는 상품은 신경쓰지 않는다. 그저 "같은 X자로서 불안해요" 이러고 있는 건 정말 한심한 짓이다. 그 정도 열정으로 옥시제품 불매운동 대대적으로 벌이고 대기업에 항거하면서 자기들이 환장하고 남을 명품 백, 스카프 같은 것 불태웠으면 여성 고객이 무서운 줄 아는 옥시 쫄아서 양 엎드렸지.

아무튼 저는 상호비존중입니다. 남혐 하는 것은 안 말리고, 당연히 여혐 하는 것도 안 말림. 담론이든 시위든 그거야 나름 지겹게 겪어서 양 무시함. 인간에 대해서 딱히 신뢰도 안 해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와서 이 뺨글 읽는 학생들만 봐도 한숨 나오는 데 무슨, 당장 가서 공부나 하시면 좋겠고

+ 여성에 대한 입장도 위 주갤선언문의 깔끔한 그대로입니다. 남성들 X 잡고 반성하라하는 여자 떠들라 하면 그만임. 다만 그런 여자는 양 비존중하고 무시하면 그만이라서리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죽겠는데 우리집 강아지도 오야오야 키워주었는데 손등 물어뜯었을 때 원효대사의 스켈레톤 워터 마신 깨달

음 그대로였음. 절대로 처음부터 잘 해주면 안 된다. 통수 맞는다 -

++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수작 건 적도 없고 당연히 성희롱, 추행은 진짜 면나라이야기인데 제가 안 하니 역으로 여자 쪽에서 시도해오는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임? 연애하면 좋다느니 보드라우니(...) 그건 개뿔이고 이거 돈먹는 하마인데다가 깨진 사람들 상담하느라 노이로제 걸린 것만 생각해도 크윽 그리고 뭐가 예쁘다고. 다 나이먹으면 어렸을 때 보던 옆집 아줌마임. 안 늙는 건 부르마 누나랑 아스카랑 레이였음.

+++ 그리고 이건 양 떡밥인데 던지면 지하철이든 버스든 여성들 있으면 불편함. 시선처리 잘못 하면 오해사기 딱 좋아서(...) 제가 표정 잘못 지었다가 순간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촬영당해서 경찰서 가서 형사랑 농담 따먹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없을 것 같음? 이거 나름 심각합니다. 그나마 봄까지야 괜찮았지 이제 노출의 계절이 오면 썬그拉斯라도 껴야하나 생각 중인데 썬그拉斯 끼면 영락없는 중국산 깍두기이고 그래서 이어폰 끼고 더러운 원서 하나 끼고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오해 안 사려고

5.115 [만화] 보이즈온더런

2016.05.22

만화 다 보고 나면 위 짤방이 극혐이 되죠(다 보고나시면 압니다)

만화야 구글링해서 찾으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 분이 찌질한 남성들의 심리를 참 잘 파악하는 작품을 쓰시는데(르 상티망, 보이즈온더런, 아이 엠어히어로) 그 중 압권이 보이즈온더런입니다. 콕콕하는 남학생들이 아직까지 숫기 없고 철 없으면 이 만화부터 읽어보라고 싶을 정도.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기 좋은 몇 안 되는 작품입니다. 정의는 언어가 아

니라 내 주먹(보이즈온더런)과 총(아이엠어히어로)에 있다. 그리고 여타 일본만화와 달리 찌질한 남자 심리나 그런 남자 속이는 여자 심리가 정말 리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 끝까지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는 건 아닌데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아' 하는 탄식과 함께 이런 게 철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진짜 남자라면 키배도 시위에 집착할 게 아닙니다. 싸우거나 일해야지 매일 매일 노동으로 피로해지거나 정말 목숨걸거나 다치는 것 각오하고 싸우거나 그려는 거지. 오늘 강남역 영상이라는 걸 보니 노동과 싸움과는 거리가 먼 찌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죠

5.116 [논란주의] 동영상

2016.05.22

안중근, 윤봉길의 독립투쟁을 이은 백색테러

한국 민주주의 쾌거를 보여주는 강남역 시위

”재기하라”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한국여자들

이런 민주주의 여러번 하면 후진국화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어 개꿀. 제 딴에는 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옳고 그걸로 설복시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카니발' 내 살아 생전 저런 추모는 처음 보았다. 창조경제는 간데없고 창조추모 - 저 분들 죄다 상조 취업하면 대박이겠다.

그래도 하나는 긍정적이네 저 정도 패기부리는 여성 분들이라면 범죄 피해자가 될 리는 없잖아. 범죄자가 접근하기도 전에 암에 걸려 사망할 걸? 그리고 이런 영상이 돌면 여성 판타지가 사라져 성범죄자들의 의욕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

시위하는 사람은 알 것 없고 누구라도 내 앞에서 시위가 좋다느니 담론 최

고라느니 하면 강 진짜 저주한다. 내가 그런 것 참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담론 질이면 고딩 때부터 했는데 이거 '소용'없음. 저런 짓 해보았자 남는 건 없거든. 아주 광기에 빠져있음,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에 나오는 그 궁극의 향수 뿐 리면 강남역 10번 출구는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아주 난잡한 광경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거다.

저러면서 다 밥은 먹고 다녔겠지

그것보다 강남역 지가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애초에 저런 시위 같은 것 안 했으니까 비쌌지, 저렇게 뚫린 걸 보니까 강남역도 강 하향평준화 망할 분위기인 것 같다.

강남역 말말말

재기해! 재기해! (뛰어내려 죽어버려!) 01:12야! 사진찍지마! 1:33웃지마 씨발!! 1:40야! 사진찍지마! 사진찍지마! 사진찍지마! 사진찍지말라고!!! 1:54사진 찍지마!에 해병대 빨간모자와 충돌 1:50그럼 너네도 죽이고 고소하면 되겠네? 4:34재기해~! (뛰어내려 죽어버려!) 30:57재기해~! 한남대교가서 재기해! (뛰어 내려 죽어버려! 한남대교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려!)32:02소추소심! 소추소심! (고추가 작으면 마음도 작다) 32:10뽕았다 뽕았어 33:04소추소심! 소추소심! (고추가 작으면 마음도 작다) 35:06숨쉴한! 숨쉴한! (한국남자는 쉼실 때마다 한번씩 패야한다!) 36:23재기해! 재기해! (뛰어내려 죽어버려!) 36:30울지마 울지마 36:49야 뭐라고? 고추가 작아서 안들려!!! 37:22하 시발 쫓까고 저리가라 개새끼들아! 39:58애기 집에가~ 40:07여기 명석 깔려있다 아무나 나와라~ 42:46창민아~ 팬티내리자~! 42:59

5.117 희생자 오빠의 반응

2016.05.24

1. 피해자 오빠의 반응

링크

2. 그들의 반응

링크

3. 결국 기사화

<http://news.nate.com/view/20160524n19555>

4. SNS 반응

유가족도 씹는 패기 유가족도 씹는 패기

5. 잡설

호랑이 양담배 피다 폐암걸려 가죽을 남겼는데 알고보니 점박은 사자였더라 그럼 친아빠는... 이라고 물던 시절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박해받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이게 다 남자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꽤 잘 먹힌 시절이 있었다.

유교 때문에 한 집안의 엄마, 누나, 여동생이 희생하면서 아들만 밀어주니까 아들이 잘 나가는 것 아니냐. 여자도 얼마든지 똑똑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사라지면 사회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세월은 흐른다

공산주의는 진작에 무너졌다. 유럽의 진보는 '무슬림 혐오'로 바뀌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인기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많이 좋아지긴 했다. 다만 그 여성해방이라는 건 기대 이하였다. 다들 강남역만 바라보겠지만 잊고 계신다. '청와대'부터가 현재 주인은 여성이다.

공산주의는 '착한 자본가'와 '사악한 노동자' 혹은 '노동자를 선동하는 사기꾼'은 말하지 못 한다. 유교에서는 사악한 군주, 위선적인 사대부, 폭력 남은 언급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의 여성은 '악녀'나 '찌질한 여자'가 없다.

이러니까 저런 사상들은 정말 걸려들어야한다니까. 예외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코드니까 예러가 터질 수 밖에 없지.

개인적으로는 남자니까 이래야 한다 여자니까 저리야 한다... 라는 구태의연하고 케케묵은 관념 따위는 필요없다. 그냥 남자 여자 관계없이 어떤 실적을 보여주느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여자는 약자고 착하니까 보호받아야 한다와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속물이니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해서 대등하게 대하자 중 어느 게 평등일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게 모든 남자가 다 성 범죄나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아니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자들도 할 말 없는 사례는 정말로 많다. 이런 걸 하나 얘기하면 마법의 키워드가 나오지. "찌질해" 그런데 원래 인간은 찌질하니까 별로 소용없는 말이다.

자기들은 여자니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고 이미 유족들마저 무시한 포스트잇이 추모라고 착각하겠지만 정말 멀쩡히 살아가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메시지는 설득은 커녕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

아가는” 점에서 짜증만 날 뿐이다. 남자들이 마초라서 포스트잇이나 저런 시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지 핑코나 여중생 폭행에다가 유가족 모욕에서보다시피 본색은 절대 추모가 아니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거든.

물론 이와 별개로 저런 시위는 좀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야 호구 남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저게 일부 급진론자들의 소행으로만 알던 사람들이 이번에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슬람도 그들이 소수일 때야 평화의 종교지 IS와 난민사태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무슨 평화는 평화하면서 짹 입장 바꾸듯, 남녀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이야 말로 ’여성들도 잠재적 폭력배’라는 걸 보여준(그들의 논리대로) 최초의 사례이니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잠재적 가해자... 뭐 좋은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일부 여자들이 돈많은 나쁜 남자 선호하는 것도 일반화시켜도 되겠지 뭘. (사실 이건 일반화시켜도 된다고 보던데... 자 논리는 예외없이 처리해야지?) 남자들도 강 자기들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걸 인지하고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게 좋아보인다.

여자들을 보호할 이유도 없고(요즘 같은 험한 시기에 보호한다가 인생 아작나기 좋다) 데이트 비용 분담할 필요도 없고(그거 하나 하면 요즘 5만원은 기본 아냐? 그렇게 먹고살기 좋냐) 아울러 굳이 자국여성 고집할 필요 없다. 한국녀는 것양남 만나고 한국남은 외국녀 만나면 되는 거지 뭘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자들 밥해준다 가사노동해준다 할 것도 없다. 맞벌이해서 똑같이 벌어오고 가사분담 육아분담 철저히 시집살이... 요즘 그딴 게 있나 각자사는 거지. 다만 결혼하려면 집값 절반은 여자들도 분담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명쾌한 해답이지만 정작 실천할 리...가 있나 인터넷으로만 떠들고 다 그리고 끝나겠지.

그런데 다들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자녀만 있으면 딱히 결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말 진지한 생각임. 가사노동이야 어차피 본인도 혼자 하고 거의 다 기계에 의존하며 10년 내에 로봇이 나와 해줄텐데 애들을 양육도 어린이집. 전업주부조차도 애 맡기고 커피숍가서 수다떨고 백화점 가는 게 현실인데 무슨.

+

그리고 쟤들이 일부라는 옹호는 하지 맙시다. 극단적 일부의 소행이었으면 그 집단에서 사죄하고 그 일부를 제재했어야죠.

++

적어도 현 대통령이 실정을 저질렀어도 '여자 대통령'이라고 남자들이 까지는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깁니다. 한국 시위역사상 가장 빠 같은 시위라고 여겨서 이 글 썼음. 그 전까지는 광우병 시위, 용산 참사를 깼죠. 광우병은 정말 선동 자체였고 용산 참사는 신나와 화염병을 자기들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유라도 명쾌했지 이건 뭐 딱히 –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야말로 혐오부추기다가 유족까지 '한남충' 공격 유휴. 이런 사람들이 빠빠지게 먹여살려주고 키워준 자기 아버지도 '한남충'이라고 보고 있을 게 뻔하고. 무엇보다 저 집단 애들이 정말 땀흘려 일하고 고생하면 저딴 빠 시위는 하지도 않았겠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번 것은 아닙니다. 여혐 공박하면서 자기들이 남혐 부추기고 있고, 남자들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더니 자기들이 폭행 저지르고 다니며 추모한다더니 갑질 하지도 않은 유족들 까고 있고 참. 이런 것 얘기한다고 '너 여성에 대해 분노하는 짜질이냐'하면 전 더 상짜질이가 되겠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할 것 아냐

5.118 도서평가제

2016.05.26

책(특히 인문서)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

책 한권 잘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새움출판사에서 나온 [출판 24시] 참조) 그러나 그 책이 독자에게 효용을 주느냐는 건 다른 문제다. 정가제 찬성자들의 문제는 출판사와 종이책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는 역사서 한 권이 '나무 위키' 페이지 하나만도 못 하다라는 게 현실이다.

위키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면 사실 위키는 출판사들이 먼저 선점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출판사 관계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 했다. 그리고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다.

도서평가제 찬성자들이 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걸까 하면 그 배경에는 '인문학'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인문학을 점점 경시하는 이유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세상 돌아가는 데 달통한다면 누구라도 공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인문학에 몰두한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광신도'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야. 진짜 깨인 사람이라면 '반례'가 되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 기상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년간 특정 학문을 공부한 사람보고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건 매우 잔혹한 이야기다. 수년간 시간과 돈을 들여 특정 이론을 공부한 사람은 그 이론이 쓸모없고 틀리다는 걸 발견하더라도 그 이론을 버리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인지부조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좌파든 우파든 교육문제에 개입하는 이유다. 어린 시절부터 심어진 특정한 가치관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사라지진 않는다. 골수 시장만능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선비(...)나 폐미니

스트들이 가치관을 바꾸긴 매우 힘들다. 가치관을 바꾸는 순간 그간의 세월이 무상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일을 한다 쳐도 골치아픈 게 북한 사람들이 정말 그 주체사상을 포기하지는 못 할 거라는 사실. 인생 전체가 그 주체사상에 저당잡혔는데 순간 부인당한다, 죽고싶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다. 내가 경험한 그런 ~ 주의는 종교와 같다. 그게 실제로 현실에 도움이 되는가... 자기들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없다. 오히려 위에서 얘기한대로 인지부조화에 빠져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이데올로기를 공부한 사람이 현실을 바꾸긴... 현실이 바뀔 거라고 자위하다가 궁해지면 그 사상을 팔아먹으려고 노력한다. 혹은 현실이 안 바뀌면 자기들이 바꾸면 된다라고 정신승리한다. 이게 '통진당'의 에너지원이다.

그 사람들은 긴 말 할 필요없이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었나 그리고 정확히 예전했나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현학적 논의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다. 실증을 못하면 결국 반론자의 입을 봉하기 위해 폭력까지 가한다.

그런 건 관계없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데 연연하지 말고 그냥 돈 주면 된다니까. 어떤 이념을 공부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성공모델이 누군지 제발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진보한 건데요. 그거야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높아져서 물질적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xx 주의 같은 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공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런 걸 공부해서 정말 좋아지면 내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느낀 거, 그런 것은 정말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 그런 게 정말 심오했으면 그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파워를 갖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어야지.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꼭 그 사람들은 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너는 속물이니 왜 물질적인 것만 따지니 세상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마 조용한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

상이 나아지는 거야라는 소설을 써댄다. 솔직히 이게 사이비 종교의 논법과 뭔 차이가 있나. 그냥 대답만 하면 되잖아.

도서정가제는 실패했다. 그런데 그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 부정을 하면서 완전 정가제를 해야한다 라고 얘기한다(...) 그 옹고집은 어디까지 갈까. 그거야 쓸데없는 책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할 때까지 지속되겠지. 그리고 그 끝까지 가면 그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실제로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왜곡된 것이다”라고 말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서 배워야하는 건 ”자본가”로 살아가는 법이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해보면서 그럼 공부해보시면 안다. 이건 내 말이 맞다고 자신한다. 심오한 이데올로기를 배운다 치자. 그래보았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에는 전혀 답하지 못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결국 ’자본’으로 수렴된다.

도서정가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왜 책이 안 팔리는가부터 시작해 사람들이 책을 다시 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은 안 하고 정가제로 돌아가면 유통이 정상화되어 출판사가 수익이 늘어서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 라는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빈틈이 많은 판타지에 의존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중고서점이 더 확장되는 현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지금 한다는 게 왜 대형서점이 중고거래에 진출하느냐 분개(...)하는 건데 정가제 아니었으면 중고서점거래가 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들이야말로 중고서점의 친부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5.119 갚으면 된다

2016.05.26

윤리에 호소한다는 건 그다지

바람난 남녀는 자기의 간통을 '로맨스'라고 바라보고 있음. 사실 그건 평계 대려면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 바람떴다... 라는 개드립도 가능하죠.

사건사고 뉴스에 나는 범죄들이 정말 범죄자들이 자기가 비윤리적인 걸 자각하고 저지르는 건 아니죠. 다 나름대로 평계를 대고 변명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xx한 파렴치한 친부나 계부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평계를 대지요.

보통은 이렇게 요구하죠. "사과해"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하면 그만? 돈을 안 갚고 사과하면 그만?

사실 가장 확실한 건 "갚는 것"입니다. 다만 살인이나 손발 자르는 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넣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지 원래대로라면 원상 복구 아니면 응보형이 정답입니다. 이걸 전제한 다음에 '인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갚는 걸 전제하지 않는 인권타령은 '책임회피'입니다.

만약 이런 글이면 보통 "네가 뭐라든 나는 xx 할 건데 왜 시비냐"라고 하지만, 미래형은 원래 거짓말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참말이 되지요. 취업하면 엄마 아빠한테 잘 할게요... 이게 참인 것 같죠?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뜯어먹겠지만 산전수전 겪으면 부모님들은 그게 거짓말인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윤리타령하지만 현실이야 뭐. 결국 돈문제 가면 대부분 다 치졸하죠.

지금하고 있는 공부들이나 열심히 합시다. 지금 하는 공부도 지독하게 안 하면서 미래에 ~ 하겠다라고 하려면 먼저 입술에 침부터 바르시고. 누구나 발언권은 있죠. 그리고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예, 존중만 하고 채택 안 하면 그만입니다. 흔한 남녀갈등 떡밥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돈을 많이 내면 여자 말이 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더 많이 분담하잖아요. 젠더 문제니 성차별이니 그런 이야기하지말고 여자가 더 돈을 많이 내면 여자 말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 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돈을 적게 내고 주장해보았자 존중만 받고 끝날 뿐이죠. 수험생들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말은 역시 존중만 하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발언-책임을 대응시킬 수 있어서 무질서가 줄어듭니다. 길게 말 할 필요 없이 부모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부모에게 그만큼 돈을 갚으시면 되겠고(성년자라면 필수) 상대와 얘기할 때 자기 발언의 실효력을 확보하고 싶으면 실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특히 돈문제가 걸리면 거래는 분명 대등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권한 갖고 싶다? 그럼 돈을 더 내시면 되지요.

이렇게 하면 말끔히 정리되는데 현실은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이데올로기 끌어와서 아주 천외마경을 만들고 있죠. 며칠 전 강남역 문제도 포스트잇 타령하지 않고 자기들이 돈내서 피해자 구호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뭔가 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돈은 내기 싫다, 그런데 남자들은 사과하라.... 이러니까 짜증만 유발시키는 겁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는 분이면 고길동이 정말 전사라는 사실은 알고들 계시겠죠. 혐오감정 어찌구저찌구 그거. 그냐 서로 혐오하시는 데 그러니까 서로 의존을 안 하면 됩니다. 남혐도 여혐도 다 근거가 있음, 뻔한 이야기니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의존하는 것까지 무시하고 정당화하지 맙시다. 진짜 이것까지 부인하면 그건 인간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남충이라고 비하하는데 금전적 지원은 받아야겠다, 김치녀라고 까지만 돈은 뜯어내도 상관 없다... 이건 미친 것이지요.

5.120 금전거래는 부모자식형제도 정확히 해야한다.

2016.05.27

이건 부모님들의 잘못이 크다.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자식들끼리 불화가 생기면 어떡하냐... 인데 결국 불화는 생긴다. 왜냐면 '분배' 문제를 정말 공정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가령 물려줄 재산이 9천만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형제가 셋이 있다. 그냥 삼등분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알고보니 장남이 대학을 포기하고 경제활동하면서 기여한 게 있고 차남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대신 대학에 가서 등록금 지원을 받았으며 막내는 아직 학생이라 뭔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 3등분이 가능하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가령 9천만원 중에 5천만원을 장남이 기여한 것이라면? 하지만 차남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대졸해서 대기업 가면 갚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막내는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 관리해줘야하는데 형들을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부모라고 해도 자식들을 차별하는 게 많다. 예쁜 자식과 미운 자식이 엄연히 나뉘기 때문이다. 예쁜 자식에게 더 주고싶고 만약 법만 아니라면 몰빵해주고 싶은 부모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유류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결론적으로는 부모자식간이라도 금전거래는 분명히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상당히 물려터져 있다. 그래서 터지는 비극이 많다. 이런 걸 보다 보면 돈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선 참 곱게 보기 힘들다.

도박목시록 카이지에서는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 반례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돈이 생명에 필적해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생각할 거리는 많다. 여기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학문 때문이 아니다. 바로 돈 때문이지.

기본적인 금전거래감각도 제대로 안 하면서 추상적 담론을 이야기한다...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돈문제에 있어서 매우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거창한 메시지를 이야기한다... 미성년이면 이해는 있지만 성년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했는가 똑똑히 알고 있다. (더 적자면 돈과 이성 문제가 지저분한 사람은 그냥 조기에 차단해버리는 게 낫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곱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가 뭘 아느냐 공부는 해보았느냐. 그런 것 필요없다. 그냥 그 단체 재정구조를 보아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리고 일하는 간사들은 임금을 어떻게 주느냐 보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간사들은 저임금 받고 있으며 착취 당한다면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거창하든 말든 양 무시해도 된다. 정말 올바른 곳은 회원들이 알아서 회비를 내며 일 시킬 때 임금을 정확히 준다.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결국 정부나 특정 정당 입맛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소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마누라 자식을 폭행하고 하는 등으로 많이 까인다. 물론 그건 분명히 까야할 건 많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마누라와 자식들은 헤어지지 못 하는 건가도 생각해보아야지. 그건 그 가부장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다. 물론 돈조차 벌어오지 않는 더한 막장도 있지만 이 경우는 바로 이혼해버린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 하는 아줌마들이나 아버지라고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 친구들도 결국 의존한다. 그거야 '돈벼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뭘까. 사실 돈벼는 것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 그게 아니면 본인들이 벌면 된다. 그리고 콕콕에서도 알바 뛰어본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알 것이다. 나이가 어릴 때는 돈벼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서 어른을 불신하게 되지만, 자기가 그 어른이 되면 정말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 알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진심의 척도는 돈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돈을 지불해주는 사람을 까면서, 자기에게 사실상 한푼도 주지 않은 사람들 말'만'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인터넷 세상의 세뇌효과일지도 모른다. 부모 자식간의 대화는 줄었다. 그 시간에 다들 인터넷이나 SNS를 한다.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 말에 빠지는 것이다.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만큼 갚아보라'하면 결국 변명하게 된다는 것이고 나 역시 그 점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부모 자식간에 원한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부모가 나에게 얼마를 썼느냐 계산해보면 그리고 판 같은 데 올라오는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는 막장썰을 읽어보면 '내가 행복한 케이스구나'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건 떠나서 give&take 안 하고 자기들이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난 그 친구들을 쓰레기 취급할 것이다. 무협지의 흔한 코스가 원수에게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무림고수에게 갚을 때 '궂은 일'부터 하는 것이다. 세상물정 모르는 친구는 당장 필살기나 가르쳐주지 일부터 시켜먹네 답답하다... 라고 느낄 것이지만 경제관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수업료를 저렇게 받는구나"라고 생각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런 관념을 갖는 것이다. 심지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조차도 이런 경제관념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어진다.

+

여담이지만 공정거래 금전거래만 똑바로 한다면 본인이 뭘 하든 누구든 말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 그것도 허황된 것으로 별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에게 기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트루다.

최근에 대작으로 걸린 모 가수만 하더라도 사실 자유로운 영혼이었다지만 그 배후를 보자 대작이든 아니든 그림이 고가에 팔려나간다... 이것이 바로 그 자유로운 영혼의 '진면목'이었다는 것이다. 거래는 어찌되었든 거래 아니냐 라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그게 불공정거래로 보인다는 게 문제지.

아무튼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하겠다는 게 법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 말릴 자격이 없다. 자기가 번 돈을 쓰는 시도라면 진심으로 노력하게 되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실패하더라

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많다. N수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야 셀 수 없이 많지만 '자기 돈'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큰 이유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라면 매우 절박하니까 죽기살기로 하게 된다. 돈나가는 것에 피말리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돈쓰지말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쓰고 하라는 것이다. 학원비를 고가로 지불해도 좋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부모에게 갚는다고 약속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비단 N수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대학에서 졸업한 이후에도 필요한 가치관과 습관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관념없이 그냥 부모가 지원해주는 데로 N수하고 운좋아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도 부모가 다 대준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치자... 이런 친구가 열심히 살 것 같나? 인간은 간사한 존재인데?

과거에는 저런 게 없어도 먹고 들어갈 수 있다. 기성 체제는 공부만 잘하면 '일자리'가 보장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과 취업이 사라지는 시대다. 이제는 일자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이 일거리들을 물어와야한다. 남녀간도 프리섹스를 자유롭게 하는 시대라면 배우자를 독점하는 걸 전제로 한 결혼도 무의미해진다. 결혼제도가 의미가 있다면 이제 '계약혼' 정도일 것이다. **상호 행위, 재산, 그리고 자녀에 관한 계약 전반**. 신랄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건 3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는 권리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변화에 맞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N수를 하는데 N이 얼마나 그건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 돈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 기본적인 거래관 자체가 없다. 저런 거래관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금전감각이 물러터진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로 보일 것이다.

5.121 [뉴스] 올해 가장 더운 여름 확률 95%

2016.05.28

링크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2016년의 여름이 사상 최고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 관계자는 “올해 들어 4월까지 기온을 미루어 볼 때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5% 이상이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도 “137년간 기상 관측 이래로 지난 4월은 가장 온도가 높은 달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한 달도 빠짐없이 가장 더운 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알아서 잘 대비하시길